









옥산정사 전경. 건물 정면 처마 아래 달린 '옥산정사玉山精舍' 현판은 퇴계 이황의 글씨이다.

# 1. 서원 건축의 성립과 역사적 전개

## 1.1 서원 건축의 성립 배경

건축은 특정 시기의 사회를 지배한 사상이나 가치관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이유로 흔히 건축은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한다. 조선왕조의 치국 이념이 된 성리학이 조선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주체 세력으로 등장한 사림 계층은 16세기말 그들 활동의 근거지로 향촌에 서원을 건립하기 시작한다. 조선 사회의 특별한 상급 신분인 사림이 중심이 되어 건립된 서원은 사림 고등교육기관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였다.

서원이 설립되기 시작하는 16세기의 조선 사회는 여러 면에서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하던 시기였다. 향촌 사회에 근거지를 가지고 있던 사림 세력은 15세기말부터 중앙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하여 훈구 세력의 강력한 제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16세기 말에는 중앙 정계의 주도권을 잡을 정도로 성장하게 된다. 이미 16세기에 접어들면서 그들의 근거지인 향촌에 성리학이 추구하는 덕목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춘 새로운 형식의 살림집을 짓기 시작한다. 사림 세력은 한적하면서 산수가 좋은 곳에 학문도 하고 휴식도 할 수 있는 정자나 정사精舍를 지었다. 사림 세력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 세력의 거점이 되는 서원을 세워 학문도 하고 후학을 양성하는 근거지로 삼게 된다.<sup>1</sup> 이러한 살림집, 정자, 정사, 서원 건축 등은 절제되고 소박하게 조영되어 그들이 추구한 세계관을 잘 보여준다.

주지하듯이, 성리학은 유교 경전의 내용을 성명性命과 이기理氣의 관계를

1 이 글에서는 사림 세력이 중앙 정계의 기득권 세력과 맞서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성리학적 이상을 추구하기 위한 거점으로 향촌에 서원을 세우게 되는 과정에 대한 논의는 제외한다.



통하여 우주의 본체와 인성을 새롭게 해석한 사상 체계로서 송나라의 주희에 의해 집대성되었다. 조선 시대의 사림 세력은 16세기를 거치며 이기론理氣論 중심으로 성리학을 전개시켜 조선 사회에 정착시키는 한편, 주희가 학문한 행적을 그들의 본보기로 삼았다. 그가 무이산에 들어가 무이정사武夷精舍를 지은 것을 이상으로 삼아 그들은 세속에서 벗어나 자연을 벗 삼을 수 있는 정사精舍를 지었던 것이다. 하지만, 사림들이 세운 정사 건물은 중국과 달리 온돌방과 마루를 칸 대청을 갖추어 그 속에서 휴식도 하고 학문도 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그들이 지은 정사는 중국의 그것과 다른 조선 고유의 건축 형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정사를 짓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은 사림 계층의 전인全人 교육을 담당하는 서원을 건립한다. 전인 교육이란 실용적인 지식이나 기능의 교육에만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람직한 인간으로 기르려고 하는 교육으로, 성리학이 지향하는 중요한 교육의 목표이다. 그들은 서원에 사우祠宇를 세워 선현에게 제향을 올리며 선현의 학덕을 본받아 올바르게 살아갈 방향을 다짐하고, 강당에서 행하는 경서經書의 강독을 통하여 지식을 몸으로 실천할 방법을 터득하였으며, 누樓에서는 유식遊息을 하는 등의 전인교육을 하였다. 유식이란 학문하는 긴장에서 벗어나 편안히 자연을 흠상하고 즐기면서도 학문에 마음을 두는 것을 뜻한다. 그들은 제향공간, 강학공간, 유식공간을 통하여 서원을 사림들이 장수藏修하는 이념의 공간으로 정착시켰다. 장수는 성리학자들이 마음을 집중해서 학문에 힘쓰며 수양을 하는 것을 뜻한다. 학문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경서를 연구하고 외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집중된 정신과 마음을 풀어내는 것까지 모두 포함함을 뜻한다.

장수는 궁극적으로 성리학자들이 고도의 인격 완성을 위해 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살림집의 사랑채나 정자, 정사에서는 물론이고, 서원을 장수를 위한 공간의 터전으로 삼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산수가 좋은 곳에서 조용히 탐독하는 경서經書를 통해서도 물론이고, 그들이 스승으로 삼는 선현의 학덕과 사우에서 제향하는 예禮를 통해서도 학습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점에서 서원의 사우는 예배의 대상으로 지은 일반 종교시설과 차별성을 갖는다. 이런 이유로 사림 세력은 한적하며 주변 산수가

좋은 곳에서 유식할 수 있는 공간, 강학할 수 있는 공간, 제향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춘 서원을 건립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 1.2 서원 건축의 역사적 전개

조선시대 서원의 효시는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1495-1554)이 세운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다. 주세붕은 고려말 성리학자였던 안향安珦(1243-1306)을 기리기 위한 사우를 1542년(중종 37)에 남향으로 배치하여 짓기 시작하여 1543년(중종 38)에 준공하고, 그 동쪽에 유생들의 교육을 위한 강학당을 같은 해에 세웠다. 그 후, 백운동서원은 1548년(명종 3) 풍기군수로 부임한 퇴계退溪 이황李滉(1501-1570)의 노력으로 1550년(명종 5) 2월 조정으로부터 ‘소수서원紹修書院’으로 사액을 받음으로써 조선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었다. 창건 당시 백운동서원은 제향공간인 사우와 강학공간인 강학당을 별개의 것으로 받아들여 건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반영하듯, 소수서원의 건물 배치는 조선 시대에 서원 배치가 정형화되기 이전의 형식을 보인다. 하지만, 소수서원 역시 유생들의 유식을 위한 정자, 강학을 위한 강학당, 선현에게 제향을 지내기 위한 사우는 갖추었다.

소수서원 이후의 서원들은 유식기능을 가진 건물들을 서원 영역의 가장 앞부분에, 강학기능을 가진 건물들을 그 다음 부분에, 제향 기능을 가진 건물들을 가장 뒷부분에 배치하는 전형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서원 배치는 소수서원 다음으로 세워진 남계서원에서 처음 나타난다. 이렇게 건립된 서원이 들어선 터는 산기슭 아래에 바짝 붙여서 주로 앞이 낮고 뒤가 높은 경사를 이룬 곳이다.

서원 영역에서 유식공간과 강학공간을 앞부분에 배치한 것은 유생들의 드나들이 많아 항상 활달하고 생동하는 공간으로 느껴지도록 하기 위함이고, 제향공간을 뒷부분에 둔 것은 유생들의 출입을 제한하여 그곳이 항상 존엄하고 정밀한 느낌이 들게 하기 위함이다.

강학공간은 강당과 재사로 이루어지는데, 남계서원을 비롯하여 초기에 건립



되는 서원들은 동재와 서재가 강학공간의 출입구가 있는 앞부분에서 마당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도록 하였고, 강당은 뒷부분에 배치되었다. 이러한 건물 배치는 강당이 서원 전체 영역의 중심에 자리 잡도록 계획한 방식에 속한다. 이렇게 동재와 서재가 강당 앞마당에서 서로 마주보고 자리잡은 배치 형식을 전재후당前齋後堂 배치라고 하는데, 건물들이 마당 주위로 자리잡은 점에서 사신사형四神砂型 배치라고 할 수 있다.

서원이 건립되는 초창기에 이황은 서원이 사림의 장수처藏修處로서의 성격이 분명해지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황의 노력에 의해, 서원은 사림 세력의 향촌 활동에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후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선조에서 현종 말까지 100여 년간 2백여 개 소의 서원이 설립되었으며, 사액된 곳은 90여 개 소였다. 당시의 서원 전개의 양상은 질적으로도 확인된다. 퇴계 이황, 남명南冥 조식曹植(1501-1572), 율곡栗谷 이이李珣(1536-1584), 우계牛溪 성혼成渾(1535-1598) 등 저명한 성리학자의 학통을 각기 계승한 문인과 학자들이, 그들을 제향하는 서원을 세우거나 아니면 이미 세워진 서원을 근거지로 하여 강학 활동을 활발히 하였던 것이다.

이때의 서원은 강학의 기능이 중시되었고, 서원 건축의 배치도 강당을 중심으로 공간이 형성되어 조선시대 서원 건축의 전형 하나가 성립된다. 사우를 중심으로 형성된 제향공간과 강당 및 재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강학공간에는 둘레 담이 각각 조성되어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였으며, 누樓가 있는 유식공간은 유생들이 주변 산수와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처리되었다. 이들 공간 상호 간의 위계는 엄격하고 분명하였으며, 서원을 구성하는 건물 배치의 축은 뚜렷하게 표현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세워진 서원 중에는 강학공간을 구성하는 건물들의 배치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있다. 강학공간 자체는 유식공간과 제향공간 사이에 위치하고, 건물들은 마당을 둘러싸는 사신사형 배치를 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서원의 배치 유형과 동일하지만, 강당과 재사가 강학공간 안에서 자리 잡은 위치에 변화가 나타난다. 서원 영역의 입구 쪽을 기준으로 볼 때, 강당은 입구 쪽에, 재사는 사우 쪽에 배치되는 전당후재前堂後齋 형식의 서원이 나타난다. 이렇게 강학공간의 건물들을 배치하면, 강당과 사우 사이가 넓어

향사를 행할 때 공간 이용에 이점이 있게 되는데, 주로 평지에 자리 잡은 서원들 중에서 볼 수 있다.

서원은 원래 강학이나 유식 외에, 유생들이 사우에 모신 선현에게 올리는 제향을 통해 선현의 정신과 학덕을 되새기면서 성리학이 요구하는 인성을 가진 인간이 되게 하도록 하는 교육적 효과를 얻게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인데, 17세기 후반이 되면 동일한 인물을 배향하는 서원을 여러 곳에 세우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성리학자들이 서원을 통해 그들의 정치, 사회적인 입지를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숙종(재위: 1675-1720) 이후 역대 왕들은 이렇게 서원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거점이 되는 현상을 막고 서원 원래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서원 설립을 제한하고 기존의 서원 중에서 첩설疊設, 남설濫設된 것은 많이 정리하게 된다. 특히, 고종(재위: 1863-1907) 때 흥선대원군은 서원과 사우가 유림 세력의 근거지가 되자, 왕권 강화의 방편으로 1868년(고종 5)에는 전국의 서원과 사우 중에서 사액을 받지 않은 1천여 개 소를 철폐하였으며, 1871년에는 학덕과 충절로 빼어난 선현을 모신 서원과 사우 중에서 봉향 인물 한 사람에

김광필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도동서원은 절제된 아름다움과 소박함이 곳곳에 나타나 있다.





대해 한 곳만 남긴다는 ‘일인일원一人一院’의 원칙에 의하여 47개 소만 남기고 전국의 나머지 서원과 사우는 모두 훼철하였다. 세계유산목록에 등재 신청을 하는 9개 서원은 훼철되지 않은 서원 중에서 보존 상태가 가장 좋아 국가에 의해 사적史蹟으로 지정된 곳들이다.

홍선대원군이 서원 철폐를 하게 되자 많은 서원들은 서원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강당 일곽을 철거하고 사우만을 남겨 두거나, 사우 일곽을 없애고 강당 영역을 서당으로 이름으로 고치거나, 또는 사우는 그 자리에 두고, 강당을 다른 자리로 옮겨 강당과 사우를 분리하여 짓기도 하였다. 하지만, 홍선대원군이 권좌에서 물러나면서 서원은 다시 하나둘씩 복설復設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서원은 서원 본래의 장수 기능은 상실한 채 제향 기능만으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상태다.

영구봉에서 바라본 소수서원 전경



## 2. 서원 건축 형식의 성립 배경: 성리학적 세계관

### 2.1 성리학적 세계관

조선시대 서원 건축은 그 설립의 주체였던 성리학자들의 우주론적 인식 및 인성론의 근간을 이루는 천인합일사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천일합일 사상은 자연과 천명에 순응하려는 사상으로 집약된다.

성리학의 하늘[天]은 가시적인 실체로서의 하늘이나, 모든 자연 현상을 내포하는 상징적인 개념 등의 물리적 의미에서부터 자연 법칙, 운명, 도덕의 근원이나 우주의 주재자主宰者 등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의미의 하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뜻을 담고 있다.

성리학자들은 하늘을 단순한 자연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늘의 움직임이 가진 조화, 질서 등의 이치를 지상의 만물에 끌어 내려와 존재 의미의 근거를 마련해내는 것을 일종의 천도天道의 자기내재화自己內在化로 인식하였다. 성리학의 천인합일사상은 하늘이 가지고 있는 원리와 만물의 원리가 궁극적으로 서로 다르지 않다는 전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인간의 삶은 그 원리에 따르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때문에 성리학자들이 보는 자연은 ‘하늘의 원리[天理]’를 가지고 질서 지워진 것이었지만, 그들이 언급하는 우주론은 단순히 우주의 생성 이론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는 것이었으며, 그 속에 그들이 추구한 가치와 관련된 관념들을 함축하고 있다.

성리학자들에게 천인합일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깨달음[覺悟]을 통하여 자연이 운행하는 원리[道]와 감통感通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단계에 이를 때, 그것은 곧 정신적으로 최대의 자유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기도 하였다. 천인합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곧 자연과 인간은 둘이면서 하나로 파악될 때 가능하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추구하는 천인합일사상을 ‘유기적 사고체계’



라고 해석하는 관건이며, 인간이 만든 건축 역시 자연과 분리해서 생각될 수 없고, 동시에 인간과 사회가 별개로 존재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혀주는 기본 사상체계이다. 이렇게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과 인간세의 일을 동일한 체계로 파악하는 학문 방법론, 자연을 인간의 행위 최고의 모범으로 삼는 천인합일 사상은 서원의 입지와 공간구성에 잘 드러난다.

성리학자들은 서원에서 천인합일의 경지에 이르는 길은 장수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한국의 서원은 장수를 위한 학습 공간으로 유식, 강학, 제향을 하기 위한 독특한 공간형식을 갖추고 있다. 유식은 누상樓上에서 자연의 변화를 통해, 강학은 경서를 통해, 제향은 스승으로 삼은 선현의 학덕을 기리는 것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었다. 유식의 대상인 자연은 선현과 연고가 있는 것이고, 강학의 대상인 경서는 스승이 먼저 깨달은 이치를 학습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원에서 행하는 유식, 강학, 제향은 별개의 학습 프로그램이 아니라 서로 불가분으로 관련된 것이었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이러한 유식, 강학, 제향을 통해 학습하는 장수의 공간으로 형성되는 독특한 건축 형식을 갖추었다.

## 2.2 천인합일사상과 서원의 입지

성리학의 최고 이상 천인합일 | 천인합일을 최고의 이상으로 삼는 성리학자들의 사상은 서원이 주변 산수가 좋은 곳에 자리를 잡게 되는 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성리학자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산수는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천지만물의 이치를 자득하여 천인합일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들은 서원이 들어서면 산은 험하지 않아야 하고, 물은 유정有情하면서 도도히 흘러야 하며, 들뜬 넓게 펼쳐진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이유로 성리학자들은 자연 속에 은둔하여 심신을 수양하며 천인합일을 이룰 수 있는 터를 찾았다. 성리학자들에게 천인합일사상은 가장 중요한 유가적 정신 관념으로서, 자연과 인간은 하나가 되어 우주의 생명 전체는 융화하고 교섭할 수 있다는 인생의 최고 이상이였다. 따라서 자각적自覺的으로

천인합일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중요하였다. 그들은 이런 요건을 갖춘 곳에 서원을 건립하여 학문을 연마하고 후학을 양성하였던 것이다.

예를 들어, 소수서원이 자리 잡은 영주 순흥은 소백산 아래에서 발원한 죽계 竹溪가 흐르고, “산천은 그윽하고 깊숙하여 구름에 잠긴, 골짜기가 아늑한 곳”이다.

퇴계 이황을 모신 도산서원 역시 이러한 입지조건을 갖추었다. 원래 도산서원 남쪽 바로 아래에는 이황이 학문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지은 도산서당이 있었다. 도산서당은 이황이 1557년(명종 12) 원일곱 살 때, 도산 남쪽에 터를 잡아 짓기 시작하여 1561년에 낙성한 건물이다. 이황은 서당을 짓고 난 다음 「도산잡영 陶山雜詠」을 썼는데, 이 글은 서당 주변의 경계와 그의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외에도 도동서원, 옥산서원, 남계서원, 돈암서원, 병산서원 등은 서원이 들어설 산수 조건이 잘 구비된 곳에 건축적으로 승화시켜 건물을 세운 대표적인 서원들에 속한다.

**성리학적 경관의 확보와 학습 효과** | 조선시대 서원 건축은 입지, 배치 및 공간구성에서 몇 가지의 공통적인 특성을 보인다. 서원은 주로 세속을 벗어나 산수가 좋은 곳에 자리 잡았고, 건물들의 배치와 그에 따른 공간구성은 이러한 수려한 산수경관을 최대한 서원 안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서원은 유생들이 함께 기숙하며 공동생활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강당 앞의 마당을 중심으로 그 좌우에서 서로 마주 보게 동재와 서재를 배치함으로써 강학공간 자체의 영역성을 확보하면서도, 서원 안에서는 항상 밖으로 시선이 열리도록 외부공간을 구성하였다. 특히 강학공간과 유식공간의 중심이 되는 강당이나 누樓에 앉으면 앞으로 멀리 안산이 보이도록 건물을 배치하고 공간을 처리하여 유생들이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천인합일의 경지에 이르는 심성과 뜻을 함양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서원에 나타나는 이러한 건축배치와 공간의 특성은 서원을 세우고 이끌어간 주체인 성리학자들의 세계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산수가 수려한 곳에 서원을 앉힌 것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게 하려는 천인합일사상과 같은 상관적 관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서원 주변의 산수는

단지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는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다. 강학과 제향이 그랬듯이, 서원의 경관도 역시 성리학이 지향하는 인성의 형성과 학습적 효과를 돕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예를 들어, 돈암서원에 주향으로 모신 김장생金長生(1548-1631)은 “산을 우러르며 즐기고 시내를 내려다보며 물을 살피며 자연 경물을 접하는 대로 이치를 깨닫는다.”고 하였다. 산, 수, 자연 경물을 접하는 것을 이치를 깨닫는 일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서원에 확보된 산수 공간은 장수, 곧 성리학적 학습을 위한 경관이었다.

주변 산수를 보며 느끼는 선현의 풍표風標 | 서원은 주로 서원에 주향으로 모신 선현의 연고지에 세워졌다. 서원이 세워진 곳의 산수는 어디 곳이나 있는 산수가 아니라, 선현이 성리학의 이치를 깨닫고 실천한 곳이었기 때문에 연고지의 산수 자체는 이미 서원 유생들에게 충분히 학습의 효과를 확보한 곳이다. 예를 들어, 남계서원의 「풍영루기風詠樓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남계서원 애련정과 풍영루





이 다락에 오르면 넓어지는 마음과 편안한 정신이 자연 속에 자맥질하여 유연悠然히 스스로 얻는 뜻이 있다. 두류산頭流山(지리산) 만첩 봉우리와 화림천花林川(남계의 상류) 아홉 굽이 흐름에서 거의 정여창 선생의 풍표風標를 보고 선생의 기상을 우러러 볼 수 있으니, 흡사 선생을 모신 자리에서 증점曾點이 쟁그랑하고 비파를 밀쳐놓던 뜻이 있는 듯해서 풍영루라고 이름 하였다.

이 기문으로부터 서원의 누에 올라 주변의 산수를 보면서 유생들이 보고 느꼈던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산수 자체를 흠상하는 일에 머문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아가 ‘정여창 선생의 풍표’와 ‘선생의 기상’으로 연결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서원의 경관은 이러한 교육적 효과를 가져왔다.

선현의 연고지에서 후학이 그 땅의 산수를 보고 느끼는 것은 바로 그곳과 연고가 있는 선현의 학덕을 본받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땅에 그 선현을 배향하는 서원을 세운 것은 그 땅의 산수 자체가 이미 후학에게 올바른 인성을 형성케 하는 교육의 효과를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서원이 세워지는 곳의 산수는 곧 그 서원에서 제향하는 선현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었다. 그 냥 빼어난 산수와는 궤를 달리하는 산수경관이다.

## 2.3 서원 건축의 모태 : 정사

서원이 본격적으로 세워지기 이전부터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정사精舍를 경영해 왔다. 16세기를 전후해서, 성리학이 조선 사회에 정착하면서 그들은 산수의 경계가 빼어난 곳에 정사나 별서別墅를 지어 거처하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정사란 ‘학문을 닦거나 독서를 하기 위한 곳’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가 무이구곡武夷九曲을 설정하고, 제5곡에 무이정사를 지어 독서와 은거생활을 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백록동서원 등을 수복하여 후학을 가르쳤던 것처럼, 조선의 성리학자들도 주희의 학문 세계를 흠모하며 그와 같은 삶을 영위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이황은 주희가 무이정사를 짓고 「무이정사잡영병기武夷精舍雜詠并記」를 지었듯이 안동에 도산서당을 짓고 「도산잡영병기陶山雜詠并記」와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을 지었다. 또 율곡 이이는 황해도 해주에 은병정사를 짓고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를 지었고, 김수증金壽增(1624-1701)은 이이의 고산구곡에서 영향을 받아 화천에 곡운구곡곡雲九曲을 경영하며 정사를 지어 은거하였다.

성리학자들의 정사는 방과 마루만으로 구성된 단출한 건물이다. 그러나 정사의 공간은 건물만으로 한정되지 않고 건물 외부로 확대되어 자연을 건물 속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사가 단출한 공간 구성을 하며 자연과 전체를 이루는 것은 ‘경건한 마음으로 이치를 구하는 것[居敬窮理]’, ‘사물의 이치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格物致知]’을 이상으로 생각한 성리학자들의 학문 수양의 자세와 연관된다. 정사가 들어서는 곳은 궁극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춘 자연 속에서 학문을 닦고 인격을 수양할 것인가와 연관되며, 정사의 공간은 자연과 건축 공간이 어떤 관계에 의해 만날 것인가와 밀접한 관계를 이룬다. 이와 같이 학문을 닦고 인격을 수양할 자연을 선택하고, 그 자연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정사를 조영한 성리학자가 자연에 부여한 관념을 이루는 천인합일 사상을 반영한다. 이황이 조영한 도산서당은 정사 건축이 갖는 입지에 대한 좋은 예가 된다. 겸재謙齋 정선鄭歡(1676-1759)이 그린 「도산서원도陶山書院圖」는 이황의 이러한 사상을 잘 보여준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의 성리학자들은 정사를 지어 자연에 의미를 부여하고, 정사를 자신의 학문적 이상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생각했다. 정사 건축은 자신을 비움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건축이다. 가장 단출하고 소박한 건축이다. 하지만, 정사의 공간은 건물 안에 한정되지 않고 건물의 외부공간을 구성하는 자연으로 확대되도록 조성되었다. 자신을 비워 주변을 건축의 영역과 연계시켜 건축과 자연이 하나의 공간에 있게 한 것이다.

대개의 정사 건물은 2-3칸 규모의 단출한 구성을 한다. 정사 공간구성의 특징은 온돌방과 마루가 주변의 산수와 공존하는 관계를 형성하게 한 데에 있다. 정사에 온돌방을 들인 것은 거기에 자신이 기거하며 자연과 함께 하기 위한 것이었다.

성리학자들이 자연을 찾아 은둔하며 정사를 경영하여 건물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도록 하는 방식은 건축과 자연이 어우러져 하나의 인문 환경을 이루게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환경은 곧 천인합일의 경지에 이르는, 심미의 경意境이 인생의 최고 경계境界임을 보여준다. 성리학자들이 조영한 이러한 건축의 경지는 자연을 인간화하고, 인간을 자연화하기 위해 만든 건축에 속한다. 이를 요약하면, 천인합일사상은 문화와 자연을 격리시키지 않는 사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연 현상 속에 문화 현상이 투영되는 이러한 정사 건축의 인문 현상은 조선시대의 서원 건축에도 그대로 이어져 나타난다.

옥산계곡을 끼고 'ㄱ'자 형태의 평면으로 지어진 독락당 계정溪亭



### 3. 서원이 세워진 장소와 서원의 공간 구성

서원이 어떤 산수를 갖춘 곳에 건립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곧 서원을 건립한 주체들이 어떤 조건을 갖춘 터에 서원을 세우기를 원했는가와 같다.

성리학자들은 장수하는 공간인 서원이 세속의 다른 건물들과 인접하여 세워지는 것을 기피하였다. 그들이 서원만 세워질 수 있는 곳으로 찾은 터의 입지 조건은 장수를 위한 공간이었다. 시정市井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시끄러운 곳에서 벗어나 인적이 드문 곳이기는 하지만, 심산유곡이 아니면서 주변에 농경지가 있고, 강이 가까이 있는 곳이었다.

그런 이유로 서원은 번잡한 도회지에서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자리하였으며, 산과 물이 어울려 아름다운 경치를 자아내는 곳에 세워졌다. 성리학자들은 이러한 곳을 은거하고 수양하며 독서하기에 적합한 곳으로서 꼽았던 것이다. 서원 뒤로 산이 있고, 앞으로는 물이 흐르고 바라볼 수 있는 안산이 있으면 더욱 좋은 곳으로 여겼다. 안산은 서원에서 생활하는 유생들이 매일같이 바라보며 접하는 산이다. 이러한 서원의 전면 경관은 유교적 산수경관의 한 전형을 보여준다. 서원이 세워질 장소로서 또 하나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사항은 선현의 자취와 유품이 남아있는 곳, 즉 연고지이다. 이러한 연고지는 선현의 출생지이거나 고향, 성장한 곳, 은거하여 후학을 지도했던 곳, 관리로 있었던 곳, 유배지, 충절과 연관된 곳, 묘소가 있는 곳 등이 된다.

#### 3.1 한적하며 산수가 수려한 곳

퇴계 이황은 서원의 건립과 확산, 그리고 교육 방향의 정립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 그는 경상도관찰사를 통해 백운동서원에 사액을 왕에게 청하는 글에 서원이 세워질 장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은거하여 뜻을 구하는 선비와 도학을 강명하고 업을 익히는[講道肄業] 무리는 흔히 세상에서 시끄럽게 다투는 것을 싫어하여 서책을 싸 짊어지고 한적한 들과 고요한 물가[寬閒之野 寂寞之濱]로 도피하여 선왕의 도를 노래하고 고요한 중에 천하의 의리를 두루 살펴서 그 덕을 쌓으며 인을 익혀 이것으로 낙을 삼는다. 그 때문에 서원에 나아가기를 즐거워한다. 국학이나 향교는 중앙 또는 지방의 성곽 안에 있으며 학령에 구애됨이 많다. 한편으로는 변화한 환경에 유혹되어 뜻을 바꾸게 하여 정신을 빼앗기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어찌 그 공효를 서원에 비할 수 있겠는가.

이황은 세속의 소란한 곳을 벗어난 한적하고 고요한 곳이 서원을 세우기 적합한 곳으로 본 것이다. 이와 같이 서원이 세워질 장소로서 번잡한 도회지보다는 거기에서 떨어져 한적하고 고요한 곳이 선호되었으며, 실제로 많은 서원이 산과 물이 어울려 아름다운 경치를 자아내는 곳에 터를 잡아 세워졌다. 이러한 곳에 세워진 서원은 지형적으로 앞이 낮고 뒤가 높은 경사를 이루는 지형에 자리하게 된다.

이러한 곳에 자리 잡은 서원의 건물들은 주변 산수 및 지형지세와 잘 어울리도록 배치되었다. 예를 들어, 서원들 중에는 도산서원이나 필암서원, 병산서원 등과 같이 주요 건물들이 남향을 하여 배치된 서원들도 있지만, 주변의 산수 및 지형지세를 고려하여 굳이 남향을 취하지 않은 서원들도 있다.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동서원, 돈암서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남계서원은 서향을 하며 앞으로 펼쳐진 들판과 강을 건너 맞은편 백암산을 대하고 있다. 옥산서원의 경우, 중요한 건물들이 서원 앞으로 흐르는 계류를 건너 자옥산을 바라보며 서쪽을 바라보도록 배치되어 있어 주변 산수 및 지형지세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도동서원의 중심 건물들은 서원 앞으로 흐르는 낙동강을 바라보며 동북향을 하여 자리를 잡았다. 돈암서원은 동향을 하며 서원 앞으로 펼쳐진 넓은 들판을 내다보게 배치함으로써 서원이 자연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 실제로 조선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세워진 많은 서원들은 이러한 조건을 갖춘 곳에 건물을 배치하여 서원이 산수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 3.2 선현의 자취와 유품이 남아있는 곳

이황이 백운동서원의 사액을 청하는 글에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 다음과 같은 내용도 적혀 있다.

진실로 선정先正의 자취가 남고 향기가 뿌려져 있는 곳, 예를 들어 최충崔冲, 우탁禹倬, 정몽주鄭夢周, 길재吉再, 김종직金宗直, 김굉필金宏弼 등이 살던 곳에 모두 서원을 건립하게 될 것이다.

이황은 산수가 좋으면서 서원에 주향으로 모실 선현과 연고가 있는 곳이면 서원이 건립되기에 가장 바람직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본 것이다. 산수가 빼어난 곳은 서원이 좋은 지리조건을, 선현의 연고지는 서원이 바람직한 인문조건을 갖춘 곳에 건립되어야 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영주 소수서원은 안향의 고향이며, 영천 임고서원은 정몽주의 고향, 함양 남계서원은 정여창, 김포 우거서원은 조현의 고향이다. 김종직을 모신 밀양 예림서원의 인근에는 김종직의 생가가 있는 마을이 있다. 나주의 미천서원은 허목이 나주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것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

선산 금오서원은 길재가 고려가 망하자 불사이군不事二君하며 세상과 인연을 끊고 은거한 곳에, 파주 파산서원은 성수침이 은거하며 학문하던 곳에, 경주 옥산서원은 이언적이 낙향해서 은거하며 학문하던 곳에, 청주 화양서원은 송시열이 은거하며 거처한 곳에 각각 세운 서원이다. 산청의 덕천서원은 조식이 만년에 학문과 정신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경륜을 편 산천재山天齋에서 멀리 않은 곳에 위치한다.

강학하던 곳, 또는 서당이 모체가 되어 설립된 서원으로는 이황의 안동 도산서원, 김장생의 논산 돈암서원, 윤희의 논산 노강서원, 김인후의 장성 필암서원 등이 있다.

정읍 무성서원은 신라말에 최치원이 태산 고을에서 현감을 지내며 선정을 베풀었던 곳에 세운 태산사泰山祠를 모체로 하여 세운 서원이며, 순천의 옥천서원은 김굉필이 1498년의 무오사화 때 이곳에 유배되었다가 사약을 받은

곳에 세운 서원이다. 용인 충렬서원은 정몽주의 묘소, 용인 심곡서원은 조광조의 묘소, 파주 자운서원은 이이의 묘소가 있는 곳에 세운 서원이다.

### 3.3 성리학적 인간 형성과 교육에 적합한 곳

조선시대 서원은 유식, 강학, 제향을 통해 장수하는 공간으로 조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다. 서원이 수행했던 이러한 기능은 서원이 건립되는 곳의 조건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선현의 연고지에 서원을 세우면 그곳에서 선현을 기리는 제사가 행해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또 산수가 빼어나며 한적한 곳은 학문을 닦고 성리학이 지향하는 인격을 수양하기에 적합하다. 서원 입지에 요구되는 두 가지 조건, 즉 선현의 자취와 유풍이 남아 있는 곳, 한적하며 산수가 수려한 곳은 유식, 강학, 제향을 행하기에 적합한 곳에 다름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식, 강학, 제향의 기능이 서로 별개의 목적을 가진 것

무성서원 사우 내부. 위패 뒤에 있는 감실에는 최치원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이 아니라는 점이다. 유식, 강학, 제향은 모두 성리학이 지향하는 인성의 형성과 학습이라는 하나의 목표에 수렴된다. 서원이 본받을 만한 스승의 학덕을 되새기며 추모하는 일(제향),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고 경서를 읽고 토론하면서 제자를 양성하는 일(강학), 서원 앞으로 전개되는 산수를 보며 천인합일의 경지를 터득하는 일(유식)은 결국 모두 궁극적으로는 성리학이 지향하는 인성의 형성과 학습이라는 하나의 목표에 통합된다. 서원은 이렇게 제향, 강학, 유식하기에 적합한 곳, 즉 성리학자들이 장수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갖추어진 곳에 입지하였다.

필암서원 홍살문. 서원이 엄숙하고 신성한 구역임을 상징적으로 알려준다.



## 4. 서원을 구성하는 건물과 시설물

서원을 구성하는 공간은 선현을 배향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향공간, 유생들의 장수를 위한 강학공간, 유식을 위한 유식공간, 제향과 강학 기능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지원공간, 그리고 서원의 주변공간 등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서원 영역의 가장 앞에는 유식공간이, 유식공간 뒤에는 강학공간이, 그 뒤에는 제향공간이 각각 독립된 영역을 형성하며 배치되어 있다. 강학공간과 제향공간 주변에는 지원공간이 위치하며, 서원을 둘러싸고 있는 산수경관이 주변공간을 이룬다.

### 4.1 유식공간

**홍살문紅箭門** | 서원의 영역은 홍살문에서 시작된다. 홍살문은 서원이 엄숙하고 신성한 구역임을 알리는 상징적인 문으로서 서원을 찾아오면 입구 길목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구조물이다. 홍살문에는 실제로 출입문은 달려 있지 않고, 지붕도 없다. 홍살문은 서원으로 가는 길의 좌우 양쪽에 기둥 하나씩을 세워 기둥 상부를 가로 방향으로 서로 연결하는 부재를 걸치고, 그 위에 나무살을 박은 문이다. 구조물에 붉은 칠을 하고 나무살을 박았기 때문에 홍살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하마석下馬石** | 하마석은 서원과 같이 사우에 선현의 위패를 모신 존귀한 장소 앞을 지나는 사람이라면 신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거기에 모셔진 분에 대한 존경심의 표시로 말이나 가마에서 내려야 한다는 글을 새긴 돌비석이다. 하마석은 하마비下馬碑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서원으로 들어가는 홍살문 주변에 위치한다.



병산서원 만대루, 유식과 강학의 복합공간인 누각

서원 앞이나 홍살문, 하마석 주변에는 서원이 교육 시설임을 상징하는 은행나무 한두 그루가 심어진 경우가 많다. 은행나무는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가는 기운이 강해서 기상 높은 선비를 기르는 것을 상징하며, 해마다 많은 열매를 은행나무가 맺듯이 해마다 많은 선비들을 배출하려는 소망을 상징한다.

**외문外門, 누문樓門 및 누樓** | 외문은 서원의 정문이다. 일반적으로 세 칸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외삼문外三門이라고도 한다. 외삼문은 가운데 칸 지붕의 용마루가 좌·우의 칸 용마루보다 높은 솟을삼문으로 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지붕 용마루가 수평으로 하나로 이어진 평삼문으로 된 것도 있다. 서원이 산수가 좋은 곳에 자리를 잡게 되는 요인으로는 성리학자들이 자연 속에 은둔하여 심신을 수양하며 천인합일 할 수 있는 곳을 찾았던 것이 중요한 이유였다. 자연과 함께 하며 유식하기에 가장 적합한 건축은 누樓 형식의 건물이다. 누는 서원이 자연과 접하는 위치인 서원 진입부에 배치되었으며, 선비들이 긴장된 학문의 길에서 벗어나 자연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고 심신을 고양하는 유식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서원의 누는 사방으로 트인 건축으로서 주변 자연 속에 건축공간이 그대로 스며들게 하여 그 속에 자신을 투영해 세계를 관조하게 만든다. 이러한 건축은 건물 자체를 밖에서 바라보는 감상의 대상물이 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건물 안에서 밖을 내다보며 자연을 흠상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성리학자들은 주변 자연경관을 이루는 나무, 돌, 물, 산 등에도 성리학적 사고로 전환케 하는 이름을 붙여 그 존재 가치를 부여해 그들이 다양하게 자연과 조우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자연을 의인화(擬人化), 인간화(人間化) 함으로써 세계 속에서 개체의 가치를 확인하며 천인동구(天人同構)하는 차원의 건축 공간을 서원의 누는 만들었으며, 이러한 건축은 한국 서원건축의 중요한 특성을 이루는 공간이 되었다.

## 4.2 강학공간

외문이나 누문을 지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공간이 강학공간이다. 강학공간은 유생들이 강독하고 수양하는 공간으로서 강당과 재사로 이루어졌다. 강당과 재사의 배치 관계는, 강당이 강학공간 안쪽에, 재사인 동재와 서재가 강당 앞쪽에 들어선 형식이 주를 이루지만, 강당이 강학공간 앞에, 동재와 서재가 사우 쪽으로 들어선 배치 형식도 나타난다. 전자의 배치를 한 대표적인 서원으로는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등이 있고, 후자의 배치를 한 서원은 필암서원, 홍암서원, 덕봉서원 등이 있다.

**강당講堂** | 강당은 유생들이 유교 경서를 공부하는 중심 건물이며, 원장과 원이(부원장)가 기거하는 곳이기도 하다. 강당은 원장이 유생들에게 정기적으로 강회講會를 베푸는 곳이었으며, 유회儒會나 제사 때는 유림들의 회의 장소가 된다. ‘강講’이란 유생들이 정해진 기간에 자율적으로 학습한 것을 여러 명의 교수 앞에서 학습한 내용을 보고하고 스승과 문답을 통해 경서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검증받는 교육 방식을 말한다. 유생들의 공부의 성취도는 강회講會를 통해 확인되었던 것이다. 강당은 곧 ‘강’을 하는 모임의 장소로 사용된

건물이다.

강당은 정면이 다섯 칸이 되는 규모의 건물이 가장 많고, 서원에 따라 규모의 증감이 있다. 강당이 다섯 칸일 경우, 중앙의 세 칸은 대청이고, 그 양측 각 한 칸은 온돌방이다. 이와 같이 강당은 건물의 가운데에 집회를 위한 대청을 두고, 그 좌우에 온돌방인 협실을 두는 ‘중당협실’ 형식이 주를 이룬다. 건물 앞에서 건물 쪽으로 봐서, 오른쪽 온돌방에는 원장이, 왼쪽 온돌방에는 원이가 기거한다.

그런데, 소수서원 강당은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의 건물이다. 정면 3칸은 대청이고, 1칸은 온돌 협실이다. 도산서원의 강당은 정면 4칸 규모로서 3칸 대청, 1칸 협실로 구성되었고, 남계서원의 강당 역시 정면 4칸 규모인데, 가운데 대청이 2칸이고, 그 좌우에 1칸 협실이 각각 있다. 강당의 대청마루는 스승과 학생이 강론講論하고, 행례行禮가 일어나는 장수藏修의 중심공간이다.

강당은 기단 위에 세워지는데, 강학공간이 전제후당의 배치를 한 강당의 기단은 전당후제 배치를 한 강당의 기단보다 높게 조성된 것이 일반적이다. 강당 기단은 막돌바른층이나 다듬은돌허튼층쌓기로 되었고, 기둥은 방주보다

도동서원 중정당. 정면 다섯 칸으로 중앙 세 칸은 대청이고, 그 양측 각 한 칸은 온돌방 형식을 취하고 있다.



원주가 더 많이 사용되었다. 강당의 대청은 연등천정을 하여 구조체가 노출되도록 지었고, 구들을 놓은 협실은 천장을 설치하였다. 강당의 기둥머리는 민도리 및 익공으로 처리되었는데, 도동서원의 중정당과 같이 포를 짠 것도 있다.

**재사齋舍** | 재사는 원생들이 기거하며 독서를 하는 생활공간으로 마루와 온돌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사는 일반적으로 동재와 서재, 두 건물로 구성되며, 마당을 사이에 두고 동재와 서재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 재사는 대개 정면 2-5칸, 측면 1-3칸 정도로 그 규모가 일정하지 않다. 재사는 강당 건물보다 지면 높이가 한 단 낮은 곳에, 강당보다 규모가 작은 건물로 세워 성리학적 위계를 반영하였다.

**장판각藏板閣, 장서각藏書閣** | 서원은 유생들이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서적의 수집, 보관, 관리 및 인간印刊은 중요하였다. 재정 능력이 있는 서원은 서적을 직접 제작하였는데, 그럴 경우 대개 선현들의 문집 등을 나무에 판각하여 인쇄하였다. 장판각은 서적을 펴내는 목판을 보관하는 곳이며, 장서각은 판본이나 서적들을 수장한 곳으로 강학공간에 부속되는 건물이다. 도산서원과 같이 규모가 큰 서원은 장판각과 장서각을 별도로 설치하기도 하였다. 장판각이나 장서각은 강학공간에 위치하면서도 다른 건물의 화재 등으로 화를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강당이나 재사에서 떨어져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 배치하였다.

장판각이나 장서각은 일반적으로 맞배지붕을 한 건물로서, 정면 가운데 칸이나, 각 칸마다 출입을 위한 판문을 달았고, 내부는 마루를 깔았다. 습기는 종이와 목판을 상하게 하므로 공기가 잘 통하도록 벽에는 환기구나 살창을 설치하였다. 대부분의 벽체는 흙벽에 비해 통풍 효과가 큰 판자벽으로 하였으며, 건물 바닥은 지면에서 띄워 올려 마루를 깔아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습기를 방지하였다.

### 4.3 제향공간

강학공간 뒤에는 별도의 담으로 둘러싸인 사우 일곽이 있는 제향공간이 형성되어 있다. 제향공간은 신문, 사우, 전사청 등으로 구성되었다.

**신문神門** | 신문은 사우로 통하는 제향공간의 정문으로서, 서원의 강학공간과 제향공간 영역을 경계 짓는다. 신문은 서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문이기 때문에 서원 정문인 외문外門에 대하여 내문內門이라 하고, 일반적으로 세 칸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내삼문內三門이라고도 한다. 내삼문의 경우, 가운데 문은 제향시 제관과 제수만 통과할 수 있다.

**사우祠宇** | 사우를 제향공간의 중심으로서 사림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선현의 신위나 영정을 모시고 춘추로 제향을 베푸는 곳이다. 서원 경내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존엄한 곳이다. 사우에는 도덕과 학문이 높은 인물의 신위를 모시고 있으며, 서원에 따라서는 충절로 이름이 높은

돈암서원의 제향공간, 송례사와 내삼문 전경



인물을 모신 경우도 있고, 조선 후기로 가면 문중에서 받드는 인물을 모시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사우에는 선현의 신위만 모셔져 있으나 무성서원과 같이 신위를 모신 뒷벽에 영정을 모신 서원도 있다. 사우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가 가장 많다. 건물 기단에는 전면 좌우에 계단을 각각 설치하였고, 건물 전면에는 툇칸을 설치하여 제향 때 의례공간으로 사용토록 하였으며, 지붕은 주로 맞배지붕으로 지었다. 사우 건물은 신위를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정면에만 출입문을 내고 나머지 세 벽에는 두터운 벽을 둘러 내부를 어둡게 하여 유현幽玄한 분위기가 감돌도록 하였다.

건물 내부에 신위를 배열하는 방법은 뒷벽 가운데에 주향하는 분의 신위를 모시고, 그 좌우나 좌우벽에 배향하는 분의 신위를 모신 경우도 있고, 뒷벽 오른쪽(서쪽)에서 왼쪽으로 신위의 서열에 따라 차례로 모신 경우도 있다.

#### 4.4 지원공간

**고직사庫直舍** | 고직사는 서원을 지키고 관리하며, 서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원지기가 거주하는 곳이다. 일반적으로 고직사는 강학공간 일곽 밖의 좌측이나 우측에, 담으로 둘러싸인 별도의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원지기는 평상시에는 유생과 원생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제향 때에는 제수를 준비한다. 이를 위해 고직사에는 식량, 용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다.

고직사는 방과 대청, 부엌 등으로 평면이 구성되는 점에는 일반 살림집과 비슷하나, 안마당이 부엌 공간이 연장된 작업공간으로 쓰이는 점, 사대부 주택의 남성들의 공간인 사랑채가 없는 점이 크게 다르다. 고직사는 교직사校直舍, 주소廚所, 주사廚舍 등으로도 불린다.

**전사청典祀廳, 제기고祭器庫** | 제향공간에 부속되는 건물로는 전사청, 제기고 등이 있다. 전사청은 제향 시 제수를 마련하는 곳이고, 제기고는 제사에 필요한 제기와 제례 용구를 보관하는 곳이다. 제수는 마른 것과 물기가 있는





도산서원 전사청

것으로 크게 구분되기 때문에 전사청 바닥은 마루, 온돌, 흙바닥 등으로 되었다. 도산서원의 전사청은 마른 제수와 물기가 있는 제수를 위한 건물을 따로 지어 두 동으로 구성되었다.

서원에 따라서는 전사청에 제기를 보관하는 공간을 함께 마련하여 별도의 제기고를 두지 않는 곳도 있고, 전사청과 제기고를 별도의 건물로 세운 경우도 있다. 전사청과 제기고는 건물의 기능상 제향공간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 4.5 부속 시설물

**생단牲壇** | 생단은 향사에 쓸 희생을 검사하는 단壇이다. 희생을 검사하고 품평하는 의儀, 즉 생간품牲看品은 헌관과 관계관들이 생단에 나아가 생단 주위에 서서 행한다. 생단 서쪽에 선 축관祝官이 생단에 준비된 희생이 정결한가를 ‘돌臚’하고 물으면, 헌관이 이에 좋으면 ‘충充’이라고 답하는 것으로 의식을



남계서원 생단

이 끝나고 제수를 준비하게 된다. 생단은 서원마다 위치가 일정하지 않다.

**관세위盥洗位** | 관세위는 향사 때 헌관들이 손을 씻는 대야를 두는 곳으로서 석재 기둥을 세워 그 위에 관분盥盆, 즉 대야를 올려놓는다. 사우가 남향을 할 경우 사우 앞 동쪽 계단의 동쪽에 위치한다. 헌관은 일반적으로 사우 앞뜰에 사우를 향하여 옆으로 길게 서 있다가, 동쪽 계단으로 올라 사우에 들어가 제향하기 전에 관세위에 이르러 손을 씻는다.

**망례위望瘞位** | 망례위는 제향공간에 부속된 시설로서 제향을 지내고 난 뒤 축문을 태우고 묻는 곳이다. 망례위는 망료위望燎位라고도 한다. 향사가 끝나면 축관은 축판과 폐백幣帛을 모시고 사우 앞 서쪽 계단으로 내려와, 사우 서쪽에 마련된 망례위에 나아가 축을 태우고 난 뒤 거기에 묻는다. ‘례瘞’는 묻는 것이고, ‘료燎’는 태우는 것을 뜻한다. 도동서원의 망례위는 사우 오른쪽 담에 구멍을 만들어 설치하였는데 ‘감坎’이라고 부른다.

석등, 정료대庭燎臺 | 석등은 석조로 된 구조물로서 불을 밝히는 관솔불을 놓는 곳이다. 사우와 강당 앞마당에 설치된다. 정료대 또는 요거석燎炬石이라고도 한다.

연당蓮塘 | 많은 서원에는 서원의 입구 근처에 연당이 조성되었다. 성리학자들에게 연꽃은 주돈이周敦頤(1017-1073)의 ‘애련설’에 근거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주돈이는 애련설에서 “진흙에 나서 물들지 않고[出於淤泥而不染], 맑은 물결에 씻기면서 오염하지 않고[濯清漣而不汚], 가운데는 통하고 밖은 곧으며[中通外直], 덩굴도 없고 가지도 없으며[不蔓不枝], 향은 멀리가면서도 더욱 밝아진다.[香遠益清]”고 하며 연꽃의 특성을 군자의 성품에 비유하였다.

병산서원 연지



## 5. 한국 서원 건축의 특성

서원의 입지, 공간구성 및 건물 배치는 주변의 산수와 강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서원이 그 터에 앉혀짐으로서 주변 산수경관은 건축과 하나의 전체를 이루며 그 장소의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런 측면에서 서원은 주변 자연 경관과 건축을 묶어 하나의 덩어리로 보아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건축 유형에 속한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5.1 역동적 균형의 건축

**중심축과 좌우대칭** | 성리학을 포함하여 유교 전반에 걸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규범 가운데 하나가 ‘중용(中庸)’이다. 중용이란 치우치지 않는 것이며, 인간의 모든 행동의 준거가 되는 규범이다. 건축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대칭을 이루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다. 대칭과 균형을 이루기 위한 건축적 수법으로 분명하게 들어나는 중심축을 설정하게 된다. 대칭과 중심축은 하나의 설계 사상에서 나온 두 가지의 표현 방식이다.

도동서원 강당인 중정당 현판







필암서원 경관



건축에서 중심축이란 곧 질서이자 기준이며, 건물 구성 원리의 근본이 된다. 하나의 사례로, 동방도학지중(東方道學之宗) 김굉필을 배향하는 도동서원은 분명하게 설정한 중심축을 따라 누각, 중문, 강당, 내삼문, 사우 건물이 서원 영역의 앞에서 뒤로 가면서 차례로 앉아 있다. 서원의 주요 건물이 모두 일직선의 중심축 위에 좌우 대칭을 이루며 배치된 것이다. 좁은 폭의 길과 계단도 모두 축선 상에 놓여 중심축을 강조하고 있다. 도동서원 강당의 이름은 ‘중정당(中正堂)’이다. 『주역(周易)』에서 중(中)과 정(正)은 자연의 질서와 존재 양상을 규범화한 인도(人道), 즉 마땅히 그러해야 할 인간 행위의 당위로 풀이된다. 이에 더하여, 중정당 앞의 동재와 서재는 그 일직선 축의 좌우에 정확히 대칭으로 자리 잡아 중심축을 더욱 강조한다.

도동서원과 같이 이렇게 중심축이 뚜렷하게 강조되는 사례는 옥산서원, 필암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 등에서도 나타난다. 하지만, 한국 서원의 효시인 소수서원은 말할 것도 없고, 도산서원의 강당인 전교당과 사우인 상덕사, 병산서원의 강당인 입교당과 사우인 존덕사는 강당과 사우의 중심축이 서로 어긋나 있지만, 누문에서부터 사우에 이르기까지의 중심축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전체적 구도의 평형을 추구하는 시중(時中)의 건축** | 서원을 비롯한 한국 건축은 건물이 앉혀지는 터의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터가 대칭과 중심축을 구현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터를 중시하는 건축이라면, 대칭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터에 무리하게 중심축과 좌우대칭을 강요할 수는 없다. 특히 한국의 자연 환경은 산과 구릉이 많은 지형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칭과 중심축의 설정은 개념적으로 중요한 건축 규범이 되긴 했으나, 대부분의 건축은 절대적 대칭을 깨뜨리면서 축을 조금씩 비틀고 있다. 평탄하지 않은 지형 조건을 갖고 있는 터에서는 건물들을 직선적이고 대칭적이며 규칙적으로 앉히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칭과 중심축의 규범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건축군의 조성은 전체적인 ‘구도의 평형(balance)’을 고려해야만 한다. 구도의 평형을 추구하는 것은 단위 건물들을 앉히고 조직하는 방식을 주변의 지형 조건에 따르게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서원은 엄격한 좌우대칭과 일직선의 중심축을 강조하기보다는, 그 개념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그 속에서 조금씩 변화를 주는 건물 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배치는 오히려 건축 공간에 생동감이 감돌게 한다. 이는 성리학자들이 말하는 “치우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고,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다.”고 하는 ‘중中’의 본래적 의미에 더 가까운 것이기도 하다. 시의 성時宜性을 강조하는 “시중時中”도 이와 별개의 개념이 아니다. 엄격한 좌우대칭과 중심축을 강조하는 건축 규범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구도의 평형을 추구한 한국의 서원은 역동적 균형의 건축, 시중의 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

## 5.2 주변 산수경관과 하나가 되는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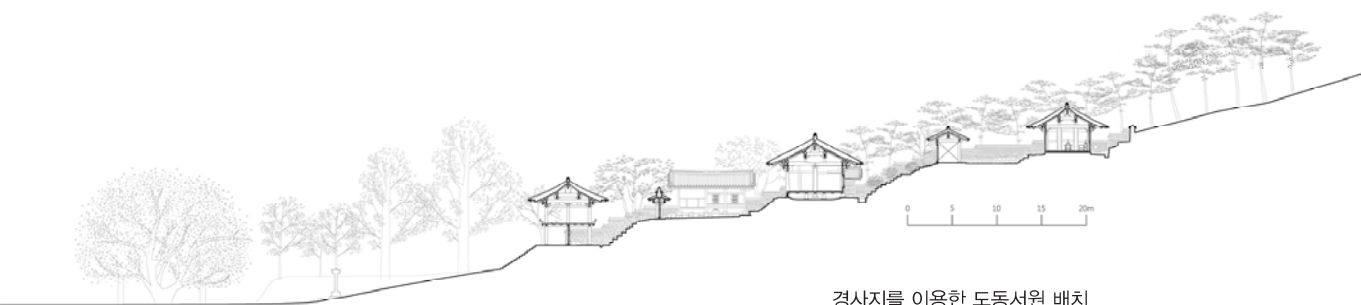
**건축과 자연의 상호관입** | 서원은 관학인 향교와는 달리 번잡한 도회지에서 멀리 떨어진 산수가 좋은 곳에 자리 잡았다. 이황이 지적하였듯이, 서원은 세속의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곳(囂소喧騷)에서 벗어나 도를 강론하고 학문을 닦을 수 있는 강도이업講道肄業하는 장소에 세워져야 했다. 그런 이유로, 성리학자들은 골짜기가 있어 물이 흐르고, 산이 있어 풍월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경관을 갖춘 곳에 서원을 건립하였다. 그리고 자연과 함께 하기에 가장 적합한 누정 형식의 건물을 서원 영역의 앞부분에 세워 자연과 접하는 장소로 삼았다.

조선시대 서원은 뒤로는 산이 있고, 앞은 물이 흐르며 탁 트인 곳에 세워졌다.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이러한 터가 심신을 수양하고 후학을 양성하며 학습하기에 적합한 땅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특유의 건축공간과 서원경관을 만들어냈다. 주변의 산수로 얹혀지는 자연을 최대한 서원 영역으로 끌어들이고자 서원 건축은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이 상호관입하여 건물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건축 유형을 만들어냈다. 이 바탕에는 천인합일을 최고의 이상으로 삼은 성리학자들의 세계관이 담겨있다.

**경사 지형을 이용한 서원 공간의 위계 구축** | 조선시대의 서원은 일반적으로 앞이 낮고 뒤로 갈수록 점점 높아지는 전저후고前低後高의 경사지에 자리 잡았다. 예를 들면, 도동서원은 뒤로는 주산인 대니산戴尼山이 솟아 있고 앞으로는 낙동강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서원 전면의 누각인 수월루水月樓에서 낙동강까지의 거리는 약 350m가 된다. 서원의 전면이 지형적으로 넓게 열려 있는 것이다. 이런 터는 앞으로 호방하게 탁 트인 경관을 서원 영역으로 끌어들이기에 아주 적합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의 서원은 이러한 지형 조건을 갖춘 곳을 서원 터잡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서원의 공간구성에는 이러한 전저후고의 경사 지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강학공간을 낮은 곳에, 제향공간을 높은 곳에 배치하여, 각각의 공간이 가진 관념상의 위계를 지형의 고저차를 통해 잘 드러내고 있다. 앞이 낮고 뒤가 높은 경사지 위에 세워지는 서원은 강당을 앞에 두고 사우를 뒤에 두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 형식을 취하였다. 전학후묘는 상묘하학上廟下學 배치라고 부를 수도 있다. 지대가 낮은 곳에는 강당과 재사로 구성되는 강학공간을, 지대가 높은 곳에는 사우를 중심으로 하는 제향공간을 둔 것이다. 경사진 땅을 이용하여 유식공간, 강학공간, 제향공간의 단차를 둠으로써, 성격이 다른 공간들을 위계를 달리해 가며 분리하고 있는 것이다.

**건물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건축** | 서원 건축과 같이 완만한 경사지에 세워지는 건물들은 바깥에서 안으로 진입해 들어갈수록 공간의 깊이감을 만들어



경사지를 이용한 도동서원 배치

내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전면으로 펼쳐지는 경관을 건축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기에 용이하다. 여기에서 ‘건물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건축’이라는 한국 서원 건축의 중요한 특성이 도출된다. 도동서원의 강당 대청에 앉아 바깥을 내다보면, 환주문과 수월루 너머로 펼쳐지는 산수경관이 서원 안으로 중첩되어 들어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이원조는 「수월루상량문水月樓上樑文」에서 수월루에 올라서 바라보는 경치를 “푸르른 여러 봉우리들 난간 아래로 보이고, 열 겹의 구름 병풍이 살아 있는 그림처럼 펼쳐진다.[蒼翠群巒入檻低，十疊雲屏開活畫]”고 묘사하였다.

**천인합일의 건축과 경관** | 성리학자들이 지향하는 천인합일의 사상을 주변 산수와의 관계 속에서 건축적으로 가장 잘 승화시킨 대표적인 서원의 하나가 류성룡을 모신 안동 병산서원이다. 병산서원은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한국의 산하를 알고, 그 속에 건축을 엮어 만든 정신과 방식을 아는 데 길잡이가 되는 실례를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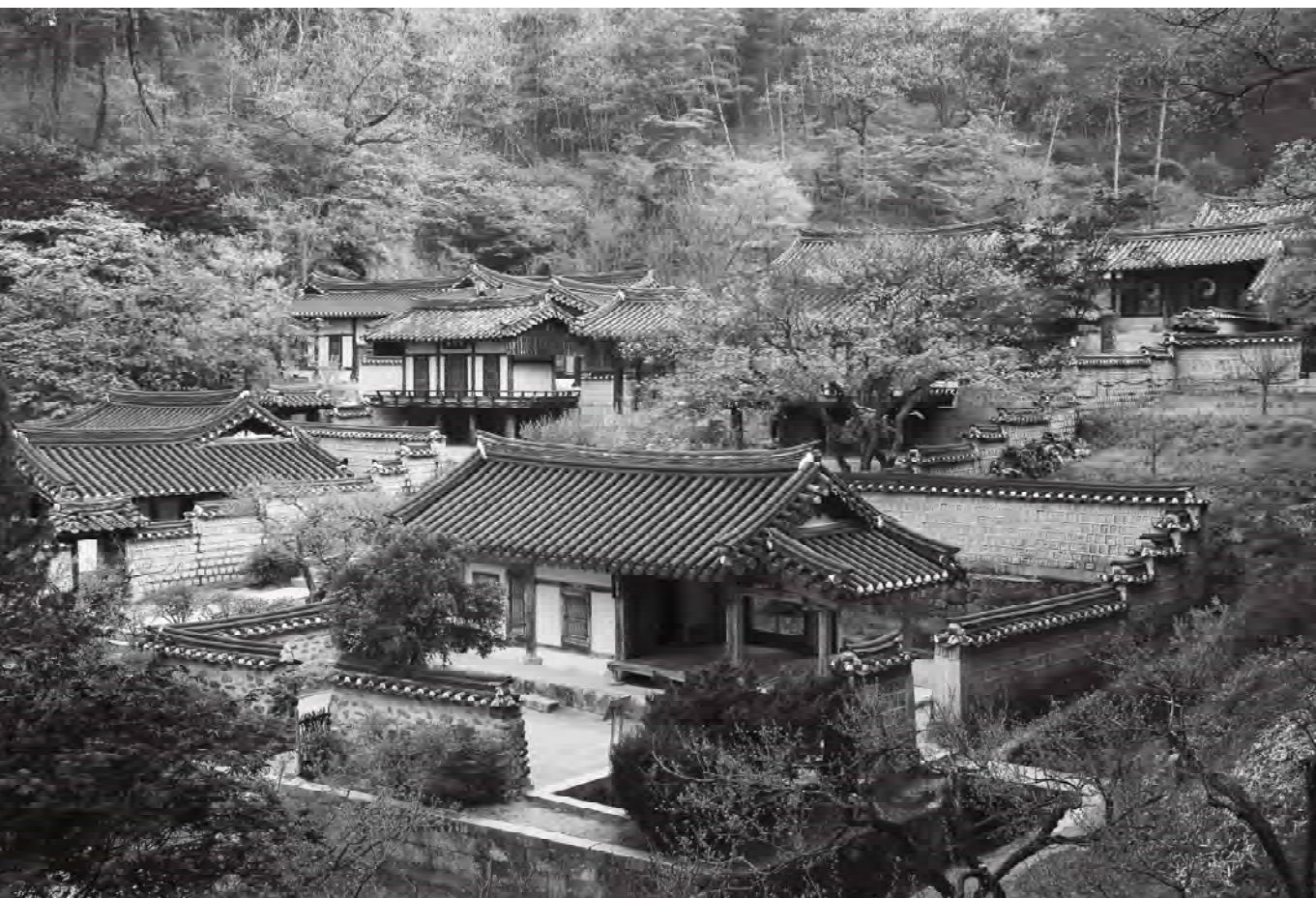
낙동강 물줄기가 넓게 트이면서 센 물살을 만들며 향아리 모양으로 돌아 나가는 강변에, 병풍처럼 산이 펼쳐져 있다고 하여 이름을 붙인 산이 병산이다. 이 병산이 강물 깊게 그림자를 띄우는 맞은편으로는 모래사장이 펼쳐지며 노송들이 꿈틀거리며 서 있고, 그에 잇대어 하회마을로 넘어가는 산자락이 시작된다. 병산서원은 바로 이러한 강물과 병산을 마주 보는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병산이 있고 낙동강이 설정된, 이러한 산수를 갖춘 곳에 병산서원은 외부공간이 열리고, 트이는 방식으로 조영되어, 건물을 앉힐 땅과 그 주변 경관을 나뉘므로 이해하며 해결한 탁월한 건축공간을 만들고 있다. 특히 병산서원 강당인 입교당에서 강당의 대청 기둥 사이로 그 앞의 만대루와, 그 넘어 병산과 강물로 이어지는 전경을 보면, 만대루 이 층 다락 일곱 칸 공간 열개 속으로 일곱 폭 병풍이 되어 들어오는 산수경관은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닌 극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이것은 건물을 둘러싼 산천경계가 어떻게 건축 공간미학으로 재구성되어 되살아 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서원건축의 특성을 이루는 한 부분이다.

의례를 집행하기 위한 예제건축 | 서원은 장수와 관련된 각종 의식과 예절을 행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예제건축禮制建築의 한 범주에 속한다. 예제건축은 유교문화권의 건축을 구성하는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건물의 아름다움 자체를 보이기 위한 건축이 아니라, 의례를 행하기 위한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의미와 상징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조영한 건축이다. 한국의 서원은 예제에서 중시하는 의례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서원의 사우(主享)는 기본적으로 삼 칸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우 건물의 중앙 칸에는 주향(主享)으로 받드는 선현의 신위가 모셔져 있는데, 서원을 지탱하는 기본 정신은 주향으로 모신 선현의 학덕에 근간을 둔다. 주향의 궁리독행적(窮理篤行的) 가르침과 정신세계가 빙의된 것으로 간주되는 신위가 사우의 중심 칸에 모셔짐으로서, 사우는 선현의 정신과 동일시된다. 강당의 마루에서 뒤쪽 판문을 열면 사우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고, 그 계단을 올라가면 선현의 정신이 거처한다고 항상 생각하며 유생들은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바르게 하며 장수를 했던 것이다. 유생들은 서원 영역에서 가장 위계가 높은 곳에 모셔진 선현의 학덕에 다다르기 위해 항상 자성하며, 긴장된 마음으로 자기 수련을 한 것이다. 그런 이유로 한국의 서원 건축은 중심선을 설정하여, 그 중심선 상에 중요 건축물을 배치하고 있다. 이것은 정제되고 엄숙한 공간을 구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채택된 것이며, 의례를 위한 예제건축으로서의 탁월한 가치를 갖는다.

서원 건축은 주로 목조 가구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로 부재와 수직 부재가 서로 연결되어 뼈대를 만들고 그 구조체 사이를 벽으로 막든가, 창호를 내어 공간을 구획한다. 기둥과 기둥 사이를 창호로 구성할 때 그 창호의 숫자는 예제건축에서 매우 중요하게 간주된다. 예제건축에 속하는 서원에서 특히 출입문은 주로 삼문(三門)의 형식을 취한다. 삼문은 외삼문과 내삼문으로 구분된다. 삼문을 설치한 것은 들어갈 때는 반드시 동측에 있는 문을, 나올 때는 서측에 있는 문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것은 의례의 측면에서 중시하는 출입의 원칙이다. 삼문 중에서 문은 있으되 일반 유생들이 출입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 가운데 문이다. 가운데 문으로는 서원에 제향된





주변 산수 및 지형지세와 잘 어울리도록 배치된 도산서당 전경

선현의 혼이 출입해야 한다는 예제의 원칙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서원 중에는 필암서원과 같이 문루의 아래층 높이가 낮아서 출입자가 고개를 숙이지 않고는 출입하기 힘들도록 된 곳도 있고, 도동서원의 강학공간 출입문인 환주문喚主門과 같이, 문의 폭과 높이가 아주 좁고 낮아서 출입이 매우 불편하도록 만든 것도 있다. 건축의 기능적 측면이나 미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예제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처리는 상징성과 의미를 갖는다. 서원의 영역을 신성시하고 출입자에게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서원이 예제건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좋은 사례를 돈암서원의 응도당凝道堂에서 볼 수 있다. 돈암서원에 주향으로 모신 김장생은 조선의 예학禮學을 대성시킨 성리학자다. 그가 예를 실천할 수 있는 건축제도로 제시한 건축형식이 실제 건물로 구체화 된 것이 응도당이다. 김장생은 예를 행하기 위한 건물의 평면 형식과 구조를 전옥하옥제殿屋厦屋制를 참고로 해서 그가 저술한 『가례집람家禮輯覽』에서 제시하였다. 김장생이 제시한 건축 형식은 그를 주향으로 모시는 돈암서원을 지을 때 송시열이 강당 건물인 응도당에 구현시켰다. 이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인데, 건물의 첫째, 둘째 열 양끝 한 칸, 그리고 마지막 열 좌측(남쪽) 2칸, 우측(북쪽) 1칸에 마루방을 각각 두었다. 지붕은 맞배지붕이고, 건물 측면에는 풍관을 달고 풍관 아래에는 영禁이라고 불리는 눈썹지붕을 달아냈다.

### 5.3 성리학자들이 추구한 절제와 맑음의 미학

조선시대 서원 건물들은 장대하거나 화려하지 않다. 절제되고 단아한 모습으로 조영되어 성리학적 세계관을 건축배치와 공간의 차원으로 응축시켜 승화시키고 있다. 서원을 경영한 성리학자들은 당대의 지배 계층으로서 재력과 기술을 동원하여 최고의 건물을 조영 할 수도 있었지만, 서원의 규모는 크지 않고 건물들은 담담하고 소박하다. 이러한 건축 특성은 절제되고 검박한 미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요약하면, 성리학적 가치관, 세계관, 자연관이 반영된

물리적 표상이 서원 건축이다.

이와 같이 서원 건축에는 원칙에 입각한 절제되고 단아한 건축 형식과 질서, 그리고 주변 자연에까지 성리학적 사고를 확대케 하여 자연과 인공을 합일하려는 건축 공간 처리와 배치 형식으로 성리학자들이 추구한 이상이 반영되어 있다. 이는 조선 성리학자들이 추구한 절제와 맑음의 미학에 기초한다. 화려함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을 꺼리고, 대자연을 자기 안으로 수렴하며, 검박함과 질소함을 추구하는 것이 성리학자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서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웅장함과 화려함이 아니라, 성리학자의 정신이 반영된 최소한의 규모와 건전함이다.



옥산서원 세심문 주변

## 6. 맺음말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의 활동 기반이었던 서원은 제향을 통해 선현을 받드는 전통을 계승하는 장소이자, 유생들이 호연지기를 키우며 인격을 도야한 산실이었다. 서원은 원규院規를 따르는 원칙과 교육의 자율이 조화를 이룬 곳이었으며, 당시에 도서관과 출판 기능을 갖춘 교육기관이었다. 서원은 또한 향촌 사회에 유교 윤리를 보급하고 향촌 질서를 재편성하며 지역공동체를 이끄는 중심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서원은 조선시대 관립 교육기관이었던 향교와 달리 번잡한 읍치邑治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하고 산수가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다. 이황이 이야기하였듯이 서원은 세속의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곳에서 벗어나 도를 강론하고 학문을 닦을 수 있는 장소에 세워져야 했다. 그런 이유로, 사대부들은 골짜기가 있어 물이 흐르고, 산이 있어 풍월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경관을 갖춘 곳에 서원을 건립하여 학문을 연마하고 후학을 양성했다. 따라서 자연과 함께 하기에 가장 적합한 누樓를 서원 진입 부분에 세워 자연을 접하는 장소로 삼았다. 조선시대 서원은 여러 기능을 수행했지만, 결국 서원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성리학이 지향하는 인물을 닮아가게 한다.”고 하는 하나의 목적으로 귀결된다. 본받을 만한 스승을 기억하고 그의 학덕을 되새기며 추모하는 일(제향),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고 경서를 읽고 토론하면서 제자를 양성하는 일(강학), 서원 앞으로 전개되는 산수를 보며 천인합일의 경지를 터득하는 일(유식)은 각각 별개의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 서원의 입지 및 경관 조건도 서원에서 성리학적 인간 형성과 교육이 가능토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어, 산수가 수려한 곳에 서원을 앉힌 것은 단지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기 위한 일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다. 자연의 운행에 인간 행위의 모범으로 삼아, 자연의 논리와 인간의 논리를 하나로 일치시키고자 했던 것은 천인합일사상의 반영이었다. 강학과 제향이 그랬듯이, 서원의 입지

및 경관도 성리학이 지향하는 인간 형성과 교육을 돕는 역할을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서원에 확보된 산수경관은 곧 성리학적 교육경관, 즉 서원경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서원이 세워진 땅의 산수 자체가 이미 성리학적 인간 형성 및 교육의 효과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서원은 서원이 세워진 그 땅의 산수경관을 최대한 건축 안으로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서원은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이 상호관입하는 건축, 여기서 더 나아가 건물과 자연이 상호관입하여 하나가 되는 건축 유형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독특한 건축을 탄생시킨 바탕에는 격물치지를 학문의 방법론으로 삼고, 천인합일을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이상으로 삼았던 성리학자들의 세계관이 있었다.

서원은 입지, 배치 및 공간구성 등 건축 유형에 속하는 그 자체의 정체성을 보인다. 서원의 건물 배치와 그에 따른 공간구성에는 계층적 질서 체계가 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간의 위계성은 건물과 담으로 구획된 여백의 외부공간을 반복하여 만드는 방식에 의하여 확보되어 있다. 이와 함께, 서원은 산수경관과 조화하는 건축 배치와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건물들은 서로 간의 관계를 분명히 보이는 배치를 하면서도 다양한 외부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또, 건물들은 기본적으로 대칭이 되는 배치를 하고 있으나, 엄격하게 기하학적인 대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배치를 하여 그 속에서 자연스러움과 생동감이 감도는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세워진 서원의 건물들은 장대하거나 화려하지 않고 절제되고 단아한 모습으로 조영되어 성리학적 세계관을 건물 배치와 공간의 차원으로 응축시켜 승화시키고 있다. 서원을 경영한 성리학자들은 당대의 지배 계층으로서 재력과 기술을 동원하여 최고의 건축을 조영 할 수도 있었지만, 서원의 규모는 크지 않고 건물들은 담담하고 소박하다. 이러한 서원 건축의 특성은 절제되고 검박함을 추구한 성리학적 미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서원에는 절제되고 단아한 건축 형식과 질서, 그리고 주변 자연에까지 사교를 확대케 하여 자연과 인공을 합일하려는 건축 공간 처리와 배치 형식으로 성리학자들이 추구한 이상이 극명하게 반영되어 있다. 이는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추구한 절제와 맑음의 미학에 기초한다.





병산서원 입교당에서 바라보는 전경



도산서원 전경















소수서원 「강소잡록講所雜錄」

## 1. 서원 교육의 시대적 배경

유교 국가였던 조선왕조 사회에서 교육은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조선은 힘이나 칼이 아닌, 붓으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던 문치주의文治主義 국가였다. 붓끝에서 나온 명분과 도의의 이데올로기로 역사를 움직이고자 하였다. 문치주의의 성패는 교육에 달려 있다. 즉 유학은 이미 그 출현과정에서부터 정치와 교육의 숙명적인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유儒’란 그 어의론적 의미에서 마치 물이 차츰 차츰 백지에 스며들듯, 가르침과 훈도가 조금씩 한 인간의 정신에 ‘스며든다[潤]’는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 또한 ‘부드러움[柔]’으로 사람을 가르친다는 뜻풀이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것은 유학이란 곧 가르침[教]과 배움[學]의 결합체라는 교육적 의미와 함께, 통치자가 백성에게 대하여 교화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정치적 의미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왕조의 선비들은 유학의 이러한 근본적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교육을 가장 중요한 국가 운영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우리가 조선의 교육문화를 이해하고자 할 때, 유학의 이러한 정교일치政教一致적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정치가 넓은 범위의 교육행위이고, 교육이 또 다른 형태의 정치행위라고 하는 인식이다. 서원과 향교, 성균관 그리고 심지어는 촌락내부에서 운영되던 서당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정교일치적 메커니즘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유학에는 교육을 통해 훌륭한 덕성과 도덕적 인성을 기른 인물, 즉 군자君子라야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일종의 도덕주의적 태도가 늘 함께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학을 흔히 수기치인修己治人의 학문이라고 한다. ‘수기’는 말할 것도 없이 도덕적 성찰과 덕성의 함양을 요구하는 유학의 공부론과 관련을 갖고 있고, ‘치인’은 구체적인 현실에 관여하고 역사의 흐름에 참여하는 정치의 논리이다. 따라서 유학의 선비는 ‘독서인讀書人’으로서 자기의

삶을 반성적으로 돌아보는 지식인적 역할과 함께, 백성의 삶과 정치에 관여하는 ‘대부大夫’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조선조의 교육은 이러한 내성외왕內聖外王이라는 두 가지 과녁을 함께 겨누고 있었다. 즉 안으로는 구도적 자세의 치열한 삶을 통해 성인聖人의 세계를 지향하고, 밖으로는 현실의 세계를 다스리고 왕도정치를 실현하는 통치자의 능력을 가질 것을 요구하였다. 이렇게 조선의 선비들에게 교육은 한 손에는 도덕적 권위를, 다른 한 손에는 정치적 참여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다. 서원은 조선의 선비들에게 이러한 유학의 이상을 실현해 줄 가장 이상적인 교육기관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먼저 풀어야 할 의문점이 하나 있다. 즉 당시 관학官學이었던 향교교육은 왜 실패하였는가? 조선 초기부터 국가에서는 온갖 노력을 다해 그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으나, 성종 대부터 이미 향교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다. 서원 교육은 이 같은 향교교육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탄생하였다. 우선 이 역사의 비밀부터 풀어보도록 하자.

## 1.1 조선 초기 국가의 교육정책과 관학

한국의 고대 학교는 기록에 따르면 이미 397년(고구려 소수림왕 7)에 태학과 경당이 세워졌고, 682년(신라 신문왕 7)에 국학이 있었다. 이들 태학과 국학은 관학으로서 중앙의 소수 귀족자제들을 대상으로 하는 귀족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 들어서는 관학의 설치가 각 지방으로까지 확대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었다. 958년(고려 광종 9)에 과거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되면서, 과거를 통한 관료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각 군현에 학교를 설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3경 12목을 비롯한 군현에 박사와 교수를 파견하여 향교교육을 시행하게 되었다. 군현 단위까지 국가의 지배력이 확대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갖게 된 것이다.

조선왕조 사회는 개국과 더불어 이러한 고려 시대의 교육적 시스템을 대부분 승계하는 한편, 기존의 제도를 성리학적 모델 속에서 새롭게 재편하고자

하였다. 가장 뚜렷한 교육적 시도는 새로운 성리학적 이념으로 무장한 신진 사대부 계층을 육성함과 동시에, 이들의 힘을 결집할 강력한 국가 지배력의 실현에 있었다. 따라서 조선 초기의 교육정책은 성균관이나 향교와 같은 관학의 기능 강화를 통하여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조선 초기 성균관에 대한 조정의 정책은, 고려 구 귀족의 폐단의 온상인 좌주문생제를 혁파하고, 새로운 학제와 과거제도를 확립하여 중앙집권적인 왕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때 성균관은 불교와 사학 私學에 바탕을 둔 구 귀족세력과의 투쟁과정에서 신진유학자들의 성리학 연구기관으로 성장하였다. 조선 초기의 성균관은 신흥 지주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왕실을 중심으로 한 소수 국가지배집단의 이해를 관철하는데 더욱 중점이 놓여졌다. ‘문음門蔭 자제 천거법’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성균관은 공신, 훈신 자제들에게 각종 과거 및 교육에 대한 특전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입신출세의 도구로 이용되었다. 또한 조선 초기 성균관 시설의 정비가 학사관리보다는 문묘제文廟制와 반궁제泮宮制 정비에 치중되었던 것은, 그 설립의 주요 이유가 국가 이데올로기의 절대화와 신성화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과거제도는 국가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안정적으로 보급하고 강화하며, 권력을 왕권으로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제도였다. 그들은 과거제라는 인재 선발 시스템을 통하여 교육과 정치를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었다. 가치의 배분체계가 매우 한정되었던 조선사회에서 선비의 관직 진출은 자신의 존재의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따라서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의 선비들에게는 관료로의 성장만이 유일한 사회적 선택이었다. 조선왕조의 모든 선비들이 과거로부터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을 통한 이데올로기의 집중화가 성공하고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교육을 강력한 왕권 하에 두고자 하는 조선 초기의 노력은 성균관과 문묘의 의례 정비 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문묘文廟의 종사는 성리학적 도통연원에 충실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도덕적 정당성을 국가권력이 공증해주는 국가 이데올로기의 강화작업이었다. 따라서 조선 초기의 국가와 왕실은 성균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과 함께, 문묘의례文廟儀禮와



성균관 문묘도(1610)



문묘중사文廟從祀에 관한 전면적인 개편작업을 시도하였다.

조선 초기 교육의 중앙집권적 경향은 향교 운영에서도 나타난다. 중앙 조정은 지방 군현 단위별로 향교의 설치를 강조하였다. 향교의 설립과 운영 실태를 수령의 가장 고유한 임무 중의 하나로 제도화하여 그들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동시에 향촌사회에서의 수령권 강화를 위해, 고을 백성들이 수령을 고소하지 못하게 하는 ‘부민고소금지법部民告訴禁止法’과 수령을 함부로 교체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안정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기간을 보장해주는 ‘구임법久任法’ 등을 시행하여 향촌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수령에게 향교의 교수와 학생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함으로써 교육의 중앙 집권화를 기도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1488년(성종 17) 무렵에는 전국의 모든 고을에 향교가 하나씩 설립되고, 조정에서는 각 향교에 교수를 임명하여 교육을 독려하였다. 그러나 조정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중기에 이르자 향교교육은 이미 그 한계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만한 교수관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애초에 조정에서는 향교 교수직에 과거 급제자를 임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과거에 급제한 선비들은 이른바 출세가 용이한 중앙부서의 청요직淸要職만 선호하고, 지방의 한미한 향교 교수직은 기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향교 교수의 자격도 차츰 낮아져서 결국에는 자격 없는 인물들이 너도나도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급기야는 향교의 교수 중에 유학 경전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는 인물들이 다수 등장하게 되고, 그 수준이 학생들에게도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향교 교수들의 수준이 이 지경에 이르자 학업에 뜻이 있는 많은 선비들은 향교를 차츰 멀리하게 되었다. 결국 대다수 고을의 향교에서는 교육활동이 사실상 중지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향교교육이 무력화되었다고 하여 향교의 사회적 기능까지 완전히 정지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특히 중인이나 평민에 해당하는 비양반 계층에게 향교는 신분상승의 통로로 적극 활용되었으며, 교육 외에 향교의 주요 기능이었던 의례적 기능 역시 꾸준히 유지되었다. 향교의 교생에게는 군역軍役 면제라는 커다란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중인이나 평민들은 군역 면제를 통한 신분 상승을 목적으로 향교 교생이 되고자 하였다. 반면, 양반들은 군이

향교 교생이 되지 않더라도 군역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교육의 질도 담보되지 않으며, 비양반 계층이 교생으로 들어오면서 향교 구성원의 신분이 어지럽혀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16세기 이후 양반들은 향교를 더욱 기피하게 되었다. 이렇게 향교의 교육 기능이 마비되면서, 향교는 춘추석전제·향약·향사례와 같은 의례적 기능으로 그 역할이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이전까지 향교나 성균관의 관학이 담당했던 교육 기능은, 조선 중기 이후 사실상 서원, 서당과 같은 사학에 그 임무를 넘겨지게 되었다.

## 1.2 사림파의 성장과 서원 교육

조선 중기 무렵 무력화된 향교 교육 외에, 서원 교육을 태동시킨 또 하나의 요인은 바로 사림파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성종 대부터 시작된 사림파의 본격적인 등장은 이후 서원과 같은 사학 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 사림파들은 백성을 예로서 교화시키는 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그 방법으로 향사례(鄕射禮)를 주목하였다. 향사례는 향촌 교화를 강화하고, 향촌 내 지배층인 사족들의 도덕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국가에서도 수령이나 관찰사 등 지방관들에게 향음주례나 향사례의 실행을 독려하며 적극 권장하였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한편, 향사례나 향음주례가 교화의 수단으로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그 결과 1485년(성종 16) 무렵까지도 향사례는 민간에 제대로 착근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향사례의 정례적 시행을 차츰 가능하게 한 주 동력은 바로 사림 세력이었다. 향촌 내부에서 성장하기 시작한 사림 세력이 스스로 향촌 교화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1490년(성종 21)에는 드디어 향음주례와 향사례가 정례적으로 시행된다는 보고가 조정에 올라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향촌 내부에서의 사림 세력의 두드러진 성장과 향촌 교화권에 대한 각성은, 16세기 이후 서원이 출현하게 된 중요한 역사적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연산군 대에 이르면, 성종 대 사림파의 개혁 정책을 주도하던 김종직(金宗直, 1431-1492), 김굉필(金宏弼, 1454-1504), 정여창(鄭汝昌, 1450-1504) 등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사화(士禍)로 인하여 엄청난 수난을 겪게 된다. 그러나 잦은 사화는 자연스레 많은 지식인들이 현실 정치를 떠나 향촌으로 은거하는 계기가 되고, 이들 중 다수는 서원과 같은 사학 교육에 눈을 돌리게 된다. 그러다가 중종 대에 이르면 사림세력의 성장과 더불어 백성에 대한 교화의 방식과 수단이 더욱 다양해지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때 향촌 교화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김안국을 들 수 있다. 그는 경상도 관찰사로 재직하면서 『여씨향약(呂氏鄉約)』·『정속(正俗)』·『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등의 서적을 간행하고 『소학(小學)』을 강론함으로써, 평민층에 대한 교화의 한 전범을 제시하였고, 이와 같은 김안국의 예치적(禮治的) 접근은 당시 조정에서도 매우 모범적인 모델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조정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김안국(金安國, 1478-1543)의 이 같은 교화방식은, 한편 그 강압적인 시행방법으로 인해 향촌사회에서 상당한 물의를 빚었다. 즉, 관권을 동원하여 일률적인 시행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향리층이나 재지사족으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또한 이 시기 조정 내부에서도 향음주례나 향사례의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시하는 견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512년(중종 7)에는 오랫동안 시행되지 않던 향음주례의 부활에 대한 논의가 조정의 경연에서 개진되었는데, 한편으로는 향음주례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동시에 이 제도가 겉치레의 말단임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또한 1517년(중종 12)에는 향사례의 시행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조광조(趙光祖, 1482-1519)와 향사례의 교화적 기능이 지닌 한계성을 주장하는 정광필(鄭光弼, 1462-1538) 사이에서 치열한 찬반 논란이 전개되었다. 당시 향음주례는 빈껍데기의 형식만 남아 있으므로 이를 강력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정에서 우선 모범을 보임으로써 예의와 검양의 덕목으로 풍속을 교화해 가자는 조광조의 도학주의적 발상과,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던 당시 백성들의 현실적 삶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정광필의 현실주의적 태도가 극명하게 대립되었다. 이 때 조광조 등이 주장한 지치주의(至治主義)적 이념은 그 현실적 부적합성

으로 인하여 차츰 그 정당성을 상실해 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조선 전기에 주로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던 향사례와 향음주례는 지나친 형식성과 비현실성 등으로 인하여 그 교화적인 기능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향촌사회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채, 관권과 일부 도학주의적 경향의 사림집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시행된 교화정책은 그 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처럼 조선 전기의 교화정책이 한계에 부딪치자, 향촌사회의 동의와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보다 구체성 있는 교화정책과 조직적인 교육기관이 요구되었고, 종종 대에 이르면 향촌민에 대한 교화활동에 사림과의 역할과 관여가 좀 더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조선 전기부터 진행된 관권 중심 교화정책의 한계와 사림과의 본격적 등장, 잦은 사화, 관학의 부진으로 인한 새로운 교육 기구에 대한 요구 등 일련의 사건들은, 16세기 중반에 나타날 서원의 출현을 이미 예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16세기 전반까지는 사림세력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촌 사회에 대한 그들의 교화권이 확고하게 자리 잡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16세기 초반, 사림세력은 여씨 향약의 보급 및 각종 교재의 간행을 통해 향촌사회에 대한 교화권의 확대를 꾸준히 모색해 왔으나, 결과적으로는 1519년(중종 14)의 기묘사화로 인해 그러한 의지가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 시기는 분명 향촌사회에 대한 교화권이 국가의 일방적인 간섭으로부터 차츰 사림집단으로 이양되는 모습을 띄고 있었으나, 아직 그들의 힘의 한계는 명백하였다. 향약을 통한 교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정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당시 사림세력의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림세력들은 향약의 시행을 조금하게 경중에까지 확대하고자 하거나, 혹은 관권에 대한 저항적 자세를 보여 줌으로써 기묘사화의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시대는 이미 새롭게 성장하는 사림들에게 향촌에 대한 교화와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요청하고 있었다. 서원 교육은 이 같은 시대적 요청 속에서 탄생하였다.

## 2. 서원 교육의 이념적 배경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 속에서 탄생한 서원은, 16세기 이래 조선왕조 선비들의 정신적 고향이자, 학문적 근거지이며, 정치적 활동의 거점이 되었다. 그들은 서원 교육을 통하여, 지식과 덕성이 분리된 모순과 갈등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따라서 조선 사회에서 서원은 국가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 즉 원기元氣로 인식되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최초의 서원은 선현에 대한 제사와 교육을 목적으로, 1543년(중종 38) 풍기 군수 주세붕周世鵬(1495-1554)에 의해 설립된 백운동서원이다. 경상도 순흥에 설립된 백운동서원은 고려 말의 큰 학자인 안향安珦(1243-1306) 선생을 모신 서원으로서, 우리의 교육사에서 실로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설립된 백운동서원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국가에서 공인하는 사액서원賜額書院으로 만든 사람이 곧 퇴계退溪 이황李滉(1501-1570)이다. 이황에 의해 1551년(명종 5) 백운동서원은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액을 받고, 이후 조선사회에서 서원문화가 만개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서원 교육이 지향하던 그 이념적 배경은 과연 무엇일까?

### 2.1 서원 교육과 ‘성인聖人’ 닦기

서원은 조선의 선비들을 교육하는 공간이었다. 서원은 선비들의 문화와 그 영욕을 함께 하면서 우리 교육사에서 빛과 어둠의 두 자취를 함께 남겨 놓았다. 16세기 인물들이 남긴 글을 읽어보면, 초창기 서원은 선비 정신이 충만한 학문의 도장이었다. 맑고 형형한 눈빛의 선비들이 성리학의 세계 속에서 성인을 향한 구도의 열정을 불태웠다. 조선 유학의 사상과 철학은 이렇게 서원에서 잉태되고 개화하였다. 선비들은 현실세계의 모순과 갈등을 뛰어넘을



구원久遠의 정신적 가치를 모색하고자 서원에 몰려들었다. 선비들은 서원 교육을 통해 이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근원적인 질서, 이른바 리理를 체인體認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서원은 양반 관료제 사회를 지탱하는 지식인 관료 집단을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서원을 국가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 즉 국가의 원기元氣로 이해하였다. 선비들을 흔히 도학자라고 한다. 말 그대로 참다운 학문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그들이 생각하는 참다운 학문이란 이념적으로는 지식과 덕성이 분리되지 않고, 현실 속에서는 지식과 실천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앎과 삶이 잘 어우러져 조화를 이룬 인간, 이것이 서원에서 길러 내고자 하는 인간상이었다. 배운 만큼 덕성이 함양되고, 배운 진리를 곧 바로 현실 속에서 실현하고자 애쓰는 인간, 이것이 유학이 염원하는 교육의 이상이었다. 선비들은 그 표준을 공자를 비롯한 성인에 두었고, 그 성인들의 계보도가 곧 서원에서 가장 중시하는 '도통道統'이었다. 조선사회 특유의 공부론工夫論은 바로 '성인'이 되기를 갈구하는 공부 방법이다.

서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명을 깊이 이해하고 그 속에서 아무런 구애 없이 노니는 정신의 높은 경지를 획득하는 것이다. 특히 이황과 이이의 삶은 조선 서원 교육의 한 전범을 보여준다. 이황의 사후 그의 고향에 설립된 도산서원은 서애 류성룡, 학봉 김성일 등 걸출한 명현들을 배출한 학문의 도장이었고, 이후 영남학과 형성의 모태가 되었다. 또한 기호지방에서는 율곡 이이, 우계 성혼을 추존하는 기호학파가, 경상우도에는 남명 조식의 학통을 따르는 남명학파가 형성되어 조선 유학사에 있어서 일대 장관을 이루게 되었다. 이들 각 학파의 인물들은 주희의 성리철학과 예학을 조선 사회에 적합한 토착적인 이론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기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각 지방의 사람들은 해당 지역에 연고를 둔 선현들을 대상으로 하여 서원, 사우 등을 설립하고, 향풍鄉風을 진작시키는 기구로 활용하였다.

당시 서원에서의 일상은 매우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었다. 『퇴계언행록』의 기록에 따르면, 그의 일상은 언제나 조용히 삶을 관조하며, 부드러우나 장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가 거처하는 곳은 정돈되어 있었으며 책상

은 반드시 말끔히 치우고 벽장에 가득한 책은 가지런히 순서대로 놓여 있어서 어지럽지 않았다. 또한 새벽에 일어나면 반드시 향불을 피우고 고요히 앉아 온종일 책을 보아도 게으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온종일 책을 읽다가 혹 고요히 앉아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혹은 시를 읊조리기도 하며, 세속 사람이 즐기는 바는 한 번도 그의 마음을 스치는 바가 없었다고 한다.

또한 『퇴계언행록』에는 그의 평소 공부법에 대한 소개도 실려 있다. 그는 선유의 학설을 연구함으로써 성현의 본뜻을 알고, 성현의 말을 통하여 천지의 이치를 끝까지 찾고자 하였다. 삼가 생각하고 밝게 분별해서 이해되지 않는 것은 그대로 두지를 않았다. 한가지 일, 한 가지 사물의 미세한 것에서부터 천지 만물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가장 깊은 데까지 궁리하고, 가장 정밀한 데까지 분석하지 않음이 없었고, 그리하여 마침내 환하게 꿰뚫고야 말았다. 그러면서도 가까운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생활의 절실한 것들을 표준으로 삼았다. 한 번도 아득하거나 구름 잡는 듯한 사색과 논의는 하지 않았다. 그가 생각하여 얻은 것은 한갓 빈말이 아니라 반드시 몸에 돌이켜 실천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한 치를 지키면 한 치를 얻었고, 한 자를 얻으면 한 자를 지켰다고 한다.

또한 선생과 제자간의 관계는 실로 인격적인 교감이 오가는 아름다운 만남이었다. 서원에서 그들의 만남은 참다운 교육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를 적실하게 보여 주고 있다. 그들은 세상의 온갖 명리를 모두 벗어나서 참다운 삶을 살고자 서로 갈구하였고, 그 길을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나아갔다. 제자들은 스승에게 온 마음을 다해 존경과 신뢰를 바쳤고, 스승 또한 자신이 체득한 진리의 빛을 제자들에게 전해주고자 혼신의 정성을 다하였다. 또한 도와 진리의 세계를 전해주고 넘겨받는 자 사이의 긍지와 기쁨도 그들의 기록 속에서는 자주 발견된다. 예로 노경에 접어든 이황의 다음과 같은 모습은 이미 세속의 온갖 얽매임과 장애를 훌쩍 뛰어 넘은 자유스러운 경지에 들어서 있었음을 보여 주는 일화이다. 이는 주객의 분별없이 물아일체의 경지를 꿈꾸는 유학자들의 이상을 현실 속에 구현한 것으로, 서원 교육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정신적 세계의 한 모습을 보여준다.

선생은 문생을 데리고 고개 마루를 넘었다. 이때 산에는 꽃이 만발하였고, 안개가 감도는 숲은 맑고 고왔다. 선생은 두자미의 시 한 구절을 읊었다.

盤渦驚浴底心性    소용돌이에 백로는 마음 고우라 미역감고  
獨樹花發自分明    외로이 선 나무는 꽃 피어 절로 환하네.

문인이 이를 듣고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였더니 “‘군자는 억지로 하고자 함이 없이 저절로 그러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시의 뜻에 꼭 맞는다. 배우는 사람은 모름지기 이를 체험하여 그 뜻을 바르게 하여 이치를 꺾이지 말 것이며, 도를 밝히고 공功을 헤아리지 말아야 한다. 만일 털끝만큼이라도 억지로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학문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황의 술회에서 드러나듯이 서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명을 깊이 이해하고 그 속에서 아무런 구애 없이 노니는 정신의 높은 경지를 획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비들이 지향하는 공부는 결코 노자나 장자가 머물던 무위자연의 세계를 꿈꾸는 것이 아니었다. 서원 교육은 결코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저 높이 나는 새처럼 초월의 세계를 꿈꾸는 인간을 기르려 한 것이 아니었다. 서원 교육의 핵심은 가장 인간다운 인간 즉 성인聖人이 되기 위한 공부를 익히는 것이다. 선비는 성인을 꿈꾸면서 부단히 극기복례克己復禮하는 인물이다. 선비는 극기복례를 실현하여 마침내 인간과 세계의 합일을 지향한다. 선비들은 공부를 통해 그들이 꿈꾸는 예치주의의 실현, 욕망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통제의 메커니즘을 성취하고자 하였다.

극기복례를 통해 성인을 꿈꾸는 서원 교육에서 그 공부법의 핵심은 바로 경敬에 있었다. 선비들은 경의 공부를 통해 공부가 삶과 분리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따라서 서원의 교육도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를 다하고 인간관계를 선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을 요구한다. 이에 서원 교육의 핵심은 평범한 이 ‘일상’의 세계와 진정한 진리의 세계인 ‘도’의 세계를 어떻게 연결하는가

하는 점에 있었다. 두 세계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사욕을 버리고 이 세계를 깨어 있는 의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수행과 수양이 필요하다. 그것이 곧 경의 공부론이다.

서원은 곧 이러한 경 공부를 실현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였다. 경의 실현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뒤따른다.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이겨내야 한다는 점에서 초인적인 수행을 요구한다. 경이란 마음을 투명하게 두어 어떤 순간에도 사심私心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마음공부를 의미한다. 또한 경이란 극기복례, 즉 자기 자신을 이기고 마침내 예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서원은 이러한 경 공부를 실현시킬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서원이 이와 같이 밝은 면만을 드러낸 것은 아니었다. 이미 17세기 인조 연간부터 서원의 사회적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일반 양인들을 불법적으로 점유함으로써 양역良役의 폐해를 유발하였고, 자격 없는 인물들을 우후죽순 격으로 제향하거나, 동일인을 여기저기에 배향함으로써 첩설疊設과 남설의 폐해를 가중시켰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따르면, 이렇게 건립된 서원의 숫자가 378개 소에 이르렀다. 지방별로는 경상도가 156개 소로 가장 많고, 강원도가 71개 소로 가장 적다. 경상도를 비롯한 삼남 지방의 서원 수효는 279개 소로 전국의 서원 수에 대한 비율은 73.8%에 이르고 삼남 지방 가운데서도 영남 지방에 특히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이렇게 서원이 난립함으로 인해 17세기에는 아예 서원 고유의 교육시설인 동·서재와 강당도 없이 오로지 제향공간만을 지닌 서원들이 출현하면서 점차 사회적인 부작용을 심화시켜 나갔다. 17세기 후반기에 이르면 한 고을에 수십 개의 서원이 난립함으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었다. 또한 많은 수의 서원이 권력화된 정치집단으로 변질되어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에 17세기 중엽의 뛰어난 역사학자였던 목재木齋 홍여하洪汝河(1621-1678)는 변질된 서원의 기능을 개탄하면서, “오늘날의 서원은 선현 향사를 통하여 각기 파당을 짓고 무리를 이루어 서로 배척하고 혈뜰으며, 필경에는 한 나라를 모두 전쟁터로 만드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탄하고 있다. 서원 본래의 기능인 선비를 양성하는 교육 기능은 유명무실하게 되고, 선현들을 제사 지내는 제향 기능만 남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자 서원은 국가

의 원기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우환으로 인식되었다. 숙종과 영조 연간의 서원에 대한 잇단 통제책과 훼손론은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역사 속에서 서원은 이렇게 서로 상반된 두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특히 개항 이후 근대 교육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서원은 더욱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다. 서구로부터 신교육이 이 땅에 유입된 이후 서원은 봉건성과 전근대성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되었다. 서원은 양반 계층이 스스로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이를 통해 하층민들을 억압하는 기제로만 활용하였다는 따가운 평가를 받게 되었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 당국은 서원을 봉건교육의 틀 속에 가두어 두고, 서원의 퇴영적인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이들은 서원의 낡은 시스템은 결코 근대교육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근대 교육의 시작과 더불어 서원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근대 이행기의 이러한 현상은 중국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난다. 중국의 경우에는, 청대 말 이른바 중체서용(中體西用)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기존의 서원 교육을 근대 교육과 접목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예로 청나라 말기의 거유 장지동(張之洞)이 설립한 광아서원(廣雅書院)의 경우, 중국의 혼과 서양의 과학기술을 융합하고자 하는 야심적인 노력이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 우리의 경우에는 서원 교육의 형식과 내용에서 자생적인 근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이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다. 이에 서원은 역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은 폐허의 공간이 되었다. 지난 백년간의 근대교육을 통해 서원은 국가의 원기라는 지난 시대의 주장을 공허한 수사로 만들어 버렸다.

## 2.2 서원 교육과 도통(道統), 그리고 학통(學統)

조선시대에 학문적 도통과 학통이 강조된 것은 도학의 정당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성리학적 사유와 맞닿아 있다. 서원은 도통과 학통의 계보를 알려 주는 가장 뚜렷한 지표로 등장하였다. 조선의 서원은 크게 대별하여 영남지역



을 주 근거지로 하는 퇴계학파의 학통과, 기호지방을 주된 근거지로 하는 율곡학파, 그리고 경상우도를 근거로 하는 남명학파로 대별할 수 있다. 이들 각 학파는 나름의 교육철학을 표방하면서 서원 교육을 풍요롭게 하였다. 우선, 초기서원의 성격형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영남지역 대다수의 서원에 그 이론적 바탕을 제공한 인물인 퇴계 이황의 교육철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황은 누구보다도 유학의 도통연원에 대하여 골몰하였다. 이황은 이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엄혹하게 정학正學과 이단을 구분하면서 기존의 도학연원에 대한 해석에 일대 쇄신을 도모하였다. 그는 이 과정에서 당시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의도와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독특한 도통의식을 선보였다. 그는 당시 사림세력들의 일반적 욕구와는 달리 정여창, 김굉필, 조광조, 이언적의 사현四賢을 포함한 선현들을 도통 연원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단히 부정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황의 이러한 비판은 당시 사람들이 주도하던 유학사의 해석에 일대 반기를 드는 작업이었다. 이황이 볼 때, 기존 유학은 노불老佛이나 사장학詞章學, 그리고 기학氣學 등 이단 말류에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거나, 지나치게 공리적功利的인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당시 막 싹이 자라기 시작한 이학理學 연구도 리理 중심의 학설을 견고하게 조직하지 못한 채 기氣 중심의 성리학적 견해에 매몰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황은 ‘인욕人欲의 사사로움이 없어서 순수 무잡無雜한 천리가 마음속에 환히 들어와 있는 상태’를 성인으로 보았다. 그가 화담 서경덕의 학문을 매우 높이 평가하면서도, 화담이 기를 논하는 것은 극히 정밀하나 리理를 투철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것도, 그것이 성인을 향한 참다운 심학心學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이황은 조선전기의 유학이 성인을 향한 참다운 마음공부, 즉 심학적 공부론에 상당한 이론적 허점을 지니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이황의 철학은 영남지역을 주된 근거로 한 남인계 서원들의 교육철학으로 정착되었다. 즉 남인계 서원은 다분히 심학적인 성격의 이학理學 위주의 교육관을 목수하고 있었다.

반면, 이이의 도통론은 이황과는 달리, 일종의 군사君師적 도통론을 지니고 있었다. 이이는 도통이 왕권과 결합된 형태를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생각한다. 그는 「성현도통」에서 ‘복희씨로부터 신농씨에 이르는 기간을 성인의 덕

으로 군사君師의 지위에 올라 수기치인의 유학적 이상이 가장 아름답게 실현된 시기'로 파악한다. 도통론이 치국治國과 치민治民에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이는 후대에 이르러 '도통이 향간의 필부에게 돌아가고, 도통이 군상君相에게 있지 않은 것이 참으로 천하의 불행'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도통이 임금에게 있지 않은 것이 필경 천하가 어렵게 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는 도통이 필부에게 넘겨진 이유가, 역사의 풍속이 변하면서 성군이 성군에게 대통大統을 선양하는 전통이 사라지고, 왕위가 아들에게 넘겨지게 된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한다. 그는 도통의 핵심을 인정人情을 절제하고 시무時務를 헤아릴 수 있는 능력에서 찾고 있다. 이이의 도통론의 핵심은 성덕成德 군자이면서 동시에 국가 경영을 통하여 대통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군사君師의 출현에 있었다. 이이에 따르면 '도통이 군상君相에게 있으면 도가 그 시대에 행해져서 혜택이 후세에게 흐르고, 도통이 필부에게 있으면 도가 그 세상에 행해질 수 없고 다만 후학들에게 전해질뿐인데, 만약 도학의 흐름을 잃고 필부까지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천하는 어두워 그 쫓을 바를 모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도통을 왕권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이이의 관점은 조선시대 오랜 기간 정권을 잡았던 서인계 서원의 이념적 표상이 되었다.

반면 경상우도의 서원을 주 근거지로 하는 남명학파의 교육철학은 강한 실천성을 강조하는 흐름과, 또 한편으로는 노장적 사유까지도 포섭하려는 초월적 세계관을 함께 꺼안고 있었다. 조식은 이황의 공부론이 리理를 매개로 하여 성리철학의 중심 화두인 본체론과 공부론을 결합하고자 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은 필연적으로 추상화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괴리는 조식의 표현을 빌리면 마치, '넓은 도회지의 큰 시장을 돌아다니면 금은이나 보배가 없는 것이 없으나, 하루종일 거리를 오르락내리락 그 값을 물어보아도 끝내 제 집의 물건이 되지 못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따라서 조식의 공부론에서는 이 과도한 이기론적 해석체계를 걷어내는 작업이 우선시 되었다. 조식과 그 문도들이 고경古經을 중심으로 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학문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들의 학풍이 예禮·악樂·사射·어御·서書·수數의 육예六藝를 중심으로 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학문을 중시하였던 것도 이러한 지적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조식에게 있어 공부론은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였다. 이러한 그들의 공부론이 바로 임진왜란 중 가장 왕성한 의병활동을 하게 된 철학적인 배경이 된 것이다. 그들에게 서원은 이와 같은 실천 철학을 가다듬는 교육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남명 조식을 주향으로 모시는 덕천서원의 외삼문. 경덕과 의義를 강조하는 남명 조식의 사상은 임진왜란 중 많은 의병장들을 배출하는 바탕이 되었다.



伊山院規

一。諸生讀書。以四書五經爲本原。小學家禮爲門戶。遵國家作養之方。守聖賢親切之訓。知萬善本具於我。信古道可踐於今。皆務爲躬行心得。明體適用之學。其諸史子集文章科舉之業。亦不可不爲之。旁務博通。然當知內外本末輕重緩急之序。常自激昂。莫令墜墮。自餘邪誕妖異淫僻之書。並不得入院近眼。以亂道惑志。

一。諸生立志堅苦。趨向正直業。以遠大自期。行



### 3. 서원의 강학활동과 교육문화

#### 3.1 서원의 원규院規와 학규學規

조선시대 서원의 원규와 학규는 주희의 「백록동규白鹿洞規」를 가장 기본적인 모델로 삼고, 이것을 조선사회에 가장 적합한 형식으로 새롭게 변형시킨 것이다. 그 중 이황은 「백록동규」의 근본을 오류로 파악하고 이것을 그의 「백록동규도白鹿洞規圖」에서 도식화하여 선명하게 드러내었다. 즉 서원 교육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오류를 근간으로 한 명륜明倫 교육이라는 것이다. 이황의 「이산원규伊山院規」나 이이의 「은병정사학규隱屏精舍學規」와 「문헌서원학규文憲書院學規」는 서원 교육에서 인륜을 환하게 밝힌다는 ‘명인륜明人倫’이 가장 중요한 도덕적 가치임을 선언한 것이다. 이황이 작성한 「이산원규」는 이후 영남을 중심으로 한 남인계 서원 원규의 전범으로 자리 잡았고, 이이의 「은병정사학규」는 기호지방을 주 근거지로 한 서인계 서원 원규의 표준이 되었다.

먼저 원규나 학규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원생의 자격을 논한 조목들이다. 초기에는, 주세붕이 지은 백운동서원의 원규를 따라, 원생들의 자격을 사마시(생원·진사시) 또는 사마시의 초시 입격자를 우선시 하도록 하였다. 향학열이 높고 조행이 있으나 초시입격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사문의 승인을 얻어 입학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였다. 초기 원생들의 수준을 이와 같이 규정함으로써, 서원을 중앙의 관학인 성균관에 준하는 향촌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백운동서원의 입원 자격이 성균관과 대등하게 제정된 것은, 당시 조정 관료들이 서원을 관학에 대신할 인재양성기구로서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유생의 입원 방식은 대개 춘추 향사일에 각각 한 명씩을 원장에게 천거하도록 하고, 만약 천거자가 없거나 천거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원장이 그 가부를



의결에 부처 결정하였다. 도동서원 『입원록入院錄』에 따르면, 입원은 薦薦 또는 공薦公薦의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대체로 천거하는 사람[薦主]은 원규의 규정대로 한 명이 일반적이었으나, 많은 경우에는 3-5명까지 나타난다. 이외 당중의 논의로 일괄 천거하는 경우도 있었다. 19세기에 가면서 취사제取士制를 거치지 않고 공의에 의해 직서하는 경우도 있었다. 옥산서원의 경우, 유생의 입록은 먼저 재주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경전 암송에 대한 평가考講를 마친 후 유생 명부에 기록하는 엄격한 과정을 거쳤다. 19세기 초반, 옥산서원의 유생 선발을 위한 평가 기록인 강안講案에는 『중용』·『대학』·『소학』·『가례』 등 네 과목의 평가가 기재되고 있다. 여타 서원과 마찬가지로 천주는 유생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함께 처벌하도록 하여 천거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다.

서원에서는 양반유생들뿐만 아니라 동몽이나 미성년자들을 위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산서원의 원규에서도 이들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허락하였으며, 「은병정사학규」처럼, 서원에 따라서는 양몽재라는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여 동몽을 교육시키고, 그 중 교육성도가 높은 자들을 뽑아 서원원생으로 올리는 교육순서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18세기 중반에는 중인, 서얼들의 입록이 별다른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른 중서층의 경제적 성장과 중앙 정부의 서얼허통 분위기 속에서 이들도 점차 전통적인 양반들의 서원 명부인 『원임록』이나 『입원록』에의 입록을 요구하게 되자, 소수서원에서는 모든 『입원록』의 첫머리에 “중인과 서얼들은 비록 대소과에 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참람되게 기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함으로써, 입원 자격에 있어서 이들에 대한 배타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면 남인계 서원의 표준이 된 『이산원규』의 특색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황은 서원 교육의 본령은 자기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고 성현의 길을 따라 가는 도덕적 삶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공부를 자기 자신의 참된 본성을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위기지학爲己之學’이라고 하였다. 이황은 『이산원규』에서 이러한 의미의 ‘위기지학’과 역사서와 제자백가서, 문장과 과거 글 등 세상사를 두루 알 수 있는 공부인 ‘치인지학治人之學’의 두 가지를 분별

하였다. 그는 내면으로 향하는 ‘위기지학’과 바깥으로 향하는 ‘치인지학’을 내외·경중·본말로 구분하여 설명하면서 내면 공부인 위기지학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황은 이산서원에서 공부할 교과목으로 “사서오경을 본원으로 하고, 『소학』과 『가례』를 문호로 삼는다.”고 함으로써, 과거 공부나 문장공부보다는 유교 경전을 통한 내면 공부를 서원 교육의 본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황은 또한 원생들에게 입지立志를 견고히 할 것을 요청하였다. 바른 길을 향할 것이며, 공부는 목표를 원대히 하고 행동은 도의로 최선을 삼도록 하였다. 이욕에 뜻을 두고, 성현을 무시하며, 경經을 어기고 도리를 저버리는 자는 과감하게 서원에서 내쫓도록 하였다. 또한 제생들과 유사는 서로 예절을 갖추어 접하며 공경과 신뢰로 대하도록 하였다. 서원에 소속된 사람들을 잘 보살피며, 그들에게 서원의 일이 아닌 사사로운 개인적인 일을 시키거나 사사로이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여 인간다운 도리를 배우도록 하였다.

한편 서인계 서원의 전범으로 자리잡은 이이의 「은병정사학규」는 그가 해주 海州 석담石潭에 은거하며 문인들을 가르쳤던 은병정사의 학규이다. 그는 학당을 좀 더 개방적으로 운영하여, 은병정사의 입학 기준으로 학문에 뜻이 있는 사람이면 사족士族과 서민들을 막론하고 모두 입학하도록 허락하였다. 다만 먼저 들어온 사람들의 공론이 허락하는 경우에만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만일 평소에 그 품행을 잘 모르는 자가 들어오기를 원하면 우선 가까운 마을이나 양정재養正齋, 혹은 산사山寺에 머물도록 하여 그 사람됨을 평가한 이후에야 입학을 허가하도록 하여 인재의 선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다.

그는 특히 서원 운영의 핵심이 되는 임원의 선발과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당장堂長, 유사有司, 직월直月의 선발과 운영, 그 권한을 명확하게 하여 서원이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제도화하였다. 예를 들어, 임원을 교체할 때에는 관련 장부를 인수인계하도록 하고, 사제師弟와 벗들의 강론한 말은 모두 직월이 맡아 기록하여 뒤에 참고할 자료로 삼도록 하였다. 동시에 학칙을 통하여 학생들의 하루 일과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통제하도록 하였다. 매일 5경 更의 기상부터 아침 묘정廟庭 배알, 상읍례, 식사, 거처 시의 한 동작 한 행동에도 엄격한 지침을 내리고, 학생들로 하여금 일상을 언제나 성실한 자세로



『한강선생속집』 권 4: 잡저 「도동서원원규」

살아갈 것을 주문하였다. 이처럼 은병정사 학생들의 삶은 마치 수도자들의 일상처럼 항상 스스로를 검속하고 규제하는 수도의 과정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심지어 직원은 학문을 강론한 내용 뿐 아니라, 평소 학생들의 선한 행실과 악한 행실을 기록하는 장부를 작성하여, 학규를 위반한 자가 있으면 매월 초하루에 스승에게 장부를 올려 평가 받도록 하고, 끝내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정사에서 축출하도록 하였다.

이황과 이이가 만든 이러한 서원원규나 학규는 조선시대 대부분의 서원들이 모범으로 삼았다. 이황의 「이산원규」는 후일 도산서원, 역동서원, 임고서원, 도동서원 등 대다수의 남인계 서원에서 가장 중요한 표준이자 지침이 되었다. 다만 각 서원은 나름대로의 시대적 요청과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그 원규에 변화를 주었다. 그 예로, 한강 정구가 작성한 현풍 도동서원의 원규는 기본적으로는 이황의 「이산원규」와 상당 부분 그 성격이 일치하지만, 서원관에 있어서는 구별되는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다. 우선 그는 서원의 향사보다 관학인 향교의 석전을 더욱 중요시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당시의 많은 선비들이 향교를 기피하고 멀리하면서 석전의식까지 소홀하게 취급하는 세태를 비판하였다. 그는 국가가 관리하는 향교의 석전의식이

당연히 사학인 서원의 제향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심지어 서원은 반드시 향사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다소 과격적인 생각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서원에 사당이 있는 것은 학도로 하여금 그곳에 모신 선현을 모범으로 삼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진정 서원의 다행스런 일이지만, 만일 받들어 모시기에 적합한 선현이 없을 경우에는 무리를 하면서까지 굳이 사당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하여 모든 서원이 일률적으로 향사처로 변해가고 있는 현상을 경계하였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서원의 향사가 정식화되었던 조선 후기의 일반적 상식과는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도동서원 원규에서 정구는 교육에서 스승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이를 의례로 정식화하고 있다. 스승에 대한 의례에 있어서도, 정구의 예학은 매우 현실적인 시의성과 적실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예의 실행도 일률적인 잣대에 의해 시행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상황을 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스승이 죽었을 때 일률적으로 심상心喪 3년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마땅히 서로간의 정이 얼마나 두터우며 배운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따라 조치해야 하지, 어찌 스승이라 하여 일률적으로 복제를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함으로써 예의 시의성과 상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가 작성한 도동서원의 원규도 이러한 예론의 연장선 위에서 이해할 수 있다. 도동원규에서는 또한 어린아이를 비롯하여 20세 이하의 학생들을 위해 별도의 양몽재養蒙齋를 두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황의 「이산원규」에서 “동몽은 글을 배우기 위해서나 부름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지도문志道門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과는 구별된다. 한편, 그가 장자, 열자, 노자, 석씨의 서책과 무사武事나 잡술을 익힌 사람들의 서원 출입을 규제한 것은 이황의 이단배척의 정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만년에 관직을 떠나 고향에 은거하면서 도동서원원규를 고을에 맞는 형태의 학규로 알맞게 고쳐 ‘통독약通讀約’이라는 이름으로 후생 교육의 지침으로 삼기도 하였다.

반면 이이의 학통을 계승하는 서인계 서원에서는 이이의 학규를 전범으로 하고, 이것을 각 시대와 환경에 맞게 고쳐 시행하였다. 도암陶菴 이재李穡(1680-1746)가 작성한 「충렬서원학규忠烈書院學規」, 「심곡서원학규深谷書院

學規」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 「심곡서원학규」는 총 18개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이 독서 차례·원임의 역할·강회에 관한 상별 규정·서원 운용과 재정 등 서원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많은 조항들이 담겨 있어 이이의 서원관에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서문에서 이 서원이 정암 조광조를 모신 서원이라는 사실을 환기하면서 『소학』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남계南溪 박세채朴世采(1631-1695)가 설립한 남계서당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는 소론의 영수로서 노론계 사람들과도 왕성한 접촉을 하였던 인물이자, 영, 정조대의 탕평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인 황극탕평설皇極蕩平說을 구체화한 인물이다. 「남계서당학규」는 기사환국(1689)으로 인하여 그가 향리로 돌아온 후 제정한 것으로, 남계서당은 후일 남계서원이 되었다. 이 학규는 이이의 「은병정사학규」와 「문헌서원학규」를 상당 부분 원용하고 있다. 서당 안에서의 예절과 행신에 관한 부분은 유사하나 유의할 만한 변화도 감지된다. 가령 입학 자격에 대하여 은병정사학규에서는 사족과 서류를 두루 입학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남계서당에서는 ‘현족미품顯族微品’이라고 하여 사실상 사족들로 그 신분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각각의 서원이 지닌 시대적 환경을 학규 속에 담아내고자 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 3.2 강회講會

조선 서원의 양대 기능은 제향기능과 강학기능이다. 일반적으로 종래의 연구에서는 초기서원의 교육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반면, 조선후기의 서원은 강학기능을 상실하고 제향기능만이 남아 있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조선 후기에도 많은 서원에서는 거접이나 강회와 같은 교육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연구들이 속속 제출되고 있다. 이때 ‘강회’란 특정 서원을 중심으로 다수의 인물들이 함께 모여 집단적인 학습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처음에는 정기적으로 한 자리에 모두 모여 정해진



책을 함께 강독하고 토론하는 공동학습의 형식을 취했으나, 후기로 가면서 부정기적으로 쟁점이 되는 학설이나 혹은 학문적 주제에 대해 집단 토론을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또한 순제나 백일장 같은 형식의 교육활동도 꾸준히 시행되고 있었다.

강회를 개최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는 유능한 강장講長 혹은 산장山長 등의 스승을 초빙하는 일이었다. 강회의 수준은 강장의 학문적인 능력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도산서원에서 행해진 강회를 예로 들자면, 을묘년(1795, 정조 19)에 시행된 을묘강회를 주도한 인물들은 당시 퇴계학과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던 인물들이다. 당시 강회를 이끌었던 산장 이귀서 李龜書는 이황의 후손이자, 그의 아들 이가순李家淳에 이어 증손자인 순국 절의의 인물 향산 이만도는 가학이 계승된 퇴계 학통의 중심인물이었다. 갑인년(1854, 철종 5)의 강회는 당대 유림사회의 가장 중핵적인 인물들인 고계古溪 이휘령李彙寧, 이효순李孝淳 등이 훈장으로 참여하였다. 양주 석실서원의 강장도 당대의 거유 김창협金昌協과 그의 동생인 김창흠金昌翕에 이어 그의 손자인 김원행金元行이 주도하면서 석실서원의 강회는 낙론洛論의 사상이 영그는 터전이 되었다.

강회는 대체로 이미 정해진 강법講法이나 강규講規, 그리고 강회의 의절儀節인 강의講儀에 따라, 엄정한 형식 속에서 진지하며 체계적으로 운영되었다. 대체로 강회의 첫째 날은 추천을 받아 강회를 주관할 집사들을 선출하였다. 이어 선출된 집사들을 중심으로 강회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의례인 정읍례庭揖禮를 행하였다. 잠시 1850년(철종 1) 청량정사淸凉精舍에서 거행되었던 청량강회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자.

훈장이 강당 가운데에 서고, 집사와 사정은 가운데 계단에 선다. 집례가 홀을 창하자 동, 서반수가 제생을 인솔하여 뜰 아래에 차례로 선다. 사정이 백록동규를 창한 뒤, 정읍례를 행한다. 동, 서반수가 각각 제생을 인도하여 예법에 맞게 인사를 나눈 뒤, 강당 가운데에 장식丈席을 마련한다. 진사 김헌운金憲運, 판사 이휘령, 참판 이효순, 진사 이은순李殷淳 등이 자리에 참석하였다.

清涼吾山堂講錄

庚戌三月二十六日戊午晴設講會于吾山堂會賓六百餘人  
訓長出座後薦出諸執事執禮幼學李在閤司正生負蔡周郁  
東班首幼學南有樞西班首幼學趙彥綱直日進士安行準幼  
學孫承德柳星鎮金重建金龍鎮進士高聖謙幼學洪煥五南  
萬星許禧訓長出就堂中楹立執禮司正立于中階執禮唱笏  
東西班首率諸生序立庭下司正唱白鹿洞規後行庭揖禮兩  
班首各率諸生折旋周旋行相揖禮畢設文席于中楹金進士  
憲運李判事彙寧李參判孝淳李進士殷淳參座○安行準進  
讀大學序文訖文席曰下大學之大字當以如字讀不可以太

이러한 강회 절차는 석실서원에서조차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김원행은 서원의 강회를 재개하면서 강생들에게 유시를 내리고 강규와 학규를 마련하였다. 석실서원의 강회는 매달 16일 개최되었으며, 읽을 책의 범위 배정-임강臨講 및 배강背講-의문처에 관한 질문[疑目上達] 및 토론-「백록동규」와 「학교모범」 낭독-파강罷講의 순서로 이루어졌고, 매 강회 후 강회록을 만들어 원장에게 보냈다.

강회가 지니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특정 주제와 교재를 선택하여 집중적인 논의와 토론 과정을 거친다는 점이다. 1787년(정조 11) 역동서원에서 거행된 『심경心經』 강회에는 퇴계학을 계승하고자 하는 학문적 고민이 오롯이 녹아 있다. 반면, 1850년(철종 1)의 청량강회는 가장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형식의 강회였다. 이 강회에서는 『대학』 해석을 통해 ‘본성의 회복’이라는 퇴계학의 공부론을 강조하는 해석과, 기질의 변화를 강조하는 율곡 이이 방식의 공부법에 대한 객관적인 토론과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석실서원의 강회는 당시 호락논쟁에서 서울지역 노론들의 사상적 주류를 낙론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서울 경기지역의 문풍과 미술계에도 파급되어 진경문화를 이루는 기틀로 작용하였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조선후기 학문의 계승과 학파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서원의 강회를 운영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경비 부담이었다. 조선후기의 학자 응와凝窩 이원조李源祚는 모처럼 개설한 강회에 100여 명이나 참여하였으나 사람은 많고 비용이 많이 들어 어쩔 수 없이 하루만에 강회를 끝내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자세히 변론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한스러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에 따르면, 당시 형편이 좋은 서원들은 강학소 등을 마련하고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서원들은 다양한 방법을 택했다. 뜻을 같이 하는 유생들이 학계學契를 맺고 돈을 모아 강회를 열기도 하고, 경상도 초계의 서원들은 돌아가면서 강회를 개설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후기 대부분의 서원은 강회의 시행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삭망의 강회를 마련하기도 하고, 수령의 경제적 도움과 협조를 얻어 강회를 개설하기도 하였으며, 원임들이 수십 년간 자금을 모아 강회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소산小山 이광정李光靖(1714-1789)은 “본원의 물력이 뺄뺄 말라 시들어 가고,

미처 권학을 할 여가가 없게된 지 100년이 되었다. 지난번에 수령 윤광소가 내려 준 심학전과 별고전 약간을 당숙이 수년간 경영하여 거접을 열 단서를 마련하였다. 문회文會를 한 번 열 것을 모의하여 옛 분들의 공부 방법을 강의하기로 하고, 7월 17일에 모임을 약속하였다. 원근의 노소 5, 60인과 더불어 태극도太極圖를 강의하였다. 지금처럼 10일도 안 되는 강의로 어찌 학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을 바라겠는가.”라고 하면서, 역시 어렵게 자금을 마련하여 고작 열흘간의 강회를 열게 된 조선후기 노림서원魯林書院의 경제적 실상을 묘사하고 있다. 이는 서원의 강회를 열기 위하여 수령의 조력을 받기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식리殖利를 하여 겨우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던 노림서원의 처간의 사정을 잘 보여준다. 정읍 고암서원에서도 원임이 자금을 마련하고 주변의 수령들이 돈을 내어 존덕당이라는 강당을 만들기도 하였으며, 안동 서간사에서는 수령의 도움을 얻어 향교수리비 남은 것과 원납을 받아 강학소를 만들 정도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의 서원들은 강학기능을 살리고자 다양한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 3.3 거접居接

앞에서 살펴본 강회 외에도, 조선시대 서원에는 ‘거접居接’이라는 매우 독특한 공부방법이 있었다. 이때 ‘접接’이란 원래 ‘무리’라는 뜻이다. 무리를 지어 함께 기숙하면서 학문 활동을 하거나, 혹은 과거 준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일정 기간 함께 기숙하며 행하는 ‘그룹 스터디’와 같다. 함께 모여 공부를 함으로써 학습의 집중도를 높이고, 원생들 사이에 선의의 경쟁력을 북돋아주고자 한 것이다. 이 거접의 유래는 명확하지 않으나, 다만 고려시대 최충의 문헌공도에서 시작되어 나중에는 12도 전체가 매년 여름 찌는 듯한 더위를 피해 조용하고 청량한 산사를 찾아 서로 글재주를 겨루던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원의 거접은 주로 과거준비를 위하여, 늦봄이나 초여름 혹은 늦여름이나 초가을 사이에 시행되었으며, 서원

외에 서당이나 관학인 향교에서도 널리 행해진 학습방법이었다.

이 거접은 상당히 까다로운 의례와 절차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원생들이 거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가다듬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한 교육적 배려로, 훈장이나 여러 원생들 상호간의 엄격한 집례를 요구하였다. 거접의 의식은 서원의 일반적인 강회절목講會節目, 학령學令 혹은 학규學規와 커다란 차이점을 보여 주지는 않는다. 거접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해하기 위하여 「유생거접의식」의 일부를 살펴보자.

· 선비들이 모인 익일 아침 일찍, 훈장은 의관을 갖추고 명륜당에 자리하여 좌정한다. 제생은 나이에 따라 의관을 갖추고, 훈장에게 예를 표한 후 나아가 좌정한다. 배알을 마친 후 좌우로 나누어 공손하게 서서 상읍례를 행한다. 예를 마친 후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강독할 책이나 경전 혹은 사서, 또는 정자나 주자의 책, 고문 등의 책을 갖고 차차로 훈장에게 나아가서 예에 따라 앉아 책 한 편과 글 일 편을 읽는다. 오후가 되면 거재居齋하는 방에 돌아와 읽을 분량을 정하고 야삼정에 이르기까지 숙독을 하고 잠자리에 든다. 만약 의심스러운 곳이 있으면 별책에 적어 놓았다가 다음 날 질의한다.

· 여러 선비 중에 혹 떠돌아다니면서 공부는 하지않고 실없는 말로 농지거리나 하고 서로 다투는 자 등은 접접의 유사가 훈장에게 고하여 경중에 따라 벌을 준다. 세 번 벌을 받고도 이를 뉘우치지 않는 자는 쫓아낸다. 또한 읍내와 다른 장소를 출입하면서 일과를 폐하는 자는 앞서와 같이 벌책한다.

· 조정의 득실과, 수령의 현명한가의 여부나 타인의 장단을 망령되이 논하지 말고, 시정의 온갖 잡된 이야기와 실없는 이야기, 무익한 이야기로 공부를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이 밖에도 「유생거점의식」은 선비로서 지녀야 할 평소의 자세와 태도라든지, 원생들 간의 교제 등 선비의 예법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는 거점을 통해 획득하고자 했던 서원 교육의 주요한 목적이, 경전 속의 지식 뿐 아니라 선비로서의 예법과 의식을 익히는 것에도 있었음을 알려 준다.

거점 기간 동안 학습하는 내용은 경서나 정주程朱서 등으로 그 수준이 매우 높았다. 거점생의 자격 및 교육정도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 약간의 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과거 공부를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소수서원의 경우, 16세기 거점유생들은 시부詩賦, 의의疑義, 책문策文 등 거점에서 주로 과거 위주의 시험과목들을 공부하였다. 이때 시험 문제의 출제는 대체로 본관 수령이나 지방관이 담당하였고, 지방관은 시험 문제를 내면서 으레 각종 음식과 술, 안주 등을 함께 보내 유생들을 격려하였다.

과거 시험이 있는 해에는 ‘대동접大同接’이라고 하여 많은 인원들이 참가하여 그 우열을 가리고 마지막 날에는 대체로 백일장을 거행하였다. 또 거점 마지막 날인 파접罷接 날에는 수령이나 지방관이 직접 참여하여 직접 강독을 하거나 주연을 베풀어 파접례罷接禮를 주도하였다. 소수서원의 경우, 거점 원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이를 통해 상당수의 인물들이 과거에 합격하자 전국에서 상당수의 인물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17세기 초 원장을 담당하였던 광진은 “멀리서 찾아오는 제생들이 전보다 더 많아져 서재 문 앞에 신발이 늘 가득하고 글 읽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대부분의 거점생들이 순수한 학문 활동보다는 과거공부에 매진한다는 사실이었다. 말하자면 성인이 되기 위한 ‘경敬’ 공부의 실현처였던 서원이 차츰 과거 공부의 산실로 변질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황도 거점이나 강회 등의 집단적인 학술활동을 매우 효과적인 공부 방법으로 인식하였던 것 같다. 그는 영천 하과소夏課所에 있는 이준에게 편지를 보내 집에서 학업에 충실할 것과 유익한 벗들을 따라 더욱 매진할 것, 그리고 안동 도회에 참석하는지 등을 질문하는 자상한 모습을 보여 준다. 그리고 아직도 과거 시험이 많이 남았는데 너무 일찍 파접한 것을 나무라기도 한다. 이황 역시 과거 공부를 위해서는 거점과 같은 집단 학습활동이 매우 효과적

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가까운 친족들에게는 이 방법을 적극 권하기도 하였다.

도산서원에서도 거접과 강회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들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1596년(선조 29) 1월 도산서원의 거접에서 작성된 「용하기用下記」가 있다. 이때 목면 3필로 『예설』 7권을, 목면 5필로 『시서언해詩書諺解』 12권을, 목면 3필로 『여문정선儼文程選』 6권을 매득하였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그러나 지금 남아 있는 「역동서원학규」의 원본에는 “천곡서원과 도동서원 원규의 예에 따라 거접과 향교거접에 대한 지원은 불허한다.”는 문장이 보이는데 언제부터 왜 거접을 불허하였는지 좀 더 검토를 요하는 부분이다. 이 시기 역동서원은 사실상 도산서원 측에 의해 운영되었음을 감안할 때, 도산서원도 거접에 대하여 같은 규제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추측건대 도산서원 내에서 다수의 원생들이 거접을 행하는 것은 서원의 품격을 훼손한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 지금 남아 있는 도산서원의 강회에 관한 기록도 서원 경내에서보다는 외부의 시설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사실로 볼 때 이러한 추측이 가능하다.



필암서원 장판각 소장 목판들

## 4. 서원의 교과목과 스승

### 4.1 서원의 교육과정

서원의 교육과정은 16세기에는 대개 『소학小學』을 기초로 하여, 사서오경의 중국 경전과 역사서, 성리서, 문집 등을 기본으로 하고 노장이나 불교의 이단 잡서는 엄격히 금하였다. 그 후 17-18세기에 이르러 이황의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 이이의 『성학집요聖學輯要』, 그 외에 조선 학자들의 문집 등이 포함되기 시작하다가, 18-19세기에 이르면 조선 선현들의 저서에 그치지 않고 도암 이재의 『서사운송書社輪誦』, 화서학과의 『화서선생아언華西先生雅言』, 『서사아송書社雅頌』 등 아예 당대 학자들에 의해 강학 교재가 자체적으로 편찬되기에 이른다. 참고로 순암 안정복이 이상적인 독서 순서로 제시한 정단례程端禮의 독서분년법讀書分年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단례의 독서 분년법

8세	성리자훈
-15세	소학, 대학, 논어, 맹자, 중용, 효경, 역경, 서경, 시경, 의례, 예기, 주례, 춘추(공양·곡량·좌씨)삼전의 정문
-20세	대학장구혹문, 논어집주, 맹자집주, 중용장구혹문, 논맹혹문집주, 역, 서, 시, 예기, 춘추 사서 : 통감, 강목, 한문, 초사
21세	작문, 경문, 경의, 고부, 고체, 제조장표, 사록장표

이 독서분년법에 따르면, 8세에 이미 성리학을 학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훈을 마치도록 되어 있다. 15세까지 사서오경 및 춘추의 정문正文을 공부하고, 20세까지는 유학에 대한 철학적 이해와 비판까지 섭렵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틀을 근거로 하여 조선시대의 학자들은 우리 실정에 맞는 독서 순서를 제시하고자 하였고, 이들 독서순은 서원 교육에도 반영되어

일정한 지침이 되었다. 이때 조선 학자들이 제시한 독서 순서는 연령보다는 난이도가 그 기준이 되었다. 조선시대 각 시기 대표적인 학자들을 통해 그들의 독서법을 살펴보고자 하자.

조선시대 유생들의 독서 순서

율곡 이이	성호 이익	순암 안정복		하려 황덕길
소학小學	논어論語	선독先讀	소학小學	소학小學
대학大學	맹자孟子		대학검혹문大學兼或問	대학大學
논어論語	시전詩傳		논어검혹문論語兼或問	논어論語
맹자孟子	서전書傳		맹자검혹문孟子兼或問	맹자孟子
중용中庸	주역周易	중용검혹문中庸兼或問		중용中庸
시전詩傳	춘추春秋	근사록近思錄		근사록近思錄
예기禮記	제사諸史	가례家禮		심경心經
서전書傳	효경孝經	심경心經		가례家禮
주역周易	예기禮記	<div>시전詩傳</div> <div>서전書傳</div> <div>주역검계몽周易兼啓蒙</div> <div>춘추검삼전春秋兼三傳</div> <div>예기검의례禮記兼儀禮</div> <div>이정전서二程全書</div> <div>주자대전朱子大全</div> <div>이락연원록伊洛淵源錄</div> <div>성리대전性理大全</div> <div>강목류綱目流</div> <div>자치통감資治通鑑</div> <div>역대정사歷代正史</div> <div>동국제사東國諸史</div>		서전書傳
춘추春秋	주례周禮			시전詩傳
근사록近思錄	춘추주설春秋註說			주역周易
가례家禮	정주문학程朱文學			예기禮記
심경心經	퇴계집退溪集			춘추春秋
이정전서二程全書	본국사本國史			이정전서二程全書
주자대전朱子大全				주자대전朱子大全
성리대전性理大全				이락연원록伊洛淵源錄
강목綱目				성리대전性理大全
자치통감資治通鑑				강목綱目
역대정사歷代正史				자치통감資治通鑑
동국제사東國諸史				동국제사東國諸史
				초사등楚辭等

위의 이이, 이익, 안정복 및 그의 제자인 황덕길이 제시한 독서 순서는 커다란 차이가 없다. 황덕길의 구분법에 따르면, 『소학』에서 『가례』까지는 ‘근본을 바르게 하는 단계’이고 『서전』에서 『성리대전』까지는 ‘용用을 다하는 단계’이며, 강목에서 초사에 이르기까지는 ‘변통의 단계’이다. 이러한 경향을 볼 때, 조선의 선비들은 학도들이 우선 사서와 『심경』, 『근사록』 등을 통해 철학적 기초를 다지고, 이어 그것에 대한 해석과 비판의 과정을 거치며, 마지막으로 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역사를 평가하는 단계로 진전되기를 원했다.



이와 같은 구상이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었는가를 살피기 위해 임의로 4인을 추출하여 각 시대별로 관동기에 받은 실제 교육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시대별 교재내용

구분 연령	16C 낙재 서사원	17C 반계 유형원	18C 다산 정약용	19C 강재 이승희
3세			천자문 학습	
4세	문자학습			
5세	문자학습	취학	가정에서 수학 오언시 창작	해자
6세	문자학습			
7세	문자학습	우공		
8세	연구聯句 속문		삼미집 저술	
9세				
10세		속문 경전	경사 수학	여러 책을 박람
11세	소학 학습			
12세				
13세			두시杜詩	
14세				
15세			결혼 성호유고	경과 동당시
16세				
17세	심경 학습		공령각체	심경
18세				
19세			이과시	상주
20세				
21세			성균관	
22세				

이들이 밟았던 학습 순서는 앞서 이이 등이 제시했던 독서 순서와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초창기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중국 성리학의 계승에서 17-18세기의 ‘퇴율학파에 의한 조선 성리학의 계승’, 18-19세기 ‘분화된 학파의 계승’으로 전환되는 조선후기 서원 교육의 성격 변화를 나타내며, 서원 교육이 조선 성리학의 독자적 학문체계 수립에 어떻게 기여해왔는지를 잘 보여준다.

한편 근대교육과 가장 차별화되는 서원의 교수법으로는 개별학습과 공동



소수서원 경림정. 서원은 서책을 통한 공부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서 삶의 이치를 깨우치도록 설계되었다.

학습의 병행을 들 수 있다. 개별학습과 공동학습의 병행은 독서와 강회라는 두 가지 다른 방식의 교육에 의해 시행되었다. 독서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강제로 부과하는 근대교육과 달리, 개인별 수준과 연령에 따라 교재와 진도, 평가방식까지 달리 하며, 자발적으로 수행되는 철저한 개별학습 과정이었다. 또한 개별 독서에 대한 평가는 보통 월 1회 실시하여 해당 학습량을 성취하지 못한 경우 다음 달에 다시 평가하여 반드시 통과한 뒤에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하였다. 평가 방식에서도 학습능력과 암송 능력이 충분한 나이 어린 유생들에게는 교재를 보지 않고 암송背誦하게 하고, 나이 많은 학습자에게는 교재를 보고 강독臨講하게 함으로써 역시 획일적인 평가가 아닌, 연령을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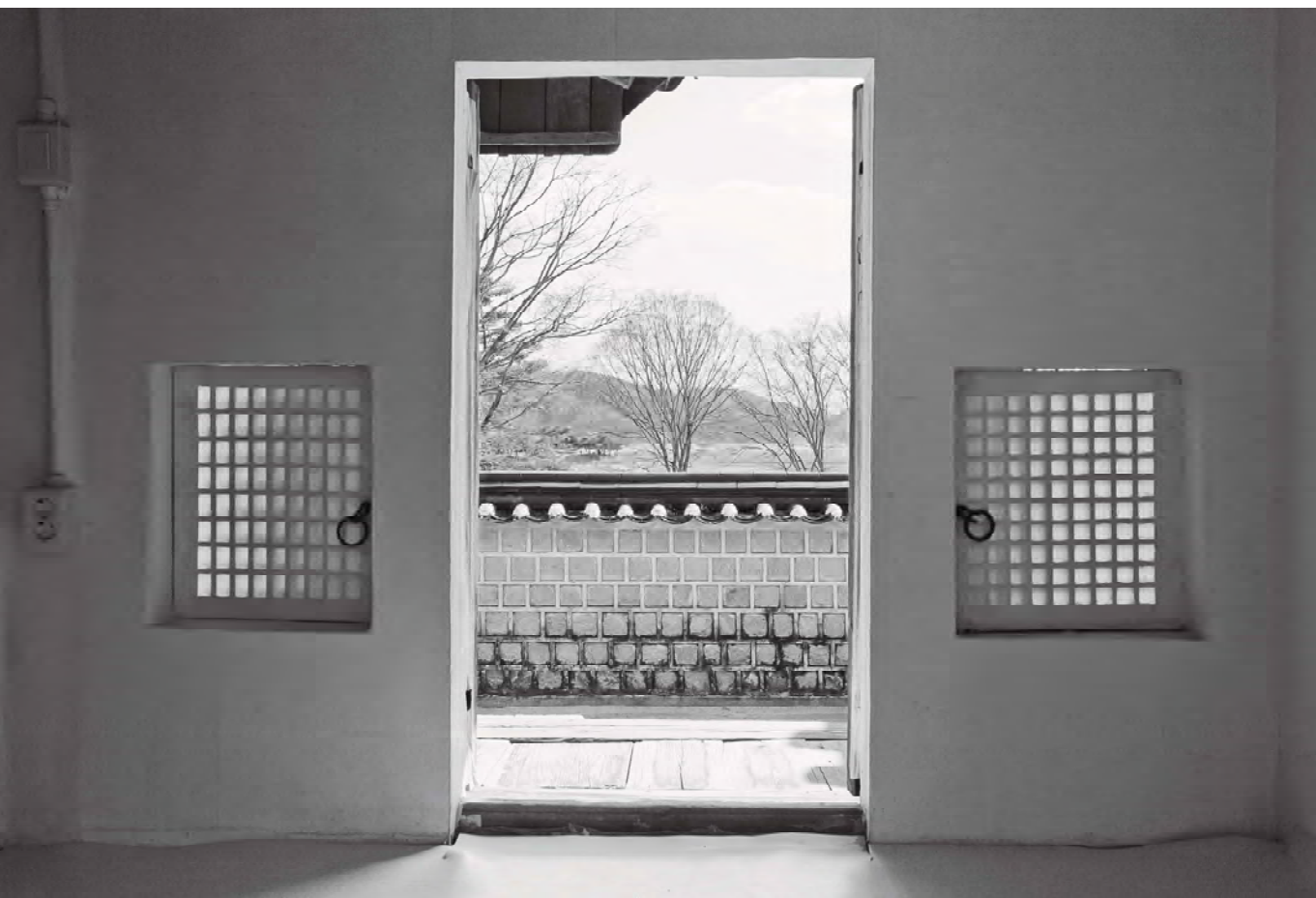
그 외, 서원 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기능이자 공간이 바로 정자, 누각, 연못 등으로 이루어진 여가餘暇와 유식遊息 공간이다. 유학에서 교육이란, 단순히 경전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성정性情까지 닦고 기르는 공부로, 시위를 팽팽이 당기는 '장수藏修'의 과정 뿐 아니라 시위를 풀어내는 '유식'의 과정 역시 포함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주세붕이 지은 소수서원의 경림정과 이황이 조성한 취한대, 그리고 병산서원의 그 유명한 만대루 등은 모두 유학의 철저한 교육적 기획 아래 조성된 서원의 유식 공간이자 교육 공간이었다.

## 4.2 서원문화의 꽃, 스승과 제자와의 만남

서원 교육에서 지향하는 성인의 길은 멀고 아득하다. 따라서 제자들에게는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설 수 있고, 정신적인 귀감으로 삼을 수 있는 표적이 필요하였다. 서원에서의 스승이 곧 그들이다. 산장山長, 사장師長, 혹은 동주洞主 등의 이름으로 불려진 이들 스승들은 제자들에게 학문의 단계를 깨우쳐 주고 길을 열어 주는 사람이었다. 흔히 서원에서의 스승을 매우 권위적이고 고답적인 인간 유형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편견이다. 잘 알려진 한유韓愈(768-824)의 「사설師說」에 의하면, 스승의 역할은 '도道を 전하고 업業을 전하며 의혹을 풀어 주는' 사람이다. 그 중에서 특히 도를

전하는 것을 스승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인식되었다. 지식을 축적하는 초학의 단계에서 스승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일방적인 훈육을 담당하지만, 도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단계에서 스승은 ‘직절법문直切法門’하여 주는 선각자일 뿐이다. 스승은 제자가 그의 길을 스스로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일 뿐이다. 이황은 스승을 산 속의 웅달샘과 같은 존재로 비유하였다. 즉 스승은 마치 산 속의 샘터와 같아, 제자들이 각자 자기의 분량만큼 물을 마시고 떠나가는 터전으로 비유된다. 따라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동도同道’의 길에서 서로의 완성을 도와주는 상보적인 관계인 것이다.

서원에서 스승은 제자들에게 글을 가르칠 때에는 각자의 능력에 맞추어 교육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반드시 마음을 집중하고 깊이 사색함으로써, 공부한 것이 마음 속 깊이 체인되어 행동으로 드러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사제 간의 관계를 통해서 조선의 선비문화는 활짝 꽃을 피우고 사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었다. 이황과 조식 그리고 이이의 문하에서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었던 것은 학문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진지함 이외에는 그 어떤 욕망도 개입되지 않았던 사제 간의 인격적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봉 기대승은 스승 이황의 은혜를 “마치 부모나 천지의 은혜와 같다.”고 하였고, 이황 역시 고봉을 동방의 꿇어진 학문을 이을 수 있는 ‘통유通儒’라고 하여 그를 제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외우畏友이자 지기知己’로서 대우하였다. 이렇게 서원에서의 교육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품격 높은 선비 문화의 한 전형을 보여준다. 서원의 교육에는 깊이 있는 철학에서 우러나는 향기가 난다. 서원 교육에서의 공부론은 유한한 현실의 세계, 역사의 세계를 넘어서는 참다운 정신의 세계, 진리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인간적인 욕망이나 개인적인 사욕만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아름다운 진리의 세계가 존재함을 서원 교육은 그들의 공부론을 통해 말해주고 있다. 또한 우리는 서원 교육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교육에서 상실된 소중한 가치들을 새롭게 들여다 볼 수 있다. 사제 간의 전인격적 만남, 그것을 통한 정신의 성숙 등은 교육의 본래적 의미를 되새겨 준다. 이제 우리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산수 속에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물아일체의 정신적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서원 교육의 옛 유산을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이다.



도산서원 시습재에서 바라보는 자연경관





도산서원, 조선 성리학이 철학적 깊이를 갖게되는 주요한 공간이었다.













『근사록近思錄』



## 1. 한국 성리학의 변천

### 1.1 주자성리학 도입과 발달

당唐에서 송宋으로 넘어오면서 유학은 훈고학訓詁學에서 신유학新儒學으로 변화하게 된다. 한·당의 훈고학은 5경經에서 9경經 중심으로 훈고를 하면서 『논어論語』·『효경孝經』을 기본으로 공자孔子의 효제孝悌를 중심으로 하던 유학사상이다. 그러나 신유학은 요堯·순舜·우禹·탕湯·문왕文王·무왕武王·주공周公·공자孔子·맹자孟子로 도통道統을 확립하면서, 『맹자』를 경전經傳으로 넣고, 인의仁義를 강조하면서 『맹자』에 나오는 성선설性善說·정전제井田制·왕도정치론王道政治論을 중심으로 하는 유학사상이다.

이러한 신유학은 정자程子·주자朱子가 『예기禮記』에서 『중용中庸』과 『대학大學』을 독립시켜 『대학』을 대표적인 중심 경전으로 만들면서 주자성리학朱子性理學을 확립한다. 『대학』·『중용』·『논어』·『맹자』라는 사서四書 중심의 유학을 성립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주자성리학을 고려 충렬왕 대에 안향安珦(1243-1306)이 처음 들여오고, 충선왕忠宣王이 원元나라의 수도에 만권당萬卷堂을 설치하여 중국 주자성리학자와 고려의 성리학자들을 교류하게 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이를 대표하는 학자가 안향安珦·백이정白頤正이며, 이제현李齊賢·이색李穡·권근權近·정몽주鄭夢周로 이어진다.

이러한 주자성리학자들이 조선을 건국하고, 세종대에 집현전集賢殿을 중심으로 주자성리학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주자성리학은 세종·성종대에 모든 문물제도를 정비하는 이념이 되었다. 우선 세종은 주자성리학의 교과서인 『대학연의大學衍義』를 경연經筵에서 공부하여 왕도정치王道政治를 지향하였고, 정전제井田制를 전분田分 6등·연분年分 9등이라는 조선전기에 맞는 정전제인 공법貢法으로 변화하여 시행하였다. 그리고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등을 만들어 조선전기 사회를 주자성리학에서 추구하는 이상사회를 이루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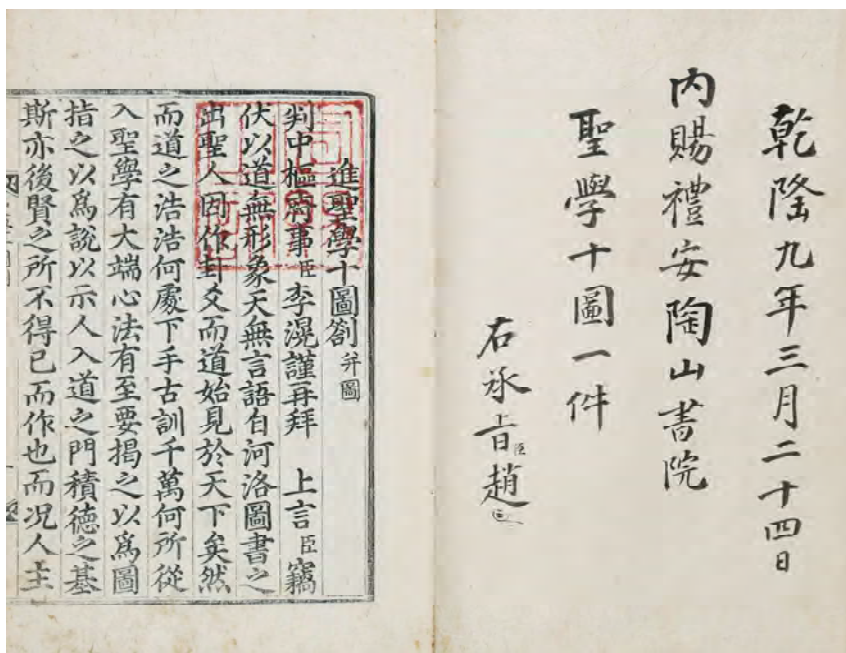
## 1.2 성리학의 심학화와 조선성리학 성립

주자성리학이 나온 지 300여 년 지나면서 주자성리학이 더 이상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를 주도해나가지 못하자 새로운 이념이 필요해졌다.

이를 주도하는 사상이 심학화心學化된 성리학이었다. 1455년(단종 3)에 태어난 정민정程敏政이 『심경부주心經附註』를 지어 심학화된 성리학으로의 변화의 단초를 열었다. 이를 명나라에서는 양명陽明 왕수인王守仁(1472-1528)이 양명성리학을 체계화하면서 성리학의 심학화를 촉진시켰다.

조선에서도 김굉필金宏弼(1454-1504)이 심학心學을 열어갔다. 이를 조광조趙光祖(1482-1519)가 본격적으로 수용해갔고, 이황李滉(1501-1570)이 『성학

도산서원에 내사된 『성학십도聖學十圖』(1744년)



십도聖學十圖』·『심경후론心經後論』을 지으면서 심학은 체계를 잡아갔다. 이러한 와중에 사단칠정四端七情·인심도심人心道心 논쟁이라는 심성心性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이이李珥(1536-1584)는 이와 관련 『성학집요聖學輯要』를 지어 자신의 논리를 완성한다.

### 1.3 조선성리학의 분화

이렇게 사단칠정·인심도심 논쟁이라는 심성논쟁을 거치면서 이리와 기氣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학파와 정파가 나뉘어진다.

남명학파인 북인은 유기론唯氣論을 주장하여 법칙인 이리가 모두 기氣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 ‘절대불변의 이리 즉, 법칙은 없다’고 보게 된다. 다음으로 남인인 퇴계학파는 ‘이발기수지理發氣隨之’, ‘기발이승지氣發理乘之’를 주장하여 기氣가 발發하는 것처럼 이리도 발한다고 인식하여 이리가 어느 경우에는 변한다고 보아 ‘절대불변의 이리 즉, 법칙은 없다’고 본다. 다음으로 주로 양명학을 받아들인 소론계통은 ‘심즉리心卽理’ 즉, 마음이 곧 이리라고 보아 이리의 상대성을 설정하여 주관적이 된다.

이에 반해 율곡학파인 노론은 ‘이발기수지’를 부정하고 ‘기발이승지’만을 인정하여 이리의 절대불변을 주장하게 된다. 이이에 이어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1548-1631)이 『가례집람家禮輯覽』을 짓고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1607-1689)이 주자朱子 연구를 완성하면서 심학心學에 입각한 조선성리학으로 집대성되었다.

17세기에 들어서면 이이 계통을 잇는 김장생·송시열·송준길宋浚吉(1606-1672)·이유태李惟泰(1607-1684)·유계兪榮(1607-1664) 등이 나와 이이李珥(1536-1584)의 기발이승지설氣發理乘之說에 입각한 조선성리학朝鮮性理學의 이해를 진전시켜 이리의 보편성을 현실에 맞게 정립하여 가려는 노력을 한다.

이는 산림山林이 경연經筵 정치를 주도하면서 왕도정치王道政治를 시행해가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세田稅·공물貢物·요역徭役·군역軍役 모두를 합해서

10분의 1세를 내는 정전제井田制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대동법大同法·균역법均役法을 시행해가며 대동사회大同社會를 추구해갔다.

이와는 달리 우계牛溪 성혼成渾(1535-1598)의 계통을 잇는 장유張維(1587-1638)·최명길崔鳴吉(1586-1647)·윤선거尹宣舉(1610-1669)·박세당朴世堂(1629-1703)·최석정崔錫鼎(1646-1715)으로 이어지는 소론계통의 학자들은 현실에 맞는 보편성을 추구해가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는 ‘기발이승지설’을 따르지만 여기에 ‘심즉리心卽理’를 주장하는 양명학陽明學을 수용하여 기氣 중심 쪽의 성리철학의 진전을 거슬러 심心 중심의 관념적인 성리철학으로 나아가게 된다.

소론의 성리철학은 장유·최명길의 이기관理氣觀이나 박세당의 이기관에서 여실히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소론계통의 학문경향은 뒤에 정제두鄭齊斗(1649-1736) 등으로 이어나가 조선의 양명학파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소론의 양명학도 기본적으로는 ‘기발이승지설’이라는 조선성리학을 바탕으로 하는 조선화된 ‘조선양명학朝鮮陽明學’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정제두의 이기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이와 성혼 계통의 ‘기발이승지설’을 기반으로 한 성리철학과는 달리 이황의 ‘이발기수지理發氣隨之’, ‘기발이승지氣發理乘之’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주장하는 퇴계계통을 잇는다고 표방하는 정경세鄭經世(1563-1633)·장현광張顯光(1554-1637) 등의 학자들은 더 이상의 이론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퇴계설을 묵수墨守하는데 그치거나 ‘이발기수지’의 이리를 기氣의 개념으로 전화시켜가며 시대 변화에 대처하여가고 있었다.

그리고 처음에는 남명南冥 조식曹植(1501-1572)의 유기설唯氣說을 따르던 정구鄭逵(1543-1620)·허목許穆(1595-1682) 계통의 기호 남인계통이 퇴계설을 표방하며 퇴계학파의 주류로 등장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조식의 유기설을 이어받아 비순정성리학자로 지칭되는 소북계의 윤휴尹鑰(1617-1680) 등이 유기론을 성리철학으로 표현하며 하나의 학파를 형성하고 있었다. 허목과 윤휴의 이기관을 살펴보면, 남명 조식의 유기설의 성격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학파간의 갈등이 표면적으로는 예송禮訟으로 나타나지만 내적으로는

성리철학의 이해에 대한 차이로 나타나 논의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논쟁은 사문난적(斯文亂賊) 시비로도 비화되고 있었다.

각 학파간의 성리철학의 차이는 경학에 대한 입장에서도 차이가 나서 비록 모두 성리철학에 입각하여 경전(經典)을 해석하는데는 일치하지만, 주자주를 통해 경전을 해석하려는 수주자학파(守朱子學派)와 주자주를 무시하고 경전을 해석하려는 탈주자학파(脫朱子學派)로 대별되고 있었다. 수주자학파는 경전의 해석을 주자 해석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면서 이해를 심화시키고 있었다면, 탈주자학파는 주자 해석을 탈피하여 자신 나름대로의 해석을 시도하여 성리철학을 체계적으로 인식하는데 많은 혼란을 자아내고 있었다.



## 2. 조선성리학의 지방확산과 서원

서원은 사림의 강학講學처이며 장수藏修처로 인재를 양성하던 곳이었다. 주자성리학이 주도하던 중국의 경우는 강학이 보다 중시되었지만, 심학心學에 입각한 조선성리학이 주도해가는 우리나라는 수기修己를 통해 덕성德性을 함양한다는 장수가 더 강조되었다.

교사의 강의에 의한 타율적인 학습보다는 봉우朋友 강습講習이라 하여 유생들 스스로의 독서와 상호간의 토론 논변을 장려하고, 궁행躬行 심득心得, 천리踐履 독실篤實이라 하여, 여기서 터득한 바로써 마음을 닦고 몸소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마음을 닦고 실천에 옮기는 공부를 하는데는 모범이 되는 스승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선비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이 되는 스승을 제향祭享하는 기능을 함께 가지게 되었다. 학문이 현저한 유현儒賢으로서 사문斯文에 공이 있는 사람으로, 대개는 사림의 종사宗師가 될 만할 산림山林을 봉안奉安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조선시대 서원이 학행學行 일치를 기본으로 하여, 하나의 학파를 이

백운동 현판



루고 이러한 학파가 봉당朋黨을 이루게 되니, 조선시대 서원은 단순히 교육을 위한 학교에만 머물지 않고 당시의 사회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사림의 근거지요 활동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이점에서 강학이 중심이던 중국의 서원이 대체로 관학보조기구로서 학교라는 성격에 충실하였던 것과 대비된다.

서원 건립의 추세를 보면, 사림이 정계를 주도하며 봉당정치를 성립시키는 중종에서 선조까지의 성립기, 봉당정치가 발전하는 인조에서 현종에 이르는 시기의 발전기發展期, 봉당정치에 따른 환국이 이루어지는 숙종에서 경종까지의 치폐기置廢期, 그리고 노론이 주도하며 탕평정치를 이루는 영조에서 정조까지의 완성기, 세도정치가 주도하는 순조대 이후의 남설기濫設期 및 쇠퇴기衰退期 등의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 2.1 조선성리학의 성립과 서원 성립

성리학의 핵심인 삼강三綱을 부정하고 왕위를 찬탈한 세조찬탈을 비판하며, 단종을 애도하는 조의제문을 짓고, 단종 어머니 문종비 복위를 요청하는 소릉복위를 주장하던 김종직金宗直(1431-1492), 김굉필金宏弼(1454-1504), 김일손金駟孫(1464-1498) 등의 사람들이 연산군대 무오, 갑자사화로 사화를 당하고, 중종반정(1506)이 일어나자 이를 만회하려던 조광조趙光祖(1482-1519) 등 기묘 명현 등이 기묘사화를 당하자, 성리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윤리는 땅에 떨어지고, 이를 가르쳐 실천에 옮겨야 할 관학은 과거시험 공부 장으로 화하게 되니, 사회를 이끌어갈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성리학의 윤리를 실천할 사람을 기를 사학私學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주세붕周世鵬(1495-1554)은 1541년(중종 36) 풍기군수로 부임하여 이곳 출신의 유학자인 안향安珦(1243-1306)을 모시는 문성공묘文成公廟를 세워 배향해오다가 1543년(중종 38)에는 유생 교육을 겸비한 백운동서원을 최초로 건립하였다.

또한 영남감사嶺南監司의 물질적 지원과 지방 유지의 도움으로 서적과 학전

學田을 구입하고 노비 및 원속院屬을 확충하는 등 그 영속화를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는 이를 기초로 유생을 교육하여 여러 명의 급제자를 내게 하는 등 서원체제를 갖추는 데 노력하였다. 그러나 백운동서원은 어디까지나 사묘祠廟가 위주였고, 서원은 다만 유생이 공부하는 건물만을 지칭하여 사묘에 부속된 존재에 그쳤다. 서원이 독자성을 가지고 정착, 보급된 것은 퇴계退溪 이황李滉(1501-1570)에 의해서이다.

이황은 교화의 대상과 주체를 일반 백성과 사림으로 나누고, 교화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담당할 주체인 사림의 습속習俗을 바로 잡고 학문의 방향을 올바르게 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오로지 도학道學을 천명하고 밝히는 길밖에는 없으므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도장으로 중국에서 발달되어온 서원제도가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것이라고 하여 서원의 존재 이유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리적 근거 위에서 그는 마침 풍기 군수에 임명되면서 우선 서원을 공인화하고 나라 안에 그 존재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백운동 서원에 대한 사액賜額과 국가의 지원을 요구하였다. 그는 그 뒤 고향인 예안에서 역동서원易東書院 설립을 주도하는가 하면, 10여 곳의 서원에 대해서는 건립에 참여하거나 서원기書院記를 지어 보내는 등 그 보급에 주력하였다. 초창기인 명종 연간(1545-1567)에 건립된 서원 수가 18개 소인 사실을 감안한다면 서원보급에 미친 그의 영향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이러한 외면적인 확대와 아울러 서원의 내용면에서의 충실에도 유의하였다. 유생의 장수처藏修處로서의 강당과 존현처尊賢處로서의 사묘祠廟를 구비한 서원체제를 정식화하고, 원규院規를 지어 서원의 학습활동과 그 운영방안을 규정하였다.

조선 초기부터 계속된 향촌에서 사림활동의 구심체적 기구의 모색 노력은 중종초 조광조 일파의 신진사류에 의한 문묘종사운동 및 새로운 교학체제 모색을 통하여 그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마침내는 서원의 형태로서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며, 이황에 의하여 정착, 보급되기에 이른 것이라 하겠다.

한편, 서원의 건립은 본래 향촌 유림들에 의하여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므로 국가가 관여할 필요가 없었으나, 서원이 지닌 교육 및 향사적享祀的 기능이 국가의 인재양성과 교화정책에 깊이 연관되어, 조정에서 특별히 서원의 명칭을 부여한 현판과 그에 따른 서적·노비 등을 내린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특전을 부여받은 국가 공인의 서원을 사액賜額 서원이라 하며 비사액 서원과는 격을 달리하였다. 1550년(명종 5) 풍기군수 이황의 요청으로 명종이 ‘백운동서원’에 대하여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현판과 서적을 하사하고 노비를 부여하여, 사액 서원의 효시가 되었다.



소수서원 현판

중종 명종대에 건립된 서원의 숫자는 19개 소(중종 이전에 이미 3개 소의 서원이 건립되었다는 사실은 신빙성이 없어 제외)이다. 이는 당시의 정계가 전반적으로 척신계에 의하여 주도된 사정을 감안할 때 상당한 진척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초창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액된 곳이 4개 소나 되는 것은 서원이 이 시기에 이미 관설에 준하는 교학기구로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이황 및 그 문인들에 의한 서원보급운동이 거둔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황의 거주지이며 그 문인의 활동이 성하던 경상도 지역에 전체의 반이 넘는 서원이 건립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척신 세력으로서도 관학의 쇠퇴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는 단계에 이르러, 그 대체기구로서 서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제향 인물인 안향·정몽주鄭夢周·최충崔沖·최유길崔惟吉 등이 사립

이전의 고려시대 인물이었다는 관계로 척신세력의 반발을 받지 않았던 것도 서원의 설립이 활발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이 시기는 서원의 내용면에서도 장차의 서원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었다. 즉 서원의 전반적인 면에 걸친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황의 「이산서원원규伊山書院院規」를 기본으로 각 서원별 원규가 작성되어 이에 의한 강학활동이 활발하였다.

또한 지방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향촌 유지를 중심으로 하여 주로 서원전書院田과 어물魚物·소금 등 현물조달체제의 영속화를 통한 안정된 재정기반 구축과 원숙·노비 등의 확보책이 추진되고 있었다. 명종 말·선조 초의 활발한 사림의 공급은 바로 이러한 서원의 건전한 운영을 밑바탕으로 하여 가능하였던 것이다.

서원은 선조대 사림계가 정치의 주도권을 쥐게 된 이후 본격적인 발전을 보게 되었다. 우선 양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선조 당대에 세워진 것만 60여 개소를 넘었으며, 22개 소에 사액이 내려졌다.

선조대에는 김굉필金宏弼(1454-1504), 정여창鄭汝昌(1450-1504), 조광조趙光祖(1482-1519), 이언적李彦迪(1491-1553), 이황李滉(1501-1570)의 5현 문묘종사가 주장되며 사림정치를 구현하려 하였기 때문에, 서원의 대부분이 5현을 제향하는 곳이었다. 여기에 퇴계 이황에 필적할만한 남명南冥 조식曹植(1501-1572)과 율곡栗谷 이이李珥(1536-1584)가 제향되고 있었다. 남명 조식은 경상도에 3곳, 율곡 이이는 황해도에 2곳이 제향되었다. 그리고 주희朱熹(1130-1200)가 충청도 1곳 황해도 6곳으로 7곳이 제향되었다.

1575년(선조 8) 10월 19일 의성義城서원에 옥산玉山서원의 예에 따라 사액을 내렸다. 1578년(선조 11) 8월 1일 백인걸白仁傑(1497-1579)이 조광조를 모시는 양주楊州의 도봉道峰서원에 사액을 내려주기를 청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였다.

1606년(선조 39) 12월 26일 성주星州의 천곡서원川谷書院은 그곳에 이천伊川, 윤곡雲谷이란 지명이 있는 것을 인연으로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의 위판位版을 봉안奉安하였다. 선산善山의 금오서원金烏書院은 야은治隱 길재吉再가 살던 곳이고, 현풍玄風의 쌍계서원雙溪書院은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이 살던 곳



이고, 함양咸陽의 남계서원濫溪書院은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이 살던 곳이라 하여 사액을 내렸다. 남명南冥 조식曹植을 제향하는 덕천서원德川書院은 광해군대에 이루어지고 사액을 받았다.

## 2.2 조선성리학의 분화와 서원 확산

인조대에는 서인들이 율곡栗谷 이이李珥, 우계牛溪 성혼成渾(1535-1598)의 문묘종사를 추진하며 서원 건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거치며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인조대는 사액된 서원이 4개 소였다. 1624년(인조 2) 10월 22일에 율곡 이이가 평소 살던 파주의 서원에 사액하기를 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강릉이 이이의 외향外鄕이라 하여 제향하는 서원에 사액하기를 청했으나 이 또한 미루어졌다. 그러나 효종대에는 조광조趙光祖 · 이이李珥 · 성혼成渾 · 김장생金長生(1548-1631)을 모시는 서원에 사액을 내리는 것이 중심이 되었다. 이황, 조식 세대에서 이이, 성혼 세대로 내려와 인조반정을 이끈 서인 세력을 대변하는 김장생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산림세력들이 진출하면서 국가의 서원 정책은 적극적인 장려책으로 돌아섰다. 효종이 즉위한 직후 김집金集(1574-1656)을 영수領袖로 한 산림세력을 조정에 불러들였으며, 김육金瑬(1580-1658)을 필두로 한 행정관료에게 정권을 맡기면서도 이들 산림들을 언관직에 포진시켰다.

산림이 처음 출사出仕하던 효종 초 그들은 이이와 성혼의 문묘종사를 청하는 한편 조광조 · 이이 · 성혼 · 김장생 4인을 제향하는 각처에 사액을 요청 이를 실현시켰다. 이는 산림계의 학적 연원과 조광조-이이-성혼-김장생으로 연결지은 이른바 기호학통의 천명闡明을 통해 행정 관료에 대한 도덕적 우월성을 과시하고 특히 영남학과에 대항하여 도학적 정통성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이에 서필원徐必遠(1614-1671) · 채유후蔡裕後(1599-1660) 등이 서원 폐단을 들어 반대하지만 이정영李正英(1616-1686) · 민정중閔鼎重(1628-1692)

등이 서원의 보호와 장려책을 적극 옹호하였다.

서원은 사람의 장수처로서 존재할 뿐이지 사현祀賢의 기능은 부차적인 것이니만큼 애초부터 첩설이 문제될 것은 아니며, 또 첩설 자체가 그 제향 인물에 대한 후학의 존경이 성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폐단시할 필요는 전혀 없고 제향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출향黜享하면 될 것이지, 굳이 양민 모점冒占과 같은 사소한 폐단을 들먹여 서원을 훼손撤하라는 것은 사문斯文을 망하게 하려는 저의 때문이라고 극론하였다.

민생문제를 앞세우는 현실론적 입장과 대의명분의 토대인 도학 진흥을 우선하는 이상론적 정치자세 사이의 현실을 보는 시각 차이가 서원 정책 결정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을 보이고 있었다.

서원통제론을 둘러싼 이러한 논쟁은 서원의 존재를 재인식시키고, 향후의 서원 정책이 보호와 장려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하여 1649년(효종 즉위년) 10월 용인 유생 심수경 등이 요청하자 조광조의 서원에 사액을 내렸다. 1654년 8월에는 기대승奇大升(1527-1572)을 제향하는 서원에 사액을 내렸다. 그리고 1659년 윤3월에는 무려 8개 소의 서원이 한꺼번에 사액을 받기까지 하였다. 김장생金長生·김집金集을 제향祭享하는 돈암齋巖서원, 이이李珥·이색李穡·김정金淨·송인수宋麟壽를 제향하는 신암莘菴서원, 김인후金麟厚를 제향하는 필암筆巖서원, 송인수·정렴鄭謙을 제향하는 노봉魯峯서원, 이황李滉·정구鄭逵를 제향하는 연경研經서원, 이이를 제향하는 송담松潭서원, 노신盧禎을 제향하는 당주唐洲사우祠宇, 이항복李恒福을 제향하는 화산花山서원에 사액을 내렸다.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의 제자들을 서원에 제향하면서, 점차 학행일치를 하여 스승의 모범이 된 인물을 제향하기 시작하였다.

현종 대에는 예송이 벌어지면서 성리학 이해가 심화되자 학행일치가 더욱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김장생을 이어 김상용金尙容(1561-1637)·김상헌金尙憲(1570-1652)·정온鄭蘊(1569-1641)·조익趙翼(1579-1655) 등 병자호란을 대처하며 사람의 모범이 되었던 세대에 서원을 창건하고 사액을 내리는 것으로 이어졌다. 현종대에 들어와 향촌사람의 청액운동을 촉발시켜

청액소가 폭주하였다. 따라서 사액이 남발될까 우려한 현종은 스스로 첩설처에 대한 사액의 제한을 예조에 신칙했으며 외면상으로는 사액에 대해 통제를 가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그러나 현종 대에 청액 하였다가 거부된 경우는 모두 26개 소에 이르지만, 그보다는 사액된 숫자는 서원 31개 · 사우 11개로 42개 소였다. 인조대 4개, 효종대 11개 소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사액에 대한 통제가 가해지는 속에서도 그 숫자가 이렇게 크게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첩설처라고 하여 방계되었던 김상헌, 조익, 김장생 제향의 3개 소 서원이 1668년(현종 9) 12월 대사헌 송준길의 특청에 의해 왕이 사액을 내리는데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 조신들의 건의에 의해 다시 사액 심의를 거쳐 사액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묘에 종사된 5현 이후에 새로이 스승으로 모시고 행동을 본받을 인물을 선정하여 서원을 세우고 사액을 청하면서, 스승으로 모시고 본받을 이유를 설명하면서 조선성리학의 분화와 서원 확산이 진행되었다.

1664년(현종 5) 2월 전라도 유생 송유광이 양호의 사이에 황산黃山이 김장생이 왕래하던 곳이라 하여 원우院宇를 창설하고, 사액을 청하면서, 이 서원에 조광조부터 김장생까지 모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조광조는 청순한 자질로 체용의 학문을 몸소 익혀 성인을 자기 자신에게 기약하고 왕도를 임금에게 기대하였습니다. 비록 간혹한 무리가 일어나 도가 비색해져서 그 쓰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나 남아있는 풍도는 지금까지 힘입고 있으며 후인이 왕도王道를 귀하게 여기고 패도霸道를 천하게 여기며 도학道學을 높일 줄을 아는 것은 모두 광조의 역할이었습니다.

이황은 성품이 온화하고 순수하며 학문은 문리가 세밀하였는데 일생 동안 성리性理에 침잠하여 주자를 독신하였습니다.

이이는 고명한데다 마음에 조금도 티가 없고 대원칙을 환히 알아서 이기理氣의 변론에 있어서는 전현前賢들이 발명하지 못한 것을 크게 나타냈으며 경제에 관한 대책은 선왕이 남기신 뜻을 깊이 터득하였으니 논의하는 자가 참선비의 학문이요 왕을 도울 재목감이라고 하였습니다.

성혼은 굳세고 엄하여 탁월하게 덕을 이루었으며 진퇴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언제나 선현들과 일치하였습니다.

김장생의 경우 숭고하고 굳세며 혼후하고 장중하여 자질이 노둔한 데서부터 항상 남보다 많은 공을 쌓아 싫어하거나 게으름피우는 일이 없이 늙어서도 더욱 독실히 하였으므로 그 성취한 것이 고명순각한 곳까지 도달하였으니 이는 아마 네 현인의 통서統緒를 잇고 후학의 무궁함을 열어 준 자로서 같은 사당에서 제사를 모시는 것은 백 세를 기다려도 의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효종-현종대 서원 장려책은 서인이 정권을 주도하고 있었기에 서인 편향적이었다. 서인계 서원이 12개 소, 남인계가 3개 소로 서인계가 압도적 다수였다. 지역별로는 초창기의 경상도 일변도에서 점차 벗어나 전라·충청·경기도 지역에서의 건립이 활발해졌다. 그래서 한강 이북지역에서도 차차 보급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특히 황해도의 경우는 선조 연간 이래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전국적인 확산을 보게 된 것은 사람의 향촌활동이 보다 자유로워진 정세의 변화라든가, 특정 유학자의 서원보급운동에 의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보다 깊은 요인은 봉당정치朋黨政治의 전개에 있었다. 사람의 집권과 함께 비롯된 이 봉당은 그 정쟁政爭의 방식이 학문에 바탕을 둔 명분론과 의리義理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므로, 당파 형성에 학연學緣이 작용하는 바는 거의 절대적이었다. 그러한 학연의 매개체인 서원이 그 조직과 확장에 중심적인 몫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각 당파에서는 당세 확장의 방법으로 지방별로 서원을 세워 그 지역 사람과 연결을 맺고 이를 자기 당파의 우익으로 확보하려 하였다.

반면에 향촌사람으로서는 서원을 통하여 중앙 관료와의 연결을 맺어 의사 전달과 입신출세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였기에 서원 건립을 놓고 양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였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서원이 수적 증가는 현저하였다. 그렇지만 아직 남설이라든가 그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우려될 정도에까지 이르지지는 않았다. 그것은 이때까지만 하여도 봉당이 권력구조 균형의

파탄을 초래할 지경에 이를 만큼 격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조·현종 때의 복제논쟁(服制論爭)에서 나타나듯 그 논쟁의 초점이 학문적인 영역을 벗어나지 않아서, 그 논리적 기초의 심화와 공감대의 확산을 위한 장소로 서원의 소임이 크게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김장생(金長生)·김집(金集)·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이나, 정경세(鄭經世)·허목(許穆)·윤휴(尹鑄)와 같은 당파의 영수이면서 학자이었던 인물들이 서원을 중심으로 왕성한 강학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면서 학적 기반을 구축하면서 서원의 건전한 운영을 꾀하였던 것이다. 이 시기에 이르러 서원은 단순한 사림의 교학기구에만 그치지 않고 강학활동을 매개로 하여 향촌 사림 사이의 지면을 익히고 교제를 넓히는 곳으로서의 구실과, 특히 향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한 의견교환이나 해결책을 논의하는 향촌 운영기구로서의 기능을 더하였다.

그러므로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때 향촌 방어를 목적으로 한 의병 활동이 활발하였고 또 그것을 일으키기 위한 사림의 발의와 조직의 편성에 서원이 그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 심지어는 향풍(鄕風)을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훼가출향(毀家黜鄕)이라는 향촌 사림의 사적인 제재조치까지 단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서원의 기능을 유생의 장수처로부터 특정인물의 현창(顯彰)을 위한 제향 중심으로 변모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 2.3 조선성리학의 발달과 서원 치폐논의

현종대 예송이 벌어지면서 성리학 이념 논쟁이 활발해져 성리학 이해가 심화되자, 숙종대에는 서원에 모시는 스승이 누구인가에 대한 논쟁도 자연히 활발해졌다. 그리고 퇴계학과는 서원에 허목(許穆)(1595-1682) 등 자기들의 스승을 모시려 하였고, 율곡학과는 서원에 송준길(宋浚吉)(1606-1672), 송시열(宋時烈)(1607-1689) 등 자기들의 스승을 모시려 하였다.

숙종 초반에는 2차 예송의 패배로 서인이 물러나고 남인이 집권하였다. 숙종



초반에는 1660년(현종 1)의 경자庚子 성명成命의 규정을 내세워 사액을 통제하고자 하였지만, 저상沮喪된 사기를 높이고 사림의 추향을 바로 잡게해야 한다는 허목 등 남인 유신계의 주장으로 특별히 사액을 내려야 한다는 형태로 사액이 빈번히 내려졌다.

특히 이 시기에 첩설疊設에도 불구하고 사액의 특전을 받았던 대표적 서원은 이황李滉과 정구鄭述(1543-1620)를 제향하는 곳이었다. 이황의 도학자적 공덕은 자타가 인정하는 바이지만, 정구의 경우는 숙종초 집권과였던 기호畿湖 남인의 학적 연원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기호 남인의 집권 명분을 위한 도학적 정통성 수립이란 측면에서 현창顯彰이 필요했던 것이다.

1680년(숙종 6) 1월 기묘명현 김식金湜(1482-1520)의 사우에 사액을 특별히 내렸다. 영남의 유생들이 거창居昌과 안음安陰의 경계에 세웠으니, 이곳은 김식이 목숨을 버린 곳이다. 숙종 초반 남인 집권기에는 남인계 13개, 서인계 1개, 당색이 무관한 서원 3개로 남인계 서원이 주로 사액을 받았다.

1680년(숙종 6) 경신환국으로 다시 정계에 복귀한 서인은 서원이 너무 과다한데다 장수藏修의 실효는 없고, 폐단만 낳는 장소로 전락되었다는 대사성 김만중金萬重의 서원폐 상소를 계기로, 서원 신설 금지와 일체의 사액을 불허한다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그리하여 서인 집권기였던 5-6년간은 비록 송준길과 같이 서인의 유종儒宗으로 추대되는 인물의 서원까지도 건립이 보류되었으며 10여 처의 청액 요구가 거부되어 서원 통제책이 본 궤도에 오르는 듯하였다.

그러나 실은 이 기간 동안에 서인계는 금령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실제적인 건원建院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존 서원에 대한 추향追享에 주력하였다. 율곡 이이李珥가 황해도 지역에 분포한 여러 서원에 추향되고, 그리고 송준길이 김장생金長生이나 송인수宋麟壽(1487-1547)의 서원에 추향된 것이 그 예이다. 그리고 이 기간 서원건립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모두 23개 처의 서원이 건립되었다. 그리고 사우祠宇의 수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그 숫자는 21개 소로서 서원의 그것에 육박하고 있었다.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己巳換局 이후 남인정권 하에서 경신환국庚申換局에 죽었던 사람들을 신원하고 표창하며 이들을 제향하는 남인계 서원이 건립

되고 사액을 받았다. 기사환국 이후 남인계는 13개, 서인계는 1개의 서원이 각각 건립되었다. 1694년(숙종 20) 인현왕후가 복위되면서 갑술환국으로 남인이 실각하고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 이러한 정국 흐름에서 서인 산림이었던 송시열을 제향하는 서원이 창건되거나 추향<sup>追享</sup>의 형태로 증가되어 숙종말년까지는 26년간에 걸쳐 무려 20개 소가 건립되고 14개 소에 추향되고 있어 서원에 입향<sup>入享</sup>된 인물로서는 최다 기록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서인계 서원은 55개 소나 설립되어 서인계 서원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이와 함께 김장생의 문묘종사, 송시열·송준길 문묘종사가 주장되지만, 회니시비가 벌어지면서 늦어지다가, 송시열이 옳고 윤증이 그르다고 판정이 나는 숙종 말년에 김장생 문묘종사가 이루어진다. 스승의 기준이 주화와 척화파 논쟁에서 척화파로 판정이 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병자호란 당시에 순절했던 충신열사들에 대한 사우<sup>祠宇</sup> 건립도 이루어진다. 그리고 갑술환국 이후에는 임진 병자호란에 순절한 충신열사에 대한 현창이 강화되면서 사당이 많이 세워졌다. 중봉 조헌을 모시는 창주서원(옥천) 등 12개 소, 김천일·고경명·곽재우를 모시는 사우와 윤집 등 삼학사<sup>三學士</sup>를 모시는 사우 5개 소가 건립된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서원건립이 허가제로 결정되고 첩설금령이 발포되며, 때로는 집권파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당파에 속하는 인물을 제향한 서원이 남향을 구실로 사우로 강화되거나 심지어는 한두 곳이 훼손<sup>毀撤</sup>되기까지 하였다.

서원 금령은 그 뒤에도 수시로 신칙되어서 1713년 7월 21일 서원 첩설과 사액을 금한다고 하였다. 1713년(숙종 39, 계사수교<sup>癸巳受教</sup>) 말에는 특히 예조판서 민진후<sup>閔鎭厚</sup>의 요청으로 1714년 이후부터의 첩설<sup>蠶設</sup>을 엄금하고 사액을 내리지 않을 것을 결정하였다.

### 3. 조선성리학의 발달과 서원문화

#### 3.1 조선성리학의 확립과 서원 체제의 완성

1725년(영조 1) 을사환국으로 노론이 집권하자, 앞서 경종조에 출향黜享되었던 노론계 인물들이 모두 복향復享되며 철거되었던 현판도 다시 걸게 되었다.

이와 같이 숙종 대 이후 환국이 진행되며 붕당의 세력의 거점으로 서원이 운영되자 이에 대한 강력한 통제책이 필요했다. 숙종 말년 이후부터 단행된 강력한 서원통제책은 계속된 정권교체로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서원폐단에 대한 조야의 인식이 깊어지고 서원통제론이 자리를 굳히게 된 것이며, 1741년(영조 17)의 서원철폐는 여기서 이미 준비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조는 1741년 신유대훈辛酉大訓을 선포하여 정권의 기반이 확립되자 200여 개 소에 가까운 서원 사우의 철폐를 단행하였다. 영조가 서원철폐를 단행하게 된 계기는 그의 탕평책 실시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따라서 서원에 대해서도 그것이 노론·소론·남인 사이의 분쟁을 유발하고 정국을 혼란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그 건립에 따른 시비를 근원적으로 봉쇄할 목적으로 탕평파의 협조를 얻어 1714년 갑오정식甲午定式 이후 건립된 서원은 물론 사우·영당 등의 모든 제향기구祠院를 일체 훼손하게 하였던 것이다.

영조의 이 조처는 지방관의 책임 하에 4월부터 9월에 이르기까지 5개월간 철저하게 진행되었다. 19개의 서원을 포함하여 영당影堂·사우祠宇 등 합계 173개 소의 사원祠院이 훼손되었다. 그러나 국가 승인을 받고 건립된 40여 개 소는 훼손되지 않았다. 그 뒤 서원철폐 및 남설의 경향은 크게 둔화되어 거의 정지상태로 되었다. 이는 탕평하에서 의리논쟁과 인물시비가 기피되는

정치사안이 되자 이와 직결된 서원건립문제가 자연히 외면되었기 때문이다. 정조대에는 서원에 사액을 내리는 것은 금령이 됐지만, 특별히 그동안 제향되지 않았던 사원들이 사액을 받거나 추배되었다.

### 3.2 조선성리학의 쇠퇴와 서원 남설과 훼철

정조대는 서구에서 1770년 산업혁명이 일어나며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하며 상공업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중세 농업사회를 이끌어오던 성리학 이념이 더 이상 사회를 이끌어갈 능력을 상실하고 폐단을 야기하게 된다. 이에 정조는 규장각을 세워 중국 청나라를 통해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는 북학파를 양성하여 북학사상이 개혁을 주도하게 한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서원은 성리학 이념을 고수하는 곳으로 좌정하고, 한편으로는 당파의 양적 확대에 급급하여 경쟁적으로 향촌 사림을 포섭하기 위하여 서원 조직을 이용하려 하였다. 즉 이것이 서원의 남설과 사액의 남발을 야기시켰던 것이다. 물론 서원 남설은 이러한 이유와 함께 사족 사이에 동족 내지 가문 의식이 강화된 결과로 나타난 후손에 의한 조상 제향처 내지 족적 기반 중심지로 서원이 필요했던 이유도 있었다. 제향 자격에 의심이 가는 인물이 봉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사실과 함께 점차 그 성격에 있어 제향 일변도의 경사가 마침내 사우祠宇와의 혼동을 초래하였고, 그에 반비례하여 강학 활동은 위축되게 마련이었다.

또 점차 타락의 도를 더해가는 당시 사림의 기강이나 능력으로 보더라도 더 이상 서원이 학문 기구로 활용되기 어려웠다. 서원이 날로 증가하지만 사문은 더욱 침체하고 의리 또한 어두워질 뿐이라는 서원무용론까지 대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후에 서원철폐의 명분이 되었다.

서원의 사회적 폐단은 건립과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관에게서 각출하는 구청求請, 양정良丁을 불법적으로 모점冒占하여 피역시켜 양정 부족 현상을 야기하여 양역폐를 격화시키는 폐단, 교화를 구실로 대민착취기구로 전락된 사실 등을 들 수 있다.



소수서원 강당인 명륜당 내부



그러나 당쟁의 격화로 서원의 정치적 비중이 커지는 속에서 중앙의 고관이 향촌의 1개 서원에 진신유사摺紳有司로 추대되어 일정한 상호보완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질적인 저하에도 불구하고 향촌 사회에서 서원이 누리는 권위는 강대하였으며, 바로 이 점이 사회적 폐단을 야기할 수 있는 근본요인이었던 것이다. 또 순조 이후의 세도정치 하에서 의리나 명분 자체가 무의미해졌기에 더 이상 관심을 끌 수 없었던 데 이유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방관에 대한 처벌이 건립을 효과적으로 봉쇄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금령이 정조와 철종연간에 한두 차례씩 내려지게 된 것은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 없이 이제는 가문의식과 관련하여 후손에 의한 건립이 종종 시도되었던 데 그 까닭이 있다. 실로 서원훼철과 같은 강경조치로 서원금령의 강화는 지방관의 서원에 대한 물질적 보조를 거의 단절케 해서 서원재정을 악화시켰다.

그리고 끝내는 이를 메우기 위한 대민작폐의 심화와 함께 서원재정 담당을 기화로 한 후손의 서원관여를 더욱 조장하여 19세기 이후는 전국의 서원이 대부분 후손에 의하여 운영되고 또 건립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소수서원 문성공묘文成公廟. 문성공 안향安珦은 고려 후기에 최초로 성리학을 들여온 학자이다.

## 1. 제향 공간으로서 서원의 전통

조선 건국 이후 성리학이 강조되면서 성리학을 배우는 향교가 전국 각 지역에 설치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부하여 문과급제를 하면 집현전에 들어와 경연을 담당하는 경연정치가 세종대에 발달한다. 그러나 세조의 왕위 찬탈이 일어나 사육신 등 사람들이 죽고 집현전이 혁파되었다. 성종대에 다시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집현전을 이어 홍문관이 설치되어 주자성리학에 입각한 문물제도가 완성된다.

이러한 주자성리학도 1200년대부터 300년을 주도하니 새로운 사상에 자리를 내주게 된다. 이것이 중국에서는 양명 왕수인이 나와 양명성리학으로 조선에서는 정암 조광조가 나와 조선성리학으로 발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종반정을 일으키며 급진적인 개혁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1519년(중종 14) 기묘사화를 당하게 된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조선성리학자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다가 관학화된 향교대신 서원을 세워 사람들을 양성하게 된다.

15세기에 주자성리학에 입각하여 성균관의 문묘나 향교의 문묘에 공자와 사배위四配位 십철十哲을 모시고 주돈이와 정호, 정이 형제, 소옹, 장재, 주희 등 송조宋朝 6현六賢을 모시는 국가의례는 정비가 되었다. 16세기에 오면 심학화된 조선성리학이 발달하면서 윤리의식이 더욱 심화된다. 이에 따라 심성心性 논쟁이 일어나고 삼강三綱을 넘어서 스승을 부모처럼 받드는 군사부君師父 일체 의식이 심화되게 된다. 이에 따라 스승을 부모처럼 받들고 모시는 의례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사대부 집에서 사당을 짓고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듯이, 서원에서는 향교 의례와는 달리 부모 같은 스승에게 사당을 짓고 제사지내는 서원의 제향 의례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서원 제향 의례는 때로는 지역별로, 그리고 퇴계학과, 남명학과, 율곡학과 등 학파별로 약간씩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



서원은 공부하는 공간과 제사를 지내는 공간으로 나뉜다. 대개 비탈진 곳에 학교를 세워 앞쪽에는 강당講堂을 짓고 뒤쪽이면서 위쪽이 되는 곳에 사묘祠廟, 즉 사당을 지어 돌아가신 스승의 위패를 모셨다. 평소에는 서원의 생도들이 강당에서 모여 글공부를 하고 삭망朔望, 즉 매달 초하루와 보름, 그리고 봄과 가을 두 차례 날을 정하여 학생과 선배들이 모여 밤에 사당에서 향사를 지냈다.

서원은 원래 강학장소講學場所로 지어진 것이지만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紹修書院의 전신으로서 1543년(중종 38)에 세워진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은 사묘의 부수적인 존재였다. 그 후 퇴계 이황李滉(1501-1570)에 의해 강당과 사묘를 같이 갖는 형태를 취하면서 서원은 공부하는 자들의 장수처藏修處 제공이 설립의 주된 목표가 되었고 사현祀賢은 부차적인 것이 되었다. 그것은 향교와 같은 관학官學의 쇠퇴와도 관계가 있다. 또한 서원 설립에는 사족들이 이를 통해 지방사회를 교화教化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 이러한 목적은 서원이 선현에 대한 제향공간으로 기능하게 된 배경이 된다.

도산서원 전경. 도산서당 뒤로 강당인 전교당과 사묘인 상덕사가 위치하고 있다.



## 2. 서원의 제향 인물과 제향의 종류

### 2.1 서원의 제향 인물

서원의 사당에는 선현先賢, 즉 학문적으로 뛰어난 인물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한 분을 모시는 곳도 있지만 대개는 여러 분을 모신다. 물론 향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그들의 제자이거나 후손들이다. 서원은 외적인 규모보다는 사당에 어떤 분이 모셔져 있는가에 따라 그 위상이 결정된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뛰어난 인물에게는 제자도 많을 뿐 아니라 그를 모시는 서원도 많았다. 그러나 1864년(고종 1)에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따라, 문묘에 종사된 동방 18현 등 사표가 될 만한 제향 인물의 1인 1서원을 기준으로, 전국 650개 서원 중 47개의 서원만 남겨지고 나머지는 모두 훼철되었다.

서원의 역사와 관련하여 사족, 또는 유림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선생으로 퇴계 이황과 우암 송시열宋時烈(1607-1689)을 꼽을 수 있다. 두 사람은 활동 시기는 다르지만 각각 남인과 노론이라는 두 당파의 중심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을 제향하는 서원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지만 특히 전자는 남인의 본거지인 경상도에, 후자는 노론의 본거지인 충청도에 집중되어 있다. 숫자로 보면 송시열을 제향한 서원이 가장 많아 조선후기 노론 세력의 전국에 걸친 영향력을 짐작케 한다.

한편 남인계 유림사회에서 퇴계 이황을 모시는 도산서원陶山書院이 차지하는 위치와 비중은 특별하다. 도산서원 내의 광명실光明室에 보관된 『유원록遊院錄』에는 저명한 남인계 학자들이 이름이 시대 순으로 망라되어있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밖에도 우리나라 최초의 성리학자라고 할 수 있는 회헌 안향安珦(1243-1306)을 제향하는 소수서원의 『행이등록行移謄錄』(1546년)에는 경상도 관찰사가 도내 각읍에 통첩通牒을 내어 이 서원에서 유생을 공궤供饋하는데 물량



도산서원 향사시 개독開讀

이 부족하므로 이를 보충케하라는 내용의 관문關文이 실려 있어 그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후기로 내려올수록 서원의 제향인물은 후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우 서원운영을 위한 경제력도 후손들의 경제력에 따르며, 서원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의 범위도 대부분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 국한되어 있다.

## 2.2 서원 제향의 종류

서원의 제향에는 정기적으로 일년에 봄과 가을로 지내는 춘추 향사와 매월 삭망朔望, 즉 초하루와 보름에 알묘謁廟하여 분향하는 삭망례, 또는 향알례香謁禮, 정월 초5일이나 6일에 행하는 정알례正謁禮가 있었다. 이러한 제향을 통해서 스승과 제자가 다시 만나는 것이었다.

서원 제향은 주세붕이 1543년(중종 38)에 안향을 모시는 서원을 세우고 제례를 위해 제식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이 때 국가예전인 『국조오례의』에 서원 제향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주세붕은 향교 석전이나 『가례』 등을 모방하여 제식과 향사홀기를 만들었다.

춘추 향사의 시기는 주세붕과 이황의 소수서원 홀기에는 계춘季春(음력 3월)과 계추季秋(음력 9월)로 되어 있다. 이황이 정한 백운동 소수서원원규에 “춘추의 두 번 향사는 계월의 상정에 지내고, 상정이 유고이면 중정으로 바꾼다.”고 하여, 소수서원에서는 현재에도 계월의 상정上丁에 향사를 지낸다.

하지만 성균관과 향교의 석전일釋奠日이 중춘仲春(음력 2월)과 중추仲秋(음력 8월)의 상정일이기 때문에 한달 사이로 향교의 석전과 서원의 향사를 지내는 것이 번거롭고, 제수 마련에도 문제가 있어서 향교 석전을 지내는 2월과 8월에 서원 행사를 지낸 것이 관례가 되어 갔다. 정구鄭逵의 도동서원 원규나 정경세鄭經世의 도남서원의 질문에 향사일을 중춘과 중추의 중정일中丁日로 개정하면서, 이후로 주로 이날에 향사를 지냈다. 하지만, 한 고을에 서원이 여럿 있는 경우가 많아 다른 서원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춘추 계월季月(음력

3월과 9월)의 상정일上丁日이나 중정일로 정하였다. 그리고 국상을 당하거나 나라의 큰 일이 있으면 향사일을 늦추거나, 또는 생략하기도 하였다.

향사 절차는 주로 주세붕의 소수서원 흥기를 따르기는 했지만, 이황 역시 향교 석전을 참조하여 개정하였듯이, 주로 향교의 석전 내용을 따르거나, 또는 주희朱熹의 창주서원滄洲書院 석채의釋菜儀를 참조하였다. 이에 서원의 주향이 나 배향, 종향인, 또는 그 문학생들의 학규나 선현 제향 해석에 따라 향사흥기를 제정하면서 서원마다 다른 향사 절차와 행례 내용을 보여준다. 대개 절차는 사당 앞 취위就位, 상향上香, 전폐奠幣, 초헌初獻, 독축讀祝, 아헌亞獻, 종헌終獻, 음복수조飲福受胙, 철변두撤籩豆, 망예望瘞(또는 망료望燎) 순이지만, 행례를 하면서 여러 절차가 합쳐지거나, 행례 내용이 아예 다른 경우들이 있다. 이것은 서원 향사가 국가에서 정한 내용이 아니고, 유학자들이 향교 석전의 내용이나, 주희의 창주서원 향사 내용을 참조하여 흥기를 만들어서 그 서원만의 전통으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춘추 향사와 같은 정기적인 제향 이외에, 서원에 일이 있을 때 고하는 부정기적인 고유례告由禮도 있었다. 즉 서원 사당을 수리할 때 위패를 임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거행하는 이안제移安祭와 환안제還安祭, 불시의 재난을 입었을 때 올리는 위안제慰安祭, 위패를 새로 봉안하거나 제외시킬 때의 예성제禮成祭, 사액을 받았을 때 올리는 사액례賜額禮가 있고, 국가에서 제관을 보내어 지내는 치제致祭 등이 있었다.



### 3. 제구祭具, 제물과 그 의미

제향은 서원 운영을 맡은 유사有司들이 제물을 준비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유사들이 장을 보러 갈 때 미리 물목物目을 작성하여 한 가지라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한다. 밥, 대추, 포 등 제물은 모두 크고 빛깔이 좋은 것만 고르는데, 가격 흥정을 하지 않는다. 또한 유사들은 제물을 담은 제기祭器를 닦고, 제주祭酒를 빚어 항아리에 담은 다음 부정不淨이 타지 않게 입구를 봉封하며, 쌀과 기장을 씻고, 마지막으로 희생犧牲으로 올릴 산 짐승을 잘 살핀다. 이 모든 일은 신중하게, 그리고 정성을 다한다. 올리는 제물은 모두 날것이다. 군자는 혈식血食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혈은 희생을 뜻하므로 희생을 바쳐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어느 서원이나 주로 향교 석전에 준하여 제구祭具의 종류나 형태는 거의 동

도동서원의 성생례省牲禮



일하다. 『국조오례의』에 주현향교의 문묘 주향과 배향위는 2보 2궐, 8변 8두, 2생이고, 종향위는 1보 1궐, 2변 2두, 1생이었는데, 소수서원의 주세붕과 이황의 「안문성공춘추대향도安文成公春秋大享圖」에는 2보 2궐, 4변 4두, 1생 이어서, 주로 서원 향사의 경우는 소수서원의 사례를 따라 2보 2궐, 4변 4두로 하였다. 간혹 일부 제구들은 진설품목에 따라 서원마다 차이가 있었으나, 도산서원의 홀기에 ‘계미국감’이라 하여 1보 1궐로 되어있는데, 대부분의 서원에서 1보 1궐, 4변 4두로 같아지는 경향이 있다(이와 관련하여 1884년

돈암서원 김장생을 주향으로 동서벽에 교차 배치하여 진설한 모습



(고종 21)에 발간된 『무성서원지』 진설도에 1보 1궐, 4변 4두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883년 계미년 이전으로 추정된다). 축문을 올려놓는 축판祝板은 대개 어디나 보이는데, 옥산서원의 경우처럼 축상祝床만 보이기도 하고, 도동서원의 경우처럼 모사기가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제기祭器와 제물, 그리고 희생을 운반하는 데 쓰는 가자架子도 필요하다.

제물은 곡식과 희생, 그리고 폐백이 기본이다. 『시경詩經』에 “자성齋盛은 제사에 필요한 것이니 미리 준비되어 있거나 정결하지 않다면 그 성의를 다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예절을 시행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서黍, 즉 기장과 稻, 즉 쌀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것은 모든 곡식을 통칭하는 육곡六穀을 상징한다.

곡식을 담는 제기는 구리로 만든 보簋와 궤簋이다. 보에는 쌀을 담고, 궤에는 기장을 담는다. 보는 안이 둥글고 밖이 네모지며 궤는 그 반대, 즉 안이 네모지고 밖이 둥글다. 보나 궤의 뚜껑에는 거북이 새겨져 있는데 대개 거북은 먹지 않고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탐식을 경계하는 뜻을 담은 것으로

돈암서원 3번 3두의 진설





필암서원의 향을 피우는 분향례



필암서원의 폐백을 올리는 전폐례

해석된다. 오늘날에 보는 네모나고, 궤는 둥근 것으로 구분한다. 보와 궤는 짝을 이루어 변과 두 사이에 배치하는데, 신위를 중심으로 왼쪽에 보, 오른쪽에 궤를 놓는다.

반찬에 해당하는 제물은 대오리를 엮어 만든 변籩과 나무로 만든 두도에 담는다. 과果, 포脯 등 마른 제물은 변에, 해醢, 저菹 등 젖은 제물은 두에 담는다. 향교 석전은 소사小祀에 해당하여 8변 8두를 갖추지만, 서원 향사는 이보다 낮추어 서원에 따라 6변 6두, 4변 4두, 혹은 2변 2두를 놓는다. 제물 중 녹해鹿醢는 사슴고기를 절인 것인데, 대개 쇠고기로 대신한다. 녹포도 쇠고기포이다. 어해魚醢는 절인 생선으로 지역에 따라 그 종류가 다르다. 어포도 그러하다. 근저芹菹 또는 구저韭菹는 미나리나 부추를, 청저靑菹는 생 무를, 황물黃栗(또는 율황)은 밤을, 건조乾棗는 말린 대추를 말한다. 또 잣(백자柏子), 은행銀杏, 마름(능인菱仁)을 올리는 서원도 있다.

서원 향사에서는 희생으로 한 가지를 올리는데, 대개 돼지 한 마리다. 성균관 석전에는 소·양·돼지 삼생三牲을, 향교 석전에는 양과 돼지 두 가지를 올린다. 서원 초창기인 소수서원의 주세붕과 이황의 진설도에는 치성雉脰, 즉 꿩을 올리거나, 도산서원의 옛축사祝辭에도 ‘한음청작翰音淸酌’이라 하여 닭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금 서원에서는 대개 돼지 한 가지를 올리는데, 한 마리를 통째로 올리거나, 제향자의 주향, 배향, 종향위에 따라 부위를 나누어 올리기도 한다. 희생을 담는 제기가 흔히 적대로 부르는 조俎이다.

폐백으로는 옷 한 벌을 지을 수 있는 양의 옷감을 마련한다. 원래 흰 모시를 많이 썼으나 면포를 쓰거나 한지로 대신하는 곳도 많다. 폐백을 담는 비籩는 대나무로 만든 납작한 채반이다. 도산서원의 홀기에는 ‘무진국감’이라 하여 전폐례를 생략하고 있다.

작爵은 헌작 때 올리는 구리로 만든 술잔이다. 두 기둥에 세 발이 달려있고 술을 따르는 유流와 손잡이인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玷에는 축점祝玷과 작점爵玷이 있어 그 위에 축판이나 술잔을 올려놓는다. 작점은 유기로 만든 네모 받침이다.

제주祭酒는 직접 담근 것을 사용한다. 용수로 거른 맑은 술만 제주로 사용한다. 보통 제주에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걸러 헌관들을 대접한다. 용수로 거른



제주는 준罇에 담아 봉하는데, 이를 봉준封罇, 또는 봉준封尊이라고 한다. 제주를 거르고 난 나머지 술밑으로 막걸리를 만드는데, 주로 참사자들을 대접하는데 쓴다.

준에는 세 가지가 있다. 초헌 때 올리는 술인 예제醴齊를 담는 준은 소 모양의 희준犧罇, 아헌에 올리는 양제盞齊를 담는 준은 코끼리 모양의 상준象罇, 종헌에 올리는 청주淸酒를 담는 준은 산 문양을 새긴 산뢰山罇라고 한다. 이러한 격식을 다 갖춘 서원도 있지만, 대개 종헌용 준인 산뢰를 쓰되, 주향위主享位 준과 종향위從享位 준을 구별하여 쓰는 서원도 있다.

작勺은 헌작이나 관세 때 술이나 물을 뜨는 국자다. 손잡이 부분에 용머리가 조각되어 있는 작은 용작龍勺, 또는 용구지라고 한다. 먹羈은 술항아리를 덮는 덮개다. 먹이 없는 경우 한지로 근봉謹封이라고 써서 먹 대신하기도 한다. 그밖의 제구로는 유기로 만든 향로香爐와 향합香盒 등이 있고, 제수로는 향나무, 측, 필묵, 양초, 축지 등이 필요하다. 이것들은 흰 종이로 싸 두었다가 입재 후에 근봉謹封한다.

서원마다 고직사庫直舍나 전사청典祀廳이 있어 제물과 음식을 준비하는데, 제관들의 식사 접대를 위한 찬거리도 장만한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과거 천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요즈음에는 모두 떠나 없고 후손들이 대신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 이 일을 맡는다.

## 4. 제향의 기본절차

제향의 모든 절차는 예禮에 어긋남 없이 엄격하게 거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집례執禮 또는 찬자贊者가 창뎡을 하면 그에 따라 제관들이 질서 있고 경건하게 움직이며 진행된다. 계단을 오를 때도 오른발부터 디디며 왼발을 모은 다음 한 계단씩 올라간다. 사당의 출입은 중문中門은 신도神道로 여겨 제물과 제주가 드나드는 경우 외에는 출입을 금하고 항상 동문으로 들어가 서문으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렇지 않은 서원도 있다.

서원마다 제향절차가 조금씩 다르지만 춘추 제향은 기본적으로 분향례焚香禮, 전폐례奠幣禮, 삼헌례三獻禮, 음복수조례飲福受胙禮, 철변두, 망료례望燎禮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분향을 하여 혼을 부르고 폐백幣帛을 드리는 예를 행한 다음 술잔을 세 차례 올리는데 초헌初獻, 즉 첫 잔을 올리고 나서 축문祝文을 읽는다. 아헌과 종헌이 끝나면 초헌관이 제물로 올린 술과 고기 일부를 맛보아 복을 받은 다음 축문을 태우거나 묻으면 향사의 주요 절차가 끝난다. 다음의 사례는 아직 전통적인 예의절차를 잘 간직하고 있는 옥산서원의 춘추 제향절차를 기본으로 정리한 것이다.

### 4.1 춘추 제향

초집抄執 | 제향의 시작은 서원 운영의 책임을 맡은 임원들이 모임을 가지면 서부터 시작되는데, 서원에 따라서는 이를 초집이라고 한다. 옥산서원의 경우 춘향례는 음력 2월 초하루에 삭망례가 끝나면 바로 초집을 갖는다. 여기에서 앞으로 있을 향례를 진행할 헌관 세 명과 대축大祝 한 명, 그리고 집례執禮 한 명 등 5명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망기望記를 작성한다. 망기는 망지望紙라고도 하며 행사에서 맡을 직책을 적은 종이를 말한다. 망望이란 그 직책을

맡아주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곁봉에 이름과 사는 곳을 적고 뒷면 이음새에 근봉이라고 쓴 다음 서원 직인을 찍어 우편이나 인편으로 당사자에게 보낸다.

**제물 준비** | 서원의 살림을 담당하는 곳인 고직사에서는 향례일을 계산하여 미리 제주祭酒를 담근다. 참쌀과 땀쌀로 고두밥을 지어 술독에 넣고 여기에 엿물과 누룩을 넣어 저은 후 입구를 한지로 봉한 다음 ‘근봉謹封’이라 쓰고 방안에서 발효시킨다. 제향 진행을 맡은 유사와 임원들은 2-3일 전에 미리 가까운 장에 가서 제수를 장만한다. 제수에는 생牲, 폐幣, 밥, 대추, 포 등이 있는데,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과 폐백이다.

**입재入齋** | 유사와 임원, 그리고 미리 정한 삼헌관과 대축, 그리고 집례는 향사 2일 전에 미리 서원 강당에 모인다. 이를 입재入齋라 하는데,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보존하는 재계齋戒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본래 향례는 축시丑時, 즉 새벽 한 시 경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제관 이하 참사자들은 전날 오전에 서원으로 온다. 서원의 정문에서 의관을 갖추고 출입하는 서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서원도 많다. 참사자는 시도록時到錄에 이름을 적고 초헌관을 찾아 예를 올린다. 이날 모인 이들끼리 강당에 모여 개좌음례開坐揖禮로써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입재의 예를 갖춘다. 한편 서원에 들어오면 향사가 끝날 때까지 서원밖에 나갈 수가 없다. 입재 시기는 서원마다 다르다. 과거 교통이 불편하던 시절에는 어느 서원에서나 하루 전에는 모두 입재하였다. 그러나 교통편이 좋아지고 제향 시각을 새벽이 아닌 오전으로 옮긴 서원이 늘어나면서 유사와 임원 외에는 제향 당일에 입재하는 곳이 많아졌다.

**성생례省牲禮** | 성생례는 감생례鑑牲禮, 또는 간품례看品禮라고도 하는데, 희생으로 쓸 짐승의 상태를 검사하는 절차다. 희생의 중요함을 알리는 의례이기도 하다. 서원 정문 밖에서 예를 치르는데 삼헌관은 북향하고, 희생의 머리는 사당으로 향하게 한다. 유사가 희생의 상태를 살핀 후 초헌관에게 희생물로 올리기에 충분하는 뜻으로 충충이라고 하면 초헌관은 돌肫이라고 응답하는데, 이를 세 차례 한다. 그러나 희생을 통째로 올리지 않는 경우도 많아

성생례 절차가 모든 서원에 있는 것은 아니다.

**집사분정執事分定** | 분정은 미리 정한 삼헌관과 대축, 그리고 집례(찬자) 이외의 역할을 맡을 집사들을 선출하는 과정이다. 분정 방식이나 절차 역시 서원마다 다르다. 헌관을 중심으로 강당에 모여서 시도록을 가지고 집사 분정을 하여 제향집사분정기祭享執事分定記에 적게 하고, 분방分榜 또는 창방唱榜이라 하여 분정된 집사들에게 각기 역할을 알리고 분정기를 강당 벽에 걸어놓는다. 2010년에 분정된 집사의 종류와 인원수는 대개 다음과 같다.

헌관獻官	3인(초헌·아헌·종헌관)
대축大祝	1인
찬자贊者	1인
알자謁者	1인
찬인贊引	2인
판진설判陳設	6인
봉향奉香	2인
봉로奉爐	3인
봉작奉爵	3인
전작奠爵	3인
사준司樽	1인
장찬掌饌	1인
장생掌牲	1인
관세위盥洗位	1인
학생學生	1인
직일直日	1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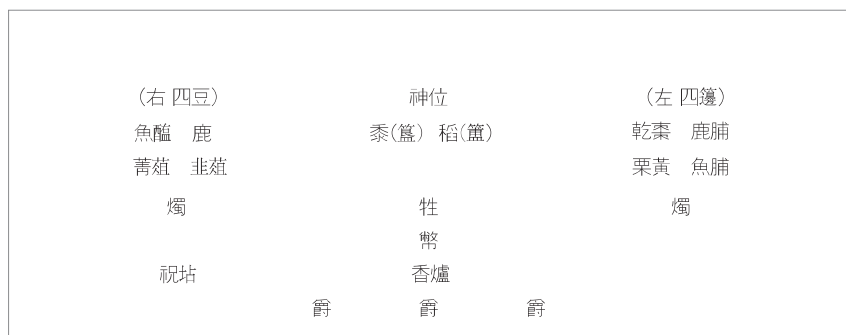
**사축寫祝** | 분정을 마치면 대축, 즉 대축은 사당에 가서 사당문을 열어둔 채 헌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축문祝文을 작성한다. 축문 작성이 끝나면 대축은 초헌관에게 축문을 확인 받은 뒤, 축판이나 축상에 받쳐 들고 사당 안으로 들어가 향탁의 좌측에 둔다.

**제수근봉祭需謹封** | 제관들은 제물과 희생을 사당으로 옮기고 전사청에서 보와 꿔, 변과 두 등 각종 제기에 미리 손질한 제수를 담는다. 제기에 담은 제물이나 향, 축 등 기타 제수들은 더 이상 손이 타지 못하도록 근봉謹封이라고

써서 봉한다. 새벽에 제향을 올릴 경우 제수를 봉한 후 저녁식사가 이어지는 데, 이를 식상개좌食床開坐라고 하며 제관들은 각자 독상을 받는다.

**진설陳設** | 교의交椅의 신위 앞 좌측에 보, 우측에 궤를 놓으며, 보 좌측에 변 4기, 궤 우측에 두 4기를 놓은 후 보와 궤의 앞 중앙에 조를 두고 그 앞에 술잔과 받침을 놓는다. 보에는 멍쌀을 담고, 궤에는 기장쌀을 담으며, 변에는 마른 대추, 사슴포, 밤, 생선포 등 마른 제수를 놓고, 두에는 어해, 녹해, 미나리, 생 무 등 젖은 제수를 놓고, 조에는 생牲을 얹는다.

다음은 옥산서원의 진설도陳設圖다.



진설도陳設圖



## 향사享祀 당일

앞서 언급한대로 최근에는 향사일 오전에 제향을 지내는 곳이 많지만 과거에는 새벽 1시에 향사를 시작하는 곳이 많았다. 향사 시작 반시간 전에 모든 제관들은 의관을 정제한다. 집사나 관리인은 그 시각에 사당문을 열고 제상 좌우에 놓인 촛대에 불을 밝힌다.

향사를 행하기에 앞서 헌관 이하 집사들은 강당에 모여 서서 상읍례를 행한다. 향사는 집례 또는 찬자가 향례의 진행순서를 적은 홀기笏記를 낭독하는 것唱笏으로 시작한다. 제관들은 창홀에 따라 움직이며 맡은 임무를 행한다.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먼저 진설을 점검하고, 이어 대축이 위패의 뚜껑을 여는 개독開櫝을 행한다.

집례(찬자)와 알자, 찬인이 먼저 배위에 나아가 재배를 하고 제자리로 나가면, 집례(찬자)의 본격적인 창홀에 따라, 집사들은 배위에 나가 재배를 한 뒤 각자 위치에 나아가고, 삼헌관은 사당으로 들어와 재배를 한 다음 알자가 청향사를 고하고 헌관과 학생은 다시 재배를 한다.

**분향례焚香禮** | 초헌관이 알자謁者의 도움을 받아 신위전에서 삼상향三上香, 즉 세 번 분향하는 분향례를 행한다.

**전폐례奠幣禮** | 초헌관이 신위전에 폐백을 올리는 절차로, 대축이 채반 모양의 동그란 싸리받침에 폐백을 담아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은 폐백을 든 다음 다시 대축에게 준다. 대축은 폐백을 신위전에 놓는다.

**초헌례初獻禮** | 초헌관이 신위전에 헌작하는 예다. 전폐례를 마치고 원래 자리로 내려간 초헌관은 알자의 인도에 따라 준소樽所로 올라와 동쪽편에서 서쪽을 향해 선 다음 작주酌酒를 지켜본 후 사당에 들어가 신위전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집사는 신위전에 올릴 작을 준소樽所에서 받아 초헌관에게 건넨다. 초헌관은 작을 받아서 헌작을 하고 집사에게 주면, 집사는 작을 다시 받아 신위전에 올린다.

**독축** 讀祝 | 대축은 초헌관의 왼쪽에서 동쪽을 향해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데, 대개의 서원에서는 이 때 참사자 모두가 부복을 한다. 하지만, 옥산서원에서만 보簾과 궤簾의 덮개를 열면 독축을 하고, 이 때 초헌관만 무릎을 꿇고 있다가 부복하고 ‘흥興’하라는 창에 맞추어 부복한 후 일어난다.

**아헌례** 亞獻禮 | 아헌관이 신위전에 헌작하는 예다. 아헌관은 알자의 인도를 받아 준소에 들렀다가 신위전에 이르면 꿇어앉고 집사가 건넌 잔을 신위전에 잠시 들었다가 집사에게 건네면 집사는 잔을 초헌잔 옆에 놓는다. 독축이 없는 것 말고는 초헌례와 같다.

**종헌례** 終獻禮 | 종헌관이 신위전에 헌작하는 예다. 종헌례 방식은 앞서의 아헌례와 차이가 없다. 종헌례가 끝나고 종헌관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 일반서원은 바로 음복례를 행하지만, 옥산서원에서는 삼헌관이 함께 재배하여 삼헌례가 끝났음을 알린다.

도동서원 독축



음복례飲福禮 | 초헌관이 대표로 음복위에 나아가 서향하여 신이 흠향한 술과 조육을 맛보는 예다. 음복수조례飲福受胙禮라고도 한다. 음복과 수조로 진행되는 음복례는 준소에서 대축이 전달한 복주福酒와 육포로 초헌관이 행한다. 다른 서원에서는 음복례를 행하고 헌관 이하 재배를 하거나, 헌관만 재배를 하는데, 옥산서원에서는 음복례 후에 재배가 없다.

철변두撤邊豆 | 철변두는 진설된 제물을 물린다는 의미로, 대축이 변과 두를 조금 옮기는 것을 말한다. 사신辭神의 의미로 대부분의 서원에서는 철변두 후에 헌관 이하 재배를 하는데, 도동서원과 같이 헌관만 재배를 하기도 한다.

망료례望燎禮 | 망료례는 축문을 구덩이에 묻거나 태우는 예다. 축문을 폐백과 함께 묻는다고 하여 망예례望瘞禮라 하지만, 영조대 이후로 묻지 않고 태우기 때문에 망료례라고 한다. 망료례는 대축이 철변두 후에 축을 태우면, 초헌관이 알자의 인도를 받아 이를 지켜보는 의식이다. 폐백은 태우는 것이 원칙이나, 옥산서원에서는 폐백을 태우지 않고 향사가 끝난 후 유사에게 준다.

옥산서원 망료례



## 향사 마무리

망료례를 마치면 알자는 초헌관 왼쪽에 서서 ‘예필禮畢’이라 고하고 삼헌관과 참사자들을 인도하여 나간다. 그런 다음에 알자는 다시 돌아와 대축 및 집사들과 함께 재배를 하며, 대축은 합독闔楮, 즉 위패의 뚜껑을 닫는다.

옥산서원의 예처럼 집례 전에 유사가 예를 진행했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유사가 재배를 한다. 다음은 도산서원의 사례를 통해 향례일 아침의 행사에 대해 언급한다.

도산서원에서는 금번 제향이 잘 치러졌는지 점검하는 절차로 제공사祭公事, 또는 제사공론祭祀公論을 행한다. 행사일 아침 일찍 대축과 집례는 동재東齋의 남벽南壁 밑에서 북쪽을 향하여 나란히 앉고 집사들은 동서로 서로 마주보고 앉는다. 먼저 조사肅司가 대축과 집례에게 전작奠酌하고 좌정하면 집례는 행사行祀때 실례失禮가 있었는지 자세히 문답한 다음 모두를 물러나게 하고, 대축과 집례는 서로 마주보고 앉아 반성하고 다음에는 실례가 없도록 다짐한 후 파좌罷座한다.

제공사가 끝나면 모두 전교당에 개좌한 자리에서 재유사齋有司가 향약鄉約 약문約文을 읽는 독약讀約을 하고 음복례飲福禮에 들어간다. 음복상이 나오면 초헌관부터 순서대로 작주酌酒하고 좌읍례坐揖禮를 행한 다음 일제히 음복한다.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순서로 잔을 돌리기를 세 번 한 다음 서로 읊하고 파좌罷坐한다.

## 4.2 정알례와 삭망례

정알례正謁禮 | 매년 정초에 알묘하는 것을 정알正謁 또는 정조알묘례正朝謁廟禮라 한다. 이는 새해를 맞이하여 선현께 인사를 드리는 의례로서 삭망례 보다는 절차가 좀 더 복잡하다. 대개 정월 초 4일 원장과 재유사 및 향중의 여러 유림들이 입원하여 초 5일 새벽 5시 경에 행한다. 원장은 당상에서 남향하여 서고, 재유사齋有司와 참례자들은 북쪽을 향하여 묘정의 동서에 나이

순으로 선 뒤 읍례揖禮를 하는데, 이를 정읍례庭揖禮라 한다. 조사曹司가 재유사 앞에 나아가 읍하고 뵈면, 재유사가 집례를 추천한다. 다시 조사는 알자 앞에 나아가 서로 상읍례를 한 뒤 제자리에 돌아가면 집례가 묘우로 가서 홀기를 창한다. 위차에 따라 예를 마치고 모두가 강당에 돌아와 원장과 연장자들이 동벽에서 서쪽을 향하여 서고, 집례 이하는 동쪽을 향하여 상하로 서서 읍례를 한 뒤 물러난다. 옥산서원과 소수서원에서는 매년 정월 초 5일에 정알례를 행한다.

삭망례朔望禮 |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행하는 분향례焚香禮로, 향알례香謁禮, 또는 삭망알묘朔望謁廟라고도 한다. 매월 삭망일 하루 전날 재유사齋有司가 입재하여 삭망 당일 새벽 6시 경에 의관(유건과 도포)을 정제하고 봉향, 봉로한 사람씩을 앞세워 묘정에 나아가 관세위에 손을 씻고 계단 사이에 마련한 향로에 나아가 세 번 향을 올리고 두 번 절한다. 그리고 묘우 안에 들어가 신위를 봉심奉審한다.





소수서원 향사 도동곡(도동곡을 창하는 모습)

## 5. 서원마다 간직해 온 고유의 의례관행

### 5.1 도동곡道東曲을 창창하는 소수서원

1541년(중종 36)에 풍기군수로 부임한 주세붕周世鵬이 이듬해에 이곳 출신 유학자인 안향安珦을 제향하기 위해 사묘祠廟를 세우고, 1543년(중종 38)에 유생교육을 위해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건립한 뒤, 1550년(명종 5)에 ‘소수紹修’로 사액받음으로써 소수서원은 한국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었다. 안향을 주향으로 모시던 소수서원은 이후 안축安軸과 안보安輔, 주세붕周世鵬을 차례로 배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소수서원의 춘추 향례 절차는 서원을 창설한 주세붕이 처음 정한 것이다. 『국조오례의』에 서원 제례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주세붕은 향교 석전이나 가례 등을 모방하여 제식을 만들었다. 향사는 춘추 3월과 9월 첫 정일 丁日 자시에 올리고, 성생腥牲으로 평을 썼는데, 현재에도 계절季月의 상정일 上丁日에 향사를 지낸다.

이황도 주세붕이 만든 제식에다 향교 석전을 참고하여 백운동서원의 제식을 작성하였다. 즉 진설도에서 제수 중 밀과密果는 설미褻味이므로 학學에서 사용할 수 없고, 과菓를 두료에 올리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하여 녹해鹿醢로 대체하였으며, 우사두右四豆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좌사변左四簋에 황율黃栗을 어숙魚鱸으로 대체하여 진설 위치도 변경하였다. 그리고 향례 절차에는 상향례上香禮와 초헌례初獻禮를 구분하였고, 음복飲福 후 수조를 하고 배례拜禮하게 하였다.

소수서원 춘추 향사의 가장 큰 특징은 3헌관이 잔을 올릴 때마다 도동곡道東曲이라는 악장樂章을 부르는 것이다. 도동곡은 주세붕이 1541년(중종 31)에 지은 9장의 경기체가로, 안향에 의해 중국의 도학이 조선에 전래되어 널리 전파된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도동곡은 초헌, 아헌, 종헌관이 문성공 안향

신위전에 헌작(獻爵)한 후에 부르며, 도동곡에 익숙한 장로 1인과 젊은 유생 1인이 항상 묘정에 마주 서서 같이 부르게 한다. 이는 도동곡의 전승을 위한 것이다. 젊은 유생은 초헌, 아헌, 종헌 때마다 교체하며, 장로 1인을 포함해서 모두 4명이 부른다. 다른 서원의 향사에는 원래 제례악이 없으며, 현재 한국의 제례에서 종묘(宗廟)와 문묘(文廟)를 제외하고 악장을 부르는 유일한 곳이 바로 소수서원이다.

향사 의례에서 도동곡이 불리는 절차는 주세붕과 이황이 작성한 흘기에는 나오지 않고, 『죽계지』 「행록후」의 제사법식에 등장한다. 현재의 춘추 향사는 이황의 개정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나, 다만 삼상향 다음에 전폐례가 추가되고, 각 헌관의 헌작 다음에 도동곡을 부르는 악정(樂正)이 추가된 점이 다르다. 전체 9장으로 이루어진 도동곡은 초헌, 아헌, 종헌례에서 각 3장씩 불리고 있다.

일반적인 서원 출입은 동계로 올라 동계로 내려오며, 사당의 출입은 보통 중문은 신도(神道)로 여겨 출입을 금하고, 동문으로 들어가 서문으로 나오거나, 동문으로 들어갔다 동문으로 나온다. 그러나 소수서원과 도산서원의 경우 헌관은 동계로 올라 중문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는 동문으로 나와 동계로 내려오며, 서문은 헌관과 대축이 망료례 때만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 5.2 형식과 예를 갖추어 석미(浙米)를 하는 도산서원

퇴계 이황(李滉)을 주향, 월천 조목(趙穆)을 종향하고 있는 도산서원의 제향의식은 이황이 개정한 소수서원 의례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다만 진설도에 치성(雉腥)을 시생(豕牲)으로 고치고, 2보 2례를 ‘계미국감(癸未國減)’이라 하여 1보 1례로 하였으며, 전폐(奠幣)도 ‘무진국감(戊辰國減)’이라 하여 전폐례는 시행하지 않는다. 현재 주향인 이황 신위에는 2번 2두를, 종향인 조목 신위에는 1번 1두를 진설한다.

도산서원 춘추 향사의 특징은 음복수조와 철변두 다음에 ‘헌관이하(獻官以下) 개재배(皆再拜)’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음복수조 다음의 배례는 수희배(受禧拜)

이고, 철변두撤籩豆 다음의 배례는 예필배禮畢拜이다.”라고 한 이황의 소수서원 홀기 개정문에 따라, 배석에 있는 헌관 뿐만 아니라 일반 참례자도 함께 재배를 하는 것이다.

도산서원의 향사는 일찍이 다른 서원의 전형이 되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도산서원만이 갖는 특징을 찾아내기 힘들다. 다만 입재일 점심식사 전과 향사례 후의 음복례 전에 독약讀約을 하는 것과 헌관 집사 분정 후 축문을 쓰는 축문봉치 의식과 제물을 준비할 때 쌀을 씻는 과정 등은 다른 서원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전통이다.

제관 전원이 입재하여 강당인 전교당典教堂에서 집사 분정을 마치면, 대축이 상덕사尙德祠에 들어가서 축관이 담겨있는 함을 받들어 전교당 중앙에 좌정하여 축문을 쓴다. 이때 대축이 직접 축지祝紙를 재단하고 봉인된 먹을 개봉하여 갈아 새 붓으로 축문을 써 축관에 붙여 함에 넣고, 다시 상덕사의 축상祝床에 봉치奉置한다. 이 때 축함이 전교당에 들어오고 나갈 때 모두 일어서서 축함을 향하여 읍례揖禮를 하며 축관은 사당의 중문으로 출입하게 된다. 축문을 쓰는데 사용한 먹과 붓은 대축에게 지급한다. 1980년대 이전에는

도산서원 쌀과 기장을 아홉 번 행군다.



퇴계 이황 선생이 사용하던 매화연梅花硯을 가져다 사용하였으나, 유물도난 사건 이후부터는 한존재에서 사용하는 벼루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분정과 축문봉치가 끝나면 그 자리에 식사자리를 개화하여 재유사가 독약讀約을 하고 점심식사를 한다.

또한 점심식사 후에는 희생의 상태를 살피는 간품례를 전교당 앞뜰에서 하고, 저녁식사가 끝나면 석미漸米를 시작한다. 참사자들은 전교당 앞뜰에 모여 두 줄로 북쪽부터 순서대로 동서향으로 마주보고 섰다가 재유사가 시사를 데리고 전사청에 들어가 제미祭米를 받들고 뜰로 나오면 모두 읍례를 한다. 시사들이 햇불을 밝히고 제미를 단지에 담아 들고 재유사들이 그 뒤를 따라 진도문進道門으로 나가 열정 우물로 간다. 단지에 물을 부어 흔들어 씻어내는데 불결하다고 하여 손을 대지 않으며, 씻는 것을 알리기 위해 큰 소리로 수를 세는데 첫 번째를 ‘새로’라고 하며 두 번째부터는 ‘둘’, ‘셋’ 등으로 불러 아홉까지 세며 그때마다 재유사 5명이 함께 복창한다. 1975년 안동댐 축조 이전에는 강변으로 나아가 배를 타고 중류에 이르러 제미를 9회씩 정세精洗하였다. 석미가 끝나면 즉시 돌아와 진도문으로 들어오면 기다리던 제관들은 남쪽부터 순서대로 서서 이들을 맞이하고 재유사가 제미를 전사청에 환봉還奉하면 서있던 자들은 다시 방향을 바꾸어 북쪽부터 순서대로 서 있다가 재유사가 돌아오면 정읍례庭揖禮를 행한 후 각자의 처소로 돌아간다.

### 5.3 묘제도 지내는 도동서원

도동서원은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1454-1504)을 주향, 김굉필의 외손인 한강寒岡 정구鄭逵(1543-1620)를 배향으로 모시고 있다. 도동서원의 강당인 중정당中正堂 옆에는 초석 위에 넓적한 사각 석판石板을 얹어 만든 별도의 성생단省牲壇이 있어 이곳에서 성생례를 행한다. 춘추 향사는 다른 서원과 달리 축시인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거행하는데, 상향례와 초헌례를 구분하지 않고 초헌관이 삼상향과 전폐례를 봉행한 뒤 바로 초헌례를 봉행한다. 그리고 헌작 때 삼제주三祭酒를 해서, 다른 서원에는 없는 모사茅沙가 향합 옆에





도동서원 묘제

있다. 남계서원에서도 헌작 때 삼제주를 하고 신위전에서 재배를 하나, 도동서원에서는 신위전에서 재배를 하지 않고 종헌례 후에 헌관들이 모두 배위로 나와 재배를 한다.

음복수조례에도 초헌관이 음복위로 나아가 음복과 수조 다음에 재배를 하고 자리로 돌아오면 자리에 있는 모든 참사자가 재배를 하는데, 이때 초헌관은 재배를 하지 않는다. 또한 망료례도 독특하게 사당 서편 담장 중간에 사방 벽돌 2개 크기로 구멍을 낸 감坎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축문 및 폐백을 태운다. 도동서원의 향사는 일반 서원과 다른 행례 내용도 보이지만, 서원이 주체가 되어 주향主享에 대한 묘제를 올리는 것도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이다. 서원 설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정구가 무이고사武夷故事를 인용해 서원 뒤에 있는 묘소의 춘추묘사를 서원에서 설행하도록 조치하고, 조정에서 묘소를 수호할 산직山直 10명을 획급劃給한 이래로, 이 서원의 유사들은 춘추 향사 외에도 음력 3월 10일과 10월 2일에 주향인 김굉필의 묘소에서 묘제를 지내는데, 7년 전부터는 가을 묘제만 지내고 있다.

묘제날 아침에 유사들은 묘소 앞에 모여 차일을 치는 등 묘제 준비를 한다.

진설은 서원 향사와 일반 묘제의 제수를 같이 쓰고 있다. 즉 과일은 대추, 밤, 잣, 과자, 연실蓮實, 감, 채소는 부추, 미나리, 무, 포해는 어포, 육포, 젓갈, 탕은 어탕과 육탕 각 두 그릇, 국수와 떡과 식초 등을 올리는데, 밥과 국을 올리지 않는다. 진설을 마치면 서쪽의 김굉필 아버지 묘제를 봉행한 다음에 김굉필의 묘제를 봉행한다. 절차는 일반 묘제와 같은데, 밥과 국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헌작 후에 유식례 없이 바로 사신재배를 한다.

그리고 다른 제례에서 시행하지 않는 준례餼禮를 행하고 있다. 묘제 봉행 후 준례는 묘소가 아닌 서원 강당에서 행한다. 먼저 중앙의 소반 위 잔에 술을 부어 놓고 대축大祝이 모든 자리를 향하여 재배를 하고 잔을 비운다. 그리고 대축이 다시 잔에 술을 부어 초헌관 앞에 놓고 초헌관과 맞재배를 하며, 또 잔을 비우고 아헌관 종헌관 등 모든 집사와 같은 방법으로 술잔을 돌린다. 대축의 순배가 끝나면 집례가 대축과 같은 방법으로 술잔을 돌리고, 집례의 순배巡杯가 끝나면 초헌관도 대축이 행한 순배와 같은 방법으로 술잔을 돌리는 것으로 준례를 끝마친다.

#### 5.4 제향 전 야하夜下를 제공하는 옥산서원

옥산서원은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1491-1553)이 관직생활 중 김안로金安老의 등용을 반대하다 오히려 정적들의 공격을 받아 파직되자, 그가 낙향하여 기거하던 독서처에 이언적을 주벽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이후 이언적이 1610년(광해군 2)에 문묘에 종사되면서 그 영향력이 크게 증대되어 이황을 모신 안동의 도산서원과 함께 영남 남인을 대표하는 서원으로 자리 잡았다. 옥산서원의 춘추 향사는 새벽 1시경에 시작된다. 이보다 반시간 전에 모든 제관은 의관을 정제한다. 그리고 그 전에 제관들은 강당 대청, 또는 서재에서 야하夜下를 받는다. 야하란 글자 그대로 새기면 밤에 내린다는 뜻인데, 제사에 들어가기 전에 허기지지 말라고 제공하는 미음 간식을 일컫는 말이다. 미음을 제공하는 이유는 구감口瘡, 즉 시장기가 심할 때 나는 입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궁극적으로 향사는 첫째가 엄숙해야 하고 다음으로

정성을 다해야 하는데, 야하를 제공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한다.

옥산서원의 제향의절은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변화되면서 진화進化되었음을 알 수 있다. 1614년(광해군 6) 2월에 작성된 홀기와 현재의 홀기를 비교해 보면 변화된 사실을 찾을 수 있다. 옛 홀기의 진설도를 보면 2보 2권에 4변 4두이며 치성雉腥이 그려져 있다. 제수도 주세붕이 정한 백운동서원의 문성공묘제文成公廟祭의 진설도와 같으나, 옥산서원에는 폐비幣篚가 없다. 현재의 진설도는 1보 1권에 4변 4두이고 제수도 좌측의 밀과密果는 녹해鹿醢로, 우측의 백자柏子是 어포魚脯로 바꾸었다. 치성雉腥도 시생豕牲으로 변경되고 폐幣가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옥산서원에서는 축문 작성을 사당에서 행한다. 즉 분정이 끝나면 대축은 체인묘 사당 문을 열어둔 채 내삼문 밖에서 축문을 작성한다. 삼헌관은 알자와 찬인의 인도 하에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좌정하여 이를 지켜보고, 축문 작성이 끝나면 헌관에게 확인을 받고 축문을 조그만 축상에 받쳐 들고 사당 제상 아래 향탁 좌측에 둔다. 그리고 다른 서원과 다르게 희생의 경우 무변루와 구인당에서 사당에 이르기까지 사다리를 설치해두고서 가자로 실어 중문을

옥산서원 제향 전 야하夜下



통해 옮기는 것도 특이하다.

1614년의 홀기에는 전폐례가 없고 각 헌관이 헌작한 다음에 신위전에서 재배를 하고 자리에 돌아오며, 음복은 대축이 종헌주終獻酒를 따라와서 헌관이 복주 및 수조를 하고 철변두 없이 망료례를 한다. 현행 홀기에는 삼상향 후에 전폐례를 하며, 각 헌관이 헌작한 다음 자리에 돌아와서 기다렸다가 종헌례가 끝난 후 모든 헌관이 함께 배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음복도 대축이 준소樽所에서 복주를 가져와서 초헌관이 복주福酒를 하도록 바끼고, 수조 후에 초헌관이 자리로 돌아와 헌관 모두가 재배하도록 추가되었으며, 철변두의 절차도 추가하여 대축이 철변두를 하고 헌관과 학생이 재배를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다.

옥산서원의 향사는 다른 서원의 모범이 될 정도로 오랜 전통과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다. 제관이나 집사 모두 향사 경험이 많아서인지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다. 홀기에 따라 정확히 움직이고 시간도 여유 있게 진행한다. 향례를 마치고 제사공론을 따로 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도 모른다. 또한 초집抄執을 바로 전의 삭망례와 연결하여 가짐으로써 향사 전체 일정에 여유를 갖는 것도 이 서원이 갖는 특징이다.

제물로서 희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생간례省看禮 또는 간품례看品禮를 옥산서원에서는 감생瞰牲 또는 감생監牲이라고 한다. 역락문亦樂門 밖에 단과 모든 유생의 자리를 설치하여 깨끗한 자리와 관세대야를 바르게 하고 헌관 이하 모든 집사가 차례로 나와 선다. 시생담당자가 의대衣帶를 갖추어 시생豕牲을 메고 나아가면 자리에 있는 모두는 읊례를 한다. 헌관은 시생 남북향으로 서면, 재유사는 서쪽에서부터 좌로 돌면서 세 번 손을 씻고 닦은 다음 꿇어앉아 시생을 문지르고 헌관을 향하여 읊을 하며 돌臚을 고하고, 헌관은 충充으로 답을 한다. 이렇게 감생을 마치면 시생을 주사廚舍로 옮겨 제수 준비를 한다. 전체 진행에서 유사비 비중이 큰 것도 옥산서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5.5 제향 공간과 제물준비 공간이 분리된 병산서원

서애 류성룡(柳成龍)을 주향, 그의 셋째 아들 류진(柳珍)을 배향하고 있는 병산서원 춘추 향사의 특징은, 현재에도 ‘존현’과 ‘교육’이라는 서원의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서원재단에서 설립한 풍산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향사에 참여시키면서, 이른 아침에 향사를 지낸다는 점이다. 헌관 및 집사는 서원의 인사위원회에서 선임하는데, 인사위원회는 류성룡의 제자 문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병산서원의 제향 관련 건축물로는 사당인 존덕사(尊德祠), 제물을 준비하는 전사청, 그리고 신문(神門)이 있다. 존덕사 오른쪽에 자리한 전사청은 사당에 올릴 제수를 준비하는 곳이다. 대개는 사당과 한 울타리 안에 두는데, 병산서원에서는 전사청과 사당이 담으로 분리되어 있다. 아래쪽에는 주소(廚所)가 있어 제수를 마련하거나 마련된 제수를 나르기 위해 사당 공간과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주소는 서원의 관리와 식사 준비를 위해 지어진 건물로 묘지기, 장무, 정지지기들이 거주하며 고직사(庫直舍)라고도 한다. 제물마련도 향사의 한 절차이지만 사당을 좀 더 신성한 공간으로 유지하려는 건축적인 배려인 것이다.

병산서원의 춘추 향사는 소수서원과 같이 계월(3월과 9월)의 상정일에 행하는데, 축문 작성은 옥산서원과 같이 존덕사 사당에서 행한다. 집사 분정이 끝나면 대축이 초헌관을 모시고 사당 월대 위 서단에서 축문을 쓴다. 대축은 북향하여 축문을 쓰고, 초헌관은 동쪽에서 서향하여 이를 감독한다. 축문을 작성한 후에는 향사에 올리는 제물을 제기에 올리기 전에 초헌관 및 재유사가 4인의 입회하에 근봉 의례를 행한다. 제물 봉치는 정해진 향사물목단자와 대조하면서 제수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하고 근봉한다. 근봉한 이후에는 향사를 올릴 때까지 열어볼 수 없다. 제물 근봉이 끝나면 사당으로 옮기는데, 이 때 초헌관을 비롯하여 모든 제관들은 사당 아래에 2열로 도열하였다가 제물이 사당 중문을 통해 들어갈 때 읊으로 예를 표한다.

병산서원의 향례 절차는 도산서원과 같이 전폐례가 없고, 주향위에는 삼헌 및 독축을, 종향위에는 독축 없이 단헌(분헌례)을 한다. 종헌례에 종헌관과



분헌관分獻官이 함께 올라 종헌관은 주향위에, 분헌관은 종향위에 헌작을 하게 되는데, 분헌관이 헌작에 앞서 종향위에 삼상향을 하는 것이 다른 서원과 다르다. 또한 병산서원의 망예례望臺禮도 특징적인데, 초헌관이 음복례로 수조를 마치면 대축이 돼지 귀를 축문에 쓴 다음 망예례를 위해 사당 서편 지정된 곳에 설치한 감坎에다 묻고 뚜껑을 덮는다.

그리고 향사 절차를 모두 끝내고 참사자들이 음복례를 행하기에 앞서 이번 향사가 절차상 실례가 있었는지를 점검한다. 병산서원에서는 이것을 제사공론祭祀公論이라 한다. 진행은 글씨를 담당하는 조사曹司가 하는데, 집사 중에 나이가 어린 순서로 3인을 택하여 먼저 “제사공론 합시다.”라고 말하면 “제사에 결례는 없었습니까?”라고 물어본다. 공론이 다 오고가면 “제사공론과 합시다.”라고 한다.

## 5.6 계생비繫牲碑가 있는 필암서원

필암서원은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1510-1560)를 주향, 양자징梁子澂을 배향으로 모시고 있다. 필암서원의 춘추 향사에서는 여타 서원과 달리, 성생단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간례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필암서원의 사당인 우동사祐東祠 앞에는 계생비繫牲碑라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 이는 춘추 향사에 제물로 쓸 가축을 묶어놓는 비석으로, 전면에는 ‘필암서원계생비筆巖書院繫牲碑’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향사 준비 절차의 하나로 제관들은 계생비에 묶인 가축의 주위를 돌면서 제물로 쓰기에 적당한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향례 2일전에 유사는 서원 내외를 청소하고 1일전에 생간례省看禮를 계생비 앞에서 시행한다. 이때 헌관은 생牲의 남북향으로 서고 대축이 생牲의 동서향으로 서면 장생掌牲이 물을 세 번 붓고 찬인贊引은 헌관獻官을 인도하여 세 바퀴를 돌면 대축이 따라 돈 다음 대축이 헌관 왼편에서 ‘충充’이라 고하면 헌관은 ‘돌臚’이라 답한다. 일반 서원에서는 성생단에서 주로 생간례를 시행하나, 필암서원에서는 이와 같이 계생비에 가축을 묶어놓고 생간례를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도산서원이나 옥산서원에서는 유사가 충充을 고하는데,

필암서원에서는 대축이 하고 있음도 특이하다.

그리고 제물봉진례祭物奉進禮도 헌관 이하 여러 집사가 청사에서 제복을 입고 행한다. 별도로 대축의 위치를 여러 제관이 서로 볼 수 있는 곳에 마련하는데, 대축이 제수봉진기祭需奉進記를 탁자 위에 놓고 조항마다 호칭을 한다. 알자가 제물을 받들어 여러 제관 앞으로 돌면 제관은 읊을 하고, 대축은 점으로 표시를 하는데, 알자는 제물을 탁자 위에 올려놓는다. 이것이 끝나면 제관은 일어나 계단으로 내려가 읊을 하고, 대축은 장찬掌饌을 이끌고 제물을 받들어 사당 안으로 들어간다. 필암서원의 춘추 향사는 향고 석전에 준한 내용을 보여주는데, 진설은 1보 1궤, 4변 4두로 하고, 진폐례를 행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다른 서원은 주향主享에만 독축을 하나, 필암서원은 배향위配享位에도 별도의 독축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향례를 마친 후에 분포례分脯禮도 별도로 봉행奉行한다. 절차는 헌관 이하가 청절당淸節堂에 차례로 좌정하면 알자謁者가 작은 상床을 하나씩 모든 제관 앞에 놓고 조육胙肉을 올리면 제관은 읊을 하며 받는다. 또 찬자贊者가 청주 한 잔을 올리면 헌관 이하가 다 같이 마신다. 그리고 나서 전원이 일어나서 동서로 마주하여 상읍례相揖禮를 하고, 다시 앉아 백록동학규를 돌아가며 읽는다.

필암서원 계생비 주변



## 5.7 황토를 깔아 신도神道を 만드는 무성서원

무성서원은 신라말기 인물인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857-?)이 태산현령으로서 선정을 베풀어 그 공덕을 기리고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태산사泰山祠를 세운 것을 시작으로 이후 여러 사람이 추향되어, 현재는 최치원을 주향, 신잠申潛 · 정극인丁克仁 · 송세림宋世琳 · 정언충鄭彦忠 · 김약묵金若默 · 김관金灌 6인을 배향으로 모시고 있다.

무성서원의 춘추 향사는 매년 2월과 8월 중정일에 지내다가 봄 향사 1회로 축소되었다. 향사 이틀 전에 장의들이 입재하여 집사를 정하는 분방分榜 의식을 행한다. 다음날 시장에 가서 희생과 폐백 등 제수를 구입하는데, 주향위와 배향위의 제물은 주향위에는 소나 돼지 머리를 놓고 배향위에는 고기를 올리는 등 희생에서만 차이가 난다.

향사가 시작되면 준비한 제물을 가자架子에 담아 현가루부터 사당까지 중앙의 문을 통과하여 운반한다. 제수가 통과하는 길을 신도神道라고 하는데, 이때 다른 서원과 달리 신도 양쪽으로 드문드문 황토를 깐다. 이는 황토를 깐

황토를 깔아 신도를 만드는 무성서원



안쪽이 신도임을 나타냄과 동시에 제물에 부정이 침입하는 것을 막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무성서원의 향사에서 특이한 것은 1보 1궤에 4변 4두를 진설하고, 시성豕腥 옆에 형염刑鹽이 더 있다는 것이다. 형염은 향교 석전의 8변, 또는 남한산성 현절사의 4변에 올리는 제수의 하나인데, 희생 옆에 형염을 놓는 것은 집안 제사의 적爓 위에 소금을 올려놓은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무성서원지』의 홀기에 따르면, 향사 절차는 상향례와 초헌례가 구별되지 않고, 상향 후 전폐례를 행하고 바로 초헌례를 행한다. 최치원과 신잠 2위가 주향이었던 당시에는, 주향에만 독축을 하고, 나머지 배향 5위에 대해서는 독축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음복수조와 철변두撒籩豆 다음에 헌관 이하 모두 재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30여 년 전에 최치원만 주향으로 하고, 신잠을 배향으로 하면서 주향위에만 독축을 한다. 그리고 종헌 및 음복례 후에 삼헌관만 재배를 하고, 철변두撒籩豆 다음에는 헌관은 재배를 하지 않고 학생 모두가 재배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 5.8 원회院會에서 제관을 결정하는 남계서원

남계서원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서원으로, 일두 정여창鄭汝昌(1450-1504)을 주향, 정온鄭蘊과 강익姜翼을 배향으로 모시고, 별묘에 유호인俞好仁과 정홍서鄭弘緒를 배향하다 1868년(고종 5) 대원군의 훼손령 때 별묘만 훼손되었다. 춘추 향사는 매년 2월과 8월 중정일 새벽 5시 경에 지내며, 미리 입재한 헌관 이하 제관들이 의관을 갖춘 후 헌죽으로 허기를 달랠 겸 마음을 정결하게 한 다음 제향에 임한다.

남계서원에서는 원회院會를 통해 미리 제관을 모두 선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는 원장을 비롯하여 함양 유림 30여 명이 모인다. 삼헌관과 기타 제관에 대한 선정을 마치면 바로 이들에 대한 망기望記를 작성한다. 이어 지난 해의 수입과 지출내역, 그리고 앞으로의 예산 등에 대해 의논한다.

제수는 제향 이틀 전에 함양읍내의 재래시장에서 준비한다. 생으로는 검은

색의 살아있는 돼지를 사와서 묘정의 성생단에서 성생례를 한 후 고직사로 가져가 잡는다. 돼지의 머리와 앞 두 다리는 주벽에 올리고, 뒷다리는 하나씩 배 위에 올린다. 그러나 다른 제수는 주벽과 차이가 없다. 쌀과 기장을 익혀 고두밥을 만들어 제물로 올리는 것이 또한 이 서원의 제례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제향이 끝난 후 별도의 음복례가 없는 대신 자유롭게 아침 식사를 하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남계서원의 흘기첩笏記帖에는 향사일과 재계일齋戒日을 앞에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되고 건너 띄어서도 안 되기 때문일 것이다. 재계는 향사 3일 전에 참례자가 모두 모여 산재散齋 2일간 함부로 술을 마시지 않고 뉘새나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더럽고 험한 일은 같이하지 않는다. 그리고 1일 전에는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향사 절차에 다른 서원과 비교하여 특이한 사항이 발견된다. 도동서원과 같이 삼상향과 초헌례를 구분하지 않으나, 각 신위마다 전폐奠幣 다음에 재배를 하며, 헌작은 창주서원 석채의와 같이 각 신위마다 헌관이 삼제주三祭酒하여 올리며 헌작 다음에 재배를 한다. 이때까지 재배는 사당 내 신위전에서

남계서원 원회





한다. 또 초헌관이 음복위飲福位에 나아가 재배를 하고 음복을 하며, 수조 후에 또 재배를 하고 초헌관이 자리에 돌아오면 재위자가 모두 재배를 하는데, 이때 초헌관은 재배를 하지 않는다. 철변두 후에는 헌관 및 학생이 모두 재배를 한다.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행하는 삭망례 절차도 다른 서원과 차이가 있다. 우선 사당 중문은 열어놓고 신위마다 분향을 하며, 이어 행하는 부복례俯伏禮나 배례拜禮를 각 신위전에서 하지 않고 사당을 나와 중문 밖에서 제관들이 일동 재배한다.

## 5.9 장의掌議 회의에 제관결정을 위임하는 돈암서원

돈암서원은 제향 인물은 모두 문묘에 종사된 선정신先正臣으로, 기호학파의 적통을 대표하는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1548-1631)을 주향으로 하고, 그의 아들 김집金集, 노론의 거두 송준길宋浚吉과 송시열宋時烈을 배향으로 모시고 있다.

돈암서원에서는 춘추 향사를 앞두고 장의회의를 여는데, 이때 원장, 총무장의, 재무장의 등 10여 명이 모여 향사를 진행할 제관들을 결정한다. 그리고 바로 망기에 해당하는 천장薦狀을 만들어 각 제관 집으로 우편으로 보낸다. 제물은 재무장의 등이 향사 2-3일 전에 장에 가서 장만한다.

돈암서원의 규약은 의례를 준수遵守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제정되어 있다. 의례준수를 위하여 사전 사후의 제반사항을 엄격히 규정하여 결례 없이 봉행토록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돈암서원 춘추 향사의 특징은 다른 서원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진설도에서 찾을 수 있다. 진설은 1보 1궤이고, 3변 3두이다. 제수도 변邊에 녹포鹿脯, 황율黃栗, 능인菱仁을, 두豆에 녹해鹿醢, 무(청저薺菹), 부추(구저韭菹)를 올린다. 녹포는 우포牛脯로, 능인은 개암(진자榛子) 또는 잣(송자柏子)으로 대용할 수 있고, 녹해는 토해兕醢나 치해雉醢, 어해魚醢로 대용할 수 있다. 생牲은 돼지 혹은 염소로 한다. 3변 3두도 특이하지만 제수에서도 능인을 쓰는 경우와 능

인이 없으면 개암으로 대용한다는 것과 녹해가 없으면 토해나 치해로 대용하는 것도 다른 서원 의례에서는 찾기 힘든 특이한 사항이다.

그 외 돈암서원의 향사 절차는 여느 서원과 같으나, 다만 향사를 시작하기 전 사당의 신위전에서 고종 때 왕실에서 하사한 내사연(벼루)에 먹을 갈아 축문에 초헌관의 이름을 써놓으며, 옥등잔에 불을 밝히고 제향을 봉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제례가 끝난 후에도 양성당 앞에서 선 채로 둘러 서서 직일공사(直日公事)를 한다. 직일공사란 초헌관이 직일에게 행사진행에 대해 감사를 받는 일을 말한다.

돈암서원 제향-철변두



## 6. 제향 의례로 다져지는 결속과 계승

어느 서원이나 제향을 행하기 전에 회의를 열어 진행을 맡을 제관祭官을 선정한다. 행사 당일 방문하는 사람들은 시도기時到記(요즈음의 방명록)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영구히 기록으로 남긴다. 제사가 시작되기 전, 즉 진설 전에 미리 제향 때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예행연습을 하는 서원도 있다. 이를 습례習禮라고 한다. 제사가 끝나면 제관들은 모여 이번 행사가 예에 어긋나지 않았는지 격식에 맞고 정성을 다했는지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절차를 제공사祭公事, 제사공사祭祀公事, 제사공론祭祀公論 등으로 부르는데, 제향을 끝내고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음복례를 행하기 전에 행한다. 이 절차를 생략하는 서원도 많다. 또한 도산서원의 예처럼 퇴계 선생이 지은 예안향약禮安鄉約 등을 낭독하는 강신례講信禮를 행하기도 한다. 향례는 차분하고 경건하게 천천히 진행된다. 제향인물이 1위인 경우는 1시간 이내에 다 끝나고 여럿인 경우는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 향례를 마치고 새벽 2-3시경에 참사자들이 모두 모여 음식을 나누는데, 이를 음복개좌飲福開坐, 또는 그냥 음복례라고 하는데 향례절차에 들어있는 음복수조례와는 다르다.

모든 향례절차를 마친 헌관 이하 모든 집사들은 강당에 모인다. 음복상飲福床이 나오면 초헌관부터 순서대로 전작奠爵하고 3헌관에게 무사히 제사를 치렀음을 보고하는 좌읍례坐揖禮를 행한 다음 일제히 음복례를 행한다. 음복상에는 제향에 사용한 제주와 함께 포와 밤, 대추를 조금씩 놓는다. 참사자들은 잠시 눈을 붙인 후 오전 7시 경에 아침식사를 하고 치봉과 행자를 받아 집으로 돌아간다. 치봉은 봉치, 봉송, 봉계라고도 하고, 바른말은 봉채封窠로 예물을 의미한다. 치봉으로는 향사에 쓴 생을 넣고 행자로 귀가에 필요한 여비를 넣는다. 제향은 돌아가신 스승이나 위대한 인물을 추모하는 의식이다. 이 의식을 통해 제자나 후손들은 그들의 정신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한다. 그뿐만 아니라 제향은 서로 간에 결속을 다지는 기회가 된다. 제향이 이어지는 한 스승의 정신과 서원의 전통 또한 함께 계승될 것이다.

서원 향사 비교표

	陳設	就位	上香	初獻, 亞獻, 終獻	飲福受胙	撤籩豆	望瘞	행례동선	비고
州縣鄉校釋奠	8번8두 2번2두	執事四拜 請行事 獻官皆四拜	上香奠幣	讀祝(主享)	獻官以下再拜	獻官以下再拜	望瘞	東入東出 (獻官諸執事陞降皆自東階)	
紹熙州縣釋奠儀圖	10번10두 2번2두	請行事 初獻以下皆再拜	奠幣 再拜	三祭, 讀祝(主享, 配享) 再拜	再拜後啐酒, 受胙後再拜, 在位者再拜(初獻不拜)	—	望瘞 禮畢	東入東出 (凡行事執事官升降皆自東階)	
滄洲書院釋采禮	2번2두 1번1두	贊者再拜 在位者皆再拜	焚香 再拜	三祭 讀祝(主享) 再拜	—	在位者皆再拜	—		
주세붕출기	2보2궐 4번4두	執事再拜 獻官皆再拜	上香 讀祝(主享)		受胙, 飲福	獻官以下皆再拜	望瘞		3, 9월 상정
이항출기	2보2궐 4번4두	執事再拜 獻官皆再拜	上香	讀祝(主享)	飲福, 受胙 獻官以下皆再拜	在位者皆再拜	望瘞		3, 9월 상정 석전 참조
소수서원	1보1궐 4번4두	執事再拜 獻官皆再拜	上香 奠幣	讀祝(主享) 樂正(道東曲) 終獻後獻官皆再拜	獻官以下皆再拜	在位者皆再拜	望瘞 禮畢	中入東出	3, 9월 상정
도산서원	1보1궐 4번4두	開櫝開蓋後再拜 獻官再拜	上香	讀祝(主享)	獻官皆再拜 (以下再拜)	在位者皆再拜	望瘞	中入東出	2, 8월 중정
옥산서원	1보1궐 4번4두	開櫝後再拜 請行事 獻官及學生皆再拜	上香 奠幣	開簠簋蓋 讀祝(主享) 終獻後獻官皆再拜		獻官及學生皆再拜	望瘞 禮畢 闔櫝	東入西出	2, 8월 중정
병산서원	1보1궐 4번4두	再拜後開櫝 開簠簋 獻官皆再拜 請行事	上香	讀祝(主享)	獻官皆再拜	在位者及學生皆再拜 閉櫝	望瘞 禮畢	東入東出	3, 9월 상정 증향위(분헌례) —上香後獻爵
도동서원	1보1궐 4번4두	開櫝後再拜 請行事 獻官以下皆再拜	上香, 奠幣 三祭, 讀祝(主享) 終獻後獻官皆再拜		初獻官再拜 在位者再拜	獻官皆再拜 望瘞 禮畢 闔櫝		東入東出 (凡行事執事官升降皆自東階)	墓祭 —再拜, 焚香, 傾酒, 再拜 —初獻: 盞小傾于地, 獻肉炙, 讀祝, 再拜 —亞獻: 盞小傾于地, 獻雉炙, 再拜 —終獻: 盞小傾于地, 獻魚炙, 再拜 —辭神: 再拜, 撤饌

	陳設	就位	上香	初獻, 亞獻, 終獻	飲福受胙	撤籩豆	望瘞	행례동선	비고
남계 서원	1보1궤 4번두	開櫛 請行事 初獻以下皆 再拜	上香, 奠幣, 再拜 三祭, 讀祝(主享, 配享) 再 拜		再拜後啐酒, 受胙後再拜, 在位者 再拜(初獻 不拜)	初獻以下皆 再拜 望瘞 禮畢 闔櫛			『남계서원지』 2, 8월 중정 상준/집례
돈암 서원	1보1궤 3번3두	再拜後開櫛 啓簠簋 獻官及諸生 皆再拜	上香 奠幣	讀祝(主享)	獻官皆再拜	獻官及諸生 皆再拜 闔櫛	望瘞	東入東出 (獻官諸執 事昇降皆 自東階)	2, 8월 중정
필암 서원	1보1궤 4번4두	再拜後開櫛 啓簠簋 請行事 獻官及學生 皆再拜	上香 奠幣	讀祝(主享, 配享)	獻官再拜	獻官及學生 再拜	望瘞 禮畢 闔櫛		『필암서원지』 2, 8월 중정
		再拜後開櫛 啓簠簋 請行事 獻官及學生 皆再拜	上香 奠幣	讀祝(主享, 配享) 終獻後獻官 皆再拜		獻官及學生 皆再拜	望瘞 禮畢 闔櫛	東入西出	현행홀기 2, 8월 중정
무성 서원	1보1궤 4번4두	開櫛後再拜 獻官及諸生 皆再拜	請行事 上香, 奠幣(최, 신, 정, 송, 정, 김, 김) 讀祝(최선생, 신선생)		獻官及諸生 再拜	獻官及諸生 再拜 闔櫛	望瘞 禮畢		『무성서원지』 영정*형엄 2, 8월 중정
		開櫛啓簠簋 後再拜 請行事 三獻官皆再 拜	三香 奠幣(최, 정, 송, 신, 정, 김, 김)	讀祝(최선생) 終獻後獻官 皆再拜	獻官皆再拜	學生皆再拜	望瘞 禮畢 闔櫛		현행홀기 2월 중정

\* 본고는 고 정승모 박사가 급서하여 최순권(국립민속박물관), 이동구(도산서원), 이해준(공주대학교)이  
부분 수정 보완하였음.





병산서원 집사분정을 위해 입교당에 모인 유림들











『소수서원임사록紹修書院任事錄』



# 1. 원임의 구성과 직무

## 1.1 원임의 구성과 자격

서원을 대표하고 그 운영을 책임지는 직책을 원임院任이라 한다. 원임의 구성은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 설립에서부터 기본적으로는 ‘원장院長·유사有司’ 체제로 확립되어 있었으나 각 서원의 제반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백운동서원은 설립 4년 후에 제정된 「사문입의斯文立議」에서 원장院長 1인과 원이院貳 1인을 두어 서원내의 일을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소수서원의 1542-1718년까지의 원장 기록인 『소수서원임사록紹修書院任事錄』 초기 기록에는 원장·원이는 나타나지 않고, 초창기 이황에 의해서 유사로 지칭되었던 김종문金仲文, 안구安駒 등이 원장으로 기재되고 있다. 이는 서원 조직에 있어서 ‘원장제’가 아직 확립되지 못한 초창기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초기 서원 보급운동을 주도하였던 이황도 이산서원 원규를 제정하면서 원장에 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서원 업무를 총괄하는 직임으로 ‘상上·하下 유사’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황의 생각은 경상도지역 서원 원규에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원장에 대한 규정 없이 상·하 유사만을 규정하는 원규가 여러 서원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원규나 『원임안』에서 보면 상·하 유사 이외에도 실제로는 원장을 두었음이 확인되어, 초창기에는 원장직이 정착되지 못하다가 점차 서원제도가 정착되면서 ‘원장·유사’체제로 자리잡아 갔다고 생각된다.

초창기 서원 원규에는 원장에 대한 구체적 자격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소수서원의 “학문에 힘쓰고 신신信愼한 1인을 원장으로 한다.”는 원규가 제정된 이래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이 규정이 그대로 통용되었다. 원장은 서원의 제반사를 총책임지기 때문에 대체로 향촌내 사림으로 선출되었으며, 심지어 서원에서 5리 이내에 거주하는 인사로서 선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규정하기도 하였다. 각 서원의 『원임안』에 근거하면 원장은 일부 예외적으로 인맥·학맥관계로 도내의 인사가 선출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향중<sup>향中</sup> 인사로 나타난다. 또한 현직관료는 거의 없고 대부분 생원·진사·참봉·유학 등 향내에 명망있는 인사로 선출되었다. 이 중 유학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이 같은 사정은 초창기에 설립되었던 남계·옥산·도산·병산·도동서원 등 여타의 경상도 지역 서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원임록』에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원장은 대부분 『입원록』에 입록된 인사 중에서 선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수·역동서원 등의 『원임록』과 『입원록』을 상호 비교해 보면 철저히 입원생 중에서 원장(상유사)이 선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입록자 중에서 원임을 선출하는 것은 하나의 규례였다. 이와 같이 원장이 『입원록』에 등재된 인사 중에서 선출된다는 것은 서원 운영의 자치적 성격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장·유사’ 체제의 서원 운영은 『원임록』 상에서 보면 초기에는 나름대로 일정한 체제를 지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후손의 비율이 증가하고, 특히 원장에 수령이 선출되는 경우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 원장의 임기도 17세기는 1-2년, 18세기는 1년 미만-1년, 19세기에는 일기향사<sup>一期享祀</sup>로 점차 단축되고 있다. 다만 변화의 양상이나 그 시점은 각 서원의 형편에 따라 다소 달랐다.

이렇게 볼 때 17세기까지는 원장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18세기부터 그 기능이 점차 축소되는 추세에 있었으며, 19세기에 오면 원장의 직임은 단지 향사만을 주관하는 일종의 명예직 정도였다고 생각된다. 이는 병산서원에서 보면 원장으로 선출된 자 중 행공<sup>行公</sup>하지 않은 경우가 1773년(영조 49)에 처음 나타나고 이어 19세기에서는 32번이나 나타난다는 데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원이 점차 기호·호남지역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원임의 구성과 명칭도 향교의 교임처럼 장의<sup>掌議</sup>, 유사(또는 색장) 등의 명칭이 나타난다. 이러한 명칭은 대체로 기호지방이나 호남지방의 서원, 특히 서인<sup>西人</sup>계 서원들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인조반정(1623) 이후 정권의 주도권을 잡은 서인들은 자파 세력의 확산을 위하여 여타 지역에서 서원을 집중적으로 설립

하였다. 그리고 원임의 구성을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마련하고 있었다.

서인계 서원의 원임 구성은 ‘원장·장의·유사’ 체제로 나타난다. 서인계 서원 중에는 원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하는 부원장 제도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부원장 제도가 모든 서인계 서원에 전 기간동안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각기 서원의 형편에 따라 수시로 선출되어졌다고 생각된다. 대표적인 노론계 서원인 석실서원石室書院의 경우를 보면,

일세에 위位와 덕德이 있어 선비의 바람이 돌아가는 자를 추대하여 원장으로 한다. 여러 유생 중에 유식자 1인을 택해서 장의로 하고 또 1인을 유사, 또 1인을 색장(경제임京齋任 또한 같다)으로 택한다.

- 김원행金元行, 『미호집漢湖集』 권14 : 잡저 「석실서원학규石室書院學規」

라 하여 원임은 ‘원장·장의·유사·색장’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석실서원의 원임 구성에서 주목되는 것은 경제임京齋任(경장의京掌議, 경유사京有司 등)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임이란 바로 서울의 관료들로 또 다른 원임 구성을 한다는 것으로, 인조반정 이후 기호·호남지역의 서인계 서원에서는 원임을 서울의 고위관료, 지방관과 고을 유림이 나누어 맡는 경우가 많았다. 중앙의 관료들이 맡는 것을 경원장京院長, 경유사, 지방관이 맡는 것을 도유사道有司, 진신유사摺紳有司, 고을 유림들이 맡는 것을 향유사鄕有司 또는 장보章甫유사라 불렀다. 이러한 원임의 구성은 서인계, 후에 노론·소론계 서원에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서인계 서원을 중심으로 경원장 또는 경제임 제도를 마련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이 시기 봉당정치의 전개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다. 서인정권은 당시 봉당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사림 공론公論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자파 세력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자파 서원을 건립하고 그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하였다. 한편 지방의 서원유림들도 향촌 내 서원의 위신과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 나아가 면세·면역 등 경제적 문제를 비롯한 서원 내 제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권력과의 연결이 절실한 형편이었다. 경제임제는 이러한 양자의 상호이해 관계가 결부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러한 경원장제는 기호·호남지역의 서인계 서원뿐만 아니라 영남지방의 노론계 서원은 말할 것도 없고, 기호·호남의 남인계 서원 및 영남지방의 남인南人·북인北人계 서원에서도 채택하였다. 광해군대 북인계를 대표했던 남계서원은 영조대에 노론으로 전향하면서 노론계 대신을 원장으로 추대하였고, 덕천서원은 남인 재상을 원장으로 추대하였다. 남인계를 대표했던 도산서원도 정조 때 채제공蔡濟恭을 원장으로 추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영남 남인계 서원의 경원장제 채택은 일부 서원에 그치고 서인계 서원과 같이 항시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와 같이 중앙의 고위관료를 원장으로 추대하였던 서인계 서원은 원장의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무성武城·덕양德陽서원은 ‘경향의 문음관 3품이상으로 나이가 높고 덕망德望이 있는 자’, ‘재상으로 덕망이 있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무성서원의 경우 사액시인 1696년(숙종 22)에 원장으로 영의정 남구만南九萬이 추대되고 있다. 서인계 서원의 경우 장의도 진신·유림 장의로 구분하여, 진신 장의의 경우 서원 소재지 및 인근 지역 수령 또는 중앙의 현직관료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 1.2 원임의 선출방법

원임의 선출 방법 및 절차는 각 서원마다 관례가 정해져 있어 조금씩 달랐지만, 서원이 어디까지나 사립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서원 유림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원임은 봄·가을 제향 때 유림들이 모여 적당한 사람을 천거하고 이를 권점圈點하여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을 원임으로 삼았다. 선출된 원임은 이름을 서원에 붙여 놓는 형식으로(부표付標라 함) 공포되고, 뒤이어 서원에서 보낸 임명장(망기望記)을 받고 정식으로 임명된다. 원임에 재임되는 경우 천망의 절차 없이 그대로 임명되는데 이를 특망特望이라 한다. 그리고 그 달의 삭망 분향제에 새 원임이 옛 원임과 나란히 제례를 거행하고 사무를 인계받은 뒤 서원의 업무를 정식으로 담당하였다(행공行公이라 함). 사무를 인수인계할 때에 대체로 전장기傳掌記라는 서류의 인계가 보통

이었다. 이러한 원임 선출 방식은 초창기 서원 보급 운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이황의 서원론의 영향이 컸다. 이황의 서원운영론의 핵심은 사림 주도의 향촌자치제라 할 수 있다.

원임의 임기는 1년, 2년으로 규정하는 등 서원마다 일정하지 않았다. 「이산원규伊山院規」에 의하면 상·하유사는 임기 2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각 서원의 『원임안』을 살펴보면 원임의 임기는 대체로 1년이었고 연임, 중임도 가능하였다. 잦은 원임의 교체는 서원 운영에 적지 않은 차질을 가져오기 때문에 중간에 원임 교체를 가급적 허락하지 않았다. 특히 도동서원 원규에는 원장은 ‘일원지장一院之長’이기 때문에 가볍게 교체할 수 없으며, 만약 원장에게 과실이 있다 해도 벌을 가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임 중에 행실을 잃어서 원장의 직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거나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직임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임단자를 서원에 제출하였다.

서인계 서원에서 일반화되어 있었던 경원장, 경재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서원유림들이 모여 중앙의 고위관료 중 특정 인물을 추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은 같은 당색으로서 동향인이거나 배향인물의 내외손 등 일정한 연고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한사람이 여러 서원의 경원장을 겸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임기도 한번 추대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종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20~30년 원장직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었다.

경원장을 추대할 때 서원 유사나 유생 등을 서울로 보내 경원장으로 취임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稟目를 바치고, 승낙을 받는 절차를 취하였다. 경재임이나 진신유사 등도 마찬가지였다. 진신유사가 수령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임으로 선출된 것을 통보한 뒤 승낙을 얻어내는 절차를 취하였다.

경원장 제도를 채택한 서인계 서원의 장의, 유사 등을 선출하는 방법을 『남강원지南康院誌』 절목의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릇 모든 원임은 단망單望으로 (경)원장에게 품보하고 위자爲字를 채워 내려 보낸 뒤 행공하는 것이 가하다.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어 왕래할 때



비용이 많이 드니 천망(薦望)에 따라 하고 뒤에 품보해서 직임을 비워 놓는  
폐단이 없도록 할 것.

대체로 장의, 유사 등은 봄이나 가을의 제향이 끝난 자리에서 추천록을 만들고 이 가운데서 권점하여 비망한 뒤 이를 원장에게 통고하여 위(爲)자를 이름  
아래 받은 사람을 원임으로 임명하는 절차였다.

만약 부적당하다고 여겨지는 인물이 원임으로 선출될 경우 주변의 서원에서  
해당 서원에 통문을 보내 교체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원임들이 성실  
히 임무를 수행하지 않아 긴급히 교체할 경우에, 또는 개인 사정으로 원임을  
사퇴하는 경우에는 도회, 유희 등 유림들의 모임자리에서 책임자를 다시 천  
거하고 이를 다시 경원장에게 보고하여 부표하도록 하였다.

### 1.3 원임의 직무

원임은 서원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운영해 나가는 존재이다. 원장은 유림의  
영수라 일컬어지는 명예로운 직임으로, 대내외적으로 서원을 대표하고 총괄  
하는 책임자로서 서원 운영의 자문에 응하고 춘추제향에 대표로 참가하였다.  
그리고 서원의 기강확립, 유생들의 행실 규찰 등을 담당하였고 반면에 구체  
적인 운영에는 간여하지 않았다. 서원 내의 대소사를 운영해 나가는 담당자  
는 유사이다. 그러나 서원내의 모든 일은 반드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였  
다. 따라서 원장의 친구 교대 시에는 전장(傳掌)이라 하여 반드시 원중의 규모  
와 변화 내용을 인수인계 하도록 하였다.

경원장제를 도입하고 있었던 서인계 서원의 경우 원장이 중앙고위관료였다  
는 점에서 원중의 논의는 대사일 경우 원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였으나 일반적인 서원의 일은 장의가 주관하고 있었으며 경제적인 제 문제  
는 유사가 담당하였다. 서인계 서원의 원임의 직무를 잘 보여주는 석실서원  
학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무릇 원중의 논의는 장의가 주관하며 큰일일 경우는 반드시 원장에게 품한다. 무릇 서원내 물품의 출납 및 재직齎直·사환使喚·집물什物의 유무는 유사가 관장한다.

- 김원행金元行, 『미호집漢湖集』 권14 : 잡저「석실서원학규石室書院學規」

그러나 경원장 제도는 서원의 제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서원 측의 이해관계와 서원을 통한 자파세력의 확대를 꾀하려는 중앙관료들의 상호이해관계가 결부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단순히 명목상의 임무만을 가진 명예직이었다고만 볼 수는 없다.

경원장은 자기가 원장을 맡은 서원에서 새로이 원임후보자 명단을 올리면 비망을 하는 일을 하였다. 또한 매년 말 재정운영 장부를 올려 보내면 이를 확인하는 일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서원에서 경제적 협조문제, 수령과의 긴밀한 관계 주선 등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원만히 해결하도록 당부하는 일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간혹 원장이라는 직임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서원 운영에 문제를 제기·간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도암 이재李緯는 같은 시기 그가 원장(산장)을 맡았던 서원 유생들에게 답한 편지에서 풍속교화, 교육과 공궐, 유생처벌, 배향, 서원경제 등 문제에 언급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서원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던 직임은 역시 장의일 가능성이 크다. 장의는 ‘재중齎中의 논의를 주관한다’고 규정하였고 여기에 선출되는 자는 서원소재지 또는 인근지역 지방관인 경우가 많았다. 노강서원魯岡書院은 장의로 인근 지역 현감·군수 및 승지·감사·판관·참판 등 현직관료가 나타나며, 특히 서원소재지의 수령인 노성현감이 선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죽림서원竹林書院은 장의는 인근지역 지방관으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지방관은 서원존립에 중요한 권한을 가진 자로서 이들이 장의로 선출되었을 경우 서원을 실질적으로 주관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사는 경제적 문제를 주로 담당하고 있었다.

## 2. 원생의 자격과 선출방법

### 2.1 원생의 자격

서원에서 공부하는 학생에 대한 명칭은 제생, 입원생, 서원유생 등 다양하지만, 향교의 학생을 교생이라 하듯 서원의 학생은 원생이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17세기중반 이후 피역인들이 원생으로 투숙하면서부터 이들은 입원생, 유생 등으로 불리워졌다.

입원생의 자격 규정을 보면 백운동서원 원규에는 “사마司馬(생원, 진사)와 사마시의 초시初試 입격자入格者를 우선 선발하고 그 다음으로 향학열이 높고 행실이 있으나 초시입격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사문斯文의 승인을 얻어 입원入院”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사마시 입격자를 우선으로 하는 입원자격 규정은 당시 중앙관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되고 있었던 것 같다. 1556년(명종 11) 홍섬洪暹은 조강朝講에서 소수서원의 일을 언급하면서 “초시 입격자가 아니면 서원 출입을 불허한다.”라고 한 바 있다. 이렇게 볼 때 초기 백운동서원은 입원생의 수준에서 본다면 중앙의 관학인 성균관과 꼭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에 준하는 향촌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백운동서원 건립 당시에 입원생의 자격 기준으로 사마시 입격자를 우선으로 한 것은 당시 공신계열과 가까웠던 주세붕의 서원에 대한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 백운동서원이 설립되기 1년 전에 당시 공신계열에 속했던 어득강魚得江에 의해 지방학제의 진흥을 위한 한 가지 방책으로 중국의 정사·서원제도가 소개되었는데, 이 방안은 유생에 대한 수기修己보다는 과거를 위한 제술에 치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관학과 다름없는 관인 획득을 위한 조치에 그쳤다. 송나라 이래 중국서원은 과거와 밀착되어 관학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공신계열과 가까웠던 주세붕이 백운동서원 건립

당시 입원생의 자격으로 생원·진사를 우선 선발한다고 규정한 것은 서원에 대한 이 같은 인식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초창기 다른 서원들의 입원생 자격 기준도 소수서원의 영향을 받아 처음에는 입격자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실제로 『소수서원입원록』(1543-1672)에 의하면 사마시 합격자인 생원·진사는 선조 이전까지는 275(총 입원생 수) : 46(생원·진사, 16.7%), 선조 연간(1567-1608)에는 355 : 50(14%), 인조반정(1623) 이후에는 105 : 20(19%)으로, 생원·진사는 16%정도일 뿐이고 대부분의 입원생은 유학층으로 생원·진사를 우선 선발한다는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입원생으로 사마시 합격자만을 대상으로 할 수 없었던 당시 향촌사회의 실정을 반영한다. 생원·진사가 극히 제한되었던 당시 향촌사회의 분위기에서 백운동서원의 입원자격 규정이 성균관과 대등하게 제정된 것은, 서원이 관학을 대신할 인재양성 기구라는 조정 관료들의 인식에서 연유한 것이라 생각된다.

초창기 서원 보급운동을 주도하면서 조선에서 서원제도를 정착시켰던 이황은 이산서원 원규를 제정하면서 입원 자격을 엄격히 정했지만 백운동서원에 서와 같이 생원·진사를 우선으로 선발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았다. 이는 서원은 과거준비 기관이 아닌, 참다운 수기와 학문의 실천도장이라는 이황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황은 당시 유생들의 현실적인 관심사인 과거공부를 전혀 무시하지는 않았다. 이는 당시 서원이 유생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였으며, 실제로 입원생 중에는 입원한 지 수년 후에 생원·진사시 또는 문과에 합격한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볼 때 이황은 생원·진사가 많지 않았던 당시 향촌사회의 실정을 감안 신분이었던 주세붕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이것이 원규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황의 주관 하에 건립된 역동서원의 『입원록』을 보면 사마시 합격자는 1570년(선조 3) 12명 중 8명, 1571년 9명 중 6명으로 나타나 그 후에는 거의 기재되지 않았다. 도산서원 또한 입원 당시 생원·진사는 1576년에 40명 중 14명이고, 그 이후로는 5명만이 확인된다. 병산서원에서는 기재된 총 467명 중 10여 명만이 생원·진사로 확인된다.



도산서원 『유원록遊院錄』

「이산원규伊山院規」는 「백운동서원규」와 함께 서원규의 모범이 되어 이후 설립된 대부분의 서원들이 이를 기준으로 삼았다. 따라서 입원생의 자격 기준을 학행 위주로 하는 서원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같은 유생이라도 입격자를 더 우대하였다. 「이산서원원중입약伊山書院院中立約」을 보면 거접居接(일정기간 유생들을 모아 독서와 제술을 교육하는 것) 때에 입격자는 무상으로 하고 비입격자는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차이를 두었다. 이렇게 볼 때 초기에는 서원 입원생을 입격과 학행의 두 기준을 가지고 선발하였다. 그리고 점차 학행을 우선하는 기준이 일반적인 추세가 되어가고 있었다. 선조조 이후 향촌사회에서 서원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한 도에 서원이 많지 않았던 초창기와는 달리 입원생의 기준이 학행 위주로 바뀌어 갔다고 보인다. 그러나 서원이 교육기관으로서 향촌사회 사족들의 일생의 관심사였던 과거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19세기까지도 입원생을 선발할 때는 입격薦人格薦이라 하여 사마시 입격자는 바로 입록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었다.

그러나 생원·진사라 하더라도 중인·서얼의 경우는 입록을 허락하지 않았다. 물론 초기 서원 원규에는 입원생에 대한 신분적 규제조항은 명시된 바가 없다. 이는 당시 서원이 양반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라는 것이 상



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중·서층들의 경제적 성장과 중앙정부의 중인·서열에 대한 허통 조치의 분위기 속에서 사마시 합격자들이 나오게 되면서, 점차 이들이 전통적인 양반들만의 안(案)인 입원록, 원임록(원장·유사)에 입록시켜 줄 것을 요구하자, 서원 측에서는 ‘중인·서열은 비록 대소과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함부로 이름을 올릴 수 없다’라고 하여 입원 자격에 있어서 이들에 대한 배타적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서원에서 입원생의 자격에 생원·진사의 규정보다 신분적 규정이 우선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규정은 특히 영남지역 남인계 서원에서 두드러진 현상이었다. 서원의 이러한 입원자격 규정과 관련하여 18세기 중반 이후 각 서원마다 구향(舊鄕)(사족)과 신향(新鄕)(주로 서열) 간에 심각한 분쟁이 야기되었다.

## 2.2 원생의 선출방법

서원의 입원생은 각 서원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하였기 때문에 서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 입원생 선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도동서원 원규를 보면,

매번 향사일에 신진(新進)을 의논하여 추천한다. 매인이 한 사람씩 각기 추천하여 원장에게 품신한다. 만약 천거자가 없거나 천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원장이 중의(衆議)를 채택하여 가부의 투표를 거쳐 정한다. 투표를 할 경우에는 단지 ‘순(純)’점을 맞은 사람을 택하고 유안(儒案)에 적는다. (각 사람의 이름 밑에 추천자를 쓴다). 무릇 추천된 신진은 반드시 20세를 넘고 학행이 두드러진 자여야 한다. 비록 약관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마시에 합격하였거나 향거(鄕舉)에 여러 번 합격하고 재행이 뛰어난 자는 허락한다.

신학(新學)의 소아(小兒)로서 20세 이하인 자는 모두 양몽재(養蒙齋)에 입학

시킨다. 비록 20세 이후로서 입원의 선택에 미치지 못하여도 양몽재에 입학할 것을 원하면 허락한다.

-『한강선생속집寒岡續集』 권4: 잡저 「도동원규道東院規 1, 인신진引新進」

라 하여 입원생은 20세를 기준으로 하여 20세 이상인 자는 정식 입원생으로 선발하였고, 20세 미만은 입원의 전단계로서 별도로 설치한 양몽재에 먼저 입학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세 미만인 자라도 이미 사마에 입격한 자에게는 입원을 허락하였다. 이렇게 볼 때 입원생은 초학初學이 아닌 이미 가학 및 서당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양몽재는 서원교육 이전의 일종의 예비교육기관이었던 것이다.

유생의 입원은 향사일에 각각 1인을 원장에게 천거하도록 하고, 만약 천거자가 없거나 천거할 필요가 없는 경우 원장이 그 가부를 중의에 부쳐 결정하였다. 타 지역 인사는 추천인이 없더라도 학행이 성취되고 사론士論에 문제가 없는 경우 입학을 허락하였다. 당시 영남의 대표적인 서원에서의 입원은 “공론이 허락하지 않으면 입원할 수 없다.”, “7-8번 천거를 거쳐 입원한다.”고 할 정도로 엄격하게 규제하였다. 해주 문헌서원文憲書院의 학규에는 감사·수령 등 세력을 끼고 입원을 하려할 경우 허락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권의 개입으로 인한 서원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함이었다.

경주 옥산서원의 유생선발 절차도 이와 비슷하였다. 옥산서원의 유생 선발은 먼저 재주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고강을 마친 후 유적儒籍에 입록 한다는 엄격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실제로 19세기 초반의 옥산서원 강안講案·강지講紙에 의하면 중용·대학·소학·가례 등 4과목의 평가가 기재되고 있다. 이러한 서원유생의 선발은 원칙적으로 1년에 한번 향사시에 천주의 천거를 받아 가부를 물어 입록을 결정한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그 기간은 식년 혹은 서원의 사정에 따라 10년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여타 서원과 마찬가지로 유생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천주薦主를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추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유생들의 선발에는 천주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다. 천주는 대체로 원임·헌관·공사원 등 서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원중 인사로 구성되는데 당중堂中에서 천망

그러면 이렇게 선발된 원생의 정원은 어느 정도였을까? 먼저 백운동서원 입의에 의하면 ‘사시상양四時常養’할 유생의 수를 10명으로 하였다. 이는 서원 유생의 정원이 아니고 서원에서 과거공부를 위해 여는 거점에 들어오는 유생의 액수였다. 이와 같은 상주 유생수에 대한 규정은 이것이 서원의 경제적 문제와 직결되었기 때문이다. 서원의 입장에서 공부하는 유생수를 규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이황이 제정한 이산서원 원규에 유생수를 ‘무정액無定額’이라 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講案

孫星與 中唐 家禮 小序 略出

孫星昌 中唐 家禮 小序 略出

孫星養 中唐 家禮 小序 略出

黃東漸 中唐 家禮 小序 略出

孫鍾聞 中唐 家禮 小序 略出

孫鍾岳 中唐 家禮 小序 略出

孫鍾詒 中唐 家禮 小序 略出

孫鍾頤 中唐 家禮 小序 略出

孫鍾會 中唐 家禮 小序 略出

孫鍾漢 中唐 家禮 小序 略出

李養德 中唐 家禮 小序 略出

權結燧 中唐 家禮 小序 略出

李在蕙 中唐 家禮 小序 略出

辛未月日

壬申月日

癸酉八月日

新薦

李由中 半海  
孫魯杰 半海  
李芳三 齊林  
陳翰鳳 齊林  
權相宗 半海

李胤初 吳海  
李正慶 半海  
李奇三 半海  
李富邦 半海  
徐寄龍 吳海  
李俊中 半海  
孫安玉 半海  
李文祥 吳海  
黃令存 吳海  
李洪鈺 吳海  
李祺 吳海  
李求胤 吳海  
李近胤 吳海  
李周用 吳海  
權相 吳海

李父夏 吳海  
洪錫元 吳海  
孫吉五 吳海  
李錦初 吳海  
孫吉曾 吳海  
權相 吳海  
李坤 吳海  
鄭坦 吳海  
李慎初 吳海

甲寅二月廿日齊林謹記

李

李

### 3. 서원의 경제적 기반

서원은 교육과 제례의 기능뿐만 아니라 봉당정치 하에서 일정한 정치·사회적 활동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각 서원이 가지는 경제적 기반이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서원의 경제적 기반은 서원전, 노비, 원속院屬, 속점屬店, 속사屬寺, 서원촌書院村 및 지방관·사림들의 기부와 부조 등 매우 다양하고 또한 각 서원마다 상당한 편차가 있다. 실제로 서원의 경제적 기반의 규모는 지역·당색·시기별로 또는 각 서원의 중앙 내지 지방에 있어서의 영향력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사액·미사액 간에 차이도 있겠으며, 또한 각 지역의 대표적인 서원의 경우는 그 지역의 여타 서원에 비해 특별하였다고 보여진다.

#### 3.1 서원전

서원전은 서원노비와 함께 서원경제를 구성하는 2대 경제적 기반이었다. 서원전은 서원이 사학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초창기에는 서원의 건립이 국가의 우문흥학右文興學 정책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국가 특히 지방관에 의한 속공전屬公田 획급 등 다양한 형태로 확보되어졌다.

초창기 서원전 확보상황은 서원 보급운동을 주도하였던 이황 주관 하에 건립된 역동서원의 16세기중반 전답문서에서 보면 그 대체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문서를 내용별로 통계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이 전답안에서 보면 역동서원 전답은 사사위전寺社位田, 속공전, 면역전免役田, 원입전願入田, 매득전, 상환전相換田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보되고 있다. 경주 옥산서원의 경우에서도 보면 전답은 매득, 속공, 상환 또는 기상記上(노비의 토지가 이속된 것) 등을 통하여 확보·확대되어 나갔다고 하였다.

16세기 중반 역동서원 「전답안」 분석표

구분 \ 전답	전	답	합
사사위	1결 64부 7속	55부 1속	2결 19부 8속(35%)
속공	1결 5부 1속	35부 3속	1결 40부 4속(23%)
면역	90부 3속		90부 3속(14%)
원입	27부 5속	49부 4속	76부 9속(12%)
매득	41부 4속	46부 5속, 1두락	87부 9속(14%), 1두락
상환	8부 3속		8부 3속( 1%)
합	4결 38부 3속	1결 85부 3속, 1두락	6결 23부 6속(100%), 1두락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초창기 서원전 확보에는 속공전·사사위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속공전은 국가 또는 지방관에 의해서 토지가 지급 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의 서원에 대한 토지획급은 초창기 몇몇 서원과 극히 일부 서원에 나타나고 있지만,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속공전은 감사나 수령들에 의해 획급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지방관에 의한 조치는 당시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그러나 속공전은 토지의 소유권이 아닌 수조권收租權을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문제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권을 국가로 되돌리는 등 토지처분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고 있었다.

사사위전은 조선왕조의 건국으로 유불이 교체되면서 종래의 불교시설이 유교시설로 대체되는 가운데서 국가의 공인을 받지 못하는 폐사廢寺 내지 소찰의 경우 그 토지가 속공화 하여 서원에 귀속되는 경우이다. 이것도 속공전과 마찬가지로 수조권이 지급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사원전의 서원전으로의 이속은 대체로 지방관의 조치로 이루어졌는데 초기 서원의 경우 서원전내의 비중이 상당하였다고 보여진다. 위 역동서원의 경우 사사위전이 전체 서원전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경상도의 대표적인 서원인 도산·덕천서원의 경우에서도 보면 당시 감사였던 윤근수尹根壽가 폐사인 금산사金山寺·진흥사眞興寺의 토지를 분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지방관의 조치는 초기 서원에 있어서는 당시 일반적인 관행이었다고 보여진다. 다만 이러한 사실들은 후기로



가면서 은폐되어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매득전·원입전 및 서원의 영향력을 통해 역역(力役)의 면제를 피하기 위한 면역전은 서원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서원 건립 초창기에는 원입전이 많이 나타나나 이후 서원전의 확대는 매득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와 같이 서원전의 확보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각각의 비중은 각 서원의 형편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대체로 역동서원과 같이 초창기 서원에서는 속공전, 사사위전 등 관의 조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서원의 수적 증가와 국가의 서원 통제책이 실시됨에 따라 확급전의 규모는 점차 줄어들게 되었으며, 이후 서원전 확대는 서원 자체의 경비로 마련된 매득전이 주류가 되어갔다. 그리고 문중서원이 발달하는 18세기 이후에는 서원이 문중재산의 성격을 띄어가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의 확급보다는 문중적 차원에서의 원입 및 매득 등 서원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서원전은 향교전과 마찬가지로 학전(學田)으로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면세규정이 없었던 초기에도 일반적으로 사액서원에 한해서 서원전 소재 지방관의 명으로 면세되는 것이 상례였다. 이 같은 사정은 경주 옥산서원의 『정서등록보書謄錄』 1589년(선조 22) 2월의 상서에 잘 나타난다.

본주(경주)와 청도·밀양에 학전을 둔 지가 거의 수십 년이 되었다. 그간에 방백(方伯)(관찰사)들에 의해 모두 세금을 물지 않는다는 명이 있었기 때문에, 읍재(邑宰)(지방관)들이 모두 방백의 명을 좇아 원전(院田)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이 대개 법식[例]이 되었다.

이와 같이 서원전에 대한 면세 조치는 소재지 지방관에 의해 결정되었다. 따라서 서원측과 지방관과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면세지 확보는 쉽지 않았다. 이후 각 서원마다 서원전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또한 서원이 수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서 면세전은 더욱 확대되어 갔다. 이는 국가재정 수입의 감소와 직결되는 문제로 국가에서도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서원전 면세에 대한 논의는 경종연간에 와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영조대에 사액서원은 3결, 미사액서원은 무면세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사액 서원이라 하더라도 이 한계를 넘는 토지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또한 토지규모가 3결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민결民結로써는 충당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서원의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관에 의해 3결이 넘더라도 그대로 면세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특별한 서원에는 가급·특급의 형식에 의하여 면세전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었다. 도봉서원道峰書院은 3결 외에 7결을 가급加給 받았고, 만동묘萬東廟는 20결을 특급받기도 하였다. 이후 서원전의 규모는 계속 확대되어 나갔는데, 대표적인 서원의 전답 규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각 서원별 전답규모

서원명	창건년	주향자	소재지	시기	전답규모	분포지
소수紹修	1543	안향	순흥	1767	약 25결	본읍, 안동, 영주, 풍기
남계濼溪	1561	정여창	함양	1800	약 18결	본읍
역동易東	1570	우탁	예산	16세기 중반	6결 23부 6속, 1두락	본읍
옥산玉山	1572	이언적	경주	건립 초	약 200석	본읍, 영일, 청도, 밀양, 경산
				1694	약 30결	
				1759	약 32결	
도산陶山	1573	이황	예산	1619	약 13결	본읍, 안동, 봉화,
				18세기	약 20-25결	
				1819	약 30결	
자계紫溪	1578	김일손	청도	1660	약 14결	본읍, 밀양
도동道東	1604	김광필	현풍	1678	약 11결	본읍, 고령
도남道南	1605	동방5현	상주	19세기 초	약 16결	본읍
				19세기 중반	약 19결	
병산屏山	1610	류성룡	안동	1762	약 40결	본읍
용산龍山	1699	최진립	경주	18세기 초	2결 55부 2속 1庚	본읍
				1814	6결 50부 6속	

위 표에 제시된 서원은 초창기인 16세기 중반에서 17세기 초까지 건립된 각 지역의 대표적인 사액서원들이다. 이들 서원들은 건립 초기에는 약 5-6결에 서, 18-19세기에는 약 20-40결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서원전은 각 서원의 규모나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17세기 후반 이후 남설기에 건립된 대부분의 미사액 서원·사우 등의 서원전은 각 서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큰 규모는 아니었다.

서원전은 18세기 이후 토지생산성이 크게 향상되고, 한편으로는 서원경제의 한 축이었던 노비의 도망이 일반화되고 또한 그 추쇄가 어려워지는 등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크게 감소하면서 서원경제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더해갔다. 따라서 서원측은 서원전 확대에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심지어는 노비의 속량贖良·방매放賣 등을 통하여 서원전으로 대체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서원에서는 시대가 내려올수록 서원전도 확대되는 추세였다.

그러나 이러한 서원전의 확대가 곧바로 소작료의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 않았다. 임사任司들의 태만으로 서원전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더하여 소작인들의 조세 저항과 이들의 경제적 몰락에 따른 도망 등은 서원전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남계서원전답양안南溪書院田畵量案』



### 3.2 서원노비

서원노비는 서원 내 각종 잡역 및 서원전의 경작 등 생산분야에 종사하거나 또는 신공身貢 납부의 경제적 의무를 지고 있었다. 서원노비는 초창기에는 국가에서 사역을 내리는 경우 서책·전답과 함께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제향자의 내외손, 문도들의 기부 및 관노비官奴婢의 급속給屬·매득·납상納上·생산生産 등의 형식을 통하여 확보·확대되어졌다.

이 중에서도 서원설립 초기의 서원노비 확보에는 서원전과 마찬가지로 관노비 또는 속공노비의 획급 등 관의 조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은 풍기군 소속 시노비寺奴婢 5구(노 2, 비 3구)가 설립 3년 후에 이속되는 등 지방관인 주세봉·안현을 통한 관노비의 급속, 범죄인 처자의 압량위천壓良爲賤 등 관의 조치로 설립 초기에는 원직院直 6인[戶], 노비 18구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방관의 조치는 초창기 서원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경주 옥산서원은 설립 6년 후인 1578년(선조 11) 지방관의 조치로 고직庫直(노奴), 도척刀尺(노奴), 반모飯母(비婢) 각 1구와 속공노비(노 3, 비 11) 14구가 이속되었다. 이후에도 옥산서원 측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관으로부터 속공노비의 획급은 계속되었다. 병산서원에서는 설립 이후 6차에 걸친 지방관(부사·감사)의 속공노비(노 3, 비 5구) 8구의 영급永給이 있었다. 이러한 지방관의 관노비 획급은 당시 국가의 서원보호책에 힘입은 바 컸다.

지방관의 서원에 대한 관노비 획급의 규모는 서원의 향촌내 영향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또한 관노비 획급은 기본적으로 불법이었기 때문에 지방관 교체시에 환속되는 경우도 있었다. 안동 병산서원의 경우 획급된 속공노비 중 ‘관노거官奴去’, ‘개송환거改訟還去’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지방관의 서원에 대한 관노비 획급은 이후 문제가 되어 감사의 영노비營奴婢 획급은 반드시 조가朝家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

서원노비는 이러한 지방관의 획급과 함께, 생산生産을 통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하급수적인 증가추세에 있었다. 대표적인 서원의 『노비안』에 나타난 서원별 노비수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각 서원별 노비소유 규모

서원명	창건	주향자	소재지	시기	규모
역동易東	1570	우탁	예안	16세기 중반(설립 당시)	11
옥산玉山	1572	이언적	경주	1629	58
				1684	112
				1723	190
				1801	153
도산陶山	1573	이황	예안	1619	160여 구
				18세기 중반	약 2,000여 구
				1828	약 1,600여 구
자계紫溪	1578	김일손	청도	17세기 초(설립 초)	23
필암筆巖	1590	김인후	창성	17세기 말	48
				18세기 후반	242
도동道東	1604	김광필	현풍	17세기 초	26
				1681	110
				1702	227
도남道南	1605	동방5현	상주	1737	110
병산屏山	1610	류성룡	안동	1663	144
				1690	210
				1757	244

위 표를 보면 설립 초기에는 대체로 약 10~20여 구 정도가 확인된다. 그러나 노비수는 이후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각 지역내 대표적 서원인 옥산·도동·필암·병산서원의 경우 18세기 중반을 기준으로 약 100~200여 구 정도가 확인된다. 단, 도산서원의 경우 영남학파를 대표하는 서원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여타의 서원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노비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서원 노비수의 증가가 곧바로 서원 경제력의 확대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자료상에 나타나는 노비 가운데 노약자를 제외하고, 또한 18세기 이래 일반화 되었던 노비 도망과 추쇄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실제 서원측에 경제적 부담을 지는 노비수는 상당히 축소된다. 병산서원 1666년(현종 7)·1669년(현종 10) 노비안에서 보면 신공납부 대상 노비가 46.3%, 49.5%로 나타나며, 도산서원의 경우 1765년(영조 51) 『신공안身貢案』에서 보면 신공납부 대상 노비수는 전체 노비수의 42.6%이고 여기에 실제로 신공을



납부한 노비수는 전체 노비의 23%로 나타난다. 1800년(정조 24) 노비안에는 신공을 납부한 노비수가 전체노비의 12.2%에 불과하였다.

이들 서원노비의 역할은 무엇이였을까? 서원에 소속된 노비는 대체로 서원 내 잡역 담당자(원중차역자院中差役者), 서원 인근에 거주하는 노비(원저노비院底奴婢), 다른 고을에 거주하는 노비(타관노비他官奴婢)의 3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먼저 원중 차역자는 서원내의 각종 잡역을 담당하는 자들로 이들은 서원에 완전히 예속된 자들이었다. 이들은 고직庫直, 재직齎直, 묘직廟直, 찬모饌母, 서원書員, 색리色吏 등의 직역을 맡고 있었으며, 직역에 따라 서원 내에 또는 서원인근에 거주하였다. 이 중 일부는 원저노비 중에서 선발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순수하게 서원 내 잡역을 담당한 노비는 독자적인 자기 경작지를 갖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며, 다만 노동의 대가로 서원으로부터 일정량의 곡식 내지 서원전의 경작권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원저 노비는 서원 인근에 거주하면서 서원 내 잡역에 차역되는 경우와 향사享祀·향회鄉會 등 대·소사가 있을 때 돌아가며 서원 일을 돕거나, 신공을 납부하는 경우로 나뉘어졌다. 서원 일을 도울 경우 신공만을 납부하는 노비에 비해 신공량은 가벼웠다. 또한 이들 중 일부는 서원전을 경작하는 일종의 전호佃戶로서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독자적인 가족을 구성하고, 일정한 자기 경지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서원내 잡역담당자와는 차이가 있었다. 타관노비는 경제적으로 볼 때 서원 측에 매년 신공 납부의 의무를 지는 이른바 납공노비納貢奴婢였다. 따라서 이들은 독자적인 가족을 구성하고 있었으며, 또한 일정한 자기 경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서원노비는 설립초기에는 잡역담당자 중심으로 확보되었으나, 이후 매득 및 생산으로 인한 노비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점차 원저노비 또는 타관노비화 되었고, 특히 신공납부의 의무를 지는 타관노비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서원노비는 18세기 중·후반 도망노비 증가와 추쇄의 어려움으로 노비의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서원경제 내에서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급격히 감소해 나갔다. 따라서 서원측은 서원 경제의 안정화를 위해 노비의 방매와 속량을 확대해 나갔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토지를 구입해 나갔다.

### 3.3 원속

서원은 노비 외에 모입募入·투탁投託·양속인仰屬人으로 표현되는 양인·수직군守直軍·장인匠人·원생院生 등 광범한 원속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원속은 서원의 경제력 확대를 위한 한 방편으로 일찍부터 노비와 함께 서원경제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원속은 서원의 영향력을 이용, 공역公役을 회피할 목적으로 서원에 투속한 자들로서 그 대가로 서원 수직 또는 제반 잡역을 담당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은 그 역에 상응하는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었다. 그 부담은 노비 신공과 비슷하였다. 원속은 양정良丁 확보라는 측면에서 국가정책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17세기중반 이후부터 이에 대한 제재 논의가 계속되었지만, 당시 사람들의 적극적인 서원보호책으로, 원속에 대한 문제는 서원자체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개됨에 따라 더욱 광범하게 확산되었다.

각 서원에서 확보한 원속의 종류는 서원마다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양전良典, 하전下典, 장인匠人, 보인保人, 수직군, 원생 등이 있다. 이들 원속은 대체로 중앙정부[朝家] 내지 지방관에 의한 획급 및 관의 보호 하에 서원측이 자체적으로 모입한 사모私募 등으로 확보되고 있었다. 특히 중앙정부 내지 지방관에 의한 원속 획급은 초창기 서원에서는 일반화된 관행이었다고 보여진다. 도산서원은 선조조 서원설립과 동시에 조가획급으로 장인 15명, 수호군守護軍 20명, 보인 7명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역동서원 또한 건립과 동시에 본현(예안) 현감으로부터 장점匠店 중에서 유실자有實者 20인과 보인 7인을 지급받았다. 도동서원은 조가에서 봉영封塋을 수호할 산직山直 10명을 획급받았다.

사모가 서원측이 자체적으로 모입해 서원에 충정充定한 것이라 한다면, 조가획급 내지 관급은 관이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각 서원의 원속에 대한 관리는 이러한 조가획급·관급된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조가획급·관급이 있을 경우 획급될 때마다 그 수를 보태어 이를 정액으로 삼아 그 수를 늘여 갔다. 그리고 도망이나 사망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다른 자로 대신하여 정원을 채웠다.

원속은 서원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역을 피한 대가로 서원내 잡역을 담당하거나 또는 일정량의 돈이나 현물을 납부하여야 했다. 따라서 서원측은 원속의 확보는 곧 경제력의 확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모집에 적극적이었고, 그 과정에서 원속을 사사로이 모집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원측은 지방관의 비호 하에 사사로이 모집한 원속을 조정에서 내려준 것처럼 하여 그들이 잡역을 피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지방관의 교체와 같은 사정에 따라 본래 직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다. 원속에 대한 잡역의 면제는 전적으로 소재지 지방관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따라서 원속의 규모는 각 서원의 향촌사회 및 중앙에서의 영향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도산·옥산·도동서원 등 문묘에 종사된 제현을 봉사하는 서원은 당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비호함에 따라 원속의 규모를 크게 증대시켜 나갔다.

11월 초 10일 야대시夜對時에 동부승지 권모權某의 계에 의하면 …… 문묘종사제현은 백세에 공이 있다. 서원을 건립한 것은 실은 우문흥도右文興道의 뜻에서 나왔다. …… 종사제현從祀諸賢의 평생의 경과처에 모두 서원을 건립하였다. 비록 일일이 모두 특전을 주는 것은 불가하지만 예안의 도산서원 경주의 옥산서원 현풍의 도동서원 안음의 용문서원 양주의 도봉서원 영일의 오천서원과 같은 서원은 모집자를 그대로 두고 물침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다.

- 『서원등록書院謄錄』 권1 : 병진(1676년, 숙종 2) 11월조

원속들의 서원투속은 처음에는 양·하진, 수직군 등의 명칭으로 투속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17세기중반 이후부터는 경제적 부를 매개로 면역뿐만 아니라 신분상승을 목적으로 한 원생院生으로의 투속도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모집원생은 비양반층의 신분상승 욕구와 서원의 재정확대 욕구가 맞물리면서 급속히 확산되었고, 18세기 이후에는 대부분의 서원이 모집원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집원생이 시대가 내려오면서 점차 확대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자, 국가에서도 여기에 대해 일정한 제재조치를 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1707년(숙종 33)에는 문묘종사서원 30명, 사액서원 20명, 미사액서원 15명으로 규제하였다. 이는 모입원생에 대한 규제조치이긴 하지만 국가에서 최초로 서원의 원생 모입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러한 정액 내 원생을 액내원생額內院生이라 하였다.

그러나 원생이 서원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각 서원에서는 정액 이외의 원생(액외원생)을 적극적으로 모집해 나갔다. 서원측은 이들에게서 예납禮納이라는 명목으로 쌀과 전답을 징수하여 서원재정에 충당하였다. 이러한 액외원생의 증가는 곧 양역담당자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이에 대해 자주 금령을 내렸으나, 액외원생이 토지나 노비와는 달리 서원 측에서 볼 때 가장 손쉬운 재정 해결책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근절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 또한 지방관이 원생을 서원 측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모입원생 등과 같은 피역을 목적으로 한 서원의 모입·투탁자의 수는 18세기 이후 하나의 서원에 거의 수십-수백 명에 이르고, 또한 교생·원생을 망라한 수가 한 고을에 400-500명이 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원속의 확충은 지방관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어서 조선후기에는 집권 세력과 연계된 서원에서 더 많이 확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원은 이러한 원속 모입이 쉽지 않았고,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 원속도 노비와 마찬가지로 사망·도망·이주移住 등으로 유지가 쉽지 않았다. 원속의 도망은 노비 도망과 마찬가지로 서원 경제를 악화시키는데 크게 작용하였다. 특히 원속을 규제하는 관의 조치가 계속적으로 반복됨에 따라 원속의 확보와 유지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어렵게 되었다.

### 3.4 속점·속사·서원촌

속점屬店 | 서원은 설립 초창기부터 서원에서 쓰이는 각종 물품의 조달처로서 점店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 점·장인의 서원 소속은 양전良典·하전下典이 서원에 소속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불법이었으나, 초기에

는 일반적으로 우문흥학 정책의 일환으로 조가 내지 지방관에 의해 획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옥산서원은 설립 당시 부윤 이제민의 조치로 사기沙器·수철水鐵·야철점冶鐵店을 지급받았으며 이후 10여 점으로 확대되었다. 도산서원은 선조조 서원설립과 동시에 수호군 20명, 보인保人 7명과 함께 사곡점斜谷店 7명, 이곡점狸谷店 8명을 획급 받았는데, 17세기 초에는 47명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서원의 속점 보유는 각 서원에 따라 규모의 차이는 있었으나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이들은 서원에 소속됨으로써 그 반대급부로 장세匠稅 및 군역 등 제 잡역으로부터 면제되는 대신 솥, 철, 대야盤, 마麻, 접시, 꿩(생치生雉), 담배(남초南草) 등 서원소용의 다양한 현물을 납부하였다. 점(장인)들의 현물납부 또한 원숙으로서의 신역의 대가라는 점에서 보면 일종의 신공에 해당된다. 옥산서원 소속 박곡점朴谷店은 본래 사기점이었으나 당시 그릇을 만드는 자가 없어 그 대신 베(상목常木) 10필씩을 납부하였다. 이는 서원소속 장인들과 서원과의 관계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예이다.

점·장인의 서원소속은 피역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서원 측에서 사적으로 모집하거나 이들이 스스로 원하여 속점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영향력이 강한 서원의 경우 상당수의 속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속점은 관에서 면세·면역에 대한 완문完文을 발급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지만, 원숙과 마찬가지로 서원과 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는 그 해결이 쉽지 않았다. 예컨대 옥산서원에서 원숙 가정철점柯亭鐵店에 대한 관의 침책에 대해,

본원 소속 가정철점은 즉 조가에서 획급하였고, 영본부營本府에서 잡역을 일절 견감하라는 뜻으로 완문을 만들어 하여금 수호한 것이 300여 년이나 되었다. …… (관의 침책) 본원에 획급한 점을 이와 같이 횡침하니 세가 지탱하고 보존하기 어렵다. 이에 감히 앙소한다.

— 옥산서원, 「소지所志」 병자丙子 8월 일, 수노首奴 도치道致

라고 호소하였으나, 관에서는 “이미 획급한 문적이 없다. 비록 이 책자의



사의로 논하더라도 이것은 도산서원의 일이다. 이는 준거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여 서원측의 주장을 묵살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방관이 교체되는 등 사정에 따라서는 속점에 대한 관의 침책이 적지 않았다. 이에 각 서원은 문제가 생길 때 마다 감영이나 본부에 정소<sub>呈訴</sub>하여 원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서원측은 정소 때 마다 이것은 모두 조가에서 획급한 것이며, 또한 관에서 물침<sub>勿侵</sub>하도록 한 것은 하나의 관례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속사, 서원촌** | 서원은 역불이라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인근 사찰을 속사<sub>屬寺</sub>로 보유하기도 하였다. 속사는 서원뿐만 아니라 향교·향청 등에서도 일반화된 제도로, 사찰은 서원에 소속됨으로써 관으로부터의 잡역을 면제받고 그 대가로 서원내의 역 또는 소속 서원에 수요 물자를 공급하는 등 일정한 경제적 부담을 담당하였다. 일반적으로 서원에서 문집을 발간할 때 판각을 하거나 판목을 보관하는 간역<sub>刊役</sub> 및 서원에서 쓰이는 종이는 이들 속사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속사 또한 속점과 마찬가지로 승역<sub>僧役</sub>의 면제는 쉽지 않았다.

옥산서원과 속사인 정혜사와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정혜사는 옥산서원에 소속된 이래 제향자인 이언적의 유물 및 문집판각을 보관하고, 승려는 간소<sub>刊所</sub>에 배치되어 문집 간행 및 서원 건물 중수 등을 담당하거나, 종이, 신발, 간장, 누룩<sub>造麴</sub>, 포도, 송화<sub>松花</sub>, 산초<sub>山椒</sub> 등의 필요한 현물을 바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그 대가로 정혜사 소속 승도는 감영과 본부의 비호를 받아 승군의 역<sub>役</sub> 등 제 잡역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그러나 정혜사가 옥산서원의 소속사찰임에도 불구하고 감영의 『사안<sub>寺案</sub>』에 등재되어 있어서 17세기 이후 지방관이 교체될 때마다 각종 침탈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옥산서원 유생들은 관에 청원하여 정혜사를 다시 서원소속으로 되돌려 놓았다. 이후 1785년(정조 9)에 정혜사는 영구히 『사안』에서 빠졌다.

서원의 경제적 기반에는 일종의 제역촌<sub>除役村</sub>의 성격을 띤 서원촌이 있었다. 제역촌은 대체로 서원 자체에서 서원 인근 촌 또는 부촌<sub>富村</sub>을 점유하여 지방관의 승인을 받는 형식이었다. 이러한 서원촌은 서원에 일정한 경제적 부

담을 지는 대신 관의 잡역 면제, 환곡에 대한 특혜 등의 각종 특권을 받았다. 대체로 이들 서원촌민들의 서원에 대한 부담은 잡역 등의 부담보다는 가벼웠을 것이며, 따라서 서원과 서원촌민과의 경제적 상호 이해관계에 따라 이러한 서원촌은 확산되어 갔다. 일반적으로 서원촌은 각 서원에 1-2촌 정도였고 서원의 권위에 따라 그 규모에는 차이가 있었다.

실제 조선후기 집권노론의 대표적인 서원인 화양서원華陽書院에서는 복주촌福酒村, 아차곡원촌, 선유동평촌 등과 서원 주변의 농소막農所幕, 사기막沙器幕, 산막山幕 등을 다수 소속시키고 있었다.

### 3.5 기부와 부조

서원경제에 있어서 전답·원속 등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가 또는 관료(특히 지방관), 사림들에 의한 서책·어염 등 각종 서원소용의 현물공여이다. 특히 어·염의 확보에 있어서는 지방관의 조치가 크게 작용하였다.

초기 서원들은 건립과 유지에 관의 도움을 크게 받았는데, 백운동서원의 경우 감사와 수령의 도움으로 전답과 노비를 획급 받거나 어염魚鹽, 곡식, 배, 종이 등을 주변 고을로부터 제공받았는데, 이는 초기 경제기반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도산서원의 경우에도 1617년(광해 9) 3월에 감사 성진선成晉善이 영해염 2석, 영덕염 2석을, 6월에는 감사 윤환尹暄이 영해 건대구어乾大口魚 200미尾, 미역(감곽甘藷) 100근, 영덕 건대구어 100미, 미역 100근, 청하 건대구어 50미, 미역 50근, 홍해 건청어乾靑魚 200두름(드름冬音), 영일 건청어 200두름, 장기 건청어 200두름을 분정分定하여 이를 영구히 향식으로 하였다. 이러한 지방관의 어·염 등에 대한 획급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옥산서원도 장기·영일·홍해 등에 염분鹽盆 3좌坐와 수삼척의 선척船隻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이는 서원자체 경제력으로 확보한 것도 있지만, 관의 도움이 컸다.

서원에 대한 관의 보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간헐적인 것과 정기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간헐적인 것은 감사의 고을 순행시 서원에 미조米租

등을 제공하거나, 수령이 부임할 경우 서원에 들러 예禮를 올린 뒤 미조米租나 지필묵 등으로 성의를 표시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임기 중에 스스로의 의지나 유림들이 요청, 또는 중앙관료의 압력에 따라 전답·노비·서원촌의 획급 이외에도 식리전殖利錢의 획급, 원납원생願納院生의 허락, 서적의 구입, 거접居接이나 백일장 비용 등을 조치해 주었다. 또한 서원을 중수·중건·이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물론이거니와 소요되는 채목·기와·미곡 등을 지급하고, 일꾼 동원을 조치해 주는 등 서원에 대한 지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정기적인 보조로는 제수祭需의 지급이 대표적이었다. 서원에서 거행하는 춘추향사, 삭망분향례, 고유제 등 각종 제례시 관에서 향과 초를 보내거나, 때로는 지방관이 직접 제례를 주도하기도 하였다. 관아에서 제수를 지급하는 것은 향교와 사액서원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미사액 서원에도 제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서원에 대한 지방관의 도움은 중앙정계의 정치변동에 일정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 영남 남인계 서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원은 지역적으로 서원 소재지인 인근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데 비하여, 인조반정(1623) 이후 집권 서인계 서원은 그 규모나 범위가 훨씬 컸다고 보인다.

서원 경제력은 이러한 다양한 확대 요인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서원에서는 18세기 이후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지 못하였다고 본다. 그 원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매년 지출되는 경비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다는 점이다. 서원의 지출경비로는 일용경비 및 소회시疏會時 비용, 회강會講·거접居接·독서유생의 접대비 등이 매년 정기적인 지출비용으로 확인된다. 이외 서원측의 상황에 따라 문집발간, 서원·향교 등에 부조, 서책무역, 전답매득, 잡물구입비 등이 지출되기도 하였다. 특히 초창기에 건립된 서원의 경우 18세기 중반 이후부터 본격화되는 서원 건물의 수리·중수 등은 개별 서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었다. 다른 하나는 채무자나 소작인의 경제사정 및 원노비·원속 등이 죽거나 도망을 가서 이곡利穀, 소작료, 신공 등의 미봉未捧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18세기 이후 대부분의 서원에서는 회수 불가능한 미봉은 탕조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었다. 여기

에 서원전에 대한 면세, 양하전·원생·속점·속사 등의 획급과 면역 및 각종 현물기부 등 초창기 서원의 경제력 확보에 크게 일조한 관의 지원이 18세기 이후 급격히 약화된 것도 서원 경제력 약화에 크게 작용하였다.

18세기 중반 이후가 되면 대부분의 서원이 수입·지출의 불균형이 노정되면서 서원 재정이 부실해져 갔다. 19세기 이후가 되면 각 서원마다 누적된 부채를 갚기 위해 토지를 파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서원경제는 토지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고 보여진다. 이는 이 시기 각 서원이 자금의 여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 토지를 매득해 나갔고 또한 노비를 방랑·방매해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남계서원 『경임안經任案』



## 4. 인적조직과 경제관련 고문서

서원은 효과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각종 공·사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해 왔다. 이들 문서는 향촌사회 내 서원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일차적인 자료이다. 이들 문서의 내용을 크게 구분해 보면 ① 창건과 연혁, ② 조직과 운영, ③ 경제운영, ④ 교육·제향, ⑤ 향촌사회사자료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여기서는 원임·원생 등 인적구성 및 서원경제과 관련된 고문서를 소개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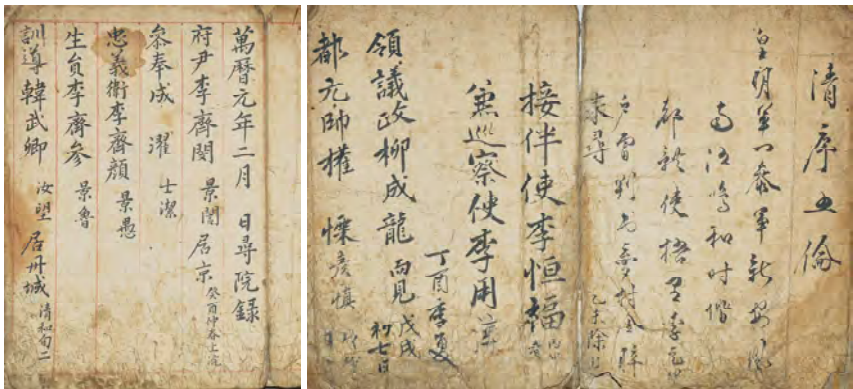
### 4.1 조직운영 자료

서원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실질적인 주체인 원임과 원생의 명부로 『원임안』과 『원생안』 등이 있다. 원임과 관련한 대표적인 기록으로 소수서원의 『임사록任事錄』을 들 수 있다. 이 자료는 1542년부터 1718년까지 172년 동안 재임 하였던 소수서원 원장의 명단이 기록된 문서로 현재 경북 영주의 소수서원 산하 소수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소수서원의 『임사록』에는 원장의 성명과 자字, 재직기간과 과거科擧 사항이 기재되어 당시 소수서원 원장의 선출 기준과 특성 및 원장 임명의 시대별 추이 등과 같은 여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소수서원의 『임사록』과 같은 원임의 명단은 『원임안』(병산서원), 『경임안經任案』(남계서원), 『수부임안首副任案』(옥산서원), 『원장선생안院長先生案』(필암서원), 『원장록院長錄』(돈암서원) 등과 같이 다양한 명칭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러한 자료는 각 서원의 원임구성 및 자격 등 원임관련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원생의 명단을 기록한 『원생안』은 보통 입원入院한 연도를 표시하고, 유생의 성명, 자, 거주지, 과거 등제 여부, 관직을 표기하고 있어 당시 입원한 유생의



목산서원 『심원록尋院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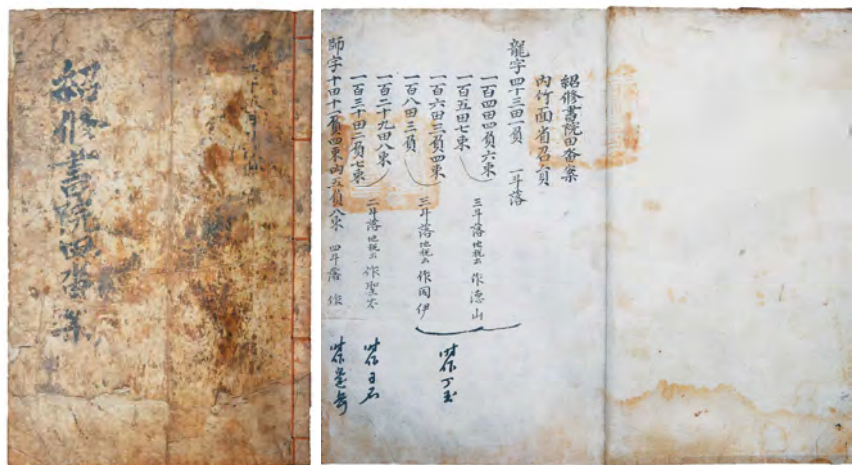


좌: 『심원록尋院錄』(진), 우: 『심원록尋院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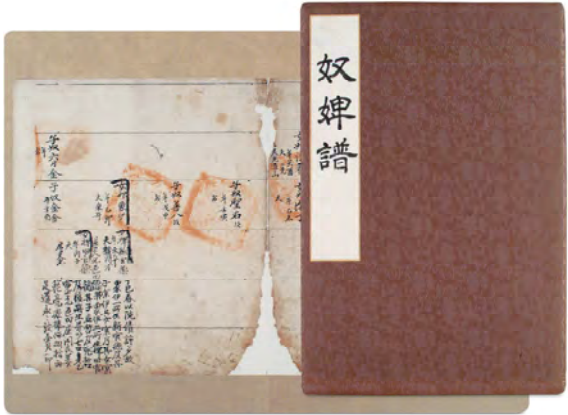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원생안』은 서원별로 다양한 명칭으로 나타난다. 도산서원 『유원록遊院錄』은 1576년부터 1772년까지 약 200년간 입원한 원생의 기록이며, 이 외에도 『입원록入院錄』(소수서원), 『원록院錄』(남계서원), 『입원록』(병산서원) 등이 있다. 이들 원생은 대부분 향내의 인사들이지만, 소수서원의 초기 원생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많은 인재들이 모여들었다. 이는 당시 사림들의 서원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도산서원의 경우에서도 보면 소수이지만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남부지역에서도 입원한 사례가 보여 그 위상을 짐작케 한다.

원임과 원생이 서원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주체라고 한다면, 서원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서원 방명록에 해당하는 『심원록尋院錄』이 있다. 약 100여 책(『본향심원록本鄕尋院錄』 48책 별도)의 『심원록』을 소장하고 있는 경주 옥산서원의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옥산서원 『심원록』에서 보면 도산서원과 함께 영남남인을 대표하는 서원답게 경향 간에 남인계 인사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16세기에는 류성룡柳成龍·김성일金誠一·박승임朴承任·금난수琴蘭秀·권문해權文海·김수金曄 등 당시 영남학파를 대표하는 퇴계 이황의 제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허엽許曄·이항복李恒福·이원익李元翼·이덕형李德馨 등 서울에 거주하는 현직 관료들도 다수 방문하였다. 17세기 이후에도 최현崔峴·황여일黃汝一·이정신李廷臣·이민원李民寬·한준겸韓浚謙·조경趙綱·이현일李玄逸·이형상李衡祥·정시한丁時翰 등 서울과 지방의 중요 인사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았다. 옥산서원 방문자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경상감사와 경주부윤을 비롯한 인근 지방관의 내방을 들 수 있다. 특히 감사와 부윤은 당색을 불문하고 도임차 서원방문은 상식화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옥산서원은 단순한 향촌내 교육기관을 넘어선 정치·사회적 위상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소수서원 『전답안田畵案』



필암서원 『노비보奴婢譜』

## 4.2 경제 자료

서원 경제와 관련된 자료는 토지안, 노비안, 추수기, 타작기, 신공안, 수호군안, 원속안, 전여기 등 매우 다양하다. 이들 자료는 서원 경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또한 각 서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완문, 상서, 소지 등도 대부분 원속, 속사, 속점 등의 면세·면역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서원경제와 관련된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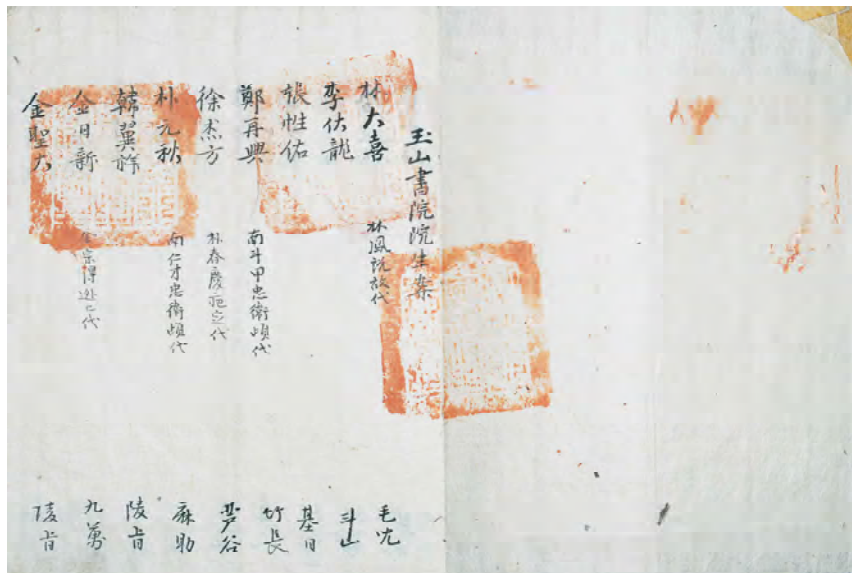
서원의 토지 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전답안』은 전답의 규모와 위치, 토지 확보 방법 및 경작자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 서원의 전답보유 현황과 변동추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16세기 중반 역동서원의 전답안과 1619년(광해군 11)에 작성된 도산서원 『전답안』은 초창기 서원전의 구조와 경영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전답수정기田畓修正記』(도동서원, 1678), 『전답안田畓案』(소수서원, 1767), 『전답양안등서田畓量案騰書』(남계서원, 1733), 『전답장파田畓長把』(옥산서원, 1694·1759) 등 다수의 토지관련 문서가 현존하고 있다. 이들 자료 등에서 보면 서원의 자체 경제력을 이용한 매득 등으로 서원전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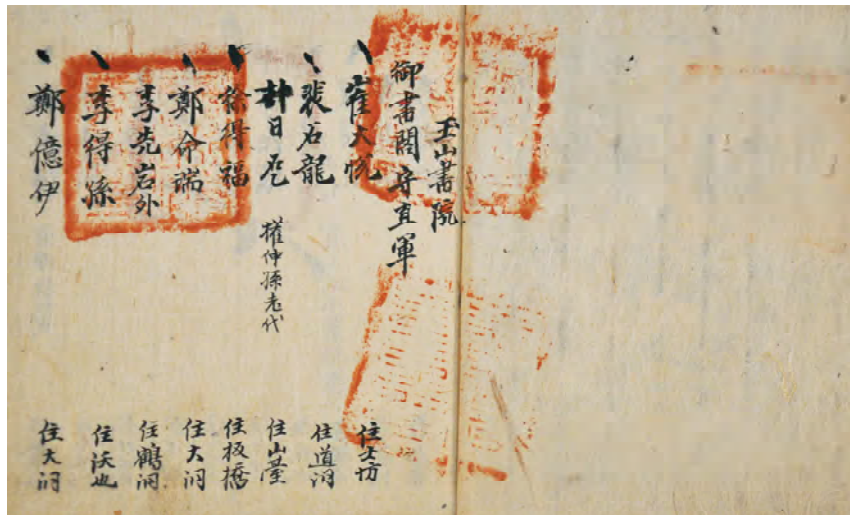
서원전과 함께 서원의 2대 경제기반인 노비와 관련된 자료로는 『노비안』, 『신공안』, 『노비추쇄안』 등이 있다. 『노비안』에는 노비의 소종래所從來와 이름, 나이, 혼인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노비추쇄안』은 18세기 이후 노비 도망이 광범위 해지자 이를 추쇄한 안이다. 『신공안』은 노비들이 서원측에 부담하는 신공의 유무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안으로, 서원노비의 서원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노비안으로 특히 주목되는 자료는 필암서원의 『노비보奴婢譜』이다. 이 노비보는 1744-1752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노비의 가계를 기록한 문서이다. 노비에게 족보가 있다는 사실이 매우 희귀하고, 그 자료적·학술적 가치가 높아 필암서원 다른 문서와 함께 보물 587호로 지정되어 있다. 내용은 노비명과 나이, 부인[妻]·시아비[夫]와 그 신분이 기재되어 있는데, 비록 족보





옥산서원 『원생안院生案』



옥산서원 『어서각수직군안御書閣守直軍案』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 편찬 목적은 소유권의 귀속을 판별하는데 역점을 둔 것이다.

서원 경제관련 자료로는 서원전, 노비 외에 서원 경제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원속, 속점, 속사 및 기부·부조 등과 관련된 많은 자료가 있다. 또한 각 서원에는 이들 원속의 면역을 관에 호소하는 상서·소지 및 관에서 발급해준 완문 등을 소장하고 있다. 원속에 관한 가장 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옥산서원의 경우에서 보면, 이 서원에는 『소속안』, 『타읍소속안』(1751-1758), 『원속사안』 및 『(도색都色·재직齎直)양하전안良下典案』, 『원생안』, 『유생안』, 『어서각수직군안御書閣守直軍案』 등 다양한 원속안이 1-2년 간격을 두고 만들어졌다.

서원 경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로, 서원 경제력의 총체적인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인 『전장기』, 『도록都錄』 등이 있다. 이들 문서는 서원의 수입, 지출 상황을 기록한 일종의 경리장부격으로, 원장 교체시 신규 원장과 유사가 인수인계의 절차로서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다. 도산서원에는 건립 초창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의 『전장기』를 소장하고 있고, 옥산서원에서도 『회계록』, 『도록』 등 130여 책을 소장하고 있다.

기부와 부조의 대표적인 예로는 소수서원의 『등록』과 『운원잡록雲院雜錄』, 남계서원의 『을묘년서원부보록乙卯年書院哀寶錄』이 있다. 이 소수서원 자료는 건립 초창기에 지방관의 현물기부를 기록한 것으로 초창기 서원의 경우 지방관의 부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계서원의 『을묘년서원부보록』은 일종의 기부금 장부로서 1555년부터 1559년까지의 기록이다. 부보란 서원운영을 위해 서책과 재곡財穀을 모으다는 뜻이다. 『부보록』에는 「가보加寶」란에 명단 및 기부금 액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벼, 콩, 서적, 노비, 어물, 소금, 종이 등의 다양한 내용이 확인된다. 이 『부보록』은 16세기 부보의 관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도산서원 전경



## 1. 서원의 지성사, 문화사적 가치

### 1.1 한국의 문화브랜드 서원

**400여 년의 전통** | 한국의 서원들은 지역별, 학맥별로 각각 다양한 교육·문화적 특성을 지닌 한국지성문화의 요람으로 400여 년을 지속해 온 전통문화유산이자, 지역의 문화적 권위와 상징이었다. 서원은 인물과 사상, 철학과 정신, 학문과 가치관을 중시하는 정신사적 문화로서 유형의 건축물과 함께 경관, 그곳에서 생활했던 사람과 정신, 그리고 문화적 시스템에서 한층 돋보인다.

흔히 건축물로만 주목되는 경향이 없지 않지만, 서원의 건물과 공간은 조선 시대 해당 지역의 지성사적 전통과 지역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역사의 현장이자 선비들의 활동무대였다. 즉 이곳 서원에 모인 지역의 지성들인 선비들은 여론 및 공론을 결집하고, 사회사적 활동을 했으며, 동시에 교육과 강학·제향 및 도서출판·문화예술 등 각종 사회 교화활동을 펼쳤던 것이다. 향약과 향음주례가 행해진 곳, 의병의 격문과 정치적 사회현안에 대한 사람들의 연명상소가 작성된 곳, 다양하고 격렬한 학문토론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서원이었던 것이다. 이는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문화이자 복합적인 가치로서, 유교문화가 지닌 본질이기도 하다.

**클로드 레비스트로스가 주목한 한국 서원** | 한국의 서원은 한국 유교문화의 다양성이 집약된 공간이고, 그 모습을 유형 무형적 자료로 간직하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도 이어져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와 경쟁력이 있으며, 현대의 교육문화공간으로 거듭난다면 한국의 ‘문화브랜드’로 그 어느 것에도 뒤지지 않는 가치를 발휘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가하면 도서출판 및 도서관적 기능까지 겸하고 있어 프랑스의 저명한

문화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Claude Levi-Strauss)(1908-2009)는, 1981년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이러한 한국의 서원에 깊은 감명을 받고, “유럽에는 도서관을 갖춘 아카데미가 도시에만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때부터 고을마다 대학 형태의 교육기관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언급한 바도 있다.

## 1.2 서원의 지성사적 네트워크

서원은 저명한 성리학자를 추송하고 제향하는 공간이자 지역의 교육, 의례의 거점 공간인 동시에 지성사적 문화전통을 대표하는 곳이었다. 즉 조선시대 선비의 학문과 사상, 도덕적 실천성을 보여주며, 지역 문화의 역사성과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곳이 바로 서원이었다. 나아가 서원에는 유·무형의 다양한 문화유산(역사·교육·제향의례·건축·기록·경관 등)들이 존재하며, 도서 출판·문화예술·정치 등 복합적인 문화사가 복합된

영구봉에서 바라본 소수서원 전경



문화현장이었던 것이다. 특히 그것들이 모두 지역을 거점으로 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역할을 담당한 지역지성들은 지역 서원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했던 것이다.

**지성사의 거점** | 서원은 한국의 지역 인물과 학맥, 그리고 지성문화를 복합적으로 보여주며,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다. 서원에는 고급 인재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접촉, 교류했던 거점 공간으로 젊은 인재들과 그들의 선배들이 강론하고 학문을 토론했던 장이었다. 제향인물의 상징성, 서원 배출인물, 서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지연과 학연, 나아가 이들 지성들 간의 유대와 결속력은 서원을 정치세력의 거점이 되게 하였고, 서원은 여론과 공론을 결집하는 집회소로서 지성사적 전통과 정신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한국만이 보존한 서원 제향의례** | 서원은 유교의 예禮가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의례화 된 곳이다. 중국이나 일본의 서원과 비교하여 한국의 서원은 우선 진정성을 보존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인물 ‘제향’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서원은 제향 의례를 통하여 선현의 학덕과 행의를 추앙하고, 예를 중요시 하는 유교의 정신과 문화를 널리 확산, 정착시키는 사회교육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선 초기 소학의 보급과 향약실시 등의 일련의 노력이 대부분 향교를 기반으로 정착되었다면, 조선 중기 이후에는 서원으로 그 주도권이 넘어 왔고, 서원에서 이루어지는 제향의례나 강학의례, 기타 여러 형태의 생활의례들은 서원이 사회교육의 실현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면이다. 이처럼 서원에서의 사회교육은 보편타당한 가치관을 형성시키고, 향촌사회를 교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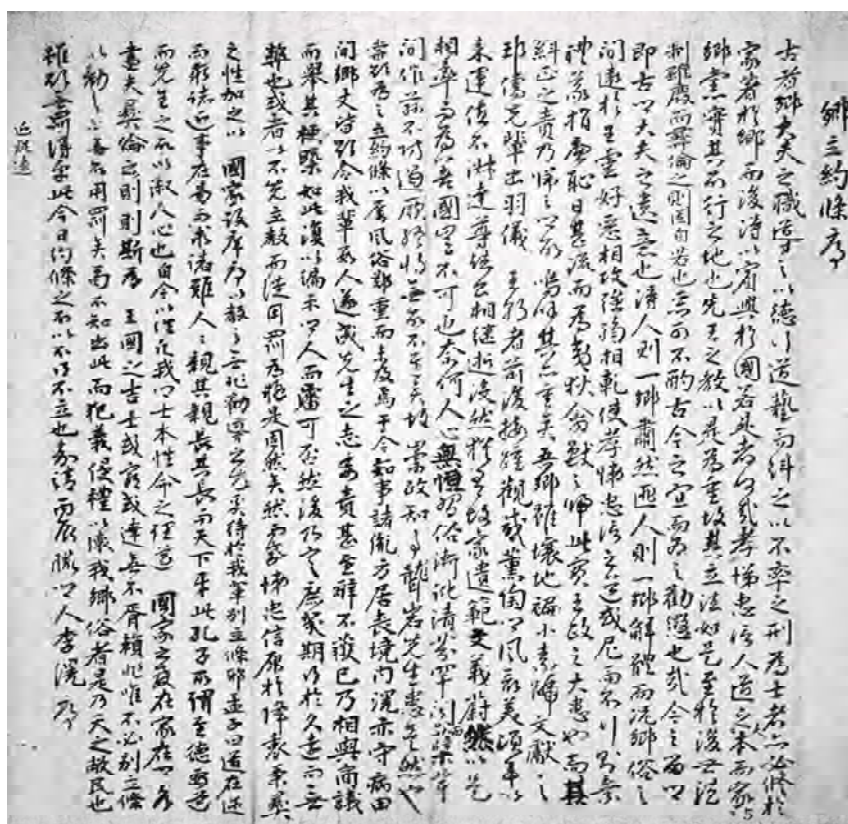
**도서관과 출판기능** | 서원은 사회교육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도서관과 출판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서원에는 원생들의 교육을 위해 경서經書를 비롯하여 역사서, 그리고 서원의 제향인물이나 그의 학맥을 잇는 인사들의 문집류 등의 자료들이 보존되고 출판되었다. 한편 여러 서원에서는 경쟁적으로 서적을 출판하기도 하였는데, 서원이 서적의 출판과 배포라는 기능도



결하였던 것이다. 이는 임진왜란 이후 상당량 소실된 서적에 대한 보강과, 추배된 제향인물에 대한 유고遺稿나 문집 등을 간행해야 하는 사명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서원의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고문서 자료들도 많이 보관되어 있는 자료의 보고였다.

전통 교육공간 | 서원 본연의 교육적 기능면에서 보면, 각 서원마다 독특한 교육 방식과 운영의 모습들이 존재했던 개성적 공간이었다. 지역별 학맥, 사상, 교육방식 등은 각 서원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서원은 이러한 교육 사상과 철학에 토대한 적절한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현대사회에서도 전통교육(강학)문화의 체험공간으로 활용가능성 또한 높다.

이항이 쓴 예안향약 서문



## 2. 서원과 향촌사회

### 2.1 서원과 재지사족

향촌사회와 서원, 그리고 재지사족 | 서원의 건립주체이자 핵심세력인 사림士林은 향촌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도학道學을 실천한다는 공통의 특징을 지닌다. 사림세력은 충절과 의리 등을 앞세우고, 민생 등의 향촌사회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기득권층인 훈구척신들을 부정, 공격하였다. 연산군 이후 중종·명종 때까지의 16세기 전반기에 4차례나 거듭되었던 사화는 바로 이러한 명분과 현실론의 갈등·대립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이때 사림들은 큰 피해를 입었지만, 사림의 명분론名分論은 더욱 더 민중의 지지를 얻게 되며,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사림들은 향약鄉約조직과 사창제社倉制 운영, 향안鄉案·향규鄉規 등의 기구를 통해 향촌사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임진왜란 당시 사림의 주도하에 다수의 향촌민이 참여하여 자기 향촌을 방위하고자 하였던 의병활동도 이런 향촌공동체의 존재의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였다.

지역, 학맥별 독특한 서원문화 | 조선시대 최초의 서원은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1495-1554)이 1543년(중종 38) 경상도 순흥에 세운 백운동서원이다. 백운동서원은 1548년(명종 5) 풍기군수로 부임한 퇴계 이황李滉(1501-1570)의 노력으로 1550년 국왕으로부터 ‘소수紹修’라는 이름을 받았다. 이는 국왕에게서 이름을 받은 최초의 사액서원이다.

한국의 서원은 소수서원이 처음 건립된 이래 그들 세력의 재생산을 위한 학교이며 향촌이나 중앙에서의 사회·정치활동 근거지라는 기능을 가졌다. 서원은 지역별로 많은 사림을 양성하여 정계에 공급하였고, 16세기 후반

마침내 집권을 실현한 이후 18세기 초까지 ‘사림의 시대’를 주도할 수 있었다. 서원은 그런 점에서 ‘사림의 시대’를 있게 한 모태였고 그것을 유지시키는 핵심기구의 하나였다.

17세기에 이르면 각 지역에 서원이 경쟁적으로 건립되고, 발전하였다. 이제 서원은 단순한 교육기관으로서만 존재하지 않고, 사림이 향촌사회에서 정치·사회적 활동을 벌이는 거점으로 변화하였다. 학연學緣을 매개로 학파에 따라 봉당이 갈라지는 것이 그러한 것으로 되게 이황의 문인들이 주축이 된 영남학파가 남인南人으로, 화담 서경덕徐敬德(1489-1546)과 남명 조식曹植(1501-1572)의 문인들이 북인北人, 그리고 율곡 이이李珥(1536-1584)와 우계 성혼成渾(1535-1598)의 문인들이 기호학파가 서인西人이 되었던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각 학파 형성 거점으로서의 서원은 곧 봉당결성의 토대였던 것이다.

## 2.2 향촌사회의 리더 양성과 서원

퇴계 이황의 서원관 | 서원은 사림의 향촌활동을 위한 기반구축과 그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추구된 문묘중사 및 새로운 교학체제 수립운동 속에서 그 성립배경이 마련되었고, 주세붕에 의해 불완전하나마 그 모습이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이황에 의하여 사림의 강학·장수와 제향을 겸하는 학교형태로서 정착·보급되었다.

조선시대의 사족은 향촌사회의 중심 리더로서 사족 중심의 향촌민 통제와 교화, 그리고 향촌공동체를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주체였다. 바로 이러한 향촌민 교화와 향촌사회를 이끌어갈 주체로서 성리학으로 무장되고 수기修己에 힘쓰는 사족을 양성할 적절한 기구가 필요하였고, 이황은 그것을 주회에 의해 확립되었던 서원에서 구하였던 것이다. 그에 의하면 서원은,

삼대三代의 학교제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으로서, 향교鄕校와 같은 관학官學이 도회지에 설치되어 있어 번잡한데 비해 한적하고 풍광 좋

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학습여건이 훨씬 양호하다. 또 지방관으로 부터의 불필요한 간섭을 받지 않는데다가 과거科擧나 이권利權 등 현실적인 출세욕出世慾과는 거리가 먼 분위기를 갖고 있는 만큼 도학을 강습하고 의리를 익히며 덕성을 함양하는 장소로서 이보다 나은 제도는 찾기 힘들다.

고 보았다. 이황이 그 문인들로 하여금 백운동서원의 운영권을 장악, 그 일대 사림의 학문적 근거지로 삼게 하고, 이어 서원을 공인받아 나라 안에 그 존재를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 이 백운동서원에 대한 사액과 지원을 요구하였던 것은 바로 그러한 목적에서였던 것이다.

**향촌교화, 향촌자치와 서원** | 사림세력은 그 뿌리를 향촌사회에 두고 있었고, 향촌사회의 교화 기능을 매우 중시하였다. 조선 초기 『소학小學』의 보급과 향약의 실시 등 일련의 노력이 대부분 향교를 기반으로 정착되었다면, 조선 중기 이후에는 서원으로 그 주도권이 넘어 왔다. 이에 서원은 사회교육을 실현하는 곳으로서 지방의 풍속과 예속禮俗의 교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물론 율곡 이이李珥가 사림을 ‘경향京鄕을 막론하고 도학道學을 신봉하며 그것의 실천에 힘쓰는 무리’라고 정의한 데서 보듯이 도학을 믿으며 실천한다는 공통적 요소와 함께 서울과 수도권 일대까지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고 서원은 또한 향촌 질서를 재편성하고 향촌 지역공동체를 이끌어 간 정신적 지주였다. 즉 서원은 향촌 사림들의 학문 및 장수처로서 지역 선비들이 모여 세 상사를 논의하고 여론을 모으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 3. 서원의 건립과 지역네트워크

#### 3.1 건립의 유서와 기반

서원 건립이 왜 그 시기에, 그곳에, 그리고 그 인물을 제향하게 되었는지는 매우 중요한 관심거리이다. 대체로 서원건립의 유서와 기반은 학식이나 덕망이 뛰어나고 지역적 연고가 있는 유적(서재書齋·강사講舍·유허遺墟 등)이 있는 경우이다. 세계유산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9개 서원의 경우도,

소수서원(1543) : 성리학 수입한 안향 사당을 백운동에 건립하면서  
유서마련

남계서원(1552) : 정여창의 출생지에 강학공간 마련

옥산서원(1572) : 이언적이 낙향하여 머문 독락당의 유서

도산서원(1574) : 이황이 낙향하여 후학을 양성한 계상·도산서당  
에서 시작

필암서원(1590) : 김인후의 낙향과 백화정 건립이 유서

도동서원(1605) : 김굉필의 낙향과 쌍계서원 건립이 유서가 됨

병산서원(1613) : 고려 말 풍산유씨의 교육처 풍악서당이 유서가 됨

무성서원(1615) : 최치원의 생사당과 홍학당의 유서

돈암서원(1634) : 김계휘의 정회당과 김장생의 양성당이  
강학유서가 됨

등으로 각기 독특한 배경들을 지니고 있다. 물론 각 서원은 정밀하게 살필 경우, 이러한 유서 이외에도 창건 시기나, 지원세력의 노력 여부 등이 관련되지만, 여기서는 도산서원과 돈암서원의 사례로 서원 건립의 유서를 예시하여 보고자 한다.



**퇴계 이황과 도산서당** |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李滉(1501-1570)의 강학터였던 도산서당을 토대로 건립되었다. 사실 이황은 도산서당을 건립하기 전부터 제자들을 가르쳐왔다. 48세가 되던 1548년(명종 3)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여 은거하자 인근 지역의 선비들이 그를 찾아와 학문을 배우고자 한 것이다. 그리하여 1551년 이황은 집 근처에 도산서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계상서당溪上書堂을 지어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계상서당에서 월천 조목趙穆(1524-1606), 백담 구봉령具鳳齡(1526-1586), 지산 김팔원金八元(1524-1589), 인재 권대기權大器(1523-1587) 등 여러 문인과 제자들을 맞아 강학하였다.

계상서당의 명성을 듣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좁은 서당에서 함께 지내기 불편해지자 제자들이 새로운 곳으로 서당을 옮겨 짓자고 요청하게 되었다. 즉, 1557년 3월 금응훈琴應璦(1540-1616) 등 그의 문인들이 수업할 정사를 세우자고 간청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서당을 새로 마련하는 것을 마땅치 않게 여긴 이황이 이를 거절하였지만, 문인들이 도산에 터를 보아 놓고 다시 간청하자 이황이 그 터를 살펴보고 마음에 들어 새로 서당을 짓기로 결심하게 된다. 드디어 60세가 되던 1560년 집 뒷산 넘어 도산陶山 자락에 도산서당을 완성한다.

이렇게 건립된 도산서당에서 이황은 김성일金誠一(1538-1593), 류성룡柳成龍(1542-1607) 등 저명한 후학들을 배출해냈다. 그리고 도산서당은 학문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조선시대 영남 유학자들의 상징적 기능을 하였던 것이다.

이 도산서당을 유서로 하여 이황 사후 4년이 지난 1574년(선조 7)에 도산서원이 건립된다. 즉, 현재의 도산서원은 엄밀히 말하자면 이황이 생전에 성리학을 공부하며 제자들을 가르쳤던 도산서당 영역과 이황 사후에 그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제자들이 지은 도산서원 영역으로 나뉜다. 현재 서원 전체 영역에서 전면에 자리 잡은 건물들은 도산서당 영역에 속하고 그 뒤편에 들어선 건물들은 도산서원 영역에 속한다. 도산서원은 조선시대 내내 이황의 학통을 이어받은 영남 남인을 대표하는 총본산으로서 그들의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는 곳이었다.

사계 김장생과 양성당 | 논산의 돈암서원도 사계 김장생의 강학 기반이 모태가 되어 건립된 서원이다. 김장생의 강학활동은 아버지인 황강黃岡 김계휘金繼輝(1526-1591)가 건립한 정회당靜會堂에서 비롯된다. 김계휘는 기대승奇大升과 이이李珥 등 당대의 젊은 신진 사림들과 교유하였던 인물로 훗날 김계휘는 이이의 딸을 손자며느리로 맞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이들은 정계와 학계를 망라하여 폭넓은 교제를 하였고, 동·서분당 때에는 박순·심의겸·윤두수 등과 함께 서인으로 분류되기도 하였다.

1557년(명종 12) 옥사에 연루되어 연산에 낙향한 김계휘는 정회당을 건립하고 인근의 명망 있는 집안의 실력 있는 자제를 받아 강학하였다. 아들 김장생 또한 이곳에서 함께 공부했다. 김계휘는 1573년(선조 6) 경상도 관찰사로 재임하면서 쌀 300석과 각종 장서藏書 등을 조달해 주기도 하였다. 16세기 말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돈암서원지』에 수록된 정회당 유생명단에는 김장생 등 105인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회당의 강학 전통은 임진·정유왜란으로 중단되었다가 김장생에 의하여 다시 이어졌다.

김장생이 55세가 되던 1602년(선조 35) 연산의 옛 아한정 자리에 ‘양성養性’이라는 편액을 걸고 강학을 시작한 것이다. 김장생은 이후 30여 년을 양성당에서 머무르며 학문연구와 후학양성에 전력을 다했다. 양성당에는 그를 추앙하는 각지의 유생들이 빈번하게 찾아 들었고, 이곳에서 수많은 문인들을 배출하여 호서예학의 산실이자 돈암서원 창건의 인적 배경이 되었다.

### 3.2 건립과정과 지원세력

서원의 건립과 운영 | 다음으로 서원의 건립과정에는 제향인물과 관련된 지역 사족 세력의 연대와 지방관의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는 서원이 지닌 공공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만큼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제향인물, 혹은 지역과 관련된 학연學緣·지연地緣·혈연血緣 등 일정한 연고를 갖고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그 관계가 무엇이냐를

주목함으로써 서원의 기본적 성향을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런가하면 서원의 사회적 지위나 권위는 제향인물과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

서원의 건립주체세력은 대부분 향내<sup>향內</sup>의 유림 혹은 도유<sup>道儒</sup>로 기록되어 있지만 내용상 이들은 재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향중공론<sup>鄉中公論</sup>으로 창건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주동세력이 학통, 성씨, 당색, 혹은 이들 세력의 연대에 의한 것 등등 매우 다양하다. 이 주체세력이 누구이며, 건립당시 그들의 지위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의 문제는 바로 당시대 그 지방사회 구조상 그들 주체세력들이 차지하는 위치를 설정하는 기준점이 되어 준다. 지방사회의 변천이나 그 구조와 서원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조선후기의 향촌사회사 연구에서 서원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며, 서원의 역사적 의미도 바로 이런 데서 부각될 수 있다. 그러한 건립과정과 지원세력을 경주 옥산서원과 현풍 도동서원의 사례로 살펴보도록 한다.

**경주의 옥산서원 건립** | 옥산서원은 회재 이언적의 학통을 계승하기 위하여 1572년(선조 5)에 이언적의 평소 장수지<sup>藏修之地</sup>였던 자옥산<sup>紫玉山</sup> 아래에 건립되었다. 서원은 이언적 사후 내외손, 향촌사림(권덕린<sup>權德麟</sup> 외 13인), 지방관(부윤<sup>府尹</sup> 이제민<sup>李齊閔</sup>·박승임<sup>朴承任</sup>)의 상호 협조 하에 건립되었다. 옥산서원의 창건은 경주 부윤 이제민<sup>李齊閔</sup>이 회재 이언적의 문인인 권덕린<sup>權德麟</sup> 등 고을의 사림 13명의 창건논의를 받아 경상감사에게 상신하고, 감사 임설<sup>任說</sup>이 예조에 청하여 창건된다. 이 과정에 부윤 이제민과 후임 박승임<sup>朴承任</sup>은 재목과 물자, 인력을 지원하는 등 창건을 실질적으로 주관하였다. 특히 이제민은 서원 인근의 정혜<sup>定惠</sup>·두덕<sup>斗德</sup> 2개의 사찰과 사기<sup>沙器</sup>·수철<sup>水鐵</sup>·야철점<sup>冶鐵店</sup> 등을 서원에 소속시켜 경제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건물의 당호를 영의정 노수신<sup>盧守愼</sup>과 성균관 대사성 허엽<sup>許曄</sup>이 명명하고, 현판의 일부는 당대의 명필인 석봉 한호<sup>韓濩</sup>가 썼다.

옥산서원은 창건 이후의 서원재정 운영에서도 제향자의 내외손, 향촌사림, 지방관의 상호협조가 지대하였다. 예컨대 1578년(선조 11)에는 고직·도척<sup>刀尺</sup>·반모<sup>飯母</sup> 각 1명과 속공비<sup>屬公婢</sup> 14명이 이속되는 등 특히 관의 지원이 컸다.

**현풍 도동서원의 창건과 중건** | 도동서원은 한현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1454-1504)을 제향하여 1568년(선조 1) 현풍현 비슬산 아래 쌍계동에 쌍계서원雙溪書院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건립되었다. 그런데 쌍계서원 건립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어서 자세한 건립과정이나 운영 등에 대한 것은 알 수 없다. 다만 창건 시 문적에 의하면 이 서원의 건립은 당시의 여타 서원과 마찬가지로 향중사림 뿐만 아니라 특히 감사를 비롯한 지방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쌍계서원은 1573년(선조 6)에 사액받았다.

그러나 쌍계서원은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 그러다가 1604년(선조 37)에 현풍현 읍치에서 서쪽으로 15리 떨어진 오할면 도동 송추 아래로 옮겨 중건되었는데, 이때 서원명을 ‘보로甫老’로 개명하였다. 도동서원이라는 이름은 이후 1607년(선조 40)에 ‘도동道東’으로 재사액 받으면서 쓰기 시작한다.

바로 이 1604년의 중건과정에 대한 자료가 많아 그 상황을 잘 엿볼 수 있다. 중건이라지만 완전히 새로운 자리에 새로 서원을 건립하는 것이어서 창건과도 같은 대공사였다. 도동서원의 중건과정에 대해서는 『도동서원중창사적道東書院重創事蹟』(무오년)을 통해 그 대체적인 과정이 파악된다. 도동서원 중건은 역시 보통의 서원의 건립과 마찬가지로 사림의 공론에 의해 김굉필의 내외손 및 일향사림一鄕士林의 공동협력에 의해 중건되었다. 그 과정에서는 감사를 비롯한 본 현풍현 내지 인근 지방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

특히 중건과정에서 제향인물인 김굉필의 외증손이며 당시 영남학파를 영도해 나갔던 한강寒岡 정구鄭逵(1543-1620)와 감사의 역할이 컸다. 정구는 중건 초기 서원을 세우고 구획하는데 힘썼다.

그는 1604년(선조 37)에는 먼저 중건역사를 관장할 원장으로 박근을 천거하였고, 1607년에는 안동대도호부사로 재직하면서 당시 영남학파의 중심인사였던 대구도호부사인 정경세鄭經世와 협천군수 여대로呂大老와 함께 중건구조통문重建求助通文을 내기도 하는 등 도동서원 중건을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었다.

지역의 현풍사람들도 서원중건 논의가 시작되자 곧바로 감사에게 문서를 보내 이전의 쌍계서원 건립 당시에 감사가 후원한 예를 들면서 양향糧餉·재철

材鐵 · 선척船隻 · 목수木手 등 중건에 필요한 물력의 적극적인 후원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서원 유생들의 요구로 인해 감사는 현풍현과 고령 소재 쌀 5석, 콩 3석을 마련하게 하였다. 철물은 웅천상신철熊川上薪鐵 100근을 하사하였고, 재목은 현풍현 경내의 것을, 선척은 현풍현 유재선留在船 1척을, 군량미나 영중營中 잡물 등 운송시를 제외한 한가한 때에 차급借給함을 허락하였다. 그 외에도 기강岐江의 구황염救荒鹽 5석을 하사하였다. 장인은 현풍현내에서 일을 시키도록 하고, 만약 다른 곳의 장인이 필요하면 고령 · 초계 등의 장인을 지명하여 조달하도록 하였다. 그 외의 일들은 현풍현감이 최선을 다하여 조치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볼 때 도동서원의 중건 역시 다른 서원과 마찬가지로 제향인물의 내외손과 향촌사림의 공동 협찬, 그리고 감사 및 본 읍과 인근수령 등 지방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사되었으며, 그 경제적 기반 또한 그들에 의해서 확보되었던 것이다.

### 3.3 독특한 학맥의 형성기반

서원과 지연과 학맥 | 서원은 또한 사람의 공론을 형성하고, 사족들의 연명상소를 발의하거나 여론을 수렴하는 취회소聚會所로서의 역할이 매우 컸다. 즉 향촌사족간 결속의 매개체로 지연과 학맥, 때로는 정과의 연대와 교류도 서원을 거점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영남지방에서는 이황의 학통을 이어받은 정구鄭逵 · 정경세鄭經世 · 장현광張顯光 · 장흥효張興孝 · 이현일李玄逸 · 조덕린趙德隣 등이 도산서원陶山書院을 중심으로 도남道南(상주) · 임고臨臯(영천) · 옥산玉山(안강) 서원 등에서 이황이 주장한 주리主理중심의 성리설性理說을 강론하거나 이황의 예설禮說을 기초로 하여 예학禮學연구를 심화시켰다. 마찬가지로 호서지역에서는 김장생金長生 · 김집金集 · 송시열宋時烈 · 송준길宋浚吉 · 윤선거尹宣舉 · 유계俞愼 · 윤증尹拯 · 권상하權尙夏 · 박세채朴世采 등의 유학자들이 율곡栗谷 이이李珣와 우계牛溪 성혼成渾의 성리설에 입각하여 성리학을 이해하고 경전의 내용을 해설



하였다. 특히 충청도 연산의 돈암서원遯巖書院은 조선 예학의 태두인 김장생을 제향하는 곳인 만큼 그 문인들에 의한 예학의 연구와 강학이 활발하여서 조선예학의 메카가 되기도 하였다.

요컨대 17세기에 서원은 유생 스스로의 분발과 자기 수련인 장수를 기초로 저명한 유학자나 그 문인들에 의한 강학활동이 활발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형성되는 학파의 확산을 위해 제향기능 역시 강화되는 질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장수藏修·강학講學·제향祭享 기능의 본격적인 가동을 통한 사림양성기구인 학교의 성격을 확립하였다고 하겠다.

그리고 17세기 후반 이후가 되면 서원은 더 이상 학교로서의 존재에만 머물지 않았다. 사림의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이제 서원은 바로 그 사람이 정치·사회적 활동을 벌이는 향촌에서의 거점 내지 기반이 됨으로써 정치·사회적 기구로서의 성격을 갖고, 각 학파 형성의 토대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서원은 의리명분 문제와 관련된 사안을 놓고 이를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활발한 토론이나 논쟁을 통해 향촌별 사림들의 견해를 조율하고 수렴하며, 나아가 자기들이 지지하는 봉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이와 성혼을 문묘의 제향인물에 포함시키려는 서인측의 움직임과 효종의 승하에 따른 상복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비롯된 서인·남인 사이의 논쟁인 예송禮訟에서 자기 당의 주장을 지지하는 유생들의 상소가 서원을 근거로 하여 빚발쳤던 것은 그 좋은 예였다. 서원은 이제 본래의 강학·장수·존현尊賢의 기능 이외에 사림의 학맥형성의 기반이자 정치활동 근거지로서의 역할을 더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 남계서원과 돈암서원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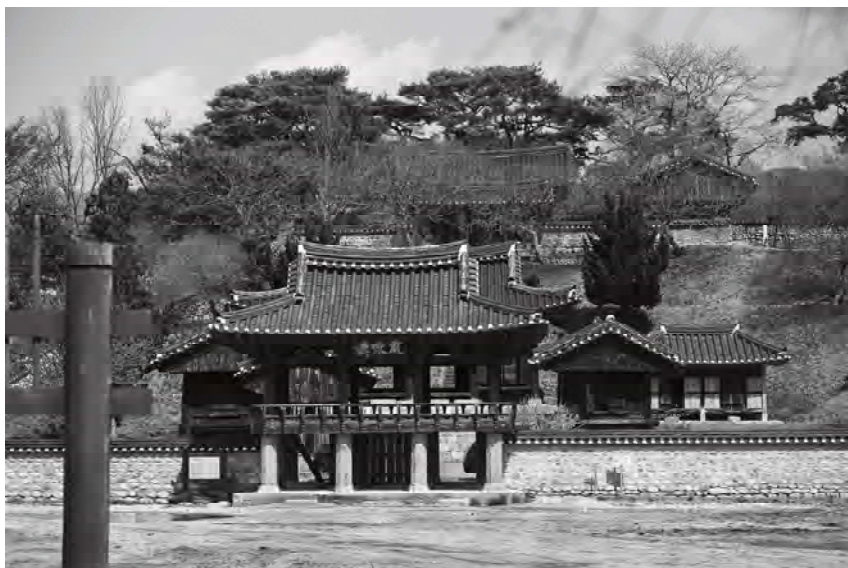
**남명학파와 남계서원** | 함양의 남계서원은 1552년(명종 7) 조식曹植의 문인 강익姜翼(1523-1567) 등 함양 인근의 사람들이 주도하여, 정여창鄭汝昌(1450-1504)을 주향으로 건립 한 영남우도의 대표적인 서원이다. 이 시기 함양은 조식의 영향권에 있던 지역으로, 이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조식과 정인홍, 정구의 문인들이었다. 『남계서원지』의 서원 건립 당시 기록인 「서원사실書院事實」에는, 1552년(명종 7) 강익이 박승임朴承任, 노관盧祿, 정복현鄭福顯,

박희무朴希茂 등에게 ‘우리 고을은 정여창 선생의 고향으로 선생이 돌아가신 지 이미 50년이 지났음에도 서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없으니, 이는 고을의 수치이다.’라고 하니, 이에 모두 동조하여 서원을 건립하였다고 한다. 이중 박승임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식의 문인이다. 또한 당시 군수 서구연徐九淵이 진심을 다해 도왔다고 하여 지방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되었음도 알 수 있다.

한편 이 시기 우리나라는 주세붕이 세운 소수서원 외에 서원이 건립된 사례가 없었던 때였다. 때문에 이에 관한 경험이 부족한 지역사립들의 반대와 군수 서구연의 체직 후 후임 수령들의 무관심, 그리고 흉년 등이 겹쳐 남계서원의 건립이 중단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함양에 연고를 둔 지방관들의 지속적인 후원, 주변고을의 도움, 그리고 점차 협조하게 된 함양사람들의 공론을 얻어 10여 년 만인 1561년(명종 16)에 비로소 강당과 묘우를 완성하였다.

남계서원의 『부보록褒寶錄』에는 1555년(명종 10)에서 1559년 사이의 현물 기부자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지례, 거창, 부안, 함양, 산음, 안음, 단성의 수령과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남계서원이 함양 일대의 사림과

남계서원 전경



지방관이 주체가 되어, 역시 이 지역 출신인 정여창에 대한 봉사와 향촌교육을 위해 건립하였음을 알려준다. 이후 남계서원은 정기적인 제례와 교육 활동, 다양한 서책의 소장 등을 통해 향촌의 교육을 담당하는 고을 사림들의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그 후 남계서원은 점차 규모를 확대하여 1564년(명종 19)에는 함양군수 김우홍(金宇弘)의 도움으로 동·서재를 건립하고 조정 등 경관의 정비를 마무리하였으며, 각 건물마다 편액도 걸었다. 김우홍은 조식의 대표적인 문인 동강 김우옹의 형이며, 현판을 쓴 조식(曹湜) 역시 남명 조식의 문인이다. 또한 서원의 건립에 관여했던 수령들은 재직 시 뿐만 아니라 체임 후에도 서원에 많은 기부를 하였는데, 특히 서구연은 순창군수와 밀양부사 재직 중에도 많은 서책을 기부하였다.

남계서원에서는 1562년(명종 17) 무렵부터 강학활동을 시작하였는데, 강의를 중심으로 열린 정기적인 수업 외에도 저명한 학자를 모셔다 듣는 강회도 개설하였다. 예를 들어 1563년에는 남명 조식이 직접 남계서원을 찾아와 여러 문생들이 강론을 들었다. 또한 김우홍에 의해 서원의 정비가 일단락된 후 이듬해 1565년(명종 20)에는 오건(吳健)이 한 달간 남계서원에서 머물면서 주희의 연보 등을 강론하였는데, 이 때 일대의 남명문인들 대다수가 참석하여 자리를 함께 했다고 한다.

남계서원은 1566년(명종 21)에 전국에서 네 번째로 사액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이에 힘입어 광해군 대에서 인조반정 이전까지 남명학파의 총본산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남계서원은 정유재란을 맞아 소실되었는데, 이후 서원의 재건을 놓고 함양의 사림들이 북인과 서인으로 분열되기도 했다. 그 뒤에는 인조반정으로 북인이 몰락하자 서원 역시 공백기를 맞게 되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별묘를 세워 절의(節義)로 이름난 정온(鄭溫)을 모시는 등 당색적 성격을 지워갔다. 그러나 남계서원은 1728년(영조 4) 무신란을 겪으면서 노론계 서원으로 다시 한번 변화하는 정치적 부침을 또 겪었는데,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경원장(京院長) 제도이다. 이는 노론계 서원들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특징으로 남계서원의 경원장들도 이재(李穡), 송환기(宋煥琦), 조인영(趙寅永) 등

노론의 핵심인물이자 당대의 최고 권력자들이었다.

**기호학맥과 돈암서원** | 돈암서원은 1631년(인조 9) 김장생이 세상을 떠난 직후부터 건립을 추진하여 1634년(인조 12)에 건립된 서원이다. 1632년 김집을 필두로 김장생의 문인들은 충청도 20개 군현의 유림들과 함께 창건을 발의하였다.

당시 실무를 맡은 유사는 현직관료 6인, 전직관료 9인, 유학 4인, 생원 4인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직관료 중에는 천안 군수, 니산 현감이 포함되고 전직관료로는 전군수 윤전, 김정망, 임위, 송준길, 송시열, 이유태 등이 참가하고 있었다.

한편 열읍 유사는 해당 지역의 지방관 및 향교·서원·사림들에게 통문을 돌려 재력을 모았던 인물들로서 20개 지역, 총 56인인데 열읍 유사의 지역 분포를 보면,

공주목(20명) : 공주(4) 니산(3) 연기(3) 전의(2) 회덕(7) 진잠(1)

청주목(26명) : 천안(3) 문의(3) 직산(2) 회인(1) 목천(3) 청산(3)

향간(2)보은(3) 영동(2) 옥천(4)

홍주목(10명) : 온양(3) 신창(2) 아산(3) 평택(2)

등으로 나타나 공주목·청주목·홍주목으로 폭넓은 분포를 보인다. 이들의 존재가 바로 김장생의 학맥이나, 호서사림의 연계성격을 보여준다. 이들은 모두 호서지역의 서인 노-소론계 활동의 뿌리들로 모두 김장생과 김집의 문하에서 배출된 인사들이었다. 결국 이 같은 집중도와 연계 속에서 돈암서원은 호서지역 산림과 예학의 산실이자 본거지로서 17세기 전 기간 동안 충청도 서인계의 수원首院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한편 김장생의 문인집단은 연산이 36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성씨별로는 광산김씨와 함께 회덕의 은진송씨, 노성(니산)의 파평윤씨가 주요 성씨로 나타난다. 1635년(인조 13) 돈암서원 첫 봉안례에 참여한 인사들의 면모도 이와 대동소이하다.



돈암서원 전경



1635년 돈암서원 봉안례 참석자 거주지별 분포

공주목	니산	17	청주목	옥천	4
	공주	20		영동	2
	연산	31		진천	2
	은진	16		전의	—
	회덕	12		보은	1
	진잠	2		황간	1
	연기	—	전주목	금산	1
	부여	5		진산	1
	임천	1		익산	10
	석성	1		고부	—
한산	—	용안		1	
홍산	1	진안		1	
홍주목	홍주	—		전주	10
	정산	1		여산	6
	덕산	—		고산	6
	청양	2		기타	남평
	결성	—	창평		—
	보령	—	광주光州		—
	서산	—	덕흥		—
		서울	1		
		광주廣州	—		
		미상	5		
총계 164					

사계 김장생과 신독재 김집의 유서가 깃든 돈암서원은 호서 서인계 학맥의 거점으로 이후 활발한 활동을 벌인 송준길, 송시열, 이유태, 유계, 윤원거, 윤문거, 윤선거 등이 모여 강학과 유희를 열었던 곳이기도 하였다. 노·소론 분기 이전 서인계 인물들의 경전과 의례에 관한 강학 모임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바로 17세기 한국예학의 새로운 전통을 수립한 ‘호서예학’의 주역들이었다.

## 4. 학파와 학맥의 거점

### 4.1 서원과 공론 형성

서원은 교육과 제향, 다양한 사회교화활동 외에도 정치적 사회현안에 대하여 당시 최고의 지역지성인인 선비들이 공론을 형성했던 곳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론은 때로는 연명상소로, 때로는 격렬한 학문토론으로, 때로는 의병의 창의와 격문으로 그 모습을 역사상에 드러내었다.

**옥산서원과 영남유림소** | 옥산서원 설립 후 이언적의 문묘 배향이 논의될 때 경주사림들은 서원을 중심으로 성균관과 도내의 유림들이 적극 나섰고, 옥산서원을 중심으로 하여 안동·상주권 유림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선조 말 광해군 초기에 정인홍을 비롯한 대북세력이 회재 이언적과 퇴계 이황을 무휼하고 있을 때 ‘회퇴晦退’를 적극 변호하여 남명학파와는 대립하였다. 이때 옥산서원은 유림들의 근거지로 유생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옥산서원을 중심으로 한 경주유림들은 이후에도 우계 성혼, 율곡 이이, 그리고 우암 송시열의 승무陞廡를 반대하는 영남남인들의 유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런가하면 사도세자의 신원을 요구하는 상소와 영남만인소, 대원군의 서원철폐 반대 상소, 1884년(고종 21)에는 복제개혁에 반대한 만인소 등에 적극 참여, 또는 주관 역할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원은 의리 명분문제와 관련된 사안을 놓고 이를 공론화 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토론이나 논쟁에 대해 향촌별 사람들의 견해를 조율하고 수렴하며, 나아가 자기들이 지지하는 봉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예를 들면 이이·성혼의 문묘종사 찬반논쟁이 그 하나의 예가 된다. 문묘종사란 정통성을 부여받은 유학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일이어서 당사자는 물론 그 문인, 학파의 도학적 정통

과 정치적 위상까지 크게 강화해 준다. 그동안 남인은 문묘에 종사된 이황을 앞세워 서인에 대한 학통상의 우위를 차지해 왔다. 인조반정으로 집권한 서인이 유생을 앞세워 그 학적 연원인 이이·성혼의 문묘종사를 서두르고, 남인과 특히 영남유생들이 이에 결사적으로 반대한 것은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필암서원의 노론계 인맥과 활동** | 필암서원은 제향인물인 하서 김인후에 대한 추송활동과 서원의 인적 교류와 연대가 주목되는 사례이다. 이 과정에는 1차적으로 전라도 및 장성지역의 하서 문인과 후손에 의한 노력이 전제가 되지만, 여기에 중앙 서인노론계의 적극적 지원과 정조의 관심이 부각되는 형태였다.

우선 서인계는 박세채의 1672년(현종 13) 행장찬술, 1675년(숙종 1) 김수항의 묘표찬술, 1682년 송시열의 신도비명 찬술 등과 같은 지속적인 지원을 한다. 이를 통하여 서인 노론계 인사들은 김인후와 그의 문인, 후손으로 대표되는 이 지역사족세력을 그들의 강고한 지지기반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김인후의 현양과 추송활동을 통하여 보여준 장성지방 노론계의 활동과 강한 결집력은 1725년(영조 1)에 있었던 전라도 유생 1,200여 명이 올린 상소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 이 상소는 당시 전주, 남원, 나주, 장성, 담양 등지의 노론계 사림들이 송시열宋時烈과 그의 적전인 권상하權尙夏를 현양시키고자 한 것으로 송시열과 권상하에 대한 무고의 탄핵과 치죄治罪 요청, 그리고 송시열을 배향한 정읍 고암서원考巖書院의 복액을 청한 것이었다. 당시의 소두인 김택현金宅賢은 김인후金麟厚의 5대손이자 송시열의 학맥을 이어던 장성지역의 노론계 중심인물이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김인후의 문묘배향 논의에서 더욱 본격화된다. 1771년(영조 47) 전라도 유생 양학연梁學淵 등이 김인후를 문묘에 배향하자는 상소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곧바로 승무가 허락되지 않지만, 정조가 사제문을 지어 학덕을 포장하고, 예관 치제하는 특전을 내리자 이에 고무된 8도 유생 박영원朴盈源 등과 정현鄭樞 등이 연이어 김인후의 문묘文廟종향을 건의하고, 계속된 6-7차의 상소[1786년(정조 10) 8도 유생 박영원 등 문묘배향

건의(불윤), 1789년(정조 13) 8도유생 심익현 등 문묘배향 건의(불윤), 1790년(정조 14) 8도유생 이악겸 등 문묘배향 건의(불윤), 1796년(정조 20) 김무순, 이명채, 채홍신, 홍준원 등의 문묘배향 상소]를 통하여 마침내 1796년 문묘 배향이 결정되고 영의정 증직과 부조묘, ‘문정(文正)’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하서집』 간행까지 지원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필암서원의 상소와 통문, 중앙세력과의 연대 등을 통한 공론형성은 전라도 수원으로서 필암서원의 기능과 위상을 한껏 강화시켜 주었을 것이다. 필암서원은 호남지방의 노론 계열 인사들의 학문적인 종주로서, 위치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나 필암서원은 공론형성을 통한 정치적 거점으로서 자리매김 하면서 장성지역은 물론 호남사론의 중심처가 되었다.

**무성서원 강학활동과 의병 창 의** | 무성서원은 한국의 여러 서원 중에서도 창건 연혁과 변천과정에서 독특한 특성을 가진 곳이다. 즉 흥학당이라는 서당 강학과 향음주례·향약의 전통이 합쳐져 오랜 전통을 이어왔던 것이다. 이러한 무성서원 강습례는 기본적으로 향음주례(鄕飲酒禮)의 예법에 따라 진행된 점과 개최 시기가 전통적인 민속의례인 춘3 추9에 맞춰져 있는 점 등에서 다른 지역의 강회와 다른 독특한 면을 갖고 있다. 무성서원의 강습례는 경서 강독을 위주로 한 강학 활동에 더하여 고례 습례라는 특별한 예교적 의미를 함께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강습례는 1871년(고종 8)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에서 존치된 무성서원이 전라우도의 수원으로서 ‘강학명도(講學明道)’의 모범을 보이자는 차원에서 1873년부터 더욱 활성화되었다고 한다.

특히 무성서원은 한말의 창 의지로도 유명한데, 강습례의 시행과 명성이 바로 1906년 병오창 의의 거점이 되게 한 요인이었다. 병오창 의, 무성창 의로 일컬어지는 무성서원의 창 의는 강습례를 계기로 모인 사족들이 일으킨 의병이었다. 이는 무성서원의 강회와 유림 동원력, 정신사적 위상과 지성사적 대표성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 4.2 출판 및 도서관 기능과 서원

앞에서 프랑스의 저명한 문화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가 1981년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유럽에는 도서관을 갖춘 아카데미가 도시에만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때부터 고을마다 대학 형태의 교육기관이 존재”했다고 감탄하였음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서원의 지역별로 다수가 존재하였음과 소재와 도서관적 기능을 주목하고 강조한 것인데 이렇듯 각 지방에 존재했던 서원은 서책의 보관처, 즉 도서관으로서의 기능과 의미도 컸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인쇄문화가 발달한 민족답게 각 지방의 서원에서는 직접 책을 인쇄하기도 하였다. 즉 서원은 향촌 내에서 교육과 제향을 담당한 기관으로서 뿐 아니라 지역의 도서관이자 지역출판문화의 중심지로 역할을 다하여 지방문화의 창달에 크게 기여하였던 것이다.

**지역 도서관으로서의 역할** | 서원은 지역별, 학맥별로 가치와 이념을 추구하는 본산이었다. 따라서 서원에는 강학의 도구로서 각종의 교과용 도서나 사전류, 주요 저술 등 각 시기의 대표적 출판물들이 보급·소장되게 마련이었고, 제향인물이나 그의 학맥을 잇는 인사들의 문집류, 자료나 사적들이 보존된 도서관이었다. 책의 보급과 열람이 어려웠던 시대에 있어서 서원의 이러한 장서藏書의 기능은 지역에 커다란 문화적인 기여를 하였다.

일단 서원에 책이 모이게 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사액서원에 대해서는 국왕이 서적을 하사하는 것이 관례였다. 또한 국가에서 서적을 간행, 반포할 경우라든가 국가의 장서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서원에 서적을 하사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관찰사 또는 지방관의 조치에 의하여 서적이 지급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모인 서원장서의 관리에 대해서는 각 서원의 원규에 기입하여 세심한 주의를 하였다.

한국 최초의 서원이었던 소수서원의 경우 학규學規와 학전學田, 장서藏書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자료들이 보인다. 즉 소수서원의 창건자인 주세붕은 45종 505책의 서적을 구입하여 비치하였는데, 소수서원지인





돈암서원 장판각

『죽계지』에도 별도로 장서록藏書錄이 있을 정도였다. 그 뒤 소수서원은 계속 서적을 구입하고 국왕의 하사와 지방관·서원·사가로부터 기증을 받으면서 서적 보유량을 증가시켰다. 그리하여 가장 많은 서적이 소장되었던 1785년(정조 9) 기록에는 소수서원 소장도서가 236종 이르렀다고 한다.

특히 원규院規에는 도서의 열람과 대출, 포쇄와 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조목이 있고, 서목의 편찬, 서적간행 등의 기능도 충실히 수행하여 소수서원에서 관각한 서적도 『추원록』과 『죽계지』를 비롯한 7종에 이른다.

**서책 출판의 기능** | 서원은 이러한 지방의 도서관적 역할뿐만 아니라 서적을 직접 출판하기도 하여 지방 출판문화의 중심지로서 문화창달과 지식보급에 큰 역할을 하였다.

서원은 사설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사서삼경과 같은 자체에서 필요한 교육용 서적을 간행하기도 하였고, 서원에 제향인물의 문집이나 실기 등의 서적을 판각, 출판하여 배포하기도 하였다. 1565년(명종 20) 평안도 중화의 청량서원에서 간행한 『속문범續文範』이 우리나라 서원판의 효시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 상당량 소실된 서적에 대한 보강과, 제향인물에 대한 유고나 문집 등을 간행해야 하는 사명에서 서원의 출판은 더욱 활발해진다. 그리하여 1796년(정조 20) 서유구徐有渠의 『누판고鑄板考』에 수록된 서원의 출판상황은 전국 84개 서원에서 184종의 판본이 조사되었다. 『누판고』에 빠진 서원이 많았음을 고려하면 실제로 전국 서원에 간행된 서적은 더욱 많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서적 출판 비용은 원칙적으로 서원의 기금으로 충당하였다. 즉 서원에서 서책을 간행하려고 할 때는 간역소刊役所를 마련하게 되는데, 간역소에 딸린 전답에서 여러 해 적립하여 발간경비를 충당하였다. 그러나 때로는 문중이나 제자들이 거출한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특정 유지의 기부금으로 충당되기도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후손들이나 문인들이 계를 조직하여 그 돈으로 간행하기도 하였다.

경상도의 경우 각 서원 내에는 이러한 서책 출판을 전담하는 간소를 별도로 설치하여 승려에게 그 역을 맡기고 또한 재정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 예로 경주 옥산서원은 서책 출판을 담당하는 간소刊所를 별도로 설치·운영하여 교재·문집 등 서적을 직접 출판하여 지방 출판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그리하여 임란이전부터 1796년(정조 20)까지 19종의 책판이 옥산서원에서 발간되기도 하였다. 다음은 옥산서원에서 발간된 19종의 책판이다.

- 『구봉선생유집』(권덕린 저, 1854년 간행)
- 『구인록』(이언적 저, 17세기 중반)
- 『근사록』(18세기)
- 『김남창소서원조오잠급태극문변』(이준 편, 17세기 후반 간행)
- 『대학장구보유』(이언적 저, 17세기 초 간행)
- 『몽암선생문집』(이채 저, 1860년·1902년 간행)
- 『무청당이선생문집』(이의윤 저, 1863년 간행)
- 『봉선잡의』(이언적 저, 17세기 중엽)
- 『속대학혹문』(이언적 저, 1665년 간행)
- 『중용구경연의』(이언적 저, 17세기 후반 간행)
- 『태극도설』(주돈이 저)
- 『태극문변』(이준 편, 1662년 간행)
- 『태극서찬집변무록』(1666년 간행)
- 『한사열전초』(1631년 간행)
- 『회재별집』(이언적 저, 1934년 간행)
- 『회재소제퇴계소서십육영급원조오감』(간행시기 미상)
- 『회재선생연보』(이준 편, 1574년 간행)
- 『회재선생집』(이언적 저, 1624년-1929년 간행)
- 『회재연보』(1574년 간행)

### 4.3 다양한 사족 활동 거점

**교류의 장** | 서원은 일방적 지식의 전수 교육이 아닌 강론과 학문 토론의 장이 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여론과 공론을 결집하는 지성들의 집회소이기도 하였다. 17세기 이후 서원이 교육 공간으로의 성격보다 학맥의 구심점이자 공론의 주도처가 되면서, 사림이 회합하고 교류하는 장소가 주목되기 시작한다.

서원 건축은 제향 공간인 사우와 강학의 공간인 명륜당(강당), 동재와 서재를 기본으로 하고, 유식遊息 공간 등 기타 부속 시설을 둔다. 이중 강당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중심 건물로 유희나 제향 때에 회의 장소가 되며, 대개 대청과 온돌방을 설치하는 형식이 많다. 돈암서원의 응도당(1633년)이 그와 같은 형태를 갖춘 대표적인 서원 강당이다.

응도당은 현종 서원건물 중 유일하게 고대 문헌인 예서禮書에서 기록한 하옥제도厦屋制度를 본받아 묘침제廟寢制에 근거하여 영건된 건물이었다. 즉 묘침제는 제를 지내는 묘廟는 봉향 대상이 되는 침寢 앞에 세우도록 규정하는데 서원의 강당은 묘廟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김장생의 예학을 반영하고 있다.

사당 앞에 강당 다섯 칸을 건립하여 방房·실室·당堂·상廂·서序·점拮·돌窠·이窠·오輿·루漏·의依·진陳·호戶·유牖를 모두 갖추고, ‘응도당凝道堂’이라 이름하였다(현재 서원 이진 후 원래의 배치는 흐트러졌음). 응도당은 ‘도가 영긴다’는 『중용』의 구절에서 유래하였는데 이름처럼 돈암서원의 원생과 호서 사족이 모여 강학활동을 펼쳤던 장소가 되었다.

서원 강당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역할을 하였던 특별한 공간으로 병산서원 만대루, 남계서원의 풍영루, 필암서원의 화연루, 옥산서원의 무변루 등의 문루가 있다.

낙동강을 조망하는 병산서원의 만대루는 2층 다락 건물로, 건물 자체의 아름다움은 물론이고 이곳에서 조망되는 경관의 수려함이 찬사를 받으며 널리 알려져 있다. ‘만대루晚對樓’는 당나라 두보의 「백제성루白帝城樓」시의 “푸른 절벽 저물녘에 마주하기 마땅하네.[翠屏宜晚對]”라는 구절에서 인용하였다. 이곳은 향사나 행사가 있을 때는 유생들의 개좌석開座席이 되고, 학문을 강의



소수서원 경림정

할 때는 강학처가 되기도 하였다. 병산서원 만대루에 대해서는 창건 직후부터 한말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가 지어졌고, 김여만金如萬, 권태시權泰時, 권성구權聖矩, 강세진姜世晉 등 안동, 상주 등지의 유력 인사들의 글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유식공간에서 서원 유생과 서원을 방문한 명사들은 어울려 글을 짓고 시를 나누며 교류하였고, 그렇게 서원과 그 주변 경관을 읊은 제영시題詠詩는 서원의 교육 이념과 철학, 학연의 실체까지 반영한다. 서원에 방문하여 시를 남긴 이들이 명단을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서원을 중심으로 한 인적 교류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소수서원 경림정의 의미** | 서원에는 교육을 위한 유식遊息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유遊·식息은 유교에서 학문을 행하는 자세를 논하는 것으로 퇴계는 마음 편히 쉬고 고요한 가운데 심신을 수양할 수 있고 학문에 매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표적인 유적이 바로 소수서원 경림정이다.

경림정은 서원의 입구에서 죽계수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자리잡고 있다.



풍기군수로 부임한 주세붕이 백운동서원을 지으며 1543년(중종 38)에 세운 정자로 우리나라 서원 정자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경림정이란 이름은 맞은 편에 보이는 연화봉이 주돈이周敦頤가 살던 주돈이의 연화봉과 같다 하여 그를 경모하는 뜻에서 지은 것이며, 바로 앞에 있는 바위에 ‘경墩’자를 새겨 자연 속에서 수양하며 도학을 숭상한다는 의미를 드러내었다. 또한 북송의 염계학과처럼 많은 후학을 길러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경림정은 소수서원을 드나들던 원생들이 시를 짓고 학문을 토론하던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소수서원지』에 수록된 경림정시는 주세붕과 이황의 시를 비롯해 총 115수에 이른다. 시를 남긴 이들은 초기에는 소수서원의 원생과 풍기지역에 근거를 둔 인사들이었으나 점차 영남 지역 일대 이황의 문인들로 확대되었고 조선후기 서원의 수가 증가한 후에는 주로 영주 안동 일대 사람이 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된다. 이황의 문인들은 이곳에 글을 남기며 특히 주세붕과 이황의 시를 자주 차운하여 그의 뜻을 계승하였음을 드러내었다. 지방관의 방문도 끊이지 않았다. 1547년(명종 2) 경상감사 이감과 목사 노경린, 1560년(명종 15) 경상도 암행어사 최옹 외에도 풍기와 인근 고을에 부임한 수령이 소수서원에 방문하여 경림정에서 시를 지은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관리들에게도 휴식과 근본을 되새겨 보는 장소, 관원이 향촌의 양반사족과 어울리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다.

**옥산서원 경각** | 많은 사람이 어울리며 교류하고 학문을 연마하던 강당·문루와 같은 개방적 공간과 달리 다소 폐쇄적인 운영으로 서원 유생의 학문적 깊이를 더했던 서원 시설이 있다. 옥산서원의 경각(어서각)은 경주지역 유림들의 도서관으로, 이곳의 엄격한 도서 관리는 건물 앞에 걸려 있던 ‘서원서책불출원문書院書冊不出院門’이란 현판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는 “서원의 책을 서원문 밖으로 내지 않는다.”는 원규 중 하나를 적어 놓은 것이다. 정조는 어서각의 서책 보존 원규를 가상히 여기는 윤음을 내리기도 하였고, 이 원규를 철저히 지킨 덕분에 서원에서 보관하던 『삼국사기』가 현전하여 보물로 지정될 수 있었다.

어서각은 이언적의 서자 이전인李全仁이 1554년(명종 9)에 건립하고 회재

이언적이 사용하였던 서적과 유품, 내사본<sub>內賜本</sub>, 『퇴계수필<sub>退溪手筆</sub>』 및 각종 전적, 인종이 세자시절 안동부사로 나아간 스승 이언적에게 멀리 떨어진 아쉬움을 표현한 친필 서찰 등을 두었던 장서각이었다. 이언적 사후에 서적 보관을 둘러싼 논의가 발생하자 이언적의 옥산과 후손들은 경상도 관찰사를 통해 어서각내의 문적 유출을 영구히 막아버렸는데 이것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 내지 높여주었고,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어서각이 상징하는 옥산서원의 학문적 전통은 훗날 정조가 이언적의 학문을 주목하는 계기가 되어 그를 제향한 옥산서원도 특별대우를 받게 되었다. 영조와 정조는 『대학<sub>大學</sub>』에 관심이 컸는데 주희의 『대학장구<sub>大學章句</sub>』의 결유된 부분을 보완한 회재 이언적의 『대학장구보유<sub>大學章句補遺</sub>』에 대해 정조가 관심을 보였던 것이다. 1792년(정조 16) 3월 옥산과 도산서원 치제 때에도 옥산서원을 우선하였고, 2년 후 「제선정문회재속대학훈문권수<sub>題先正文晦齋續大學或問卷首</sub>」를 지어 옥산서원에 보내 이를 소장하게 하였다. (강당 화재 때에 영조조의 비망기<sub>備望記板</sub>, 정조조의 어제제문<sub>御製祭文板</sub> 등 소실) 이 글은 옥산서원이 영남의 대표적인 서원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옥산서원 경각











문암서원 『사계전서沙溪全書』 목판

# 1. 지식의 보물창고, 서원의 장서

## 1.1 서원 장서藏書의 의미

서적書籍은 저자著者의 사상이나 지식, 혹은 감정을 담은 것으로 고금을 막론하고 다양한 목적으로 그 내용을 보전, 보급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또한 서적을 편찬하고 인쇄하거나 소장하고 유통한다는 것은 그것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물적 요소를 갖추고 있으면서 관련된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원의 장서문화에 대한 탐구는 왕실, 문종의 장서와 함께 조선시대 서적문화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서원의 장서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한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이는 단순히 그 지역에서 간행되거나 소장된 서적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전반의 문화, 역사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서원은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으로 그 정신적인 가치와 교육적 기능 못지않게, 많은 서책과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지식창고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서원의 제도 중에서 교육활동을 보조하고 그 지역사회의 지식창고 역할을 한 것이 장서제도藏書制度였다. 책의 보급과 열람이 어려웠던 시대에 서원의 장서제도 및 출판문화는 지식 확산과 문화의 형성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던 것이다.

초창기 서원의 소장 서적은 기증받거나 구입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었다. 강학을 위한 교재나 당시 사상서로 활용되었으며 주로 성리학의 기본 서적과 중국 역사서가 많았다. 후기에는 개인 문집의 양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각 지역에 있는 주요서원 장서의 분석을 통해서 각 서원의 특징이 드러나기도 한다.

또한 서원에서는 직접 서책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서원에서 간행된 서책은 교육기관으로서 서원이 추구하는 학문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주제나 간행의 시기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 1.2 서원은 도서관이자 출판사

현재 남아있는 서원의 장서와 보존 상태에 대해서는 34개 소의 서원에 대한 조사보고가 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장서의 보존이 비교적 양호한 곳은 경상도 지역의 서원으로, 그 가운데 도산서원은 900여 종 4,000여 책, 소수서원은 140여 종 500여 책, 옥산서원은 860여 종 4,000여 책, 병산서원은 1,000여 종 3,000여 책을 소장하고 있다. 그 밖에도 전국 각지의 서원 중에 100여 책 이상을 소유한 서원이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의 15개 처 이상에 흩어져 있으며 전란, 약탈 등으로 사라진 것을 고려하면 초기에 상당한 양의 장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서원 장서의 활용과 가치 조명을 위해서 각 지방의 자치 단체에서 새롭게 조사하고 있으며 서적 보존과 관리에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원의 장서제도는 현대의 대학도서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이 서적의 수집과 정리, 열람이며 이를 통해서 사회적 공공재의 역할을 수행해나가는 것이므로 서원의 장서제도는 전통사회에서 도서관적 기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도서관 중에서도 서원의 성격으로 본다면 오늘날 대학도서관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그렇다면 서적의 수집방법과 정리 열람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을까? 서원의 서적은 초기에 기증받거나 구입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었다. 그 주체는 조선 전기에는 주로 성리학 관련서나 중국역사서가 많았으며, 조선 후기에는 개인문집의 양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이른 시기에 건립된 소수서원의 경우 설립자인 주세붕周世鵬(1495-1554)은 문성공文成公 안향安珦(1243-1306)의 사당터를 다듬다가 캐낸 낫쇠를 팔아 사서삼경四書三經, 『이정전서二程全書』, 『주자대전朱子大全』, 『대학연의大學衍義』,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등의 서적을 구입하고 여기에 유림의 기증서적을 더하여 서원 장서를 구비하였다. 또한 사당 곁의 사유지를 환수하여 유생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으로 학전學田을 마련하는 등 서원이 충분한 교육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최초의

서원에서 의도적으로 우선 구입하고자 하였던 책이 다름 아닌 성리학의 기본서와 중국 역사서라는 점에서 당시 서원에서 추구하고자 한 학문적 목표와 내용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가늠케 해 준다.

수집된 서적의 장서목록을 작성하고 열람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열람이나 보존의 규정은 각 서원의 원규에 기입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도 하였다. 장서의 양이 많고 큰 규모인 서원의 경우 서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원규院規에 명문화하고 멸실과 훼손을 막기도 하였으며, 서고書庫의 문을 열고 닫는 규정도 두었다. 서적은 원내 열람을 원칙으로 하고 대출하거나 반납하는 기록도 남아 있다. 보존관리를 위해서 삼임三任(원장, 재유사, 별유사)이 모두 모이거나 당회堂會시에만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인수인계를 할 때에도 서적은 별도의 장부를 배치해두고 유사가 교체될 때에는 목록으로 확인하고 당회나 포쇄曝曬할 때에는 하나하나 대조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서원은 그 지역사회의 출판사 기능도 함께 수행하였다. 서원에서 서책을 간행하려고 할 때는 당회堂會를 거쳐 의정議定하고 곧 간역소刊役所를 열었으며 간역소에 소속된 전답田畓에서 여러 해 적립하여 마련한 간행비용과 향내 각 문중의 출연으로 그 경비를 충당하였다. 간행한 책판은 별도의 장판각을 지어 보관하기도 하였다.

한편 국왕이 편액을 내린 사액서원에 대해서는 국왕이 서적을 하사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는 반사본頒賜本 또는 내사본內賜本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그 서원의 자랑거리가 되기도 한다. 또한 국가에서 서적을 간행, 반포할 경우라든가 국가의 장서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서적의 하사가 있었다. 이와 함께 관찰사 또는 지방관의 조처에 의하여 서적이 기증되기도 하였다.

현재 서원에 남아 있는 장서의 판종은 고활자본, 목판본, 필사본, 석판본 등으로 대별되며 한국의 전통인쇄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또한 낱장의 형태로 남은 고문서 중에도 그 서원의 내력과 더불어 당시 서원의 장서 상황을 살필 수 있는 기록들이 남아있다.

조선시대에 관청이나 향교, 서원 등은 소장하고 있는 책판의 목록을 작성하고 철저히 관리하였다. 그중 서원은 존현봉사尊賢奉祀와 함께 교육의 주요

기관으로, 많은 서적을 필요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서원이 간행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책을 간행하고 책판을 소장하기도 하였는데, 장판각이 있는 서원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영주의 소수서원, 안동의 도산서원, 병산서원, 경주의 옥산서원, 함양의 남계서원, 장성의 필암서원, 논산의 돈암서원, 산청의 덕천서원, 밀양의 예림서원 등 국내의 주요서원에는 대부분 장판각이 있었고 현재까지도 책판을 소장하고 있는 곳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 영남의 대표적 서원이자 중심적 위상을 지닌 도산서원의 장서 중에는 서책과 더불어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된 기록물들이 한국 서원장서 문화의 실체적 현상을 구현해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풍부하게 남아있다. 현재까지도 서원 장서의 전승과 관리에 대한 체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서원에 남겨진 각종 기록물 그 중에서도 서책기록과 관련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연구 중이다.

돈암서원 장판각





## 2. 서원 장서의 수집 방법

앞서 언급한 서원의 도서관적 기능은 장서의 수집과 정리, 그리고 장서이용을 통한 지식의 보급을 의미한다. 이 장에서는 서원에서 서적을 수집하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 2.1 왕이 내려 주는 책 내사본<sub>內賜本</sub>

내사<sub>內賜</sub>는 말 그대로 내려준다는 뜻이다. 국왕이 하사하는 책이라는 뜻으로 반사본<sub>頒賜本</sub> 또는 내사본<sub>內賜本</sub>이라고 하며 서책목록에 ‘내사<sub>內賜</sub>’ 또는 ‘어사<sub>御賜</sub>’로 표시되기도 한다. 도산서원의 서책 소장기록에 수록된 『대학<sub>大學</sub>』 1책5건5책一冊五件五冊[大學諺解 內賜一冊])과 같은 경우이다. 또 ‘내사궐중장<sub>內賜樞中藏</sub>’이라 한 것에서 보듯 보관궐을 별도로 제작하기도 하였다. 내사본은 주로 경전류가 많으며, 가장 귀한 서적으로서 장서목록의 맨 앞에 기록하고, ‘내사궐<sub>內賜樞</sub>’라는 별도의 궐을 갖추어 보관하는 등 다른 서책에 비해 각별히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내사본이 국왕이 하사하는 특별한 책이라는 의미와 함께 그 서원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도산서원의 경우 초기에 작성된 서책목록인 『서책질<sub>書冊秩</sub>』에는 총 182종의 서적이 수록되어 있다. 그 전래 경위는 크게 내사, 기증, 구입 등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내사본의 내용은 16종이 확인된다. 초기 16종의 내사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내사본 총 16종 중에 기본 경서류에 해당하는 『논어』 2건 14책, 『춘추』 2건 16책, 『시전』 2건 18책, 『예기』 2건 32책 등이 현재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소학언해』 및 사서언해는 임진왜란 직전에 금속활자로 간행된 교정청 간본

이다. 전쟁이 끝난 17세기 이후에 국내에 현존본이 많지 않아 서원에 소장된 책을 빌려다가 다시 간행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사서언해의 간행에 기본 텍스트가 되었다. 언해본의 내사 시기는 1588년(선조 21)에 하사된 『소학언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1590년에 동시에 하사되었다.

도산서원 『서책질』에 수록된 내사본과 그 표시

	서명과 책수	내사표시		서명과 책수	내사표시
1	『주자대전朱子大全』 95책	以上 內賜	9	『중용中庸』 2건 2책	以上 內賜
2	『주자어류朱子語類』 75책		10	『서전書傳』 2건 18책	此冊 內賜
3	『성리대전性理大全』 26책		11	『정충록精忠錄』 3책	內賜
4	『논어論語』 2건 25책		12	『소학언해小學諺解』 4책	內賜
5	『춘추春秋』 2건 16책		13	『맹자언해孟子諺解』 7책	已上 四件內賜
6	『시전詩傳』 2건 18책		14	『논어언해論語諺解』 4책	
7	『예기禮記』 2건 32책		15	『중용언해中庸諺解』 1책	
8	『대학大學』 1건 2책		16	『대학언해大學諺解』 1책	

내사된 책의 형태적 특징은 내사기內賜記의 기록과 내사인內賜印의 날인에서 드러난다. 내사인은 영조대까지 선사지기宣賜之記를, 정조의 규장각 설치 이후부터는 규장지보奎章之寶를 사용했다. 내사기는 시기, 대상, 서명, 건수 담당자의 확인 내용 등을 명시하여 표지 이면에 기록하였다. 1590년(선조 13)에 도산서원에 내려진 『중용언해』를 살펴보면 “만력 18년 7월일萬曆十八年七月日 내사 예안도산서원 중용언해 1건 좌부승지 신이內賜 禮安陶山書院 中庸諺解一件 左附承旨 臣李[手決]”의 형식으로 기록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2.2 문인과 서원으로부터의 기증

서원의 장서는 내사 외에도 각처의 기증이 주요한 수집 경로 중 하나이다. 특히 다른 서원이나 지방관아 또는 개인이 기증한 사례가 많다. 비교적 정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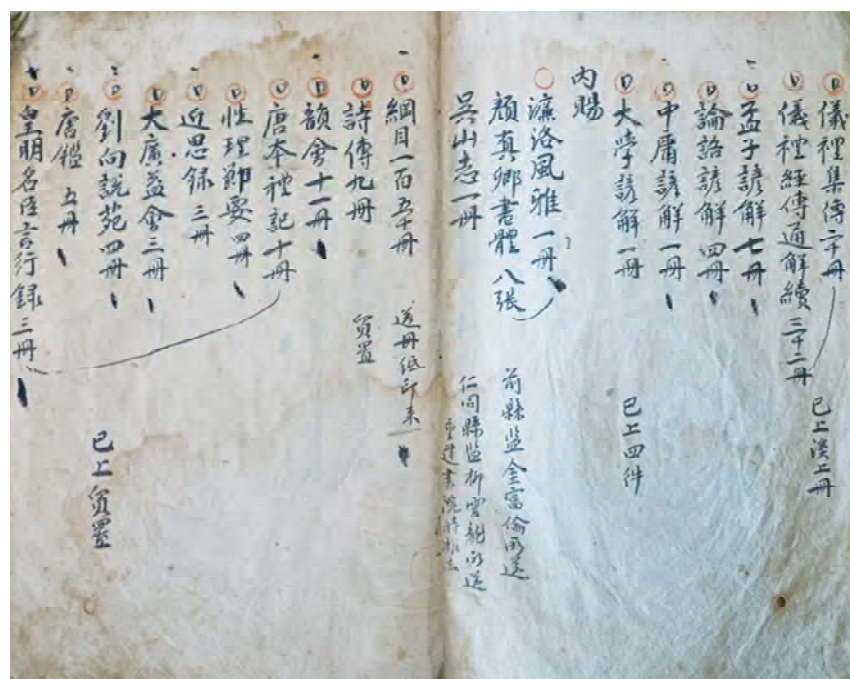
1590년(선조 13년)에 도산서원에 내사된 『중용언해』

한 기록이 남아있는 도산서원의 경우 초기의 서책목록인 『서책질』에서 집중적으로 보인다. 서원, 중앙기관으로 예문관, 영문營門으로 표기된 지방감영과 함께 개인이 기증한 서적을 알 수 있다. 개인 기증본은 대부분 퇴계문인들이 각 지방 감사監司, 목사牧使, 부사府使, 현감縣監 등으로 재직할 때 부임지에서 간행한 서책을 기증한 사례가 많으며, 서원의 경우 이산서원伊山書院, 성주 회연서원檜淵書院 등 퇴계 학맥과 연관이 있는 서원에서 주로 기증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증자 유형으로 보았을 때, 퇴계 문인이 감사, 목사, 부사, 현감등 지방관으로 부임하여 부임지에서 보낸 경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호서감사 구봉령具鳳齡, 호남감사 심의겸沈義謙, 영남감사 윤근수尹根壽, 현감 유몽정柳夢鼎, 영천永川 주단周傳, 영남감사 류성룡柳成龍, 나주목사 김성일金誠一, 정랑正郎 심대沈岱, 황해감사 최흥원崔興源, 경상감사 김수金睟, 대구부사 권문해權文海, 전현감 김부륜金富倫, 인동현감 유운룡柳雲龍, 감사 이시발李時發, 안동부백 고용후高用厚, 감사 김지남金正男,

안동통판 홍유형洪有炯, 영해부사 이권李勸, 영천군수 심장세沈長世, 별좌 정헌세鄭憲世, 전현감 조원명趙遠明, 참의 허전許墮, 승지 이인복李仁復, 방백 박문수朴文秀, 본현성주 송요보宋堯輔, 성주목사, 봉화현감 이익주李翊胄, 낭선군郎善君 등으로, 이들은 대부분 퇴계 이황의 학풍을 따른 영남학파의 인물들이다. 다른 지역의 서원에서 기증하는 경우도 자주 보인다. 도산서원에 서적을 기증한 서원으로는 이산서원, 청도 자양서원, 성주 회연서원檜淵書院, 안음 용문서원龍門書院, 사천 구암서원龜巖書院, 산음 서계서원西溪書院, 삼계서원三溪書院, 병산서원, 우계서원迂溪書院, 금양서원錦陽書院 등이 있으며 무안務安 유림儒林과 예안의 퇴계 본가, 서울 본가에서도 서적이 들어왔다.

도산서원 서책목록, '송책지인래送册紙印來'와 같이 서책의 구매방식이 표시되어 있다.



## 2.3 구입

서원에서 서책을 구입한 경우는 초기 소수서원의 기록에서도 드러나듯이 강학과 성리학 연구를 위한 필수자료를 구비한 것으로 이해된다. 서책구입 비용 마련을 위하여 기물을 팔기도 하였으며 서책목록에는 ‘매득買得’, ‘무득買得’, ‘무치買置’ 등으로 표시하여 구입한 서적임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

완성된 책을 구입하는 방법 외에 직접 구비하는 방식으로 책판 소장처에 종이를 보내어 인본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도산서원의 경우 『강목綱目』 150책과 『익재집益齋集』 3책, 『효행록孝行錄』, 『역옹패설櫟翁稗說』 등을 구매할 때 그러한 방법이 쓰였는데 『강목綱目』은 송책지인래送冊紙印來, 『익재집益齋集』은 송지인래경주본送紙印來慶州本이라 하여 구매 방식과 책판소장처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효행록』, 『역옹패설』의 경우 단순히 ‘인래印來’로만 표시되어 있는데, 『익재집』과 같은 경주간본으로서 경주에서 책판을 소장하고 있었으므로 『익재집』과 비슷한 상황으로 보인다. 같은 시기에 경주에서 간행된 동일한 책을 확인할 수 있다.

## 2.4 간행

서원에서는 필요한 책을 직접 간행하기도 하였는데 경제적 여유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추진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서원의 초기의 판본으로는 청량서원淸涼書院에서 간행한 『근사록집해近思錄集解』(1566), 『고사통략古史通略』(1568), 천곡서원川谷書院에서 간행한 『설문청공독서록요어薛文淸公讀書錄要語』(1574)와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1574), 명곡서원鳴谷書院에서 간행한 『표제구해공자가어標題句解孔子家語』(1581) 등을 들 수 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서원의 창건과 사액이 꾸준히 추진되어 전국 650군데의 서원 중 265군데의 서원이 사액되었다. 사액서원은 일반 서원에 비해 규모가



크고 경제력도 갖추게 되었으므로 서적간행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졌다. 1796년(정조 20)에 조사된 『누판고鑤板考』에 따르면 서원판본으로 84개 소서원에서 개판開板한 184종의 책판을 확인할 수 있다. 184종의 책판 중 127종이 경상도, 22종이 충청도, 21종이 전라도, 8종이 황해도, 경기·평안·함경도의 서원이 각각 2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제별로 보면 문집 등의 집부集部가 117종, 사부史部가 30종, 자부子部가 19종, 경부經部가 18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판본 외에도 목활자로 간행된 서적 중에는 여강서원의 경우처럼 서원에서 활자를 소장하고 있으면서 서적을 간행한 사례도 보인다. 이 활자는 경주 여강서원에서 제작하였던 목활자로, 『맹자』 대문의 권말 마지막장의 간기의 내용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간기를 보면 “만력 28년 경자(1600년, 선조 33)에 여강서원 활자를 취하여 계림부에서 인출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활자로 인출된 서적으로는 현재까지 이 『맹자대문』 1종 만이 알려져 있어서, 언제, 누가, 어떠한 목적에서 제작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러한 서원 간행 서적은 각 서원에 소장되어 있는 책판이나, 현존하고 있는 서적의 간기刊記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지역, 당색, 배향인물 등에 따라서 간행서적의 주제, 내용, 규모 등이 조금씩 달랐다. 예를 들어 충청도 지역의 서원의 경우 같은 호서지방이라도 차령산맥을 기준으로 호서의 남부에 해당하는 공주목과 청주목 일대는 서인, 노론이 우세였고, 호서의 북부에 해당하는 홍주목과 충주목은 노론, 소론, 남인 계열 등이 혼재되어 있었다. 대체로 공주목, 청주목 중심의 호서남부는 기호사림의 학문적 정통성을 중요시한 반면, 홍주목, 충주목 중심의 호서북부는 정통성보다 학문의 다양성과 포용성에 관심을 둔 편이다.

또한 시대에 따라서 우세지역이 달라지는데, 조선초기와 중기에는 호서의 북부지역이 우세했다가 중기와 후기에 이르면 호서의 남부지역이 우세하는 경향으로 바뀐다. 같은 호서남부 내에서도 기호사림의 구심적 역할을 하였던 김장생과 그의 아들 김집의 거점지가 연산(현재의 충남 논산시)에 있었기 때문에 연산의 돈암서원이 호서지역의 수원首院(대표서원)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으며, 17세기를 대표하는 서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 외에도



돈암서원 『가례집람』 목판(1685년, 속종 11)

노론인 회덕의 화양서원, 소론인 노성의 노강서원이 기호사림의 중심서원으로 유명하였다.

돈암서원의 경우를 살펴보면 장서로 소장하고 있던 전적 74종 중에 『가례집람家禮輯覽』 10권 6책, 『경서변의經書辨疑』 7권 3책, 『사계선생전서沙溪先生全書』 51권 26책 등이 서원에서 간행된 서적들이다. 돈암서원은 기호예학畿湖禮學의 본거지로, 간행된 판본 역시 서원의 특징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서원의 간행본은 서원의 전적구성 중 그 지역 서원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지적 산물임을 알 수 있다.



돈암서원 장판각

### 3. 서원 장서의 이용과 보존

#### 3.1 기록으로 엿볼 수 있는 옛 생활문화와 장서문화

장서를 포함하여 서원의 기록으로 남은 각종 성책류(成冊類) 기록과 낱장의 고문서는 당시의 서원관리와 생활방식, 사회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다. 성책류 문헌들은 시기나 내용별로 관련성이 있는 기록을 한 데 묶은 것을 말하고 낱장 고문서는 통문이나 간찰, 제문 등과 같이 낱장으로 남아 있는 것들을 말한다. 이들 중에는 서원 장서의 이용과 보존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매우 유용한 것이 많다.

국내 현존하는 서원 중에서 비교적 풍부한 고문서 기록물이 확인되는 곳은 도산서원과 옥산서원을 들 수 있다. 기록물 가운데 전장기, 전여기, 치부기, 용하기, 추수기, 선생안, 통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에 장서관리가 이루어진 것에 관한 기록으로 서책치부기, 전장기와 일부 전여기 등이 있다. 도산서원 장서의 관리 기록 가운데 규모가 가장 방대한 것은 『광명실전장기』이다. 이외에 『서책질』이 있으며, 다른 전장기에도 장서기록이 불규칙적으로 확인된다.

특히 『서책질』은 도산서원의 소장본 중에 현재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16세기 17세기의 간본을 다량 확인할 수 있다. 그 주제는 성리학 관련 서적, 사서삼경류, 중국 역대 시인과 문장가의 시문집, 중국 역사류, 서원 법규안, 일반 문집류 등 다양하다. 일부는 구입한 경우도 있지만 기증 사례가 매우 많이 나타난다. 앞 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퇴계 문인들이 개인 소장 서책이나 희귀한 자료 등을 희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원의 재물 관리 위주의 기록물인 전장기(傳藏記)는 도산서원과 옥산서원의 기록물로 매우 많은 양이 남아있다. 그 방대한 내용 중에 장서나 책판에 관한 내용은 비교적 적은 편인데 이는 서책 현황에 대하여 ‘책방소재서책일

의치부책여구冊房所在書冊一衣置簿冊如舊’, ‘광명실서책부별유光明室書冊簿別有’, ‘서책전장의구書冊前掌依舊’와 같이 별도의 장부가 있으므로 일일이 적지 않는 다거나, 이전과 같다는 식으로 매우 간략히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전장기에도 서책 관련 기록이 도처에 산재해 있는데, 비록 『서책치부기』와 같이 밀도 있게 집중되어 있지 않고, 또 그 총량도 많지 않으나 서원장서 연구의 공백을 보충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

또한 옛사람들이 장서를 이용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으로 서적을 열람하고 대출한 자료도 남아있다. 별도의 목록에 서원의 장서내용을 기록하고 빌린 사람과 빌려간 날짜, 그리고 되돌려 준 날짜를 표시하였으며 확인서명까지 하였다. 이는 곧 일반적인 도서관의 대출반납업무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서원의 장서이용 체재를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다음은 서원의 출판물로서 책판을 수록하고 있는 기록물로서 『도산서원전장기陶山書院傳掌記』와 『장판각책판목록藏板閣冊板目錄』을 살펴보자. 도산서원은 특히 많은 책판을 보관한 서원 중 하나로, ‘장판각’에는 선조어필, 『퇴계선생문집』, 『유목』, 『언행록』, 『도산십이곡』 등의 목판 2,790장이 소장되어 있다.

아래 그림은 도산서원의 각종 기물 관리기록이라 할 수 있는 『도산서원전장기』로 책판 기록이 있는 면만 옮긴 것이다. 1602년(선조 35) 2월에 작성된 것으로 계몽전의판啓蒙傳疑板에서부터 어부사판漁父辭板까지 총 8종의 책판이 기록되어 있다. 이 외에도 공인찰판空印札板과 인병서판印屏書板, 대자판大字板이 있고, 책도冊刀, 책침冊針, 결책편철結冊片鐵, 책사冊絲 등 서적인쇄와 관련한 도구들이 보인다. 『도산서원전장기』는 16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꾸준히 작성되었으며, 한 해에 여러 번 작성되기도 하고, 이것을 다시 정리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수량이 800건 가까이 남아 있다. 기록방식에는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위와 같이 건수만 기록하거나 또는 수량을 기록하고 있다. 장판각의 책판만 별도로 목록한 『장판각책판목록』이 있다. 임오년 7월 12일에 작성되었는데, 『도산서원전장기』와는 기록 방식이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퇴계선생문집』 책판을 권1-49와 목록 상·하, 외집과 별집으로 구분하여 책수를 일일이 기록하고, 판수의 합(1,144)도 기록하였다. 나머지 책





『도산서원전장기』

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세 목차 구분 없이 책명冊名과 판수만 기록하였다. 서원에서 발급한 고문서 중에서도 서원의 서적간행과 관련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1898년(무술, 광무3) 유건호 등 52명이 도산서원으로 보낸 통문通文은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의 『퇴계서절요退溪書節要』 간행과 깊은 관련이 있는 문서다. 1898년 10월에 고산서당高山書堂 명의로 도유사 유건호 등 52명이 도산서원에 보낸 이 통문에서는 이성정이 『퇴계서절요』를 간행하는 작업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문에 의하면, 대산이 편찬한 『퇴계서절요』는 이황의 『주자서절요』와 짝이 되는 중요한 책인데 간행되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이 흘렀으며, 마침 1888, 1889년에 연이어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당시 결정했던 사항을 실행하지 못한 채 다시 10년이 지났으므로 이에 고산서원에서는 본당이 중심이 되어 이 논의를 다시 일으킬 것이며 올해(1898년) 겨울에 판각작업을 마칠 예정이라고 하면서 도산서원이 이 작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처럼 도산서원의 책판 관리에 대한 기록은 오랜 기간의 자료가 매우 잘 남아 있는 경우로, 서원의 책판 관리에 대한 방식을 확인하고 복원하는데

유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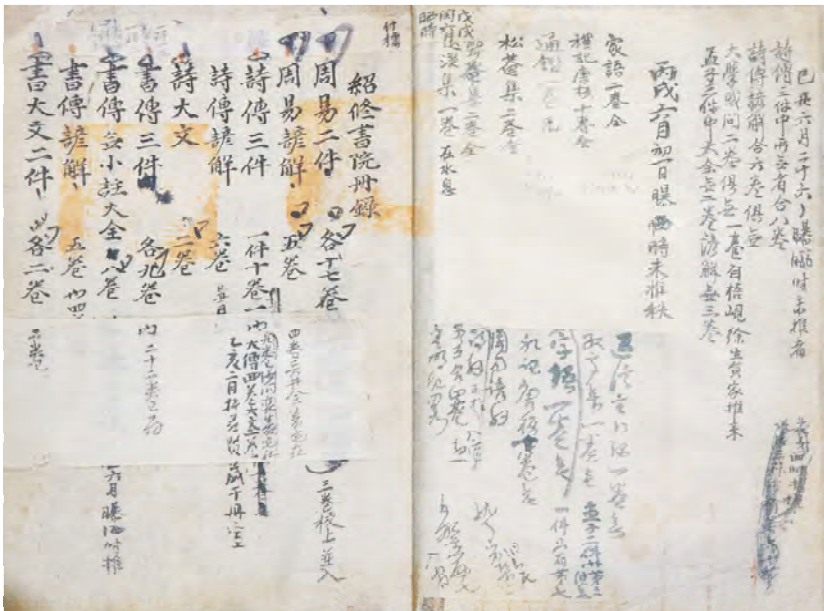
서원에서 판각된 책판은 그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서원이 학문연구와 선현의 제향을 위하여 사람에 의해 설립된 사설교육기관이기 때문인 것이다. 서원은 조선시대에 많은 인재를 양성하면서 학문을 진작하기 위해 서원의 규모와 형편에 따라 서책들을 출판하였다. 책판은 바로 이들 서원에서 출판된 서책들의 원본에 해당되는 지식정보의 원형인 것이다.

### 3.2 서원 자료의 보존관리

서원의 고문서나 고서, 책판의 보존관리 기록으로 잘 알려진 것은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과 옥산서원, 도산서원 기록이 잘 알려져 있다. 각 서원마다 장서와 책판의 관리를 위하여 목록을 작성하였고 원규院規에 이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정하였다. 이에는 주로 소장 장서와 책판의 목록을 작성하고 원규에 규정을 정하여 유출을 막은 내용을 담고 있다.

소수서원의 경우 서원에서 작성한 여러 종의 장서목록이 있는데, 1653년(효종 4)의 『원중서책치부院中書冊置簿』에는 122종 및 추록 21종, 1698년(숙종 24)부터 1761년(영조 37)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책목록書冊目錄』에는 서적 168종과 책판 7종 및 추록 27종, 1796년(정조 20)의 『병진팔월삼십일수정소수서원책도록丙辰八月三十日修整紹修書院冊都錄』에는 129종과 책판 6종이 수록되었고, 1891년(고종 28)까지 16종이 증가되었다고 나타나 있다. 또한 소수서원은 소장하고 있는 각 책 본문의 마지막장에 ‘내독원중물출원문來讀院中勿出院門’이라 묵서墨書하였으며, 전장기傳掌記 등을 작성하여 그 보관과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였다.

옥산서원의 경우 서책목록을 작성하고 외부로 유출을 금지하는 완문을 함께 수록하기도 하였다. 『서책현재도록書冊現在都錄』에 함께 수록된 1862년(철종 13) 5월의 완문完文에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서원 서책 ‘원문의불출院門外不出’에 대한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으므로 이 완문의 내용을 판각하여 경각經閣의 문미門楣에 달아 경계토록 하고, 임사任司가 열람한 날짜와 사람,



소수서원 『서원책록』

책명을 기록한 후 직접 돌려받고 혹 그 책을 잃어버리면 임사가 반드시 다른 것을 구하여 돌려놓도록 규정하였다.

도산서원은 장서를 보관하였던 광명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두었다. 도산서원 원규의 총칙 ‘광명실개폐규정’에는 “반드시 삼임(원장, 재유사, 별유사)이 모두 모이거나 당회 시에만 개폐가 가능하고 한 두 사람으로는 광명실 출입이 불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원임原任에게 품의하여 처리토록 한다.”라고 하였다. 즉 광명실 출입은 자격과 인원이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불가피한 사정에는 예외 규정(원임에게 품의)을 두고 있다.

광명실 점검과 출입에 대해서도 도산서원 원규 총칙의 인수인계조에 간략히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서책은 별도로 장부를 비치해 두어야 하고, 유사가 교체될 때는 먼저 목록을 가지고 확인하고 나서 포쇄를 하거나 당회가 있을 때 하나하나 대조 확인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인수인계조의 ‘별도 장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기록물이 『광명실전장기』이다. 『광명실전장기』의 기록 중에서 장서점검인원 구성이 전임자와 후임자가 한 조를

이루는 것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내용을 보면, 전장기는 서책목록과 작성자 명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서책 목록에 특이사항(신입新入, 미준未準, 견실見失, 구건舊件, 오자誤字 등)이 있을 경우 주석을 달았으며, 또 각 건 목록에는 ‘○’, ‘●’, ‘中’ 등을 표시하여 장서점검을 한 흔적이 남아 있다. 또 『광명실전장기』의 점검 표시를 보면 총목록이 작성되지 않은 때에도 이전 목록을 가지고 일일이 대조하였음을 알 수 있고, 서책의 유실이나 이동, 출처 등 특이 사항을 서명 아래에 부기하고,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서책을 ‘미준질未準秩’ 항목 아래 별도로 정리하기도 하는 등 매우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보존관리 전통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서원자료 보존 관리를 위한 서원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서적간행을 위한 책판의 경우에도 서원에서 관리한 기록이 상당수 남아 있다. 이는 조선시대 편찬한 각 지방의 읍지邑誌에 수록되기도 하는데 읍지의 작성 시기는 대체로 19세기 말로, 책판은 대개 마지막 부분에 수록된다. 책판의 기록 형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책판의 판수만 표시한 경우, 책판의 판수와 작자를 함께 표시한 경우, 책판의 판수(종이 장수)를 표시한 경우가 있다.

책판목록은 대부분 직접 조사하는 방식은 아니었고, 각 지역에서 조사하고 그것을 중앙으로 올리게 하여 작성한 것이다. 현존하는 책판목록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 16세기 중반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작성되어 간행된 어숙권魚叔權의 『고사촬요攷事撮要』 「팔도정도八道程道」 내 책판목록이다. 또한 조선 후기의 책판목록 중에는 정조의 명으로 서유구가 편찬한 『누판고鑪板攷』가 있다. 『누판고』는 다른 책판목록과 다르게 책판목록과 해제만을 독립적으로 담고 있으며 경사자집의 4부 분류에 의해 배열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고 있다. 『누판고』에 따르면 책판의 보관이 관서, 서원, 사찰, 사가私家 등에서 이루어졌으며, 지역적으로는 삼남지방(영남, 호남, 호서)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 외에도 현존하는 책판목록은 20여 종 정도로 이는 책판의 소재, 종류, 수량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책판 관리에 대한 노력의 산물로서

의미를 지닌다. 즉 책판관리를 위한 노력으로 몇 가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으며 현재 남아 전하는 기록물로서 이를 일부분이나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영남지역 읍지의 경우 각 읍지에는 특별히 보관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으나 서원, 향교, 사찰, 관청, 사가 등의 유형으로 표시한 경우도 자주 보인다. 이 중에 서원은 소장처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이 보인다. 이는 서원의 성격상 강학기관이면서 동시에 건물 구조로 볼 때 장판각을 갖춘 경우가 많았으므로 책판의 보관처로 적합하였기 때문이다. 경주의 서악서원西岳書院, 옥산서원玉山書院, 상주의 도남서원道南書院, 서산서원西山書院, 흥암서원興巖書院, 옥성서원玉成書院, 근암서원近巖書院, 일선善山의 금오서원金烏書院, 예안의 도산서원陶山書院, 용궁의 삼강서원三江書院, 함안의 덕암서원德巖書院, 송정서원松汀書院, 함천의 신천서원新川書院 등으로 그 처소가 다양하다. 이 가운데에는 경주의 옥산서원, 상주의 도남서원과 흥암서원, 예안의 도산서원과 같이 현재 장판각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으나, 장판각이 남아 있지 않거나 당대 장판각의 존치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읍지의 기록에서 서원 가운데 가장 많은 책판을 보관한 곳은 경주의 옥산서원이며 총 18종이 확인된다. 이 책판은 「정혜사소장판淨惠寺所藏板」조에 ‘금이재옥산서원今移在玉山書院’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본래부터 옥산서원에 소장되었던 것이 아니라 『금오승람金鰲勝覽』이 간행된 시기에 정혜사의 책판이 가까이에 위치한 옥산서원으로 이관된 것을 알 수 있다. 19세기 영남 각 읍지에 수록된 책판 소장 서원은 다음 표와 같다.

19세기 영남 각읍의 책판 소장서원

지역	소장서원(책판수)
상주	도남서원(1), 옥성서원(3), 흥암서원(2), 서산서원(2), 근암서원(3), 도남서원(1)
선산	금오서원(4), 낙봉서원(3), 송산서원(1)
밀양	예림서원(2)
용궁	삼강서원(1)
안동	주계서원(3), 병산서원(6), 호계서원(2), 삼계서원(1), 목계서원(3), 노림서원(6)



예산	도산서원(24)
영천	임고서원(4), 매곡서원(2), 도참서원(5), 횡계서원(1)
함안	서산서원(3), 덕암서원(1), 송정서원(1)
성주	류계서원(1), 청천서원(2)
청송	송학서원(1)
함양	남계서원(2), 백연서원(2), 당주서원(1)
함창	울곡서원(3)
경주	구강서원(1), 옥산서원(8), 용산서원(1), 동강서원(1), 서악서원(1)
청도	자계서원(2), 서암서원(1)
진주	덕천서원(2), 종천서원(2), 용당서원(2)
합계	15개 지역, 44개 서원(122종)

표에서 보듯이 19세기에 영남 각읍의 책판 소장처로 총 15개 지역의 44개 서원에 122종의 책판이 보관되어 있었고 서원에서 서적 간행의 직·간접적인 참여로 인해 다수의 책판을 보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 말에 작성된 『누판고』에 의하면 전국의 서원중에서 도산서원은 가장 많은 책판을 보관하고 있었다. 17세기 인조 때에는 전라도 순천부와 해서海西의 석담서원石潭書院에 있는 책판으로 『격몽요결擊蒙要訣』을 인출하여 올려 보내기도 하였다. 『홍재전서』의 「군서표기」에는 『교남빈흥록嶠南賓興錄』의 간행에 『경림문희록瓊林聞喜錄』의 범례를 본떠 간행하여 진상하고, 그 책판은 도산서원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도산서원의 책판관리 기록은 앞서 살펴본 『도산서원전장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도산서원전장기』는 도산서원에서 관장한 물품을 기록한 자료로 17세기초부터 20세기초까지 기록되었다. 한 해 안에 여러 번 점검하고 작성하였으며 이것을 다시 정리한 것도 있다. 그 중에는 책판의 종류와 수량을 기입해 놓은 것도 있으며 초기의 기록은 책판의 수량은 기록하지 않고 종류만 기록하였는데, 17세기 초에 도산서원에서는 『계몽전의啓蒙傳疑』, 『고경중마방古鏡重磨方』, 문집의 책판,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어부사漁父辭』 등의 책판을 소장하고 있었다. 이처럼 서원에서는 다른 물품과 함께 책판의 소장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며, 시기별로 꾸준히 현황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3.3 중요 장서의 보존관리와 활용

조선시대 서원의 장서는 모두 귀중한 문화유산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관리하고 활용해야 할 장서를 꼽으라면 서원 설립 초기에 수집된 장서일 것이다. 그 시기는 주로 16세기 전후로 간행되어 수집된 서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서적은 서지적 가치 뿐만 아니라 한국 서원 지식의 원형이라는 가치를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라지기 쉬운 문화유산으로서 이를 규명하고 복원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소수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자 사액서원이었던 만큼 서원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한 까닭에 다른 영남 지역의 유력한 서원과 마찬가지로 많은 자료가 소장되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는 상당수의 자료들이 유실된 상태이다. 소수서원 관련 자료의 경우 원소장처가 아니라 여러 기관에 분산 보존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러한 분산된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발굴과 파악이 일차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소수서원은 도산서원, 옥산서원과 함께 장서문화의 실질적 상황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이 알려져 있다. 주세붕은 백운동서원을 건립하면서 주희의 백록동서원을 모범으로 삼아 건물, 학전, 장서를 갖추었다. 그가 서원에

소수서원 『죽계지』 목판



서적을 구비하고 학전을 마련한 내용은 목사 안위安瑋와 승지 안현安瑗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즉 옛 숙수사 터에다 서원을 건립할 때 땅을 판 지 1자도 못되어 논쇠 120여 근을 발견하였고 이를 포布 10동에 준하는 값으로 정하여 한성으로 보내 사서삼경四書三經, 『이정전서二程全書』, 『주자대전朱子大全』, 『대학연의大學衍義』, 『통감강목通鑑綱目』 및 유도儒道를 밝히는 기타서적을 구입하였다. 또 경서와 성리학서 몇 질을 인쇄하여 비치하고 유림이 기증하는 서적을 1권의 책에 기록하여 다시 2질을 해서 楷書로 옮겨 1부는 비치하고 1부는 그 집에 부쳤다고 한다.

더군다나 소수서원은 건립과 사액부터 조정과 지역의 사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던 서원이다. 이에 따라 비교적 후기의 그 어떤 서원보다 교육적 기능을 성실히 수행했을 것으로 여겨지며, 그런 와중에 많은 서적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수집되거나 간행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6세기 소수서원에 대한 전반적 기록을 담고 있는 『죽계지竹溪志』에는 장서록藏書錄이 남아있으며 이와 같은 초기 소수서원의 장서의 수집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여 기록하고 있다. 『죽계지』의 「백운동서원장서록白雲洞書院藏書錄」에는 43종 525책의 책자가 소장된 것으로 기록되어있는데, 성리학 경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성리학이 한창 보급되던 시기의 서원장서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이 목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서원장서 목록이다. 즉 『죽계지』 권4의 말미에 백운동서원장서白雲洞書院藏書 항목을 두고 서명과 책수를 적은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끝에 ‘가정갑진세장서합록오백권嘉靖甲辰歲藏書合錄五百卷’이라 하여 작성시기와 전체 책 수를 밝히고 있다. 기록된 서적의 특징은 사서삼경과 같은 경서류와 성리학 관련 도서가 대부분이고, 소수의 역사서가 포함되어있다.(아래 표 참조) 내사본內賜本은 강학講學에 필요한 경서류나 주자서류가 주종이고, 기증 받은 도서는 선현의 문집이나 전기류가 대종을 이룬다. 간행 도서는 서원 배향인물과 설립자의 문집이나 전기가 대부분이고 필사본은 서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로 기록하였다.

소수서원의 초기장서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550년(명종 5) 사액된 소수서원은 국가적인 정책에 따라 나라에서 인출된 서적 중 일부를 반사頒賜받을 수 있었다. 사액 이후 서적의 증가는 1602년(선조 35)에

작성된 『소수서원서책치부紹修書院書冊置簿』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이 책자는 107종 1,678책을 수록하고 있으며, 소장 서적을 ‘내사內賜’와 ‘도상원비道  
上院備’로 나누고 있다. 전자는 사액 후 국가로부터 반사받은 것이고, 후자는  
도에서 기증된 서적이다. 당시 내사본 중에서는 『속강목續綱目』, 『주자대전朱  
子大全』, 『정충록精忠錄』, 『주자어류朱子語類』, 『사서언해四書諺解』 등이 있었음  
이 확인된다.

또한 도산서원과 옥산서원의 소장 장서는 비교적 온전히 보존되어 있어서  
초창기 서원장서의 일면을 잘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도산서원 서책 관리

죽계지 장서록의 현황과 주제

구분	류別類別	서명書名	구분	류別類別	서명書名
경부經部	역류易類	『주역대전周易大全』 14권	사부史部	편년류 編年類	『통감通鑑』 15권
	서류書類	『서대전書大全』 9권			『동국통감東國通鑑』 29권
		『서언토書諺吐』 8권			『송감宋鑑』 16권
		『서대전書大文』 1권		전기류 傳記類	『명신언행록名臣言行錄』 16권
	시류詩類	『시대전詩大全』 9권			『이락언원록伊洛淵源錄』 2권
		『시대문詩大文』 2권	자부子部	유가류 儒家類	『근사록近思錄』 2권 각 4권
	춘추류 春秋類	『춘추부록대전春秋附錄大全』 17권			『성리대전性理大全』 36권
		『춘추호전대전春秋胡傳大全』 7권			『주자대전朱子大全』 70권
		『춘추호전소전春秋胡傳小全』 4권			『자경편自警編』 7권
		『좌전대전左傳大全』 23권			『진서산심경眞西山心經』 2권
	예류禮類	『예기대전禮記大全』 16권			『주자어류朱子語類』 59권
		『예기당판소전禮記唐板小全』 10권		유서류 類書類	『박물지博物志』 1권
		『주례周禮』 7권			『속박물지續博物志』 1권
	사서류 四書類	『대학大學』 1부	집부集部	총집류 總集類	『문선文選』 15권
		『중용中庸』 1부			『초사楚辭』 2권
		『중용혹문中庸或問』 1부			『문장궤범文章軌範』 2권
		『논어대전論語大全』 2권 각 7권		별집류 別集類	『려어편목儷語編錄』 20권
		『맹자대전孟子大全』 2권 각 7권			『한장려집韓昌黎集』 16권
		『맹자대문孟子大文』 2권			『유자후집柳子厚集』 13권
		『대학연의大學衍義』 12권			『번천집樊川集』 4권
	소학류 小學類	『소학小學』 2권 각 4권			『안릉집完陵集』 1권
		『운부군옥韻府群玉』 10권			
합계	43종 503 (500권+3부), 2건을 모두 합하면 525책				

기록 중 『역동서원서책치부기』, 『서책질』 등은 도산서원의 초기 장서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 도산서원 장서는 역동서원의 장서가 합쳐진 것이며 처음에는 이를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후에 함께 두고 관리하였다. 초기 역동서원 장서는 도산서원의 장서보다 이른 시기에 간행된 자료들이 많다.

이와 같은 책들은 대부분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것이며 한국서원장서연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자료들이다. 더군다나 현존 실물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16세기에 형성된 서원의 장서는 단일 컬렉션으로서 손색이 없다. 그 의미를 새롭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도산서원 동광명실, 서광명실









복원된 상주 도남서원南書院



# 1. 서원 복원의 의미와 현황, 그리고 미래

## 1.1 서원 복원의 의미

한국 사학의 맥을 잇다 | 서원은 조선시대 교육과 지역 문화를 선도했으며, 서원을 통해 배출된 학자들은 유학을 바탕으로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정계와 학계를 주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원의 무분별한 증설에 의한 폐해가 발생하자 흥선대원군은 1871년(고종 8) 3월 47개의 사액서원과 사우만을 남기고 모두 훼철하고 말았다. 서원을 개혁하기보다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를 태우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국가의 재정은 확보되었으나 지방 사림과 양반들의 반발을 초래하게 되어 대원군이 정계에서 물러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흥선대원군의 서원 훼철에도 불구하고 1900년대로 들어서면서 전국의 서원은 다시 복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서원의 복원은 일제강점기에 여러 곳에서 복원되기 시작하였고,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도 많은 서원이 복원되었는데 이것은 경제개발에 따른 효과로 생각된다. 현재 전국의 현존 서원은 문화재청과 한국서원연합회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월 기준, 637개의 서원이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사학의 맥을 끊고 전통교육의 근원을 말살한 서원 훼철에 대한 정책은 향후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서구의 교육제도와 교육 내용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공동체 의식보다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되었고, 인문학적 사고보다는 자연과학적 사고에만 치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과학기술은 발달했을지 몰라도 인간다운 삶의 본질에서는 점차 멀어지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따라서 전통의 맥을 계승한다는 측면과 사라지는 정신문화의 근간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서원의 복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가운데서도 한국 사학의 맥을 계승하는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이 서양식 교육제도와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유구한 세월동안 정신문화의 근간이 되었던 서원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고 계승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준비라고 할 수 있다.

**현대 교육을 보완하는 서원교육** | 인간을 중심으로 하며 공동체와 이웃을 배려하는 서원의 교육제도는 한국 정신문화의 근간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서원의 복원은 단순한 건물의 복원이 아니라 진정한 정신문화의 복원으로 연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현대의 교육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과거 선비들이 배우던 목표와 많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과거 선비들의 학문 목표는 대부분 성인聖人이 되는 것에 있었다. 즉 내면적으로는 완벽한 도덕성을 갖추고 타인을 배려하며 본받게 하는 것이 바로 성인다운 것이다. 이러한 성인을 통해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서원교육의 목표였다. 그런데 현대 교육을 통해 배출된 사람들은 대부분 인격적으로 완성된 인간보다 기술이나 능력을 연마하는 인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이 풍요로울수록 인간이

월봉서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서원 스테이)



성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기적이고 쟁탈만 일삼는 사회로 치닫고 있어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서원이 복원되고 활용될 때,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여 적극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대 교육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서원 교육이나 전통 교육으로 보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실붕괴라는 말이 실감나지 않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학교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해보면 알 수 있다. 오로지 시험과 경쟁에만 매달리는 청소년들을 양성하는 학교의 모습은 안타깝기만 하다. 따라서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리와 타인에 대한 배려 등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을 만드는 교육이 서원을 통해서 이루어질 희망이 있다.

## 1.2 복원의 주체와 관리

**복원의 주체** | 서원 복원은 사실상 유림儒林과 그 후예에 의해 주도되었다. 1900년대부터 1960년대 초기까지는 주로 유림에 의해서 복원되었지만 이후에는 문중에 의해 복원된 경우가 많았다. 그것은 경제적 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경제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민족정신에 대한 주체적 자각도 동시에 생겨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서원의 복원은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문중 서원이 대대적으로 복원을 시작한 것은 자기 조상에 대한 효의식과 아울러 문벌과시의 욕망도 함께 내포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서원에 배향된 인물들은 대부분 학문과 덕망으로 존경받는 인물이기에 문벌을 과시하기에는 이보다 좋은 수단이 없었다. 경제개발에 따른 생활의 여유가 조상숭배에 대한 열망을 고조시킨 것이고, 그 결과 재력이 있는 문중을 중심으로 거대 규모의 서원이 등장하게 된다.

유림 인구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데 서원은 지속적으로 복원되고 있다는 사실도 매우 모순되는 상황이다. 이는 서원이 복원되고 활용성이 높아질수록 유림인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서원의 증가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가 되어 국가적 문제를 해결



서원에는 서원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관리자가 상주해야 한다. 사진은 소수서원 원규 경독장면으로 서원에서의 행사전 항상 경독한다.

하는 실마리가 되기도 할 것이다. 유럽과 같이 노령 층이 관리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대거 진출하여 서원의 관리를 담당한다면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보완이 될 것이며 아울러 참여자나 방문자도 늘어갈 수 있다. 향후 서원의 관리는 전문적인 인력으로 양성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복원 이후의 관리** | 서원이 다시 복원되고 신설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얼마나 활용하고 보존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복원 당시에는 많은 재원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출발했지만 서원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건물만 복원된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관리 부실로 연결되어 폐가처럼 흉물스럽게 버려지기도 할 것이다.

복원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다. 복원과 더불어 활용에 대해서나 관리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단순하게 조상들의 업적을 기리고 건물을 아름답게 복원한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 지역별로 서원을 활용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 체험을 실시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서원의 활용은 대국민 서비스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일개 문중이나 특정 집단의 소유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향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대국민 활용 공간이 되어야 관리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서원의 운영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 수립되어야 관리에 대한 문제도 개선될 것이다. 문중 서원의 경우 문중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나마 사정이 좋은 편이다. 하지만 유럽이 관리하는 곳은 상황이 현저하게 다르다. 학문과 덕망이 높은 학자를 모신 서원은 지역 유럽 전체의 논의를 거쳐 관리되지만 그렇지 못한 서원은 관리에 대한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원된 서원에 대한 전국적 관리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서원에 보관된 귀중한 목판과 서적, 문화재급 문서, 중요한 건물 등 모두가 관리 대상이다. 관리에 대한 교육과 철저한 인력 양성 체제를 갖추어 목조건물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보다 더욱 철저하게 관리가 된다면 서원을 방문하는 관람객도 증가될 것이고, 귀중한 문화유산은 물론 정신문화도 잘 계승될 것이다.

서원을 복원하는 경우 막대한 경비가 소요된다. 그리고 대부분 서원 복원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와 지방비, 소유 단체의 자부담으로 구성된다. 복원비용이 막대한 만큼 관리가 부실하거나 활용도가 낮을 경우 복원의 의미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우수한 우리나라의 정신문화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후학들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서원이 지닌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도의 관리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 1.3 현존하는 한국의 서원

**현존하는 서원은 얼마나 될까** | 현재 남한에 존재하고 있는 서원에 대한 숫자는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발표된 자료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 사우나 서당, 재실이 서원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생기는 현상과 전체가 복원되지 않았지만 일부 건물이 남아 있거나 유허지遺虛址에 비를 세우고 향사를 지내는 경우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홍선대원군에 의해 대부분의 서원은 훼손되고 47개의 사액서원만 남게 되었는데, 47개 가운데 남한에 34개, 북한에 13개가 남아 있다. 남한에 존재하는 34개 가운데 철원에 있던 충렬사는 현재 서원 터만 남아 있기 때문에 실존하는 것은 33개라고 할 수 있다. 34개 가운데 서원은 21개, 사祠가 13개인데, 고양시에 복원된 행주서원杏洲書院이 본래 기공사紀功祠였기 때문에 서원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祠에 포함시켰다.

현재 전국에 분포된 서원을 살펴보면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에 42개, 강원 9, 경기 27, 충북 31, 충남 36, 전북 103, 전남 68, 경북 210, 경남 144, 제주 1개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를 보면 지역적 편중이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경북과 경남을 합한 영남지역에 무려 354여개의 서원이 분포되어 전국 서원의 50% 이상이 치중되어 있고, 그 다음이 호남으로 전남과 전북을 합하면 171개가 된다. 즉, 서원의 분포로 본다면 영남과 호남이 전체의 약 78%에 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립학교라고 할 수 있는 향교鄕校가 현재 234개 존재하는 데 반해 사립학교인 서원의 숫자가 훨씬 많은 것은 우리나라가 갖는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사교육이라고 하지만 도덕적 자기 수양과 학문과 덕망을 쌓기에 더욱 용이했고 좋은 스승을 모시고 학문에 전념할 수 있는 장점이 많았다. 따라서 서원의 교육적 의미를 복원한다면 현대교육의 부족한 측면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전국의 현존 서원은 『한국서원총람韓國書院總覽』(2011)에 의하면 전국에 637개의 서원이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원은 9곳,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서원 96곳, 시도 기념물로 지정된 서원 27곳, 시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서원 19곳, 시도 민속자료로 지정된 서원 1곳, 비지정 문화재 485곳으로 집계되고 있다.

**서원을 보면 지역문화가 보인다** | 서원의 분포를 통해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지역적 특성이다. 영남 지방은 과거에도 유림의 영향력이 막대했을 것이고, 현대 사회에서도 전통문화의 보존과 활용에 있어 앞서가고 있다. 또한 유교문화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콘텐츠 측면에서도 유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상은 퇴계 이황 선생이나 남명 조식 선생 같은 걸출한 학자를 배출했기 때문이고 훌륭한 스승을 배향하고 본받으려는 지역민의 노력이 서원의 증설과 전통 중시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원 수는 적지만 두 번째로 많은 호남 지역의 서원은 엄밀하게 말하면 기호학과와 연관이 깊다. 즉, 충남과 호남으로 연결되는 이이, 김장생, 송시열의 예학적 영향이 서원의 증설을 가져왔고 오늘날까지도 예학에 대한 기반이 기호지방을 중심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로도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다.

영남과 호남지방은 서원 수에 비례하여 현대 사회에서도 유림의 영향력이 강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노령 인구가 많고, 그들은 대부분 문증을 중시하며 유교적 풍토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서원과 향교를 출입하며 전통문화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다.



영남의 도산서원



기호의 돈암서원

## 2. 현대사회에서의 서원운영 모색

### 2.1 서원의 현대적 운영방안 모색

**인적자원의 양성** | 21세기 정보화 시대에서 조선시대의 방식으로 서원을 운영하거나 복원하기는 매우 어렵다. 외형적으로 나타난 건축물을 복원할 수는 있을지라도 실제 운영의 방식은 21세기에 맞게 변형되거나 변화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과거 서원에서는 상주하는 인력이 있었고 강학하는 공간으로서 출입하는 인사가 많았지만 현재의 서원은 향사를 지내거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대적 서원으로 재탄생되는 길만이 서원 활용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서원을 현대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인적자원, 둘째는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 셋째는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서원과 함께 학교의 기능을 했던 향교와 연대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먼저 인적자원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서원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교육과 체험을 담당하는 교육자,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가,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자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서원의 관계자는 대부분 고령자로 전통예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유교적 소양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과거처럼 유교를 공부하거나 직업으로 삼았던 것이 아니기에 선조로부터 계승된 유산을 바탕으로 습득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유교적 전문지식을 전수할 수 있으며, 서원에 적합한 교육과 체험을 전달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양성되어야 한다. 현재 성균관에서 전국 향교의 유림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것이 좋은 모델이다. 따라서 서원을 활용하여 교육을 시키거나 서원의 특성을 살려 체험을 담당할 인력 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은 현대사회에 맞는 행정 전문가가 서원에 상주해야 한다. 과거에도 서원에 대한 다양한 기록이 존재했듯이 오늘날에도 현대에 맞는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가가 필요하다.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인터넷 매체나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행정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대외적 업무와 홍보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서원의 현대적 활용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서원의 건물과 중요한 문화재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상근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최근 주요 서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관광객을 위한 관리자에 지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서원에 상주하며 건물과 문서, 관광객 등을 위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자가 필요하다. 문화재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와 관리단체는 서원의 역사문화자료, 건축문화재, 경관 등이 원형대로 보존·관리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또한 서원의 보존·관리가 주변 역사·문화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서원의 진정성이 유지되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하며, 서원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역주민 등에게 이해·홍보시키기 위하여 접근성 제고, 교육장으로서의 활용 등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재원의 확보** | 현재 많은 서원들 중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관리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나마 서원운영에 대한 상황이 나은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요 서원을 제외한 나머지 서원들은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서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서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람의 흔적이 끊어진 전통 건축물만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서원의 재원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하나는 지자체 지원과 국고지원과 같은 지원에 의한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수익 사업을 통한 재원의 확보다. 물론 두 가지 모두 쉬운 방법은 아니다. 수많은 서원을 모두 국가에서 지원할 수도 없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각 지역별로 중요한 서원을 선발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아 활성화시키면서 동시에 서원의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재원을 늘려가는 방법을



매년 도산서원에서 거행되는 도산별과 행렬

모색할 수 있다.

최근 안동의 도산서원에서 선비문화수련원을 건립하고, 영주의 소수서원 인근에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을 운영하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곳은 모두 국고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고 운영되는 곳이다. 또한 광주의 월봉서원, 장성의 필암서원, 용인 심곡서원, 서울 도봉서원, 경주 서악서원, 대구 구암서원 등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편의시설과 시설보완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최근 각 서원에서 자체 수익을 창출하는 운영방법이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없고 서원 스스로 자생할 수도 없다면 서원의 운영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준비** | 서원의 현대적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특징을 갖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의 확보와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먼저 해당 서원과 연관된



건축물 외 유·무형의 모든 자원에 대한 총괄 조사를 실시하고 서원의 특징, 개성적인 문화소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지성사적 전통, 학문, 강학 유서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특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역동적, 체험적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실제적인 체험형 프로그램, 연령, 성별, 수요자의 성격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조선사회를 이끈 지성인들의 삶과 생활문화를 자원으로 재생 활용해야 한다. 또한 경쟁력 있는 문화체험공간의 활용을 위해서는 과거식 교육방식, 서원 품위에 맞는 활용법 등도 강구되어야 한다.

서원의 본질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는 고품격, 선택된 철학적 의미와 경관요소를 최대한 특화하며, 소규모를 지향하되 도제식 전문 인력의 도움으로 운영되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교육 자료의 제작 등 수요층과 주제별 보조 아이디어 개발, 서원의 기문, 시문자료의 조사와 해석을 통한 다중매체를 이용한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지역 특성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의례 프로그램,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답사 프로그램, 숙박형 선비체험 프로그램, 전시관 등 관람 프로그램 등을 구분하여 공간 운용 상황과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서원에서 활용되는 프로그램은 유사한 형태,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공통 프로그램과 특별 프로그램을 구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공통프로그램은 유교 경전과 한문교육, 예절교육, 서예 등 전통 관련 프로그램으로 어느 서원에서나 활용 가능한 것이 되어야 하며, 특별 프로그램은 서원에 배향된 인물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지역적 특성을 담은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두 가지가 구별 없이千篇일률적인 프로그램은 서원의 이미지를 제고하지도 못하고 대중적 지지나 관광 명소로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현대화된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준비한 상태에서 활용이 되어야 한다.

**서원과 향교의 유대** | 향교가 공립학교인데 반하여 서원은 사립학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존하는 향교와 서원의 경우 향교는 재정적인 부분은 물론 인력 문제에 있어서도 서원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 놓여 있다. 그로 인해 전국의 향교가 서원보다 더 활성화 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서원보다 좋은 환경에 놓여 있는 향교라고 할지라도 관리자와 집행자의 노령화로 인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서원에 출입하는 인사들은 대부분 향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향교와의 유대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거나 활용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현대적 운영의 한 방법이다. 향교는 한문교육, 인성예절교육, 서예교육, 다도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지역문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이 가능했던 것은 1985년부터 지속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사용 가능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밖에도 향교는 관혼상제와 같은 유교 생활의례를 보급하고 회원제 운영을 통해 유지할 수 있었다.

그에 반해 서원은 향교보다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활성화하기에는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향교보다 많다. 따라서 향후에는 향교와 서원이라는 유교 교육의 두 축이 상호 유대를 강화하며 발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고, 우리의 우수한 정신문화가 제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 2.2 서원의 교육 기능 회복

**향사와 교육** | 서원은 복잡한 성격변화를 거치면서 400여 년을 존속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교육기관이다. 물론 발전과 변화과정상 여러 모습으로 변화하기도 하지만 조선후기 서원은 성리학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향촌문화의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사설기관으로서 서원은 성현들을 모시는 사당 또는 사묘의 역할과 더불어 향약 등의 향촌질서를 정하고 백성들을 계도하는 역할, 단순한 교육이 아닌 학문연구와 발전을 선도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도 서원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활용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국가가 서원을 매개로 하여 현대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 및 사회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한국문화의 저변확대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현상이다. 한국 문화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민족문화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교육을 통해 부단히 새로운 수요자 층을 확보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교육기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새로운 형태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학교교육 혹은 제도교육과의 차별성을 뚜렷이 하면서도,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새롭게 기획되는 서원의 교양교육은 형식교육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제도적 경직성, 조직의 관료성, 형식화된 교과 과정 등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서원을 일종의 문화자본(cultural capital) 개념으로 이해하고 이를 가치사슬로 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 세계는 각 국이 그들의 고유한 문화와 상징을 내세워 타국과 경쟁하는

도산서원 향사 분정



새로운 자본주의 패턴을 형성하게 되므로 문화라는 개념은 단순히 정신적인 영역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자본화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재화의 의미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유산을 포함한 모든 문화상품을 경제적 및 경제외적 편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검토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앞으로 서원을 통해 꾸준히 시민들에 대한 교양교육을 실시하게 된다면, 이것이 이미 문화상품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서원은 과거 우리의 문화전통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곳으로 진입하는 상징적 관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이 우리 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자 할 때, 서원은 다양한 교양 프로그램으로 그러한 지적인 욕구에 충실하게 응답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서원을 교육기관으로 활용할 경우 일반사회교육 프로그램과 차별화하여 특화시켜야 할 것이다. 기존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담당 전문 인력이나 부서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서원에서의 교육도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재에 접하게 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생생하게 역사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의 차별화 및 특화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주체가 인근 지역주민들의 사회교육적 요구를 분석하여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그에 따른 시설과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즉 시민들의 요구와 관심에 항상 응답하는 성의 있고 유연한 기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서원에서의 시민교육도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개방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본래의 순수한 문화교육의 목표와 이념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 2.3 지역사회 속에서의 서원 기능 회복

서원은 전통을 고수하면서 나름대로 현대적인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대적 계승과 발전이 가능한 유교문화와 서원을 현대 사회적 수요에 알맞게 활용함으로써 유교의 전승 및 발달과 지역문화에 적절히 활용되는 방안을 모색하는 이와 같은 노력은 어렵지만 중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고려 할 점은 서원 문화재와 시설물을 활용하되 체험과 유교 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대체로 유교문화 자원들은 정적靜의이며, 교육적이고 지루해서 재방문율이 적은 문화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건축물, 특정 인물, 혹은 전통의례나 한학漢學 중심의 문화 개념이 강조된 데 따른 부정적 인식일 뿐, 실제 조선사회를 이끌었던 지성인들의 삶과 생활문화를 자원으로 재생 활용한다면 발전적으로 활용 가능 할 것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서원의 현대적 활용은 그 방식에서도 현대적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사회교육 중심지화, 이벤트화, 연계관광자원화의 세 축으로 나누어 전개시켜볼 수 있다. 이처럼 재미, 접근용이성, 교육적 효과를 동시에 감안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상호 연계시켜 생명력 있게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향교·서원·서재·서당에서의 교육과정도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다거나, 제례와 의례도 정치·사회활동의 측면에서 제례만이 아닌 생활의례로서 향약·향음주례·향회 등등의 자료를 찾아 재생하면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유교문화라 하더라도 이와 연관된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포괄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다. 유교문화가 조선사회의 대표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의 객관성, 효율성, 실제성이 있어서 가능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이를 현대에 전승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앞에서 제시한 여러 문화상들이 각 유적에서 유서에 맞게, 실제 각 지역의 전승된 자료를 토대로 재현되고 이를 통하여 각 지역의 유교문화가 경쟁력과 정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교문화의 대상범위는 당연히 서원에 국한되지 않고 서



당·정사·정자·서재 등으로 확대되고, 건축물 이외의 고문서나 전적, 금석문, 지명, 전설 일화까지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례와 혼례에 한정된 의례들도 향약례나 향음주례, 향회, 문중회와 같은 공동체 문화 등이 어우러진 유·무형적 종합문화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각 지역이 지니고 있는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환경(풍수·전통촌락), 관광숙박시설(전통가옥), 음식(반가 음식)에 걸 맞는 연계개발을 하여 현대에 맞는 유교문화가 재생·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각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알고, 이해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의 기회를 병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각 지역의 유교 및 예학 문화자원이 보다 이상적·효율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지역 유교 및 예학 문화가 지닌 가치와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사회에서 서원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 문화원과 같은 지역 문화단체와의 연대, 문화시설 경영업체의 전문적 컨설팅을 받고 운영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문화시설을 전문적으로 경영해본 경험이 있는 단체나 조직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서원에는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경영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드물기 때문이다.

### 3. 서원의 계승과 발전 모색

#### 3.1 서원의 나아갈 길

서원, 왜 필요한가 | 많은 사람들이 서원의 존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지 의문이다. 쉽게 생각해보면, 서원은 과거 조상들의 유물로만 인식되거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고건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서원을 비롯한 전통 문화는 유형의 자원만이 아니라 무형의 자산도 남아 있고 여전히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서원은 500년 역사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조상들의 삶과 지혜가 담겨 있는 장소이며, 고품격 문화와 선비의 정신이 간직된 곳이다. 이기적이고 물질만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발견하기 힘든 공동체 의식과 진지하고 성숙한 정신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서원이다. 전통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면 서원은 분명히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의 전통문화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피폐된 삶을 도덕적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선현들의 지혜를 새롭게 해석하고 담아내 현대사회의 귀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과거의 서원은 교육과 제향 기능을 주축으로 삼았다. 그런데 서원의 교육은 현대사회에서 추구하는 교육 내용과 교육과 목적이 다르다. 현대 교육에서도 전인교육을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원교육의 목적은 유교적 도덕성으로 단련된 인격체로서 군자君子가 되는 데 있다. 수기치인修己治人과 내성외왕內聖外王을 실현할 수 있는 성인에 도달하는 것이 교육의 궁극적 목표다.

따라서 현대 학교에서 충당할 수 없는 교육을 서원이 담당할 수 있다. 또한 서원의 제향은 지혜롭고 덕망 있는 선비들을 추모하는 의식이고 수백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각종 의례와 의식을 통해 조상을 숭배하고 전통을 중시하는 의미

에서 대대로 계승되어야 할 훌륭한 문화유산이다. 갈수록 조상숭배나 덕망을 존중하는 사회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원의 제향의식은 현대인에게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다. 그래서 서원은 전통을 보존하는 차원은 물론 현대인에게 부족한 정신적 안정과 학교에서 교육되지 못하는 내용을 가르치고, 조상숭배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서원문화의 계승을 위한 선결조건** | 서원과 향교를 통한 선비문화를 계승하고 전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서원은 우수한 문화유산이요, 선비는 이러한 문화의 주역이기에 선비문화를 계승하고 보급하기 위해서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와 유림, 지역 문화단체와 시민이 모두 주인이 되어 참여해야 한다.

서원의 우수한 문화를 계승하고 보급하기 위해서는 참여 인력의 전문화와 선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모든 사람이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적어도 서원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은 문文, 사史, 철哲에 대한 전문가 수준에 도달해야 하며, 그들에 의해 올바른 선비문화가 전파되고 계승되어야 하는 것이다.

유교가 학문을 기반으로 형성되지 않았다면 오늘날까지 계승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근래 서원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학문에 대해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서원 관계자가 유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선비문화에 대한 올바른 정착도 유교문화에 대한 인식도 바뀔 수 없다. 따라서 참여 인력이 선비가 되어야 한다는 선행조건이 있어야 서원문화의 계승과 보급이 가능하게 된다. 선비의 지조와 청렴결백함, 도덕적 우월성은 유교의 장점이자 서원 인사들의 장점이 되어야 한다. 도덕성을 생명으로 여기는 유교가 부도덕한 모습을 보인다면 서원 역시 설 자리가 없다.

서원문화 계승의 두 번째 조건은 전국 서원의 단합과 지역적 특수성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일이다. 각 지역마다 특수한 상황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대승적 견지에서 볼 때는 서원간의 소통과 상호 교류가 증대되어야 한다. 물론 한국서원연합회에서 이러한 역할을 주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회원으로 가입한 서원이 절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서원간



그동안 서원의 향사 등과 같은 각종 행사에 여성들의 참여가 제한되었으나, 현재는 대다수의 서원 행사에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다.

교류를 증대하고 활성화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조건은 노인 중심에서 젊은 인재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젊은 청장년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육성에 대한 장기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들어 전통문화의 보급에 참여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여성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육아와 교육 분야 등에서 남성보다 훨씬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을 확보해야 자연스럽게 계승세대도 육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무엇을 계승할 것인가** | 서원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영역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학문 영역, 둘째 생활 영역, 셋째 실천 영역이다.

첫째 학문 영역은 서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영역이다. 서원은 학자들의 공간이기에 마땅히 선비들이 공부했던 학문에 대한 계승이 중심되어야 한다. 선비가 되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은 무역과 장사가 아니다. 따라서 계승해야 할 분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비의 학문이다. 서원에서 배웠던 교과목과 교육내용은 현대 교육에서는 거의 사라지고 교육되지 않는 부분이다. 선비의 학문 목표가 성인聖人이라는 인격적 완성자에 있었다는 것은 지식을 함유하고 출세에 목표를 둔 현대인의 목표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한다. 문학, 철학, 사학과 같은 학문이 시장논리에 지배되어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인류가 생긴 이래 인문학은 항상 삶의 중심에 있었으며 한 순간도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다만 인문학은 시대에 따라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형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자본주의가 확대되고 물질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인간의 본질과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인기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없이 인류는 존재할 수도 없고 미래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인문학에 대한 보고로서 서원문화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연간 40만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소수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면서 동시에 성리학을 도입한 안향선생을 배향한 곳이다. 경주의 서악서원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인문학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일깨우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문경의 근암서원에서는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밖에도 도산서원, 소수서원, 필암서원, 옥산서원 등에는 박물관이 개설되어 서원의 역사와 선현들의 유적을 통해 인문학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것을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영주의 선비촌과 안동의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등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서원을 통해 선비의 학문 영역을 계승하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문학의 총체적 모습을 학습할 수 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학문의 근본적 목적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서원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계승해야 할 영역은 선비의 생활 영역이다. 선비는 이론적으로도 완숙한 지식인이지만 그보다 실천에 앞장서는 인간이다. 즉, 선비문화는 이론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유교 자체가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계승되었으며 현재도 다양한 곳에서 생활문화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우리 생활 속에서 행해지는 제례와 같은 예법을 현대에 맞게 간편하고 쉽게 정리하여 대중을 흡수하는 것도 한 방법이며, 또한 지역 주민에게 어른으로서의 관대함과 청빈함, 덕망이 넘치는 선비라는 인식을 심어줄 때 선비문화는 자연스럽게 국민에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서원은 과거 선비들의 생활공간이었다. 기거동작과 스승을 모시는 예법, 아침부터 밤까지 생활하는 성실한 학구적 모습은 하나같이 소중한 선비문화의 자산이다. 그러나 현재는 생활 속에서 떨어져 문화재로 또는 선현의 제사를 받드는 공간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잠자는 서원문화, 박제화(剝製化)된 서원문화를 되살리는 길은 선비의 생활을 체험하고 느끼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선비들의 삶을 계승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 때 그 가치는 자연스럽게 되살아날 것이다.

세 번째 계승 영역은 실천 영역이다. 유교는 실천도덕이다. 도덕적 이념의 실

천을 통해서 자신을 완성하고 세계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 유교의 목표다. 따라서 선비들이 실천했던 도덕적 이념을 오늘날에도 실천할 수 있다면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전쟁과 다툼이 없어지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실천을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유교적 대안이 필요하며, 잘못된 현실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지적할 수 있는 선비정신이 필요한 것이다. 대중과 멀어지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유교의 사회활동이 부족하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현대적 가치가 있는 선비문화를 현대사회에 실천적으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다. 실천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 과거의 선비정신을 오늘에 계승하는 것은 바로 실천을 통해서 행해지게 된다. 진정한 선비문화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바로 실천정신을 계승하고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 3.2 서원, 다시 세상으로 나오다

**민간단체의 조직과 활동** | 흥선대원군에 의해 47개 서원만 남고 모두 훼손된 이후 대부분의 서원이 복원되었다. 그리하여 현재 전국에는 수많은 서원이 존재한다. 그리고 또 문중에 의해 새롭게 건립된 서원도 있다. 서원을 건립하는 것은 문중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신중한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 문중의 조상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공론에 의해 학덕으로 인정받은 사람만이 서원에 배향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무리 문중의 결정이라도 자칫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서원이 복원되고 신설됨에 따라 유교문화의 새로운 진흥을 위해 서원연합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즉, 2005년 한국서원연합회는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전국 서원이 회원단체로 가입되어 있다. 한국서원연합회는 매년 전국서원대회를 개최하고 학술대회를 통해 서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서원현황을 망라한 『한국서원총람韓國書院總覽』을 발간하여 일차적으로 서원에 관련된 자료 수집을 마쳤다. 아울러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원스테이를 실시하여 전통문화 보급과 서원의 현대적 활용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서원학회韓國書院學會는 한국 서원의 제분야에 걸친 학문적 연구와 자료

발굴·정보교환·토론 등의 학술활동을 벌이며 연구 성과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대중화에 유념함으로써 서원의 공간을 현대 생활문화의 공간으로 계승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2006년 창립한 한국서원학회는 문학, 역사, 철학, 건축, 서지학, 고문서, 미술사, 교육학, 의례 등 각 분야의 학자들이 참여하여 한국의 서원문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모임이다. 연구논문 발표회, 국제학술회의 및 전국규모 학술세미나, 서원 유적 학술 답사, 서원지 및 서원자료집 발간, 학회지 발간, 그리고 기타 학문 연구와 회원 친목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아서원과 유학”(2007년 중국 악록서원嶽麓書院),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속의 서원”(2009년 국민대학교), “서원문화의 전승과 개척”(2011년, 중국 악록서원嶽麓書院), “한국 서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2011년, 한국국학진흥원 도산서원 병산서원 소수서원 답사), “동아시아 서원의 교육환경과 기록문화”(2013년, 한국국학진흥원) 등의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고, 매년 전국규모 학술회의와 연구발표회, 서원문화유적 답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서원학회의 주요 연구자들이 전문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서원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종합 정리하는데도 힘을 보태고 있다.

**수련시설, 지속적 확충** | 주요 서원들은 각종 편의시설과 숙식이 가능한 공간을 신축하여 서원기능을 확대시키고 있다. 서원의 기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전통 건물로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종 편의시설은 물론 숙박 시설을 확충하여 교육과 체험의 폭을 넓히는 길이 대중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가장 선결되어야 할 과제다. 일시적인 방문이나 답사만으로 서원의 진면목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숙박하며 선비들의 삶을 체험하고 토론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욱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다.

최근 이러한 수련시설을 확충하거나 신축하는 곳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안동의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영주의 소수서원 충효관, 영천의 임고서원 충효관, 광주의 월봉서원 교육문화체험관, 장성 필암서원 집성관 등인데, 이런 곳에서는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성하여

교육생은 물론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대구의 구암서원은 게스트하우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고산서원과 묵계서원은 숙박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선비정신을 배우고 익히기 위한 수련시설은 그동안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시설의 확충으로 선현들의 정신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되었고,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원문화의 총체적 연구 활발** | 다양한 수련시설이 확충되는 것과 더불어 서원에 대한 총체적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 기관에서도 서원활성화 방안과 서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국국학진흥원은 우리나라의 정신적 유산을 연구하는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퇴계학연구원이나 율곡학회, 남명학 연구소, 고봉학술원 등 전문학술기관의 활동도 눈여겨 볼 일이다. 학문적 연구가 없으면 서원의 활용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서원의 배향 인물들이 기본적으로는 학문을 강마한 학자들이며, 그들의 사상을 이해하고

한국서원총람(上·下)



밝혀내야 서원의 의미도 드러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국가기관 또는 학자들에 의한 연구 활동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서원과 상호 우호적인 유대를 통해 서원에 대한 공동연구와 교류를 증대하고 있다는 점도 새로운 활로의 모색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선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축제가 성황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경남의 산청군에서 2001년부터 선비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남명 조식 선생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경북 영주시도 2005년부터 선비문화축제를 하고 있다. 또한 2007년에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이 경남 진주에서 출범하여 경상대학교와 함께 선비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2008년에는 경북 영주에 선비문화수련원이 완공되어 위탁 운영되고 있다. 또한 청년유도회중앙회는 해마다 ‘선비포럼’이라는 행사를 개최하며 청년유림의 단합과 진취적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유림 단체 내에서는 선비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다양한 행사와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선비라는 용어가 유교문화를 대변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으며, 선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선비 양성소가 바로 서원이기에 선비를 전면에 내세운 축제는 서원문화 활성화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3 서원, 미래로 세계로

**쉽고 친절한 서원으로 거듭나기** | 서원을 활성화하고 대중적 접근이 용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즉, 유교 이론의 현대화와 대중화를 추진해야 한다. 왜냐하면 유교는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서원문화도 역시 어렵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서원문화를 계승하는 것은 특정 계층의 몫이지만 그 혜택이나 보급의 대상은 바로 대중이다. 따라서 대중을 위해 유교이론을 현대화하는 작업이 조속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대중이 접근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적인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지 않으면 대중은 영원히 서원과 유교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기독교는 경전 번역을 한글화하기 위해 상시적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유교는 이러한 작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서원이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한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서원 문화는 유교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교의 이론과 복잡한 것을 쉽고 용이하게, 간소하고 대중적인 접근이 용이한 것으로 바뀌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서원의 현판을 비롯한 각종 편액이 모두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쉽게 설명한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유교 사상에 대해 초등학생이라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교재와 홍보물을 만들어야 한다. 서원의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거나 서원문화가 어렵다고 인식하는 한 서원의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원 관계자는 방문자에 대해 친절한 마음과 자세로 맞이해야 한다. 대부분 연령이 높은 어른들이 서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방문자에 대해 권위적이거나 불친절한 모습으로 맞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원 관계자에 대한 유교적 인식이 부족하고 유교 전문가를 양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원문화의 현대화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것은 고급화이다. 선비는 고상한 인품을 가진 최고의 인간형이다. 따라서 이들의 삶을 통해 만들어진 선비문화 역시 최고의 문화상품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대중화를 지향하면서도 고급한 문화를 전수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고급화는 수준 높은 선비문화를 의미한다. 선비의 고결한 인품이나 이웃을 배려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이 방문자에게 각인되고 사회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중화에 지나치게 집중할 경우 자칫 흥미위주의 저급한 놀이만 보급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홍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기업체에서는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방송매체를 통해서 선전하고 홍보한다. 그 결과 매출액이 늘어나고 또 새로운 상품 개발에 투자한다. 이것이 기업의 순환적 구조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원문화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일단 서원의 좋은 점

을 널리 홍보하여 국민과 대중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 있다고 한들 특정인만 안다면 의미가 없다. 따라서 다양한 홍보를 통하지 않으면 서원문화는 대중의 눈에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 마음에서도 멀어지게 될 것이다.

**한 걸음씩 세계로** | 물건을 만들고 판매하는 데도 사업계획이 필요하다. 무작정 상품을 만들거나 판매하지 않는다. 수요를 파악하고, 판매 전략과 대상을 명확하게 파악한 다음 수지타산을 계산하여 물건 값을 결정한다. 하물며 물건 하나를 판매하는 데도 수많은 계획과 전략이 수립되듯이 그보다 더 중요한 서원문화를 미래로, 세계로 전파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장, 단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동안 이러한 장기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추진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설령 계획이 있었다라든 말만 계획일 뿐 그에 따라 실행한 적이 없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서원문화의 세계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구슬이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듯이 서원의 우수한 정신문화와 그 가치를 계승하고 보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이 수립되고 실천이 따라야 한다.

선비문화가 우리의 우수한 유교문화라고 한다면 유교문화의 발전은 서원을 통해서 발전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다. 유교의 수많은 장점이 지금은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대중에게는 오직 유교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모습만 남아 있을 뿐이다. 서원도 이러한 인식 때문에 폄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문, 실천, 도덕성, 역사성, 종합적 문화 등을 유교의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다면 서원은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나머지는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 공자의 일이관지(以貫之)가 선비라는 용어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현재 존재하는 것을 잘 꿰어도 쉽게 이룩할 수 있다. 아울러 시대에 맞는 변화가 추구되어야 한다. 변화는 유교의 장점이자 핵심 이론이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변화를 이룩해서 서원문화의 새로운 면모를 사회에 뿌리내리게 해야 할 시점이다.

서원의 미래 방향 모색 | 전통문화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 가운데 서원과 향교를 비롯한 유교문화는 현재까지도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계승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서양 문물의 급속한 전파로 인하여 전통문화는 대중 속에서 멀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천대받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미래 후손들은 우리의 전통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되고 국적 없는 민족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는 전통을 무조건 계승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승하자는 논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젊은 층에게서 소외되고 있는 전통을 무조건 계승하겠다고 한다면 아마 수십 년 안에 전통은 모두 사라지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도 전통을 계승하는 사람들은 유럽을 비롯한 몇몇 고령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전통이 좋다고 입으로 외친다고 해도 실제 현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의미 없는 메아리가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이제 전통문화를 보존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만약 보존한다면 어떠한 것을 보존할 것인가? 보존에만 그칠 것인가 아니면 현대에 맞게 변형시켜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답을 내려야 한다. 그동안 유럽이라는 집단을 통해서만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던 전통문화는 유럽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전통문화의 주인이며 세계가 보존해야 할 인류의 문화유산이다.

전통문화의 계승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계승이 아니라 현대인의 삶 속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시대적 변화에 적합한 것들을 잘 선택하여 계승해야 한다. 현대인들이 3년상을 지내지 않는데 3년상을 지내도록 요청한다면 누가 따르겠는가? 시대가 변한 만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

유교는 시중지도時中之道를 중요하게 여긴다. 시중지도는 시기에 적절한 중용의 도라고 할 수 있다. 불변하는 도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황에 맞는 도리를 찾아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시중지도다. 15세기의 옷을 21세기에 입는 것은 어울리지도 않을뿐더러 남의 웃음거

리가 되기 쉽다. 21세기에는 21세기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한다.

2012년, 한류 열풍이 세계적으로 거세게 불고 있다. 드라마 대장금을 시작으로 각종 드라마와 영화는 물론 최근에 유행된 싸이<sub>psy</sub>의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를 비롯한 K-POP은 전 세계에 한류 열풍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한류 열풍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국내에 살고 있는 자국민보다 더 많은 세계인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한류에 대해 기쁨과 우려가 동시에 다가옴을 부정할 수 없다. 세계에 우리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지만 이러한 현상이 얼마나 지속되며 국익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를 생각하면 반드시 기쁜 것만은 아니다. 즉, 내실을 갖추고 외연이 확대된다면 바람직한 일이지만 현재 한류의 모습은 내실 없이 외연만 확대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한류의 확산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본이 확립되어야 한다. 즉, 외형적으로 드러난 가공된 문화현상의 기저에 깔린 정신을 발굴해서 세계화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근본이 없이 가지만 왕성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뿌리가 견디지 못하고 말 것이다. 우리에게 오랜 역사와 문화의 바탕에 깔린 정신적 뿌리가 있다. 그 뿌리가 발굴되지 않고서는 세계화의 주역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류의 열풍도 한 순간 지나가는 바람이 될지 모른다.

우리 한민족의 뿌리는 다양한 사상적 토대 위에 마련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유교라는 뿌리는 우리 민족의 정신적 근간이며 생활 속에 자리 잡은 대표적인 뿌리다. 따라서 유교라는 뿌리를 알지 못하고서는 한류의 근본정신을 알릴 수 없고, 그것이 지속되기를 희망할 수도 없다. 유교를 뿌리로 하는 우리의 정신문화는 서원이라는 독특한 아카데미를 통해 보존, 계승되고 있다.

유행은 한 때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유행을 만드는 정신적 뿌리는 영원성을 갖는다. 따라서 한류 열풍의 근본 뿌리인 유교와 유교의 전통을 계승한 서원 문화는 미래로 그리고 세계로 확산될 수 있어야 한다.



성균관 명륜당(보물 제141호). 성균관 유생들이 글을 배우고 익히며, 왕이 직접 유생들에게 강시講試한 곳으로 좌우에 동재東齋와 서재西齋가 있다.









남계서원 연당



# 한국 서원 문화사 연표

1541년(중종 36)	주세붕이 풍기군수로 부임. 『도동곡道東曲』 지음
1542년(중종 37)	8월 주세붕이 숙수사宿水寺의 옛터에 안향의 사묘祀廟 설립
1543년(중종 38)	8월 주세붕이 순흥에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 창건. 강당 등 10여 칸 완성. 안향 영정을 봉안하고 경렴정景濂亭 건립
1544년(중종 39)	정읍에 신잠申潛의 생사당生祠堂 건립(무성서원의 전신)
	중종 대에 총 16개 소 서원 건립, 1개 소 사액
1545년(인종 1)	소수서원 『죽계지竹溪誌』 편찬
1547년(명종 2)	경상감사 안현이 소수서원 「사문입의斯文立議」를 제정. 서원 운영과 유지에 필요한 인적, 물적기반을 조성함
1548년(명종 3)	이황이 풍기군수로 부임
1549년(명종 4)	12월 이황의 건의를 받아들인 경상감사 심통원의 청으로 '소수서원'이라 사액
	주세붕이 황해도관찰사로 해주에 문헌서원文憲書院 건립
	보은 상현서원 건립
1550년(명종 5)	소수서원 사액 후 이황은 영봉迎鳳·이산伊山·연경研經·역동易東 등 10여 곳의 서원 건립 직접 참여, 문인을 보내 지원
1551년(명종 6)	이황이 계상서당溪上書堂을 짓고 강론을 시작
1552년(명종 7)	설경說經 안수安璫가 소수서원에 서책 하사 요청
	강익姜翼과 함양 인근의 사람들이 남계서원 건립 시작
1553년(명종 8)	포항 삼명서원 창건, 영천 임고서원 건립 및 사액
1555년(명종 10)	남계서원 『을묘년서원부보록乙卯年書院褒寶錄』 작성 시작
	영천 백학서원白鶴書院 건립, 해주 문헌서원 사액
1556년(명종 11)	장천 영계서원 건립
1558년(명종 13)	영천군수 안상이 이산서원伊山書院 건립, 이황이 「이산원규伊山院規」 제정
	이황이 「옥사도자屋舍圖子」를 직접 그려 보냄
1558년(명종 13)	운계서원 건립

1559년(명종 14)	성주목사 노경린 등 사람들이 영봉서원 건립. 이황의 『영봉지』 편찬
1561년(명종 16)	경주 서악서원 건립, 강릉 오봉서원 건립
	남계서원에 정여창의 위패 봉안 도산서당陶山書堂, 농운정사龍雲精舍 건립. 이황이 「도산잡영陶山雜詠」을 지어 서당의 건립 경위를 정리함
1562년(명종 17)	남계서원 강화활동 시작
1563년(명종 18)	풍악서당 건립, 삼강서원 건립, 함흥 문화서원 건립
1564년(명종 19)	순천 옥천서원, 합천 청계서원, 대구 연경서원, 이천 설봉서원 건립
1566년(명종 21)	함양 남계서원 사액, 안변 옥동서원 건립
1567년(명종 22)	밀양 예림서원 건립
	이황이 발의하고 그 문인들의 주관 아래 예안에 역동서원 건립
	명종 대에 총 19개 소 서원 건립, 4개 소 사액
1568년(선조 원)	김광필의 고향인 현풍에 쌍계서원雙溪書院 건립
1572년(선조 5)	8월 경주부윤 이제민李齊閔 등과 유림의 주도로 옥산서원 창건
	풍악서당을 현재의 병산서원 지역에 이건하고 병산서당이라 칭함
	4월 문인들이 스승 이황의 사묘를 도산서당 뒤에 세우기로 함
1573년(선조 6)	‘쌍계雙溪’라 사액 받음(도동서원)
	옥산서원 건립
	12월 감사 김계휘金繼輝의 청액소로 ‘옥산玉山’으로 사액
1574년(선조 7)	7월 도산서원 상덕사尙德祠 완공
1575년(선조 8)	8월 도산서원에 동재東齋와 서재西齋를 짓고, ‘도산陶山’이라 사액 받음(한석봉 서)
1576년(선조 9)	충렬서원 건립
1580년(선조 13)	9월 도산서원에서 제생諸生들을 위한 강회講會 개최
1590년(선조 23)	호남 유림이 하서 김인후金麟厚를 제향하며 필암서원 창건
1596년(선조 29)	함양군수 조종도趙宗道가 남계서원에 소속공답 18두락을 내어 줌
1600년(선조 33)	도산서원에서 『퇴계집』 간행
1605년(선조 38)	남계서원에서 새로운 원규院規 제정
1607년(선조 40)	정구가 정경세 등과 함께 서원 중건 통문 돌림. ‘도동道東’으로 사액
1608년(선조 41)	선조 대에 총 85개 소 서원 건립, 20개 소 사액



1610년(광해 2)	8월 1일 병산서당 뒤에 사당 건립(존덕사尊德祠)
	김광필, 이언적, 정여창을 문묘에 종사
1611년(광해 3)	병산서원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회퇴변무소晦退辨誣疏」를 올림
1613년(광해 5)	정경세鄭經世 등 유림들이 존덕사尊德祠(병산서원 전신) 창건
1614년(광해 6)	존덕사에 류성룡의 위패를 봉안하여 서원의 면모를 갖추
1615년(광해 7)	태산서원(무성서원 전신) 건립, 최치원과 신잠 합향
1622년(광해 14)	광해군 대에 총 38개 소 서원 건립, 14개 소 사액
1629년(인조 7)	『학교등록學校謄錄(총 7책, 1724년까지 수록)』 편찬시작
1632년(인조 10)	충청도내 사람들이 돈암서원 창건을 발의
1633년(인조 11)	11월 소수서원에 주세붕 추배
	돈암서원 상량(상량문, 김상헌 서)
1642년(인조 20)	『서원등록書院謄錄(총 6책, 1742년까지 수록)』 편찬 시작
1644년(인조 22)	8월 경상감사 임담林瑄이 서원 폐단을 지적(남향齋후과 양역良役 폐단의 유발)
1648년(인조 26)	돈암서원에서 김집이 『상례비요』를 교정하여 간행
1649년(인조 27)	인조 대에 서원 총 53개 소 건립, 4개 소 사액
1652년(효종 3)	11월 이윤택, 윤선거, 송시열 등이 돈암서원에서 강학(초대원장 송준길)
1657년(효종 8)	6월 충청감사 서필원徐必遠의 서원4폐 상소(鄕校衰退, 良丁冒占, 傷風敗俗, 官給祭需), 이에 대하여 이정영李正英과 민정중閔鼎重 등은 서원이 도학 진흥과 사자장수처士子藏修處라는 건립목적을 강조하고 사소한 폐단을 들어 서원을 훼손하라는 것은 '사문斯門을 망하게' 하는 처사라고 공박, 옹호론 우세
1659년(효종 10)	돈암서원이 '돈암遜巖'으로 사액
	윤 3월 한달에 8개 소 사액, 효종 대에 총 37개 소 건립, 11개 소 사액
1662년(현종 3)	지방 유림들의 청액소로 '필암筆巖'이라 사액
1664년(현종 5)	11월 도산·옥산·도동서원 등 문묘에 종사된 제현을 봉사하는 서원은 모입자를 그대로 두고 침범하지 못하게 함
1665년(현종 6)	1월 병산서원에서 상소 추진을 위한 소회疏會 개최를 통보
1669년(현종 10)	연산돈암서원묘정비連山遜巖書院廟廷碑 건립(송시열 찬)
1674년(현종 15)	현종 대에 총 69개 소 서원 건립, 42개 소 사액
1675년(숙종 1)	9월 오정위吳挺緯가 서원 사설과 보노保奴폐단을 들어 통제 요구
	남계서원에 정온鄭蘊을 배향
1680년(숙종 6)	『필암서원성책』 작성

1681년(숙종 7)	6월 김만중金萬重이 서원의 과다, 장수의 무실, 수령권 위협, 군거유담群居遊談 주식포탈酒食鋪餞 폐단을 들어 서원의 신설금지와 사액불허를 상소
1683년(숙종 9)	액외원생額外院生으로 서재생西齋生을 모집하여 예납전 징수 보임
1686년(숙종 12)	도둑맞았던 안향의 영정을 찾고, 처음으로 위패를 봉안하기로 함
1695년(숙종 21)	6월 박세채朴世采의 첩설불허, 유상운柳尙運·남구만南九萬의 사건서원 훼손, 지방관논죄, 첩설 처 사액금지 건의
1696년(숙종 26)	도내 유림 통문으로 청액소 올려(202명) ‘무성武城’으로 사액
1703년(숙종 29)	4월 민진원閔鎭遠과 민진후閔鎭厚가 서원사설 수창유생首唱儒生 정거停擧, 첩설 폐疊設弊와 청액請額 물봉勿奉 논의
1707년(숙종 33)	모입원생 정액 액내원생額內院生 규정 문묘종사서원 30명, 사액서원 20명, 미 사액서원 15명으로 규제
	사설 서원의 훼손과 원생에 대한 고강考講이 결정
1710년(숙종 36)	원생 수 확정. 원생은 사액서원에 20인, 문묘종사유현서원文廟從祀儒賢書院에 30인, 미사액서원에 15인으로 정액 됨
1713년(숙종 39)	7월 왕이 서원 첩설금지를 직접 하명[勅已受敕]. 사설의 경우 감사와 수령 파직, 수창유생 3년을 정거토록 함. 1703년 이후 사설처를 각 도 감사에게 조사하도록 함
	예조판서 민진후의 요청으로 첩설 엄금, 사액금지 결정
1714년(숙종 40)	평안도 사설서원 훼손
1717년(숙종 43)	8도의 관찰사에게 1703년 금령 후 창건된 서원에 대한 조사 명령
	김장생의 문묘 종향
1719년(숙종 45)	4월 1일 경상도 사설 서원의 훼손단행 - 숙종 사후 중단
1720년(숙종 46)	숙종 대에 총 340개 소 건립, 132개 소 사액
1722년(경종 2)	9월 5일 동부승지 이명언李明彦이 서원과 사묘의 무분별과 폐단 지적
1723년(경종 3)	이원익의 영정을 직방재에 봉안(소수서원)
1724년(경종 4)	4월 28일 경상암행어사 유수柳綬가 서원과 사묘가 혼동됨을 지적
	사액서원의 면세지를 3결로 확정, 민전民田을 점거하는 일이 없도록 규정(면세권 3결 한정). 경종 대에 총 28개 소 건립, 11개 소 사액
1727년(영조 3)	12월 11일 조진희趙鎭禧의 첩설처疊設處 사계요청査啓要請
1728년(영조 4)	6월 검토관 신치근申致謹이 서원제향인물의 당파적 성향 거론
1729년(영조 5)	6월 조현명趙顯命이 서원을 추당지소聚黨之所로 봄
1733년(영조 9)	12월 도산서원 치제(800여 명 참여)

1734년(영조 10)	겸재 정선이 『도산서원도陶山書院圖』를 그림
1738년(영조 14)	안동의 김상헌서원金尙憲書院의 건립문제로 노소론 대립
1741년(영조 17)	전국 서원·사우의 수가 1,000개 소에 육박, 군역폐, 관청경비 부담의 증가, 제향인물 시비를 둘러싼 폐단 발생 지적 7월 서원철폐 지시, 1714년(숙종 40) 이후 사건 서원·사우 훼손 하명(7월 4일부터 8월 26일 사이에 서원 19개 소, 사우·영당·생사당 등 154개 소 총 173개 소 훼손, 관련 지방관 100여 명 처벌)
1743년(영조 19)	도산서원에서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와 『송계원명리학통록宋季元明理學通錄』 간행
1744년~1752년	필암서원『노비보奴婢譜』 작성
1751년(영조 27)	강세황이 『도산서원도陶山書院圖』(보물 제522호)를 그림
1759년(영조 35)	『열읍원우사적列邑院宇事蹟』(편자미상, 필사본 10책)』 편찬, 1759년(영조 35)과 1763년 경 전국의 서원·사우·영당의 사적을 조사하여 보고한 것을 각 도 별로 합편
1775년(영조 41)	도산서원에 동광명실東光明室 건립
1776년(영조 52)	영조 대에 총 163개 소 건립, 15개 소 사액
1781년(정조 5)	12월 경상도 관찰사 조시준이 문중서원 남설과 추향문제 지적
1786년(정조 10)	사설 금지, 사액서원에 추배를 금함
1790년(정조 14)	『서원가고書院可攷』(저자 편자미상, 1책 56장)』 편찬
1792년(정조 16)	정조 치제, 도산별과陶山別科 시행(유생 7,000여 명 응시)
1793년(정조 17)	10월 예조정랑 이복휴의 서원 폐단 지적
1794년(정조 18)	미수 허목의 영정을 직방재에 봉안
1799년(정조 23)	번암 채제공의 영정을 직방재에 봉안 『조두록組豆錄』 편찬(2권 필사본, 총 649개 소 수록)
1800년(정조 24)	정조 대에 총 8개 소 서원 건립, 9개 소 사액 정광익鄭光翊이 서원의 사액을 청하는 상소를 올림
1808년(순조 8)	4월 원사院祠의 남설 경향과 장수의 효과가 없음을 지적
1823년(순조 23)	소수서원에 한음 이덕형의 영정을 봉안
1832년(순조 32)	영남 유생 이순발李洵發 주도의 1,250인이 연명 상소를 올림
1834년(순조 34)	3월 좌의정 심상규沈象奎가 서원 사설의 통제가 어려움 지적
1839년(헌종 5)	2월 경기어사 홍영규가 액외원생에 의한 서원 양역폐단 지적

1862년(철종 13)	5월 철종 1년 이후 신설(첩설, 사설) 미사액 서원 휘철(철향) 지시
1863년(철종 14)	교리 이계로李啓魯가 청액상소를 올려 '병산'으로 사액 받음
1864년(고종 1)	민폐문제로 서원·사우의 존폐여부 묘당논의
1868, 1870년	미사액서원과 사액서원으로 제향자의 후손에 의하여 주도되면서 민폐를 끼치는 서원에 대한 휘철을 명령
1871년(고종 8)	1인—人 1원—院의 원칙과 문묘종향 및 충절인을 제향하는 47개 소만 존치(서원 27개, 사우 20개 소)
1875년(고종 12)	『남계서원지』 간행
1881년(고종 18)	『돈암서원지』 간행
1884년(고종 21)	최성재崔成在 등에 의하여 『무성서원지』 간행
1904년	『주자서절요』 중간
1906년	무성서원 강회(병오창의), 창의토적소를 올림. 고운 최치원 영정 봉심
1917년	『도산금문제자록陶山及門諸子錄』 재간행
1929년	『무성서원지』 발간
1949년	『필암서원지』 간행(정춘원 서, 7권 1책)
1963년	소수서원 사적 제55호 지정
1967년	옥산서원 사적 제154호 지정
1968년	무성서원 사적 제166호 지정
1969년	도산서원 사적 제170호 지정
1975년	필암서원 사적 제242호 지정. 필암서원 문적일괄(14책 64매)이 보물 제584호 각각 지정. 『필암서원지』 석판본 간행(12권 4책본, 12권 3책본)
1978년	병산서원 사적 제260호 지정
1981년	소수서원 주세붕영정周世鵬影幀이 보물 제717호 지정
1993년	돈암서원 사적 제383호 지정
2007년	도동서원 사적 제488호 지정
2008년	돈암서원 응도당 보물 제1746호 지정
2009년	남계서원 사적 제499호 지정

# 시기별 · 지역별 서원 건립 현황

## 서원 · 사우의 시기별 건립, 사액 수 현황

시기	건립 수	사액 수
중종이전	13	1
중종(1506-1544)	1	—
인종(1545)	—	—
명종(1546-1567)	17	3
선조(1568-1608)	82	21
광해군(1609-1622)	38	15
인조(1623-1649)	55	5
효종(1650-1659)	37	10
현종(1660-1674)	72	44
숙종(1675-1720)	327	131
경종(1721-1724)	29	11
영조(1725-1776)	159	13
정조(1777-1800)	7	13
순조(1801-1834)	1	1
헌종(1835-1849)	1	0
철종(1850-1863)	1	1
고종(대원군 1864-1873)	1	1
연대미상	62	—
합계	903	270

\*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참조(『조두록俎豆錄』을 기초로 『서원등록書院謄錄』을 참고하여 보충하였음, 순조 대 이후로는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기재된 숫자임.)



# 지역별 건립 현황

## 분포 현황

지역	시기	중	명	선	광	인	효	현	숙	경	영	정	순	현	철	미	계	합
		종	종	조	해	조	종	종	종	종	조	조	조	종	종	상		계
경상	서원	2	10	25	12	11	10	14	76	2	6					5	173	324
	사우	4	1	3	3	9	2	6	61	5	46	2				9	151	
전라	서원	2	1	13	5	6	5	8	27	3	4	2				1	77	185
	사우			9	4	7	3	4	40	4	22	1				14	108	
충청	서원		1	7	6	5	2	8	27	3	1						60	118
	사우	2		3	1	1	1	3	25	2	14					6	58	
경기	서원		1	6	2	2	4	5	19		1		1				41	72
	사우	2				2		2	8		7	3		1		6	31	
황해	서원		1	8	1		3	2	5		1					1	22	52
	사우			1		1			8	1	16					3	30	
강원	서원		1		2	2	2	4	4		2						17	57
	사우					2	3	4	8	2	14					7	40	
평안	서원		2	3		1	1	4	6		1						18	65
	사우	4		4		2		1	15	4	17						47	
함경	서원		1	1	1	1		5	2		2						13	42
	사우			2	1		1	3	9	2	9				1	1	29	
계	서원	4	18	63	29	28	27	50	166	8	18	2	1			7	421	915
	사우	12	1	22	9	24	10	23	174	20	145	6		1	1	46	494	

## 지역별 사액 현황

분포 현황

지역 연대	경상	전라	충청	경기	황해	강원	평안	함경	계
전체건립수	324	185	118	72	52	57	65	42	915
사액 수	67	49	39	48	21	8	28	10	270
(서원)	56	32	33	38	17	4	13	7	200
(사우)	11	17	6	10	4	4	15	3	70
사액 비율	21%	26%	33%	67%	40%	14%	43%	24%	30%

## 서원 및 사액 분포도

서원 분포도



사액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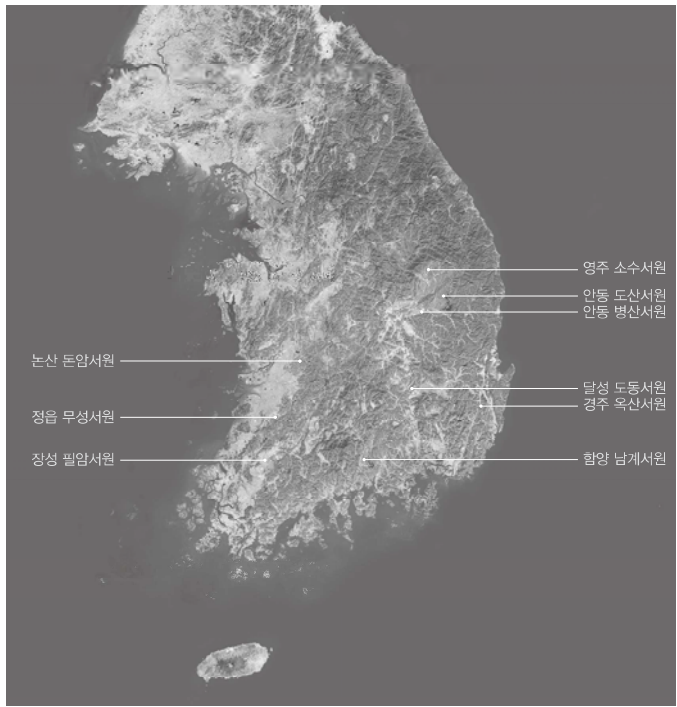
## 대원군의 서원철폐령 이후 남은 47개 서원

서원명	주향인	건립연도	사액연도	소재지	비고
崧陽書院	文忠公 鄭夢周	1573	1575	경기도 개성	고려 말 학자
龍淵書院	文翼公 李德馨	1691	1692	경기도 포천	조선 선조 정치가
江漢祠	文靖公 宋詩烈	1785	1785	경기도 여주	조선 숙종 학자
鷺江書院	忠烈公 朴泰輔	1695	1697	경기도 과천	조선 숙종 충신
牛渚書院	忠烈公 趙憲	1648	1675	경기도 김포	조선 선조 의사
坡山書院	文簡公 成渾	1568	1650	경기도 파주	조선 선조 학자
德峰書院	忠貞公 吳斗寅	1695	1700	경기도 양성	조선 숙종 충신
顯節祠	文正公 金尙憲	1688	1693	경기도 광주	조선 인조 충신
深谷書院	文正公 趙光祖	1650	1650	경기도 용인	조선 중종 정치가
四忠書院	忠獻公 金昌集	1725	1726	경기도 과천	조선 숙종 정치가
忠烈祠	文忠公 金尙容	1642	1658	경기도 강화	조선 인조 충신
紀功祠	壯烈公 權慄	1841	1841	경기도 고양	조선 선조 장군
遯巖書院	文元公 金長生	1634	1660	충청도 연산	조선 인조 학자
彰烈祠	文貞公 尹集	1717	1721	충청도 홍산	조선 인조 충신
表忠祠	文愍公 李鳳祥	1731	1736	충청도 청주	조선 영조 충신
魯江書院	文正公 尹煌	1675	1682	충청도 노성	조선 인조 학자
忠烈祠	忠愍公 林慶業	1697	1727	충청도 충주	조선 인조 충신
武城書院	文昌侯 崔致遠	1615	1696	전라도 태인	신라말 학자
筆巖書院	文正公 金麟厚	1590	1662	전라도 장성	조선 인조 학자
褒忠祠	忠烈公 高敬命	1601	1603	전라도 광주	조선 선조 의사
西岳書院	弘儒侯 薛聰	1561	1623	경상도 경주	신라 학자
紹修書院	文成公 安珣	1543	1550	경상도 순흥	고려말 학자
金烏書院	忠節公 吉再	1570	1575	경상도 선산	고려말 학자
道東書院	文敬公 金宏弼	1605	1607	경상도 현풍	조선 성종 학자
藍溪書院	文獻公 鄭汝昌	1552	1566	경상도 함양	조선 성종 학자
玉山書院	文元公 李彦迪	1573	1574	경상도 경주	조선 명종 학자
陶山書院	文純公 李煌	1574	1575	경상도 예안	조선 선조 학자
興巖書院	文正公 宋浚吉	1702	1705	경상도 상주	조선 효종 학자
玉洞書院	翼成公 黃喜	1714	1789	경상도 상주	조선 세종 정치가

서원명	주향인	건립연도	사액연도	소재지	비고
忠烈祠	忠烈公 宋象賢	1605	1624	경상도 동래	조선 선조 충신
屏山書院	文忠公 柳成龍	1613	1863	경상도 안동	조선 선조 학자
彰烈祠	文烈公 金千鎰	선조시	1607	경상도 진주	조선 선조 의사
忠烈祠	忠武公 李舜臣	1614	1723	경상도 고성	조선 선종 충신
褒忠祠	忠剛公 李述原	1738	1738	경상도 거창	조선 영조 충신
彰烈書院	忠正公 朴彭年	1685	1699	강원도 영월	조선 단종 충신
忠烈書院	忠烈公 洪命耆	1650	1652	강원도 김화	조선 인조 충신
褒忠祠	忠武公 金應河	1665	1668	강원도 철원	조선 광해군 충신
淸聖廟	淸惠侯 白夷	1691	1701	황해도 해주	중국 은말 충신
太師祠	壯節公 申崇謙	고려시	1796	황해도 평산	고려 태조 충신
文會書院	文成公 李珥	미상		황해도 배천	조선 선조 학자
鳳陽書院	文純公 朴世采	1695	1696	황해도 장연	조선 숙종 학자
老德書院	文忠公 李恒福	1627	1687	함경도 북청	조선 선조 정치가
三忠祠	武鄉侯 諸葛亮	1603	1668	평안도 영유	중국 촉 충신
武烈祠	尙書 石星	1593	1593	평안도 평양	중국 명 정치가
忠愍祠	忠壯公 南以興	1681	1682	평안도 안주	조선 인조 충신
表節祠	忠烈公 鄭蕃	순조시		평안도 정주	조선 순조 충신
酬忠祠	西山大師 休靜	미상	1784	평안도 영변	조선 선조 승려

# 사적지정 9개 서원 일람

## 분포위치도



## 배향인물

서원명	창건	사액	주향	배향인물
소수서원	1543	1550	안향安珦	안축, 안보, 주세붕
남계서원	1552	1566	정여창鄭汝昌	강익, 정온
옥산서원	1573	1574	이언적李彦迪	
도산서원	1574	1575	이황李滉	조목
필암서원	1590	1662	김인후金麟厚	양자징
도동서원	1605	1607	김광필金宏弼	정구
병산서원	1613	1863	류성룡柳成龍	류진
무성서원	1615	1696	최치원崔致遠	신잠, 정극인, 송세림, 정언충, 김약목, 김관
돈암서원	1634	1660	김장생金長生	김집, 송준길, 송시열



## 서원별 지정문화재

<b>영주 소수서원(榮州 紹修書院) : 사적 제525호</b>
안향 초상 : 국보 제111호 숙수사지 당간지주 : 보물 제59호 대성지성문선왕좌도 : 보물 제485호 주세붕 초상 : 보물 제717호 영주 소수서원 문성공묘 : 보물 제1402호 영주 소수서원 강학당 : 보물 제1403호 서충대친림연회도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38호 명종 어필 소수서원현판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30호 소수서원 소장 판목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31호
<b>함양 남계서원(咸陽 瀟溪書院) : 사적 제499호</b>
일두선생 문집책판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66호
<b>경주 옥산서원(慶州 玉山書院) : 사적 제154호</b>
경주 독락당 : 보물 제413호 여주이씨 옥산문중 전적 : 보물 제524호 삼국사기 : 보물 제552호 여주이씨 옥산문중 유묵 : 보물 제526호 이언적 수고본 일괄 : 보물 제586호 이언적 신도비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76호
<b>안동 도산서원(安東 陶山書院) : 사적 제170호</b>
안동 도산서원 전교당 : 보물 제210호 안동 도산서원 상덕사 및 삼문 : 보물 제211호 강세황필 도산서원도 : 보물 제522호 시사단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3호 전적류 : 1,271종 4,917권(성학십도, 계몽전의, 퇴계서초, 강희록, 선생수적, 사문수간, 삼경석의, 도산십이곡, 언행록, 자성록, 어제발문, 유묵 등) 문방구류 : 16종(서기, 매화등, 청려장, 매화연, 투호, 완석, 훈천의 등) 목판 : 37종 2,790(선조어필, 도산십이곡, 병서 등)
<b>장성 필암서원(長城 筆巖書院) : 사적 제242호</b>
필암서원 문적 일괄 : 보물 제587호 필암서원 하서선생 문집목판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15호 필암서원 하서 유묵 목판 일괄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16호
<b>달성 도동서원(達城 道東書院) : 사적 제488호</b>
달성 도동서원 중정당 · 사당 · 담장 : 보물 제350호

안동 병산서원(安東 屏山書院) : 사적 제260호
정읍 무성서원(井邑 武城書院) : 사적 제166호
논산 돈암서원(論山 遁岩書院) : 사적 제383호
논산 돈암서원 응도당 : 보물 제1569호
돈암서원 유경사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55호
돈암서원원정비 :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66호

서원 · 사우 문화재 지정총괄표(2012년 기준)

구분	국가지정	문화재 자료	시도 기념물	시도유형	시도 민속자료	비지정	계
서울						2	2
부산						1	1
대구	1	3	1			25	30
광주		1				4	5
인천							0
경기		4	3	5		19	31
강원				3		10	13
충북		1	3			22	26
충남	1	14	1	2		18	36
전북	1	21				86	108
전남	1	8	7			47	63
경북	4	15	12	5	1	155	192
경남	1	27		4		88	120
제주							0
대전		1					1
울산		1				8	9
합계	9	96	27	19	1	485	637

## 참고문헌

### 단행본

- 강경환 · 이해준 · 김덕현 · 이왕기 · 김영범,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 문화재청, 2011.
- 국가브랜드위원회 · 문화재청, 『한국 서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인류가 공유해야 할 교육 · 문화유산적 가치』, 서원국제학술대회자료집, 2011.
-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원향사』 - 소수서원 · 도산서원, 2011.
- \_\_\_\_\_, 『서원향사』 - 돈암서원 · 노강서원, 2012.
- \_\_\_\_\_, 『서원향사』 - 병산서원 · 옥산서원, 2012.
-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한중일 서원연구의 현황과 과제』, 국제학술세미나 자료집, 2006.
- \_\_\_\_\_,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속의 서원』, 국제학술세미나 자료집, 2009.
- 김봉렬, 『서원건축』, 대원사, 2006.
- 김은중, 『한국의 서원건축』, 문운당, 1994.
- 김지민, 『한국의 유교건축』, 발인, 1997.
- 류한승, 『병산서원』, 안동하회마을보존회, 2003.
-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 이상해, 『서원』, 열화당, 2002.
- \_\_\_\_\_, 『궁궐 유교건축(한국미의 재발견 12)』, 솔, 2004.
- 이수환, 『조선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2001.
- 이수환 편저, 『옥산서원지』, 민족문화연구자료 13, 영남대학교출판부, 1993.
- \_\_\_\_\_, 『도동서원지』, 민족문화연구자료 16, 영남대학교출판부, 1997.
- 이우성, 『도산서원』, 한길사, 2001.
- 이춘희, 『이조서원문고목록』, 국회도서관, 1969.
- 이태진, 『조선유교사회사론』, 지식산업사, 1989.
-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경인문화사, 2008.
- 이해준 · 김덕현 · 이왕기, 『서원 보존 · 정비 관리방안 연구보고서』, 문화재청, 2010.
- 이호일, 『조선의 서원』, 가람기획, 2006.
-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 정순목, 『한국서원교육제도연구』, 민족문화연구총서 3, 영남대출판부, 1979.
- 정순우, 『서원의 사회사』, 태학사, 2013.
- 최완기, 『한국의 서원』, 대원사, 1995.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향교와 서원기능의 현대적 활용방안』,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 논문

- 강상택, 「조선 중·후기 서원 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사관논총』 59, 국사편찬위원회, 1994.
- \_\_\_\_\_, 『조선후기 영남지역의 서원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_\_\_\_\_, 「조선후기 창녕지역의 서원과 역할」, 『부대사학』 19, 부산대학교사학회, 1995.
- 강주진, 「서원과 그 사회적 기능」, 『한국사론』 8, 국사편찬위원회, 1980.
- 고석규, 「조선 서원·사우에 대한 연구의 추이와 그 성격」, 『역사문화연구』 1,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1987.
- 고수연, 「18세기 초 호서지역 서원의 당파적 성격」, 『호서사학』 29, 호서사학회, 2000.
- 권오영, 「19세기 영남유림의 강회와 학술활동」, 『조선시대의 사상과 문화』, 집문당, 2003.
- 김경옥, 「조선후기 영암사족과 서원-전주최씨 가문의 성장과 녹동서원의 건립사례-」, 『호남문화연구』 20, 전남대호남문화연구소, 1991.
- 김남웅, 「서원건축의 계층적 질서에 관한 연구」, 『단국대논문집』 4, 단국대학교 대학원, 1980.
- 김덕현, 「한국서원의 입지와 경관에 대한 해석」,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
- 김동수, 「16-17세기 호남사림의 존재형태에 대한 일고-특히 정개청의 문인집단과 자산서원의 치폐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역사학연구』 7, 전남대학교 사학회, 1977.
- 김문택, 「16-17세기 나주지방의 사족동향과 서원향전」, 『청계사학』 11, 청계사학회, 1994.
- \_\_\_\_\_, 「17-18세기 영천지역의 사족동향과 임고서원」, 『조선시대의 사회와 문화』, 조선사회연구회, 1998.
- \_\_\_\_\_, 「호남지역 서원의 지역적 특성과 정치적 성격」, 『국학연구』 11, 한국국학진흥원, 2007.
- 김윤식, 「조선조 서원문고에 관한 일고찰」, 『서지학연구』 41, 서지학회, 2008.
- 김은중, 「서원건축의 배치유형 및 변천추이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6, 대한건축학회, 1991.
- \_\_\_\_\_, 『조선시대 사학건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김은중·주남철, 「조선시대 서원건축에 관한 연구 (1) (2)」,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4, 대한건축학회, 1985.
- 김의환, 「영주의 서원현황과 의산서원의 건립」, 『역사와 실학』 36, 역사실학회, 2008.
- 김재선, 「용산서원 연구」, 『영동문화』 6, 관동대학교, 1995.
- 김지민, 「전남지방의 서원·사우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2, 대한건축학회, 1991.
- \_\_\_\_\_, 「전남지방 서원·사우의 건축적 성격」, 『전남문화재』, 전라남도, 1992.
- 김학수, 「여강서원과 영남학통」, 『조선시대의 사회와 문화』, 조선사회연구회, 1998.

- \_\_\_\_\_, 「17세기초반 영천유림의 학맥과 장현광의 임고서원 제향논쟁」, 『조선시대사학보』 35, 조선시대사학회, 2005.
- \_\_\_\_\_, 「영남지역 서원의 정치사회적 성격」, 『국학연구』 11, 한국국학진흥원, 2007.
- 김형수, 「1738년(영조 14) 안동 학동서원의 치폐와 지방관의 역할」, 『영남학』 44, 경북대영남문화연구원, 2010.
- 김희춘, 「조선조 서원의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3-88, 대한건축학회, 1979.
- 남풍현, 「도산서원의 고문서에 대하여」, 『퇴계학연구』 16, 단국대학교출판부, 2002.
- 류홍렬, 「조선사료발생에 대한 일고찰」, 『진단학보』 5, 진단학회, 1936.
- 민병하, 「조선서원의 경제구조」, 『대동문화연구』 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68.
- \_\_\_\_\_, 「조선시대 서원정책고」, 『대동문화연구』 1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0.
- \_\_\_\_\_, 「서원의 농장」, 『한국사론』 8, 국사편찬위원회, 1980.
- 박 주, 「조선 숙종조의 사우 남설에 대한 고찰」, 『한국사론』 6,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0.
- 박종배, 「병산서원 교육 관계 자료 검토」, 『교육사학연구』 18, 교육사학회, 2008.
- \_\_\_\_\_, 「학규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의 서원 강회」, 『교육사학연구』 19, 교육사학회, 2009.
- \_\_\_\_\_, 「19세기 후반 무성서원의 강습례에 관한 일 고찰」,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
- 박진재, 『세계문화유산 제도의 전개 양상과 운영의 추이에 관한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박헌순, 「수원지역 서원의 건립주체와 제향 인물고」, 『수원문화사연구』 2, 수원문화원, 1998.
- 박현규, 「병산서원서책목록의 분석과 그 특징」, 『서지학보』 14, 한국서지학회, 1994.
- 배 성, 「숙종조 만동묘 건립논쟁에 관한 일연구」, 『청계사학』 15, 청계사학회, 2001.
- 배재홍, 「조선후기 삼척의 용산서원과 재지사족」, 『대구사학』 82, 대구사학회, 2006.
- 배현숙, 「소수서원 수장과 간행 서적고」, 『서지학연구』 31, 서지학회, 2005.
- 서흥석, 「충현서원 심원록 분석」, 『고고와 민속』 13, 한남대중앙박물관, 2010.
- 설석규, 「숙종 조 원우동향과 봉당의 사회적 기반」, 『국사관논총』 34, 국사편찬위원회, 1992.
- 손병규,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노비경영」, 『태동고전연구』 17, 태동고전연구소, 2000.
- \_\_\_\_\_,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속 파악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 35, 조선시대사학회, 2005.
- 송인협, 『옥천의 삼계 · 삼양서원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_\_\_\_\_, 「송현서원에 대한 연구」, 『대전문화』 6, 대전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 1997.
- \_\_\_\_\_, 「17~18세기 옥천지방 재지사족의 동향」, 『충남사학』 11, 충남사학회, 1999.
- \_\_\_\_\_, 「조선후기 서원에 대한 인식변화」, 『충남사학』 13, 충남사학회, 2001.
- 송정숙, 「소수서원 입원록 분석」, 『서지학연구』 34, 서지학회, 2006.
- \_\_\_\_\_, 「소수서원 입사록 연구」, 『서지학연구』 38, 서지학회, 2007.
- \_\_\_\_\_, 「18-19세기 소수서원의 원생 연구」, 『서지학연구』 41, 서지학회, 2008.
- 송정현, 「필암서원연구」, 『역사학연구』 10, 전남대학교 사학회, 1982.
- 송준식, 「남명학파의 서원건립 운동」, 『남명학연구』 15, 남명학연구소, 2003.
- 송찬식, 「조선후기의 교원생고」, 『국민대학교 논문집』 11, 국민대학교, 1976.
- 오영교, 「조선후기 칠봉서원의 건립과 배향인물」, 『운곡원친석연구논총』, 원주문화원 2001.
- 오항녕, 「조선후기 학술진흥과 학산서원」, 『인천학연구』 2, 인천학연구원, 2003.
- 우정임, 「퇴계 이황과 그의 문도들의 서적 간행과 서원의 기능」, 『지역과 역사』 22, 부경역사연구소, 2008.
- 원영환, 「강원지방의 서원연구」, 『강원문화사연구』 3, 강원향토문화연구회, 1998.
- 윤상기, 「경남 함안군의 서원판본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32, 서지학회, 2005.
- \_\_\_\_\_, 「경남 함안의 서원판본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44, 서지학회, 2009.
- \_\_\_\_\_, 「누판고」에 수록된 경남지역 서원 장관, 『서지학보』 38, 한국서지학회, 2011.
- \_\_\_\_\_, 「경남 산청의 서원판본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52, 서지학회, 2012.
- 윤희면, 「조선후기 서원의 경제기반」, 『동아연구』 2,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3.
- \_\_\_\_\_, 「조선후기 서원 전제론」, 『길현익교수정년기념 사학논총』, 길현익교수정년기념 사학논총 간행위원회, 1996.
- \_\_\_\_\_, 「고종 대 서원 철폐와 양반 유림의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10, 한국근현대사연구회 1999.
- \_\_\_\_\_, 「조선후기 서원의 제례와 위치」, 『진단학보』 90, 진단학회, 2000.
- \_\_\_\_\_, 「전라도 장성 필암서원의 정치사회적 기능」, 『전남사학』 17, 전남사학회, 2001.
- \_\_\_\_\_, 「조선후기 서원의 경제기반(Ⅱ)」, 『전남사학』 19, 전남사학회, 2002.
- \_\_\_\_\_, 「조선후기 서원 정책과 서원의 설립 실태」, 『역사학보』 181, 역사학회, 2004.
- \_\_\_\_\_, 「조선후기 소수서원의 교육 사례」, 『역사교육』 92, 역사교육연구회, 2004.
- \_\_\_\_\_, 「경상도 함양의 남계서원 연구」, 『남명학연구』 26, 남명학연구소, 2008.
- 이규대, 「강릉 오봉서원의 설립과 원임조직의 운영」, 『울곡사상연구』 20, 울곡학회, 2010.
- 이상해, 「도산서당과 도산서원에 반영된 퇴계의 서원 건축관」, 『퇴계학보』 110, 퇴계학연구원, 2001.
- 이수환,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민족문화논총』 2·3,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82.
- \_\_\_\_\_,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2)」, 『대구사학』 26, 대구사학회, 1984.

- \_\_\_\_\_, 「서원의 정치·사회사적 고찰」, 『교남사학』 창간호, 영남대학교 국사학회, 1985.
- \_\_\_\_\_, 「조선시대 서원의 내부구조」, 『교남사학』 2, 영남대학교 국사학회, 1986.
- \_\_\_\_\_, 『조선시대 서원의 인적구성과 경제적 기반』,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_\_\_\_\_, 「대원군의 원사 훼손과 영남유소」, 『교남사학』 6, 영남대학교 국사학회, 1994.
- \_\_\_\_\_, 「울산 구강서원의 설립과 사액과정」, 『대구사학』 49, 대구사학회, 1995.
- \_\_\_\_\_, 「18-19세기 경주 옥산서원 원임직 소통을 둘러싼 적서간의 향전」, 『고문서연구』 16·17, 한국고문서학회, 2000.
- \_\_\_\_\_, 「조선시대 서원의 경제적 기반」, 『한국중세사논총』, 이수건교수정년기념 논총 간행위원회, 2000.
- \_\_\_\_\_, 「도동서원의 인적구성과 경제적 기반」, 『사학연구』 60, 한국사학회, 2000.
- \_\_\_\_\_, 「영해 인산서원의 설립과 훼손」, 『대구사학』 63, 대구사학회, 2001.
- \_\_\_\_\_, 「영남서원의 자료 현황과 특징」, 『대구사학』 65, 대구사학회, 2001.
- \_\_\_\_\_, 「경주 구강서원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34, 조선시대사학회, 2005.
- \_\_\_\_\_, 「영남지역 퇴계문인의 서원건립과 교육활동」, 『국학연구』 18, 한국국학진흥원, 2011.
- \_\_\_\_\_, 「조선후기 안동향리 권회학 가문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봉강영당 건립」, 『대구사학』 106, 대구사학회, 2012.
- 이왕기, 「한국 유교건축의 ‘경의 공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5, 대한건축학회, 1986.
- 이재학, 「청주지역의 서원·사우」, 『실학사상연구』 19·20, 모악실학회, 2001.
- 이정우, 「17-18세기 공주지방 사족의 정치적 분쟁과 원사의 건립 성격」, 『민족문화』 22, 민족문화추진회, 1999.
- \_\_\_\_\_, 「17-18세기 재지 노·소론의 분쟁과 서원건립의 성격」, 『진단학보』 88, 진단학회, 1999.
- \_\_\_\_\_, 「17-18세기 초 청주지방 사족동향과 서원향전」, 『조선시대사학보』 11, 조선시대사학회, 1999.
- \_\_\_\_\_, 「19세기 논산지방 유림의 서원활동과 학계설치」, 『사학연구』 58, 한국사학회, 1999.
- \_\_\_\_\_, 「17-18세기 충주지방 서원과 사족의 당파적 성격」, 『한국사연구』 109, 한국사연구회, 2000.
- \_\_\_\_\_, 「조선시대 대전지방 충주박씨의 동향과 재지적 위상」, 『대전문화』 9, 대전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 2000.
-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서원 발달의 추이」, 『허선도선생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 일조각, 1992.
- \_\_\_\_\_, 「17-18세기 서원의 당파적 성격」, 『창해 박병국교수정년기념사학논총』, 창해 박병국교수정년기념 간행위원회, 1994.
- \_\_\_\_\_, 「조선후기 문중서원의 개념과 성격 문제」, 『한국중세사논총』, 한국중세사논총

- 기념 간행위원회, 2000.
- \_\_\_\_\_, 「조선후기 호서지역 사족동향과 서원」, 『한국서원과 학맥연구』, 경기대 소성학술원, 2002.
- \_\_\_\_\_, 「한국 서원과 향촌사회」, 『한국학논총』 29, 국민대한국학연구소, 2006.
- \_\_\_\_\_, 「호서지역 서원의 지역적 특성과 정치적 성격」, 『국학연구』 11, 한국국학진흥원, 2007.
- \_\_\_\_\_, 「노강서원 자료의 유형과 성격」,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
- 임호민, 「17개 강릉사족의 송담서원 건립과 율곡승무소 전개과정」, 『율곡사상연구』 18, 율곡학회, 2009.
- 장동표, 「조선후기 밀양 표충사의 연혁과 사우 이건 분쟁」, 『역사와 현실』 35, 한국역사연구회, 2000.
- \_\_\_\_\_, 「예림서원의 건립 중수와 김종직 추송 활동」, 『역사와 경계』 64, 부산경남사학회, 2007.
- 전용우, 「조선조 서원 · 사우에 대한 일고찰」, 『호서사학』 13, 호서사학회, 1985.
- \_\_\_\_\_, 「수암 권상하와 호서사림」, 『호서사학』 16, 호서사학회, 1988.
- \_\_\_\_\_, 「호서사림 형성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_\_\_\_\_, 「호서서원소고 (2)」, 『중산 정덕기박사화갑논총』, 중산 정덕기박사화갑논총기념 간행위원회, 1996.
- \_\_\_\_\_, 「호서서원소고 (3)」, 『역사와 역사교육』 304, 웅진사학회, 1999.
- \_\_\_\_\_, 「화양서원과 만동묘에 대한 일 연구」, 『호서사학』 18, 호서사학회, 1999.
- \_\_\_\_\_, 「16-17세기 충북지역의 사림과 서원」, 『충북학』 4, 충북학연구소, 2002.
- 전형택, 「조선후기 필암서원의 경제기반과 재정」, 『전남사학』 11, 전남사학회, 1997.
- 정기철, 「17세기 사림의 묘침제 인식과 서원영건」,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정만조, 「17-18세기의 서원 사우에 대한 시론」, 『한국사론』 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75.
- \_\_\_\_\_, 「조선서원의 성립과정」, 『한국사론』 8, 국사편찬위원회, 1980.
- \_\_\_\_\_, 「영조 14년의 안동 김상헌서원 건립시비」, 『한국학연구』 1, 동덕여자대학 한국학연구소, 1982.
- \_\_\_\_\_, 「조선후기의 대서원정책과 영조 17년의 사원훼철」, 『한국학논총』 9,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4.
- \_\_\_\_\_, 「조선조 서원의 정치 · 사회적 역할」, 『한국사학』 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 \_\_\_\_\_, 「퇴계학과의서원론」, 『남명학연구』 9, 남명학연구소, 2000.
- \_\_\_\_\_, 「조선시대 파주지역 사족과 서원활동」,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
- 정순우, 『18세기 서당연구』,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 정승모, 「서원 · 사우 및 향교조직과 지역사회체계」(상), 『태동고전연구』 3, 태동고전연구소, 1987.
- \_\_\_\_\_, 「서원 · 사우 및 향교조직과 지역사회체계」(하), 『태동고전연구』 5, 태동고전연구

- 구소, 1989.
- 정우락, 「일두 정여창의 학문과 문화공간으로서의 악양정과 남계서원」, 『남명학연구』 36, 남명학연구소, 2012.
- 정진영, 「예안 역동서원 연구」, 『안동문화연구』 3, 안동문화연구회, 1989.
- 정현정, 「조선중기 주자제향서원의 사회사적 성격」,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
- 조상순 · 이상해, 「필암서원의 건축적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7-2, 한국건축역사학회, 1998.
- 조준호, 「조선후기 석실서원의 위상과 학풍」, 『조선시대사학보』 11, 조선시대사학회, 1999.
- \_\_\_\_\_, 「송시열의 도봉서원 입향논쟁과 그 정치적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23, 조선시대사학회, 2002.
- \_\_\_\_\_, 「경기지역 서원의 정치적 성격」, 『국학연구』 11, 한국국학진흥원, 2007.
- \_\_\_\_\_, 「조선시대 정몽주 제향서원의 건립 추이와 성격」, 『포은학연구』 6, 포은학회, 2010.
- 최광만, 「19세기 서원 강화활동 사례 연구」, 『교육사학연구』 22, 교육사학회, 2012.
- 최근묵, 「우암 송시열의 문묘 및 서원종사」, 『백제연구』 15, 충남대백제연구소, 1985.
- \_\_\_\_\_, 『우암 송시열의 문묘 및 원 · 우 종사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 \_\_\_\_\_, 「동춘 송준길의 문묘종사와 서원향사」, 『충청학연구』 6, 한남대학교 충청학 연구센터, 2005.
- 최만봉, 「무성서원의 입지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2-4, 한국전통조경학회, 2004.
- 최완기, 「조선서원일고-성립과 발달을 중심으로-」, 『역사교육』 18, 역사교육연구회, 1975.
- \_\_\_\_\_, 「조선조 서원성립의 제문제」, 『한국사론』 8, 국사편찬위원회, 1980.
- 최원규, 「조선후기 서원전의 구조와 경영」, 『손보기박사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 지식산업사, 1988.
- 하현정 · 유인호, 「병산서원의 배치형태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1, 대한건축학회, 2003.
- 한예원, 「호남지역 서원의 교육활동」, 『유학연구』 22, 충남대 유학연구소, 2010.
- 한충희, 「조선후기 의흥현 양산서원 소고」, 『조선사연구』 20, 조선사연구회, 2011.

**발행** 한국서원연합회

**총괄** 이해준

**기획 및 편집** 박성진, 이경동, 박진재

**집필**

- 한국 서원의 발자취  
정만조(국민대학교 명예교수)
- 한국 서원과 천인합일 경관  
김덕현(경상대학교 교수)
- 한국의 서원 건축  
이상해(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 한국 서원과 교육활동  
정순우(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한국 성리학파 서원  
지두환(국민대학교 교수)
- 한국 서원의 제향의례  
정승모(전 지역문화연구소장), 이해준(공주대학교 교수), 최순권(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 한국 서원의 인적구성과 경제적 기반  
이수환(영남대학교 교수)
- 한국 서원의 지성사적 전통과 지역네트워크  
이해준(공주대학교 교수)
- 한국 서원의 장서와 출판문화  
목영정(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한국 현대 서원과 서원 현황  
박성진(한국서원연합회 이사), 최영갑(문화유산활용정책연구소장)

**사진 및 이미지 제공**

- 기관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민속박물관, 간송미술관, 소수박물관, 함양박물관, 옥산유물관, 한국국학진흥원, 한국고전번역원,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한국서원연합회,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
- 개인  
오종은, 이수환, 이해준, 박성진, 박진재, 최은경, 정신영, 김지섭

**한국 서원의 세계문화유산적 가치**

**한국의 서원문화**

초판 1쇄 2014년 3월 10일 • **지은이** 한국서원연합회 • **펴낸이** 김기창 • **펴낸곳** 도서출판 문사철

**편집기획** 김지섭 • **교정** · **교열** 임종수 • **디자인 기획 및 표지디자인** 정신영 • **본문디자인** 최은경 • **어시스트** 김미체

**주소** 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 93번지 두리빌딩 206호 • **전화** 02 741 7719 • **팩스** 0303 0300 7719

**홈페이지** www.lihiphi.com • **이메일** lihiphi@lihiphi.com • **출판등록** 제300-2008-40호

**ISBN** 978 89 93958 73 7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